농공
장학재단

20

2012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농공
장학재단
20년

2012. 9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발간사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김경욱**
(서울대학교 농공동창회 회장)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은 1990년 3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농공학과의 동창회였던 농공동창회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에게 적은 액수였지만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공장학재단은 이 장학금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농공동창회가 출연한 5천만 원을 기금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약 91억 원의 기금을 가진 큰 장학재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농공장학재단은 지난 22년간, 농공동창회가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약 14억 원의 장학금을 550여 명의 농공학 분야 학사 및 대학원 과정의 후배들에게 등록금 전액으로 또는 그 일부로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의 한 학과의 동문들이 이룩한 이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장학금 지원 사업과 장학재단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애써 키워주신 초대 이사장 이철주 교수님을 비롯한 역대 이사장님과 이사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47년에 설립된 농공학과는 1970년부터 농업토목 전공과 농업기계 전공을 두었고, 대학의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1997년부터 생물자원공학부의 농업토목 전공과 농업기계 전공으로 개편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농업토목 전공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의 지역시스템공학 전공으로, 농업기계 전공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의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으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공장학재단은 이러한 학사 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공학과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농공학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장학금 지급 규모도 많은 농공 동문들의 후원과 지원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농공학과 동문들의 기여와 후원이 있었습니다만, 성보실업주식회사 윤대섭 회장님의 헌신적인 기여와 관심이 없었다면 농공장학재단의 발전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윤대섭 회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 재학 시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으나, 당시 농공학과의 이창구 교수님께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졸업 후 개인 사업이 성공하면서, 학창 시절의 고마움을 잊지 못해 농공장학재단 설립을 지원하셨고, 농공학과 재학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발전시키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부한 95%에 이르는 장학재단의 기금은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윤 회장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이를 내색하거나 자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름을 내면 소액 기부자들이 민망해 한다고 하시면서 일체 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해 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공장학재단 20년사를 발간하면서 윤대섭 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농공장학재단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수많은 농공 동문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확히는 20년이 지났습니다만 늦게나마 농공장학재단 2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은 재단 설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많은 농공 동문들의 고난과 노력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농공장학재단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수한 후배들이 농공학 분야의 학문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농공장학재단 20년사 발간의 뜻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공학 분야의 후배들에게 길이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공장학재단 20년사 발간을 지원해 주신 역대 재단 이사장님, 이사님, 역대 동창회장님, 동창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기록과 자료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공장학재단 20년사 집필의 책임을 기꺼이 맡아주신 정하우 명예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머리말:
농공장학재단 장학사업을 정리하면서

편 집 위 원 장 **정하우**
(제19대 농공동창회 회장)

농공장학재단 설립 20년사의 정리하기를 2011년 3월에 제안을 받고 한동안 숙고를 거듭하였다. 이는 좀 더 글 솜씨도 있고 유능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께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사양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막상 농공장학 20년사를 시작하려고 생각하니 농공장학재단이 설립된 것은 1990년 3월이라 엄격히 말하면 20년이 지났고, 또한 농공장학사업은 1967년부터 시작되어 벌써 4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역대 농공동창회장들의 자문을 받아 출발하기로 하였고, 농공동창회의 장학사업과 농공장학재단의 역사를 함께 다루기로 하였다.

농공장학사업을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단계는 농공동창회가 주체가 되어 장학사업을 이끌어 가던 시기로 전체 농공동창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모금하던 일과 기금운영에 관한 것,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였고, 둘째 단계는 농공동창회의 산하기관인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이를 통한 독지가의 출연을 바탕으로 한 장학재단 기금의 확충과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둘째 단계에서는 장학재단의 기반을 다지는 약진기와 장학기금의 비약적인 증대에 따라 장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도약기로 분류하여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 사용된 자료는 농공동창회의 임원회와 확대임원회 그리고 정기총회의 회의록을 바탕으로 구성하였고, 금전출납부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장학기금 조성에 참여한 내역을 기록 · 보존하고자 노력하였다. 농공장학재단의 기록은 이사회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리하였다.

그래서 제1장은 장학사업의 전개와 과정을 정리하였고, 제2장은 장학금 수혜자들의 졸업 후 활동 영역과 학문적 성취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제3장은 장학기금의 조성과정과 장학생 명단 및 장학금 지급상황에 대한 자료를 기술하였고, 제4장은 장학기금 조성에 수고하셨던 임원들을 소개하였으며, 제5장은 농공동창회원님들의 여러 회고담과 장학금 수혜자의 회고담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록은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각종 자료를 정리하였다.

그동안 농공장학사업에 물신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모든 동창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1967년부터 1990년 3월까지 장학기금의 모금에 동참해 주신 농공인은 총 1,012명으로 1억여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5천만 원이 농공장학재단의 출범에 기본재산으로 출자되었다. 여기에는 농공동창회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기별간사님들의 수고와 회원님들의 정성의 산물이었다. 농공장학재단이 설립된 1990년 4월부터 2011년까지 장학사업에 참여하신 분은 총 67명으로 이분들의 특별출연을 통하여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농공장학재단의 기본재산액과 당해년 모금액을 합하여 91억여 원이란 기금을 확보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단일학과 동창회가 갖는 장학기금의 급속한 성장은 주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경이로운 사건이며, 농공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한편, 2011년까지 지난 44년 동안에 장학금 수령자는 총 657명이었으며, 농공장학재단 설립 이후의 장학금 수령자는 472명으로 학부과정 234명과 석사과정 195명 그리고 박사과정 4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농공학과를 되돌아보면, 1943년 4월에 수원고등농림학교에 농업토목과로 창설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패망으로 교육이 정상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 그 후에 대한민국의 수립과 1947년 4월에 서울대학교의 설립 그리고 6 · 25 전쟁으로 1953년까지는 대학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966년 1월에 농공학과 동창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동창회를 발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7년에는 모교의 학문과 후학들의 미래를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하려는 고귀한 사랑을 가슴에 품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요, 행복이요, 힘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 뜻을 쉼 없이 앞장서 추구하여 오신 고 이창구 교수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과 농공동창회 임원님들 및 농공장학재단 이사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장학기금을 쾌척해 주신 동창회원님들과 특히 거액인 89억여 원을 숨은 사랑으로 가족과 함께 출연해 주신 윤대섭 동창회원님의 숭고한 온정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 행사를 계기로 하여 농공학을 전공하는 전체 학생들이 농공장학재단의 장학금으로 수학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장학금 수혜자들이 주어진 학문의 발전적 도전과 성과로써 농공학의 미래의 이상과 기술을 개발하여 농촌사회를 풍요롭고 희망이 가득 넘치는 활기찬 에덴동산의 삶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 나아가 농공학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개선하도록 배려의 폭을 넓혀 나가는 데에도 활용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는다.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베풀어 주신 선배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특별하신 농공학에 대한 사랑과 후배들에 대한 열정을 높이 인식하고 오래오래 기리며 존경하고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끝으로 감격스러운 『농공장학재단 20년』을 편집하기 위해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신 전 · 현직 농공동창회 회장님과 농공장학재단 이사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회고담으로 격려와 감사를 주신 동창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여 많은 일을 처리해 주신 정종훈 재단의 상임이사님과 편집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궂은 일을 맡아 수고해 주신 양 전공 정은주와 정유연 조교님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축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이학래**

농공장학재단 20년을 기념하기 위한 발간사업에 농생대를 대신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은 선배들이 후배를 위해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보람 있는 선물입니다. 농공장학재단은 1966년 농공동창회를 모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하지만 해가 가면서 농공동문의 후배사랑도 커져 1990년에는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성장하면서 농공장학재단은 그 기금이 약 91억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농공장학재단은 서울대 단일학과 장학재단으로는 가장 큰 장학재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후배사랑재단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모교사랑재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까지 약 657명의 학생들이 11억 4,000만 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오늘도 농공분야 대학원생 전원과 학부생 30명 정도가 전액장학금 혜택을 받으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농공학과는 그 명칭이 지역시스템공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으로 변경되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농공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농공장학재단을 통해 전공분야에 더욱 애정을 갖게 해 주는 훌륭한 선배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크나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공 동문들의 전공 분야에 대한 사랑은 농공 분야가 지속 가능한 미래의 학문으로 성장하는 추진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공 동문들의 후배에 대한 애정은 농공 분야를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인재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공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우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농공장학기금은 1967년부터 2011년 말까지 농공동창회 회원 1,016명이 출연하였습니다. 출연해 주신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모두 고귀하고 소중하기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49학번이신 윤대섭 선배님께서 후배를 위해 특별히 큰 지원을 해 주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학번으로 보면 해방 직후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모두의 삶이 어려웠을 때 윤 선배님께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낼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마련해 준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치셨고, 오늘날 그 고마움을 후배들을 위한 거액의 장학금 출연으로 되돌려 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 윤 선배님을 도와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모르지만 그 고마움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후배 사랑으로 되돌려 주시는 큰 뜻에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생대는 이처럼 훌륭한 동문을 두어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동문을 둔 농공학과가 너무 부럽습니다.

어느덧 20년이 흘러 이제 농공장학재단도 성년이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재학 중에 농공장학재단의 도움으로 학업을 마친 동문이 다시 후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제2의 윤대섭 동문, 제3의 윤대섭 동문이 나올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로 후배사랑을 실천하는 제2의 농공장학재단, 제3의 농공장학재단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런 선후배 간의 사랑으로 농생대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농공장학재단 20년』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농공장학재단의 발전을 축원합니다.

『농공장학재단 20년』 간행을 축하드립니다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지역시스템공학 전공주임 **이인복**

선후배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시스템공학 전공주임 이인복입니다. 올해 2012년은 우리 서울대학교 농공동창회의 농공장학재단이 22회 생일을 맞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불타는 여름의 열정이 풍요로움을 선물하듯이, 오랜 시간 형설의 공을 갈고 닦은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위치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큰 나무에 나이테가 감기듯 올해에는 우리 농공장학재단이 22돌을 맞게 되었답니다.

1943년 수원고등농림학교 농업토목학과가 설립된 이래로 지난 약 70년 동안 농공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재양성과 학문연구에 앞장서 온 우리 모교는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해묵은 가난과 식량난을 극복하고 황폐했던 농촌을 발전시키는 업적을 또한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이는 모교에서의 노력만이 아니라, 동창 선후배님들 모두 자기가 선택하고 맡은 분야에서 모두 열심을 다하여 오시고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모교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1970년부터 농공학과는 농업토목전공과 농업기계전공이 분리되었고, 2005년부터는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지역시스템공학 전공과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의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으로 나누어지는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두 합심하여 1990년에 설립한 우리 농공동창회의 농공장학재단을 더욱 발전시키고 또 모교에 후학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더욱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타 학과들에서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농공장학재단이 든든하

게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러워들 하는지 모릅니다. 날로 든든해지는 장학금은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갈 정도로 모든 재학생들이 농공장학재단의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대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대학 등록금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서는 이를 더 구체화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로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최근의 상황은 이런 기본권이 박탈될 수 있을 정도로 대학 등록금의 부담은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릴 일은 우리 지역시스템공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재학생들은 국내에서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금전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공부 및 인성 개발에만 전념하면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이끌 역군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학생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부모님 그리고 이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저희 교수님들도 이러한 행복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농공장학재단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농공장학재단 20년』을 만드는데 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하우 명예교수님, 농공장학재단을 튼실히 키워 주시는 윤대섭 회장님과 많은 동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모교에 있는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 후학을 양성하고 또한 동문 선후배님들께서 닦아 놓은 명성과 경쟁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동문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농공장학재단 20년』 발간을 축하하며…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주임 **김용노**

요즘 제 주위에 있는 타 전공 또는 타 대학 교수들은 우리 전공과 지역시스템공학 전공을 부자 전공이라 부릅니다. 대학원생들은 전원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고 학부생들도 일정 성적 이상이 되면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들 장학생 대부분은 농공장학재단으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 학기 전공별로 약 1억 원 가까이 되는 장학금이 재단으로부터 지원됩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학이나 동창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다른 학과나 전공에서도 이러한 장학금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농공장학재단은 기금의 규모와 장학금 지급액에 있어서 이제 전공뿐만 아니라 대학 전체의 자랑거리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래 농공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간 농공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한 동문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후학들에게 기록으로 남기는 『농공장학재단 20년』의 발간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며 농공동창회 구성원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농공장학재단 20년』의 초본을 읽고 그간 이야기로만 전해 듣던 1966년 농공동창회의 출범과 1967년 농공동창회 장학 사업의 시작으로부터, 수많은 농공동문들의 모금, 특히 1985년부터 매년 꾸준히 거액의 기금을 기부한 윤대섭 동문의 헌신적인 노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68년 약 250,000원의 기금으로 최초 1명의 장학생 선발로부터 출발하여 2011년 약 91억 원의 기금과 연간

약 120여 명의 장학금 수혜자에 이르는 발전 과정을 보며 윤대섭 동문을 비롯한 수많은 동문들의 숨은 노력에 숙연한 감동이 차올랐고, 그간의 장학금 수혜자들과 이들의 농공학 각 분야에서의 활동 상황을 보면서 마치 우리나라 농공학의 발전사를 보는 듯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쉽게 가질 수 없는 이러한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교육과 연구에 더욱 전념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미래 농공학의 비전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은 이제 교수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농공장학재단 20년의 눈부신 발전에 부응하는 전공과 학문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며, 이것만이 그간 아무런 조건 없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단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는 신념으로 불철주야 정진하겠습니다. 농공장학재단의 고마움을 새롭게 일깨워준 『농공장학재단 20년』의 발간을 가슴 깊이 축하드립니다.

발간사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김경욱) • ii

머리말: 농공장학재단 장학사업을 정리하면서 (편집위원장 정하우) • iv

축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이학래) • vii

『농공장학재단 20년』 간행을 축하드립니다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이인복) • ix

『농공장학재단 20년』 발간을 축하하며…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 김용노) • xi

농공장학사업의 연혁 • xvi

역대 농공동창회 회장 및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 xx

제1장 농공장학 사업의 발자취

1. 농공동창회 장학사업의 태동기 • 2

2. 농공장학재단의 설립과 약진기(1990~2008) • 27

3. 농공장학재단의 도약기(2009~현재) • 55

제2장 농공장학금 수혜자의 현황과 활동

1. 농공장학생 수의 추이 • 64

1) 농공동창회 장학사업의 장학생 수의 추이 • 65

2) 농공장학재단 장학사업의 장학생 수의 추이 • 66

2. 농공장학생의 학위과정 분포 • 68
1) 농공장학생의 학위과정 • 68
2) 농업토목 전공의 장학생 학위과정 • 69
3) 농업기계 전공의 장학생 학위과정 • 70

3. 농공장학금 수혜자의 활동 상황 • 71
1) 농공학 분야의 장학금 수혜자 • 71
2) 농업토목 전공의 장학금 수혜자 • 72
3) 농업기계 전공의 장학금 수혜자 • 74

제3장 농공장학기금의 확충과 장학금의 지급 상황

1. 농공장학기금의 확충 • 78
1) 농공동창회의 농공장학기금 확충 과정 • 78
2) 농공장학재단의 장학기금 확충 과정 • 82
3) 농공장학재단 기본재산의 변동 추이 • 87
4) 농공장학기금의 기부자와 금액 • 88

2. 장학금 지급액의 추이 • 91
1) 대학등록금과 장학금 지급의 동향 • 91
2) 장학금 지급 추이 • 92

3. 농공장학금 수혜자 명단 및 지급 금액의 추이 • 97

제4장 역대 임원

1. 농공동창회의 역대 임원 • 102
2. 농공장학재단의 역대 임원 • 104
3. 농공장학재단의 역대 임원 임기 • 106

제5장 회고담

1. 농공동창회 임원과 회원 • 110
2. 특별대담 • 125
3. 장학금 수혜자 • 133

부록

1. 농공장학재단의 정관 및 각종 규정 • 182
2. 장학재단 설립 관련 서류 • 196
3. 장학생 명단과 지급액 • 212
4. 농공동창회 및 농공장학재단의 장학기금 모금 상황 • 221
5. 장학증서의 변천 • 245

농공장학사업의 연혁

1.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동창회

1966 1. 29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 동창회가 창립총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초대 동창회장으로 이창구 동문을 선출함.

1967. 2. 4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 동창회의 제2회 정기총회에서 장학금 1차 모금할 것을 의결함.

1967. 9. 9 농공학과동창회의 장학기금 제1차 모금액이 251,100원에 달함.

1968. 8. 농공학과동창회에서 제1차로 1명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1972. 3. 25 농공학과동창회에서 제2차로 장학기금 449,000원을 모금함.

1973. 1. 23 농공학과동창회에서 제3차로 장학기금 183,000원을 모금함.

1976. 9. 15 농공학과동창회에서 제4차로 장학기금 2,910,000원을 모금함.

1979. 2. 15 농공동창회에서 제5차 장학기금의 모금을 입학기별 전 회원 대상으로 배정금액(입학년도 1959년 이전: 3만 원, 1960년 이후: 2만 원)을 정하고, 기별간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금하기로 결정함.

1982. 12. 17 농공동창회 확대임원회의에서 출연자 명의 또는 단체 명의의 특별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1985년도부터 특별장학기금의 이자이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함.

1987. 10. 18 농공동창회 정기총회에서 1988년도부터 특별장학금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1989. 2. 10 농공동창회 확대임원회의에서 재단 설립 추진을 발의함.

1989. 10. 9 농공동창회 총회에서 재단 정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토의하고 추진위원을 의결함.

1989. 11. 9 재단 창립이사회에서 정관을 의결하고, 향후 2년간 재단사업계획서 및 재단설립취지문 작성과 신청서류 등을 검토함.

2.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1990. 1. 8 수원시교육청에 농공장학재단 재단법인 설립 신청서를 접수함.

1990. 3. 29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재단설립허가서를 취득함에 따라 이철주 농공동창회장 겸 농공장학재단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1990. 4. 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재단설립 등기부 등본을 취득함.

1990. 4. 17 수원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취득함.

1990. 8. 9 농공장학재단에서 2명에게 첫 장학금을 지급함.

1991. 3. 12 수원시교육청으로부터 농공장학재단의 정관 중 이사 정수를 9인에서 11명으로의 증원과 기본재산을 112,000,000원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을 허가받음.

1991. 3. 26 수원시교육청의 관서명칭이 경기도수원교육청으로 변경됨.

1992. 2. 24 경기도수원교육청으로부터 농공장학재단의 정관 중 이사 정수를 11인에서 13인으로의 증원과 기본재산을 137,000,000원으로 증액하는 정관의 변경을 허가받음.

1992. 3. 1 대학 명칭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변경됨.

1993. 3. 2 경기도수원교육청으로부터 이상호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1994. 5. 24 경기도수원교육청으로부터 농공장학재단의 정관 중 이사 정수를 13인에서 15인으로 증원하는 정관의 변경을 허가받음.

1994. 6. 2 경기도수원교육청으로부터 기본재산을 2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정관의 변경을 허가받음.

1995. 1. 24 경기도수원교육청으로부터 엄태영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1997. 3. 1 학부제 도입에 따라 농공학과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자원공학부 내에 농업토목 전공, 농업기계 전공, 천연섬유 전공, 임산가공 전공으로 전환됨.

1997. 6. 7 경기도수원교육청으로부터 유근학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4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1998. 12. 11 경기도수원교육청으로부터 농공장학재단의 정관 중 제1조 목적의 1항에서 "농업생명과학대학 내의 농공학을 전공하는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과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내에"로 바꾸는 정관의 변경을 허가받음.

1998. 12. 22 경기도수원교육청으로부터 홍승만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1999. 10. 8 농공동창회에서 제6차로 장학기금 9,550,000원을 모금하여 농공장학재단에 이관함.

2000. 11. 3 경기도수원교육청으로부터 조범호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2002. 12. 22 경기도수원교육청으로부터 정하우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2003. 9. 23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소재지가 서울시 관악구 신림 9동 산 56-1번지로 변경됨.

2004. 6. 23 농공장학재단의 관할 교육청이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으로 변경됨.

2004. 7. 2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으로부터 농공장학재단의 정관 제2조의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9동 산 56-1번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상록관으로 변경 허가를 받음.

2004. 8. 18 농공장학재단의 관할 세무서가 서울특별시 양천세무서로 변경됨.

2004. 12. 22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으로부터 허유만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8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2005. 3. 1 학부제 변경에 따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자원공학부는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지역지역시스템 전공, 생태조경학 전공)와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바이오소재공학 전공)으로 분리 전환됨.

2006. 12. 22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으로부터 권상필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9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2009. 3. 30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으로부터 박승우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10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2010. 9.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의거하여 관할 교육청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변경됨.

2011. 1. 6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김경욱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11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2011. 6. 1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농공장학재단의 정관 제1조 중 1항을 “농업생명과학대학 내의 농공학(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공학)을 전공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으로 그리고 2항을 “농공학(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의 연구활동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으로 정관의 변경을 허가받음.

역대 농공동창회 회장 및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1. 농공공동창회 회장(1966~1992)

이창구
제1~4대 농공동창회 회장
(1966. 1. 28~1974. 10. 9)

임영춘
제5대 농공동창회 회장
(1974. 10. 9~1976. 10. 9)

남영희
제6~7대 농공동창회 회장
(1976. 10. 9~1980. 10. 9)

고재군
제8대 농공동창회 회장
(1980. 10. 9~1982. 10. 9)

정진호
제9대 농공동창회 회장
(1982. 10. 9~1984. 10. 9)

윤오섭
제10대 농공동창회 회장
(1984. 10. 9~1986. 10. 9)

안재숙
제11대 농공동창회 회장
(1986. 10. 9~1988. 10. 9)

이철주
제12대 농공동창회 회장
(1988. 10. 9~1990. 10. 9)

이희영
제13대 농공동창회 회장
(1990. 10. 9~1992. 10. 3)

2. 농공장학재단 이사장(1990~2011)

이철주
제1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1990. 3. 29~1993. 3. 1)
제12대 농공동창회 회장
(1988. 10. 9~1990. 10. 9)

이상호
제2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1993. 3. 2~1995. 1. 23)
제14대 농공동창회 회장
(1992. 10. 3~1994. 10. 3)

엄태영
제3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1995. 1. 24~1997. 6. 6)
제15대 농공동창회 회장
(1994. 10. 3~1996. 10. 3)

유근학
제4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1997. 6. 7~1998. 12. 21)
제16대 농공동창회 회장
(1996. 10. 3~1998. 10. 3)

홍승만
제5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1998. 12. 22~2000. 11. 2)
제17대 농공동창회 회장
(1998. 10. 3~2000. 10. 3)

조범호
제6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2000. 11. 3~2002. 12. 21)
제18대 농공동창회 회장
(2000. 10. 3~2002. 10. 3)

정하우
제7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2002. 12. 22~2004. 12. 21)
제19대 농공동창회 회장
(2002. 10. 3~2004. 10. 3)

허유만
제8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2004. 12. 22~2006. 12. 21)
제20대 농공동창회 회장
(2004. 10. 3~2006. 9. 9)

권상필
제9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2006. 12. 22~2009. 3. 29)
제21대 농공동창회 회장
(2006. 9. 9~2008. 10. 11)

박승우
제10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2009. 3. 30~2011. 1. 5)
제22대 농공동창회 회장
(2008. 10. 11~2010. 10. 9)

김경욱
제11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2011. 1. 6~현재)
제23대 농공동창회 회장
(2010. 10. 9~현재)

제1장

농공장학 사업의 발자취

1. 농공동창회 장학사업의 태동기
2. 농공장학재단 장학사업의 설립과 약진기
3. 농공장학재단 장학사업의 도약기

20

1. 농공동창회 장학사업의 태동기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는 1943년 4월에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농업토목학과 설립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듬해인 1944년에 수원농림전문학교 농업토목학과로 학교 명칭이 변경되었다. 학과의 설립 배경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식량 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농지의 외연적 확대와 경지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홍수로 인한 농지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개량조합을 만들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함에 있었다. 그러나 일제 말기의 전쟁 상태에 있어 학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여 건국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고, 국가의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의 설립과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미군정 아래 산재해 있던 여러 전문학교를 모아 1946년 10월 22일 국립 서울대학교로 통합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농림전문학교의 농업토목학과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토목학과로 합류하였다. 그 후 농업토목학과는 미국 학제의 영향을 받아 1947년 4월 1일 농공학과로 개명되었다.

농공학과 장학사업의 기반은 농공동창회의 발족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는 수원고등농림학교 농업토목학과가 설립된 지 약 23년 후인 1966년 1월 29일, 서울시 중구 북창동에 있는 한국회관에서 재경 농공학과 동창들로 구성하는 농공학과 동창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01명의 동창들이 참가하여 성대한 모임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1967년 2월 4일 제2회 농공학과 동창회 모임에서 동창회 간사장인 이희영 동문이 농공학과 동창회가 모교 농공학과의 발전과 생활이 어렵고 학구열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해 주는 것이 농공학과 동창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다며 농공학과 동창회 장학기금 모금을 제안하였다. 이때 참석한 86명의 동창회원들이 흔쾌히 받아들여 연간 1인당 1,000원 이상으로 모금에 동참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징수와 집행에 관련한 사항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 이후 역대 농공학과 동창회 회장은 어떻게 하면 장학기금을 더 많이 모금하고 증액시

켜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농공학과 동창회의 중심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굳이 이유를 든다면 첫째는 모교의 농공학과 발전에 보탬을 주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선배님들이 지난날 학창시절에 자신들이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므로 우수한 학생들이 양성되어 사회로 나아가 자랑스러운 후배로서 농공학 기술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후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선배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애정 어린 숭고한 정신에서 출발하여 장학기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하여 선배님들에 대한 고마움에 깊이 감사해야 할 것이다.

농공동창회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태동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농공학과 동창회의 회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농공학과 동창회의 회계연도가 1966년 1월부터 1972년까지는 1월에서 12월이었고, 그 중에서 농공학과 동창회의 모임을 모교에서 갖고자 1973년 1월부터 1973년 9월까지를 한 회기로 조정하였으며, 그 이후 1973년 10월부터 1990년 9월까지는 회기가 그 해 10월부터 익년 9월까지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수록되는 자료는 서류상에 남아 있는 최초의 것을 견본으로 실었으며, 또한 장학기금 관련 사항 위주로 담고자 하였다.

초기 장학금 기금의 조성과정을 살펴보면, 1966년 1월 29일에 농공학과 학과장이신 이창구(수원고농, 1925) 교수께서 초대 농공학과 동창회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다음 해인 제2회 농공학과 동창회 정기총회(1967. 2. 4) 결의에 따라 시작된 장학기금 모금은 1967년 2월 25일 임원회의에서 장학기금 설립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이후 3차의 모임을 거쳐 제1차 장학기금의 징수 목표액을 537,500원으로 정하고 이희영 간사장이 주관하여 현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인 대한수리조합연합회에 근무하신 동문들 중심으로 징수하였으며 많은 회원이 모금에 참여하였다.

1967년 9월 9일에 이르러서는 251,100원의 장학기금을 모금하게 되었다. 이 금액 중 200,000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이의 이자이익금(월 2.5%의 이자율)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준비하게 하였다.

제3회 농공학과 동창회 정기총회(1968. 2. 3)에서 이창구 동창회 회장이 재신임을 받아 제2대 농공학과 동창회장에 추대되었다. 정기총회에서 장학기금 모금 및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장학회 급여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 받아 토의 후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장학기금의 모금액은 22,800원으로 누계로 모금된 총액은 273,900원이 되었다. 첫 장학금은 1968년 제2학기부터 장학생 1명을 선발하기로 하여 학사과정의 윤병호(4)[1]에게 15,000

1 장학생 이름 뒤의 ( ) 안 숫자는 학년을 나타낸 것이다.

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4회 농공학과 동창회 정기총회(1969. 2. 8)에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과 지급 후의 성과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회원의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상임간사는 장학기금의 모금은 2년 전부터 실시해 왔으며,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임원회 결의에 의해 1968년부터 지급하되 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과 초창기이므로 성과는 뚜렷한 점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다.

1969년 들어 1년간(1969. 2. 8~1970. 1. 23)의 장학기금으로 모금된 누계 총액은 359,800원이었다. 1969년도의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66학번 이재영(4)과 김철중(3)에게 각각 15,000원씩 합계 30,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고, 제2학기에 같은 학생들에게 각각 15,000원씩 합계 30,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제5회 농공학과 동창회 정기총회(1970. 1. 24)에서 이창구 동창회 회장이 제3대 농공학과 동창회장에 3선으로 선임되었다. 정기총회에서의 사업보고는 장학금 지급 내역 사항, 장학생 추천사항, 장학기금 모금과 처리사항 및 총회 결산 사항으로 이루어졌지만 장학사업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동창회원의 친목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창회원의 연회비를 500원씩 갹출하기로 정기총회에서 가결하였다. 그리고 동창회 회장이신 이창구 교수께서 모교에서 정년퇴임식을 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대책을 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위임하였다.

1970년 들어 1년간(1970. 1. 24~1971. 1. 22)의 장학기금 모금액은 62,100원이었고, 장학기금으로 모금된 누계 총액은 421,900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1970년 2월까지 졸업한 동창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펼쳤던 결과이다. 모금에 참여하신 동문이 243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370,000원의 적금으로 이자수익금(월 이자: 8,510원)을 포함하여 농공학과 동창회의 총수입금 593,275원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일반경비를 제한 501,775원을 장학기금으로 이월하였다. 장학기금 모금에 참여하신 분들과 개별 모금액의 내역은 부록 표 4-1과 같다.

1970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김철중(4)과 권희교(3)에게 각각 20,000원씩 합계 40,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고, 제2학기에는 같은 학생에게 각각 22,000원씩 합계 44,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제6회 농공학과 동창회 정기총회(1971. 1. 23) 시에는 지난 1년간(1971. 1. 23~1972. 3. 24) 제1, 2차 장학기금 모금액 421,900원과 이자수익금(월 이자: 8,510원)을 포함하여 농공학과 동창회의 총수입금 579,454원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일반경비를 제한 478,854원을 장학기금으로 이월하였다.

1971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오병환(3)과 윤재호(3)에게 각각 23,000원씩 합계 46,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고, 제2학기에는 유철근(4)과 윤재호(3)에게 각각 27,000원씩 합계 54,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제7회 농공학과 동창회 정기총회(1972. 3. 25)에서 이창구 동창회 회장이 제4대 농공학과 동창회장으로 4선 선임되었다. 새 임기를 시작하면서 장학기금 모금을 위해 제1, 2차에 배정하였던 것에 추가로 모교 농공학과 교수님들을 포함해 1972년 2월까지 졸업하신 동문들까지 대상으로 제3차 장학기금 모금액을 재배정하기로 하였다. 장학기금 모금 목표 총액은 2,098,700원으로 정하였다.

1972년 들어 제3차 장학기금 모금(1972. 3. 25~1973. 1. 22)을 위한 배정에서는 제2차 모금 때 참여하신 동문들을 제외하고 추가로 배정된 모금에도 참여하신 동문은 182명에 이르렀으며, 모금된 총액은 447,000원이었다. 모금에 참여하신 분들과 개인 모금액의 내역은 부록 표 4-2와 같다. 제1~3차에 걸친 장학기금 모금 총액은 870,900원이었다. 이 중 은행에 750,000원을 신탁했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예치했다. 당시로써는 큰 모금액이었다. 1972년도 농공학과 동창회의 결산은 1971년도까지 모금된 장학기금에 1972년도 모금액과 기타 이자이익금인 538,530원을 합한 총수입액 1,006,530원에서 장학금과 일반경비를 제하고 남은 860,070원을 장학기금으로 이월하였다.

1972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윤재호(4)와 김동환(3)에게 각각 34,000원씩 합계 68,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고, 제2학기에는 같은 학생들에게 각각 33,900원씩 합계 67,8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제8회 농공학과 동창회 정기총회(1973. 1. 23)에서는 동창회 회원의 명예회원제도 도입 논의와 농업교육학과의 농공학 전공자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회칙을 개정했다. 이러한 것은 당시 농과대학 내의 타 동창회가 갖지 못한 파격적인 것이었다. 또한 모교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농공의 날(10월 9일)' 행사와 연계하여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의 만남과 동시에 모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발전상황을 직접 돌아보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공학과 동창회를 매년 10월 9일(한글날) 모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서류에 남아 있는 자료에서 보면 장학금 수혜자의 신청서류에는 성적증명서와 등록금에 관련한 납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그림 1-1 참조).

1973년 들어 장학기금(1973. 1. 23~1973. 10. 9) 모금액은 183,000원이었다. 이 기간은 농공학과 동창회가 정기총회를 1월에서 10월로 바꾸면서 짧은 기간이라 기록이 간략하게 넘어갔다. 장학기금의 총액은 1,043,070원으로 추정된다. 장학기금 출연자의 명단과 모금액은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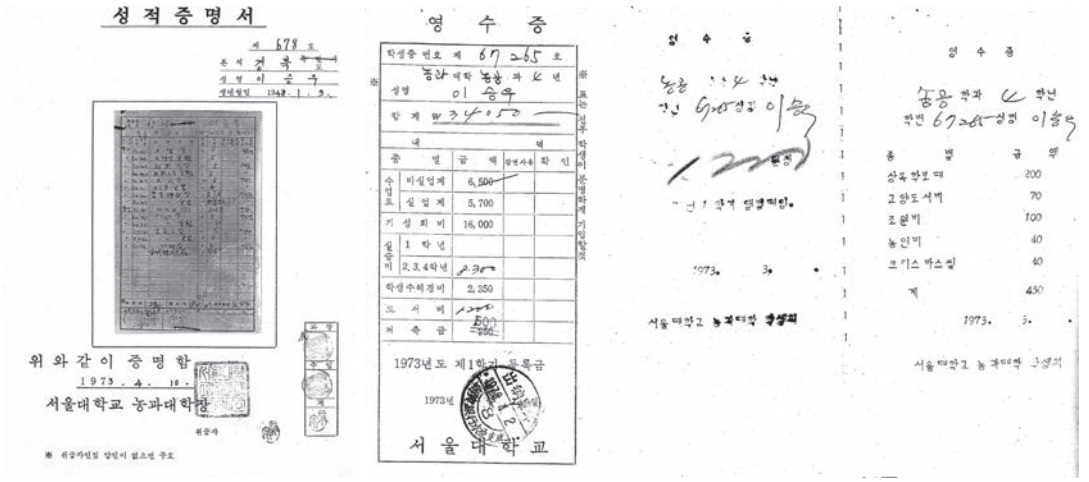


그림 1-1 장학생의 장학금 신청서류(성적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및 영수증)

표 4-3에 수록되어 있다.

1973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농업토목 전공 이승우(4) 그리고 농업기계 전공 이정원(4)에게 각각 35,700원씩 합계 71,4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고, 제2학기 장학생은 농업토목 전공 이승우(4) 그리고 농업기계 전공 이정원(4)에게 각각 30,000원씩 합계 60,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는 1970년부터 농공학과가 2개 전공인 농업토목 전공과 농업기계 전공으로 분리되어 입학하였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도 전공별로 각각 1명씩 지급하여 총 2명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제9회 농공학과 동창회 정기총회(1973. 10. 9)는 처음으로 수원 모교 교정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1월 23일에 가졌던 정기총회 후 약 9개월이 지난 것이었다. 총회 시에는 모교 농공학과장이 모교와 농공학과의 근황 보고를 하였고, 장학금 수혜자들이 동창회 총회에 나와서 선배들에게 고마움을 인사로 표하는 행사를 가졌다. 정기총회 후 각 연구실과 실험실을 공개하고 학생 활동상황 전시물을 소개하였으며, 졸업생 90명과 재학생 60명이 참여하여 재학생들이 젊은 선배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축구를 통해 우의를 다졌다. 나이 많으신 선배들과는 넓은 잔디밭에서 가벼운 경기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어지는 여흥으로 특별한 동창애를 쌓아가는 뜻 깊은 행사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선후배 사이에 더욱 돈독한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1974년도 제1차 임원회의(1974. 2. 21)에서는 제9회 농공학과 동창회(1973. 10. 9)의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1974년도 장학생 수를 2명으로 하고 각각 35,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장학기금 목표액을 100만 원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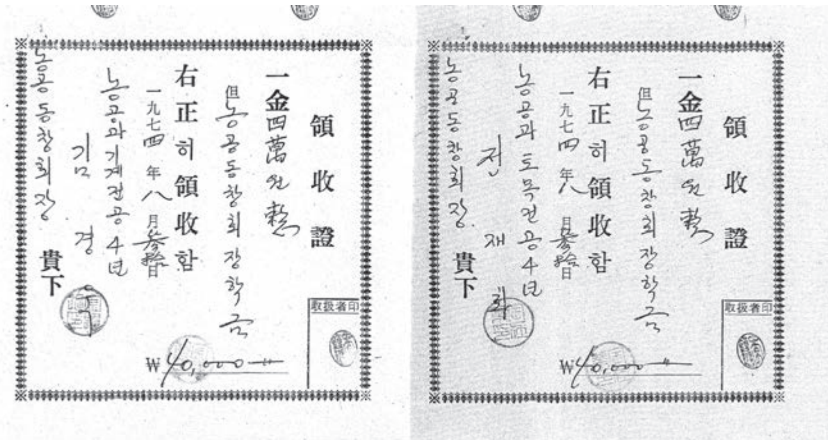
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액 부담이 가능한 동창의 명단을 작성하여 연락 또는 순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장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근거를 그림 1-2와 같이 영수증을 농공학과 동창회 회장에게 제출하게 했다.

1974년 장학기금 모금액은 69,000원이었으며, 모금에 동참하신 분의 명단과 출연 내역은 부록 표 4-4와 같다. 장학기금의 이월금, 모금액과 이자이익금의 총수입에서 장학금과 일반지출금을 제하고 이를 장학기금으로 1,045,034원을 이월하였다.

1974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전재화(4)와 농업기계 전공 김경욱(4)에게 각각 35,000원씩 합계 70,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고, 제2학기 장학생은 같은 학생에게 각각 40,000원씩 합계 80,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1974년 10월 9일까지 이창구 동창회 회장이 재임 8년 9개월간의 활약으로 농공학과 동창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동창회 운영체계도 제도화되어 장학기금과 동창회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게 되었다. 또한 농공학과 후학들의 교육 여건과 농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농공학과 동창회 장학기금을 확충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창구 동창회 회장의 재임기간 동안에 총 13개 학기에 걸쳐 총 25명에게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큰 업적을 남겼으며, 장학기금 총액은 1,045,034원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장학기금 모금액이 1백만 원대를 돌파하여 거액으로 출발하는 첫 계기가 되었다.

제10회 농공학과 동창회 정기총회(1974. 10. 9)에서 임영춘(농대 전문부, 1945) 동문이 제5대 농공학과 동창회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임 회장은 농업진흥공사에서도 동창회원들에 대한 사랑이 특별하기로 소문난 분이었다. 농업진흥공사의 이사로서 기관의 동창회원들을 대표하여 농공동창회 창립 시부터 부회장을 역임하였으므로 농공동창회와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한


領收證
一金四萬원整
但 농공동창회 장학금
右正히領收함
一九七四年八月 日
농공과 기계전공 4년
김 경
농공동창회장 貴下
取扱者印
W40,000-

領收證
一金四萬원整
但 농공동창회 장학금
右正히領收함
一九七四年八月 日
농공과 토목전공 4년
전 재 화
농공동창회장 貴下
取扱者印
W40,000-

그림 1-2 장학금 수령자의 영수증(2학기)

모금운동을 앞장서서 추진하였다. 임 회장은 모금 방식으로 주요기관의 상위 직책(중앙관서: 계장급 이상, 농진공: 과장급 이상,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에 있는 동문들과 기업의 상위 직책에 종사하는 동문들 및 재력 있는 동문들에게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여 모금에 힘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장학기금을 정기적금 방식을 변경하여 3%의 높은 이자를 받는 대출과 어음 구입으로 전환하여 기금 확충을 시도했다. 그래서 대출 및 어음이자로 446,596원의 수입을 가져왔다. 여기에는 극동건설(주) 이사인 이재기(농대, 1953) 동문이 적극 협력하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선이자를 받고 빌려 주는 방식으로 장학기금을 확충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동문들은 동창회 장학기금의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대출해 갔을 뿐만 아니라 동창회의 기금 확충에 즐겁게 참여하였다. 또한 1974년부터 동창회원 중에서 박사학위와 기술사를 취득한 동문에게 축하패를 수여하기 시작하였는바, 축하패를 받은 동문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성금으로 350,000원을 동창회에 보답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축하패를 받은 동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창회에 성금을 내는 관례가 되었다.

1975년에 들어서면서 동창회장은 뜻있는 동창들에게 장학기금 모금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10개월 동안 1,987,500원의 거금을 모금하였다. 그 결과 장학기금 총액이 3,638,168원(1975. 10. 10)에 이르렀다.

1975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고홍석(4)과 농업기계 전공 이대연(4)으로 각각 68,850원씩 합계 137,7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고, 제2학기 장학생은 같은 학생에게 각각 75,000원씩 합계 150,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농과대학 각종 장학금 현황 (農科大学 各種 奬学金 現況)

No.	名称	年間支給額	備考
1	운경장학재단	300,000원	
2	주만장학회	250,000	
3	삼화협동장학재단	250,000	
4	5.16 장학회	200,000	
5	한국장학재단	200,000	
6	동아문화재단	200,000	
7	양영회	160,000	<農工同窓會 奬学金> 1975年度 年間 143,850원
8	3.1 장학회	100,000	
9	인촌 장학회	100,000	
10	의천장학재단	100,000	
11	양현재장학회	100,000	
12	기성회비·수업료면제	90,000	
13	기성회비면제	56,000	
14	수업료 면제	40,000	

그림 1–3 농과대학에서 수령한 수혜장학금 비교

제11회 농공학과 동창회 정기총회(1975. 10. 19)에서 동창회 임원진은 동창회 장학기금을 5,000,000원 이상으로 확충하도록 결정하고, 장학생도 3명으로 증원하는 더욱 의욕적인 신년도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당시 조사에 의하면 수업료 및 기성회비가 9만 원이었고, 농과대학에서 외부의 12개 장학재단 및 장학회로부터 받고 있는 장학금액이 30만 원에서 10만 원의 범위였는데 농공학과 동창회 장학금의 지급액은 143,850원으로 전체 순위에

서 8위에 해당하였다(그림 1-3 참조). 그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액은 290,000원이었다.

1976년도 들어 제4차 장학기금 모금은 더욱 활발해져 7개 농대 교수 동문으로부터 356,000원과 농업진흥공사에서 376,500원을 모금하였다. 2년간 각 주요 기관별 장학기금 모금 현황(1976. 9. 15)은 표 1-1과 같으며, 개인별 모금 현황은 부록 표 4-5-1에 수록하였다. 장학기금의 이자수입은 1,580,863원이었으며, 이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장학기금으로 편입하여 장학기금의 총액이 5,522,441원(1976. 9. 15)에 이르렀다.

임영춘 동창회 회장은 재임 2년 동안 헌신적인 노력으로 장학기금의 확충과 농공학과 동창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장학기금 총액을 5백만 원대로 끌어 올리는 큰 걸음의 두 번째 발을 옮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76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3명으로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박한기(4)와 농업기계

표 1-1 제4차 장학기금 모금 현황(1976. 9. 15)

부 처	배정금액	납입금액	실 적(%)
서울대 농대	360,000	340,000	95.5
전북대 농대	50,000	30,000	60.0
서울산업대 농대	80,000	60,000	75.0
충북대 농대	170,000	40,000	23.5
경북대 농대	90,000	25,000	27.8
경상대 농대	110,000	110,000	100.0
건국대 농대	160,000	60,000	37.5
농수산부	310,000	90,000	29.0
건설부	260,000	200,000	76.9
농촌진흥청	170,000	20,000	11.8
농업진흥공사	1,850,000	1,720,000	92.9
건설업계	470,000	50,000	10.6
실 업 계	510,000	30,000	5.9
용역회사	400,000	50,000	12.5
기 타	560,000	85,000	15.2
합 계	5,570,000	2,910,000	

주: 배정받은 기관 중에서 당시에 납입한 기관만 수록됨.

전공 김상헌(4)에게 각각 85,300원씩을 지급했으며, 석사과정의 농업기계 전공 박경규(1)에게 85,300원을 지급해 합계는 255,9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제2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같은 학생에게 각각 85,300원씩을 지급했으며, 석사과정의 농업기계 전공 박경규(1)에게 84,600원을 지급해 합계 255,2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제12회 농공학과 동창회 정기총회(1976. 10. 1)에서 남영희(수원고농, 1927) 동문이 제6대 농공학과 동창회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남 회장은 농공학과 동창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창회 뉴스레터의 발간과 농공학과 동창회 회원 주소록을 수첩으로 별도 제작 · 보급하여 동창회가 회원들에게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농공학과 동창회 기금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에 빌려 주는 방식에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안전을 바탕으로 한 동창회 기금운용을, 이율은 낮지만 한전 주식을 구매하여 관리하는 것과 동창회의 운영기금과 장학기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회장단 회의에서 제시하여 관리방안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당시 농공학과 동창회는 동창회 운영기금과 장학기금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결정 이후 농공학과 동창회 기금은 한 통장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1977년도 들어 농공동창회 기금으로 모금한 460,000원과 이자이익금 1,100,237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장학금과 동창회 일반 지출금액을 뺀 6,007,616원을 농공학과 동창회 기금으로 이월하게 되었다.

1977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권진봉(4)과 박광수(4) 그리고 농업기계 전공 남상일(4)과 이원남(4)에게 각각 93,500원씩 합계 374,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고, 제2학기 장학생은 같은 학생에게 각각 93,500원씩 합계 374,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제13회 농공학과 동창회 정기총회(1977. 10. 9)에서 농공동창회의 기금을 추가로 2백만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1978년 들어서 동창회 임원진은 배정한 모금액의 조속한 성취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금 모금 실적은 510,000원이었고, 이월금과 주식배당금 510,987원과 이자이익금 759,098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장학금과 동창회 일반 지출금액을 제한 6,748,236원을 농공학과 동창회 기금으로 이월했다.

1978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윤치욱(4)과 이종식(4) 그리고 농업기계 전공 김석진(4)과 전찬영(4)에게 각각 101,400원씩 합계 405,6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고, 제2학기 장학생은 같은 학생들에게 각각 101,400원씩 합계 405,6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제14회 농공학과 동창회 정기총회(1978. 10. 10)에서 남영희 회장이 제7대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재선되었다. 이날 총회에서 동창회의 사업으로 기금 확대를 위해 3백만 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칙 개정을 통하여 '농공학과 동창회'를 지난 1974년부터 '농공동창회'라고 총회 자료에서 혼용해 오던 것을 공식적으로 '농공동창회'라는 명칭으로 개정하였다. 특별한 것은 1978년도 정기총회부터 농공학과 학생으로 입학 20년을 맞이하는 단위(58학번) 졸업생들이 정기총회 이후의 2부 순서인 농공동창회 여흥을 처음으로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임원회의(1978. 12. 1)에서 농공동창회의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1979년도 임원회의(1979. 1. 31)에서 논의된 내용을 확대임원회의(1979. 2. 15)에서 확정하였다. 즉 장학생 수를 4명으로 증대시키는 것, 기금 목표액을 1천만 원으로 확대할 것과 기금의 대출이자율을 연 30% 이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금 확대를 위해 모금 방식도 변경하였다. 기존 모금 방식은 주요기관의 기업의 상위 직책에 있는 동문들 및 재력 있는 특정 동문들에게 부과하는 방식을 취해 왔으나 이를 탈피하고, 회원 동참의 개념으로 전체 회원들이 농공학과 동창회비를 평생에 한 번만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59학번 이전: 3만 원, 60학번 이후: 2만 원)으로 전환하여 각 기별간사를 통해서 모금하기로 결정하였다. 단, 농공동창회의 기금으로 이미 납입한 자는 배정된 금액의 차액만을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총회 시의 찬조금은 회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예외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금 모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기별 간사와 직장별 간사를 보강하고 각 간사들로 하여금 배정된 모금액을 독려하도록 체제를 갖추어 기금 모금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는 모금을 위해 흩어져 있던 각 동기들의 주소가 정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 간의 상호 연락이 활발하게 되어 기별 모임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때부터 모교의 학과 교수들은 매년 동창회 총회 시마다 각각 10만 원씩 찬조금을 내게 되었고, 동창들도 많은 참여를 해 주었다.

1979년 9월에 이르러서는 기금 모금액이 1,590,000원이었고, 이월금, 졸업생 입회금(1인당 5천 원)으로 255,000원을, 주식배당금으로 660,024원을, 이자이익금으로 472,426원(대출이자율 연 30%)을, 기타(특별찬조금)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장학금과 동창회 일반 지출금액을 뺀 8,323,701원을 농공동창회 기금으로 이월하였다.

1979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안치일(4)과 이봉영(4) 그리고 농업기계 전공 이종갑(4)과 장광윤(4)에게 각각 108,200원씩 합계 432,8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고, 제2학기 장학생은 같은 학생들에게 각각 108,200원씩 합계 432,8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제15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79. 10. 9)에서 동창회 기금 목표액을 1천5백만 원으로 정

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1980년 9월에 이르러서는 기금 모금이 2,567,000원에 이르렀고, 이월금과 주식배당금으로 660,024원, 이자이익금으로 1,647,750원, 기타(졸업생 입회금, 특별찬조금)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장학금과 동창회 일반 지출금액을 뺀 12,256,228원(2학기 등록금 제외)을 농공동창회 기금으로 이월하게 되었다. 비록 목표액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농공동창회 기금 총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세 번째 발걸음을 옮겨 놓게 되었다.

1980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근원(4)과 이용직(4) 그리고 농업기계 전공 문성채(4)와 이중용(4)에게 각각 132,750원씩 합계 531,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고, 제2학기 장학생은 같은 학생들에게 각각 138,750원씩 합계 555,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제16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80. 10. 9)에서 고재군(농대, 1951) 모교 교수가 제8대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이날 총회에서 농공동창회 기금 목표액을 1천8백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였고, 회칙 개정에 있어서 특별한 것은 농공학과 대학원생을 준회원으로 인정하는 것과 정회원이 아닌 현직 및 재직하였던 교수를 명예회원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고 회장은 첫 임원회의(1980. 11. 1)에서 지금까지 한전 주식으로 일부 관리하던 동창회 기금을 회수하여 임원들이 책임지고 이식을 증식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기금의 미수금을 기별 간사를 통하여 적극 모금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학금 수혜자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기로 결정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1981년도 제1차 확대임원회(1981. 2. 4)에서는 각 도 단위의 지회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금 미수금을 각 기별로 할당하여 임원이 각각 분담된 기별 간사에게 책임지고 직접 독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3차 임원회의(1981. 9. 7)에서 장학기금 모금을 기별로 목표액을 정하고, 기별 간사를 통하여 달성하도록 임원들에게 분담케 하여 독려했다(부록 표 4-10, 부록 표 4-11 참조).

1981년 9월에 이르러서는 이창구(수원고농, 1925) 전 농공동창회 회장의 희사금 400,000원을 포함하여 기금 모금액이 1,579,000원에 이르렀고, 이월금과 이자이익금으로 5,649,109원(대출이자율 연 30%)과 기타(입회금, 특별찬조금)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장학금과 동창회 일반 지출금액을 뺀 17,851,867원을 농공동창회 기금으로 이월하게 되었다.

1981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박병태(4)와 신태은(4) 그리고 농업기계 전공 강영선(4)과 김용현(4)에게 각각 186,800원씩 합계 747,6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고, 제2학기 장학생은 같은 학생들에게 각각 186,800원씩 합계 747,6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제17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81. 10. 9)에서 동창회 기금의 목표액을 2천1백만 원으로

확대할 것을 결정했다. 제4차 확대임원회의(1982. 2. 24)에서 기금 모금 목표액을 1,500,000원으로 정하였고, 제5차 확대임원회의(1982. 9. 27)에서는 기금의 이자율을 연 30%에서 24%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982년 9월에는 이창구(수원고농, 1925) 전 농공동창회 회장의 희사금 600,000원을 포함하여 농공동창회의 기금 모금이 972,000원에 이르렀고, 이월금과 이자이익금으로 5,020,785원과 기타(졸업생 입회금, 특별찬조금)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장학금과 동창회 일반 지출금액을 뺀 21,731,102원을 농공동창회 기금으로 이월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농공동창회 기금 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네 번째 발걸음을 딛게 되었다. 고재군 농공동창회장은 농공동창회 기별 간사들을 독려하여 동창회 기금 모금에 열정을 쏟았다. 처음으로 농공동창회 기금 조성에 기여한 기별 배정액과 모금 현황을 표 1-2에 정리하였다.

1982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박병흔(4)과 이무종(4) 그리고 농업기계 전공 나용운(4)과 한철수(4)에게 각각 223,500원씩 합계 894,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고, 제2학기 장학생은 같은 학생들에게 각각 223,500원씩 합계 894,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제18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82. 10. 9)에서 정진호(농대(전), 1946) 동문이 제9대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정 회장은 제1차 확대임원회(1982. 12. 17)에서, 제18회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을 보고한 농공동창회 기금의 목표액 2천6백만 원을 재확인하고, 이를 조기에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농공동창회 장학금은 일반기금의 명칭으로 정하고, 개인의 이름 또는 호를 명칭으로 하는 '개인명 장학금'은 '특별장학기금'이란 명칭으로 정하여 분류하기로 하였다. 특별장학기금 운영은 우석 장학기금의 운영방법을 참조하여 농공동창회에서 새로운 특별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해 적극 추진할 것과 1985년부터 이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표 1-3 참조).

1983년 9월에는 특별장학기금으로 이창구(수원고농, 1925) 농공동창회 전 회장이 1,000,000원(1983. 3. 3)을 그리고 정진호(농대(전), 1946) 농공동창회 회장의 1,000,000원(1983. 10. 6)을 포함하여 농공동창회의 기금 모금액은 1,844,000원에 이르렀고, 이월금과 이자이익금으로 5,148,754원과 기타(졸업생 입회금, 특별찬조금)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장학금과 동창회 일반 지출금액을 뺀 25,804,356원을 농공동창회 기금으로 이월하게 되었다.

1983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이환우(4)와 허선우(4) 그리고 농업기계 전공 김치환(4)과 이영권(4)에게 각각 234,500원씩 합계 938,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고, 제2학기 장학생은 같은 학생들에게 각각 234,500원씩 합계 938,000원을 전액 등

표 1–2 기별 농공동창회 기금 모금 현황(1982. 9. 30)

입학년도	전 공	배정액	납부액	달성율(%)
전문부	농공학	1,050,000	675,000	64.3
1948	농공학	540,000	390,000	72.2
1949	농공학	450,000	310,000	68.9
1950	농공학	300,000	175,000	58.3
1951	농공학	270,000	270,000	100.0
1952	농공학	360,000	102,000	28.3
1953	농공학	840,000	270,000	32.1
1954	농공학	1,050,000	300,000	28.6
1955	농공학	960,000	775,000	80.7
1956	농공학	840,000	740,000	88.1
1957	농공학	900,000	635,000	70.6
1958	농공학	810,000	685,000	84.6
1959	농공학	1,020,000	870,000	85.3
1960	농공학	560,000	300,000	53.6
1961	농공학	640,000	160,000	25.0
1962	농공학	570,000	417,000	73.2
1963	농공학	480,000	480,000	100.0
1964	농공학	440,000	190,000	43.2
1965	농공학	400,000	223,000	55.8
1966	농공학	540,000	139,000	25.7
1967	농공학	460,000	75,000	16.3
1968	농공학	480,000	275,000	57.3
1969	농공학	500,000	86,000	17.2
1970	농업토목	380,000	93,000	24.5
	농업기계	380,000	30,000	7.9
1971	농업토목	400,000	148,000	37.0
	농업기계	380,000	58,000	15.3
1972	농업토목	420,000	83,000	19.8
	농업기계	320,000	111,000	34.7
1973	농업토목	160,000	92,000	57.5
	농업기계	260,000	105,000	40.4
1974	농업토목	200,000	85,000	42.5
	농업기계	300,000	70,000	23.3
1975	농업토목	240,000	130,000	54.2
	농업기계	300,000	85,000	26.7
합 계		18,200,000	9,632,000	52.9

표 1–3 특별장학기금의 조성과 운영 방안

농공동창회 특별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방안

1. 기금의 조성

1) 농공동창 중 원로 중견 회원으로서 명예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의 희사로 이루어진다.
2) 일백만원(₩1,000,000)을 1구좌로 하고, 1구좌 이상을 기금으로 한다.
3) 장학기금의 명칭은 희사하신 분의 호, 이름, 기타의 명칭으로 정한다.
4) 기본 기금의 증식과 장학금 지급 내역은 영구적으로 기장 보존한다.

2. 기금의 운영

1) 개인명의 장학금은 희사자별의 별도 계좌로 한다.
2) 기금의 증식은 이자수입, 기타 운영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기본 기금의 확대를 위하여 동창 회원 중 원하는 분은 기존 명칭의 기금에 임의로 기여할 수 있다.

3. 수혜자 결정

1) 수혜 대상자는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한다.
2) 수혜자의 결정은 특별 장학기금 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수혜 학생은 장래 농공동창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답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록금으로 지급했다.

제19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83. 10. 9)에서 농공동창회 기금 목표액을 3천2백만 원으로 확대하도록 정했다. 1984년 2월 8일 제1차 확대임원회의에서, 제19회 정기총회의 농공동창회 기금 목표를 재확인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룩한 농공동창회 기금(일반기금)과 특별장학기금의 현황과 이를 통하여 전개될 전망, 그리고 1985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게 될 지급 계획을 수립하였는바 표 1-4, 표 1-5와 같다.

1984년 9월에는 특별장학기금으로 정진호(농대(전), 1946) 농공동창회 회장이 1,000,000원(1983. 10. 9)을, 그리고 김환종(농대(전), 1946) 동문이 1,000,000원(1983. 12. 27)을 희사했으며, 63동기 일동이 특별장학기금으로 1,000,000원(1983. 10. 9)을 출연하였다. 이를 계기로 63학번부터 시작하여 농공동창회 2부 순서를 맡는 동기들은 농공동창회 특별장학기금을 매년 출연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되었다. 이에 대해 제20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84. 10. 9)에서 김환종 동문에게 특별장학금을 희사한 데 대하여 감사패를 전달했다. 농공동창회의 기금 모금은 4,150,000원에 이르렀고, 이월금과 이자이익금으로 6,760,209원과 기타(졸업생 입회금, 특별찬조

표 1–4 일반기금과 특별장학기금의 현황과 전망 (단위: 원)

장학기금원	원금	이자		연간 이자
		'83. 9. 30까지	'84. 9. 30까지	
일반기금	23,000,000			5,000,000
이창구	2,000,000	432,000	912,000	480,000
정진호	2,000,000	140,000	620,000	480,000
김환종	1,000,000	–	200,000	240,000
63 동기	1,000,000	–	240,000	240,000

표 1–5 장학금 지급 계획 (단위: 원)

장학금명	장학금액	시행연도	비고
일반기금	450,000	1984	등록금 반액
일반기금	450,000	1984	등록금 반액
일반기금	450,000	1984	등록금 반액
일반기금	450,000	1984	등록금 반액
이창구	300,000	1985	기성회비 반액
정진호	300,000	1985	기성회비 반액
김환종	150,000	1985	수업료 반액
63 동기	150,000	1985	수업료 반액

금)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장학금과 동창회 일반 지출금액을 뺀 35,470,125원을 농공동창회 기금으로 이월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농공동창회 기금총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다섯 번째 발걸음을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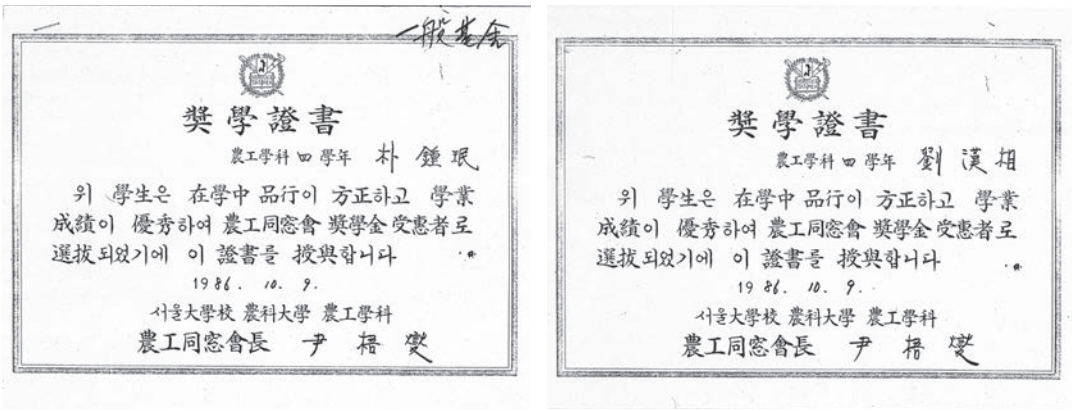
1984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춘삼(4)과 이병국(4) 그리고 농업기계 전공 유의경(4)과 이환승(4)에게 각각 225,000원씩 합계 900,000원을 등록금으로 지급하였고, 제2학기 장학생은 같은 학생들에게 각각 225,000원씩 합계 900,000원을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제20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84. 10. 9)에서 윤오섭(농대, 1948) 동문이 제10대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정기총회 시 1985년 장학사업 계획으로 세운 장학금 지원 계획으로 일반기금에서 45만 원씩 4인에게 지원하고, 특별기금에서 30만 원씩 2인에게 지원하며, 15만 원씩 2인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은 제1차 확대임원회(1985. 2. 22)에서 기금 모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책을 논의함과 동시에 직장별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동창회 소식을 전함으로써 동창회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회원관리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윤 회장은 개별 접촉으로 동창회원들에게 장학기금 출연을 독려하였다.

1985년에 윤대섭(농대, 1949) 동문으로부터 2,000,000(1985. 9. 28)을 희사 받았고, 64동기 일동이 특별장학기금으로 1,000,000원(1984. 10. 9)을 출연하였다. 이에 대해 제21회 농공동창회 총회(1985. 10. 9) 시 정진호 동문과 윤대섭 동문의 특별장학기금 회사에 대해 감사패를 드렸다. 1985년 9월에는 농공동창회의 기금 모금이 3,130,000원에 이르렀고, 이월금과 이자이익금으로 8,286,929원과 기타(졸업생 입회금, 특별찬조금)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장학금과 동창회 일반 지출금액을 제한 43,821,974원을 농공동창회 기금으로 이월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농공동창회 기금총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여섯 번째 발걸음을 옮겼다.

1985년도 제1학기 일반기금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권기대(4)와 김현준(4) 그리고 농업기계 전공 송석환(4)과 이비용(4)에게 각각 225,000원씩 합계 900,000원을 등록금으로 지급했으며, 특별기금 장학생은 농업토목 전공 이상진(4)과 이한구(4) 그리고 농업기계 전공 김기영(4)과 박복응(4)에게 각각 150,000원씩 합계 600,000원을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학기 일반기금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권기대(4)와 김현준(4) 그리고 농업기계 전공 송석환(4)과 이비용(4)에게 각각 225,000원씩 합계 900,000원을 등록금으로 지급했으며, 특별기금 장학생은 농업토목 전공 김석철(4) 그리고 농업기계 전공 국인석(4)에게 각각 150,000원씩 합계 300,000원을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1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85. 10. 9)에서 1986년도 장학사업 계획으로 일반기금에서 5십만 원씩 4인에게 그리고 특별장학금 3십만 원씩 4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반장학생과 특별장학생에게 수여된 장학증서는 그림 1-4, 그림 1-5와 같이 개인(이창구, 정진호, 김환종) 또는 단체(63학번, 64학번) 명의로 되어 있다. 제1차 임원회의(1986. 9. 15)에서 기금의 모금과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고, 제1차 확대임원회(1986. 9. 22)에서는 기금 모금의 활성화



獎學證書

農工學科 四學年 朴鍾珉

위 學生은 在學中 品行이 方正하고 學業 成績이 優秀하여 農工同窓會 奬學金 受惠者로 選拔되었기에 이 證書를 授與합니다

1986. 10. 9.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農工學科

農工同窓會長 尹 梧 燮

獎學證書

農工學科 四學年 劉漢相

위 學生은 在學中 品行이 方正하고 學業 成績이 優秀하여 農工同窓會 奬學金 受惠者로 選拔되었기에 이 證書를 授與합니다

1986. 10. 9.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農工學科

農工同窓會長 尹 梧 燮

그림 1-4 일반장학증서(농업토목 전공, 농업기계 전공)의 보기

그림 1-5 특별장학증서(농업토목 전공, 농업기계 전공)의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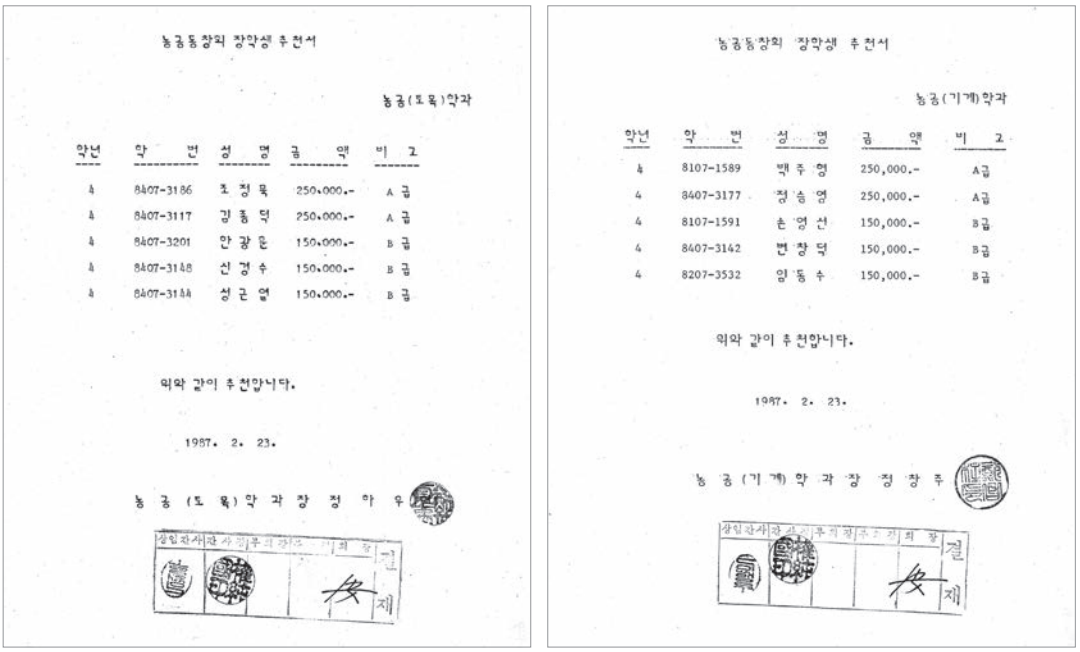
방안과 함께 동창회원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기본 대출 이자율을 월 2.0%에서 월 1.5%로 인하 조정하는 방안을 정기총회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윤 회장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동창회원들에게 장학기금 출연을 독려하여 출연금을 얻어냈다.

1986년에 정진호(농대(전), 1946) 전임 동창회 회장이 1,000,000원(1985. 11. 7)을, 이봉국(농대(전), 1946) 동문이 미국에서 172,146원($200, 1986. 7. 8)을, 그리고 윤대섭(농대, 1949) 동문이 20,000,000원(1985. 12. 27)을 장학기금으로 희사해 주었다. 또한 65학번 동기 일동으로 특별장학기금 1,000,000원(1985. 10. 12)을 출연했다. 이에 대해 정진호 전임 동창회장과 윤대섭 동문에게 특별장학기금 추가 희사에 대한 감사패를, 그리고 65학번 대표에게 감사패를 제22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86. 10. 9) 시에 수여했다. 1986년 9월에 농공동창회의 기금 모금은 22,407,146원에 달했으며, 이월금과 이자이익금으로 11,466,773원과 기타(졸업생 입회금, 특별찬조금)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장학금과 동창회 일반지출 금액을 제한 74,000,533원을 농공동창회 기금으로 이월하였다. 이렇게 하여 농공동창회 기금 총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일곱 번째 큰 발걸음을 옮겼다.

1986년도 제1학기 일반기금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문병두(4)와 박종민(4) 그리고 농업기계 전공 유한상(4)과 정길호(4)에게 각각 250,000원씩 합계 1,000,000원을 등록금으로 지급했고, 특별기금 장학생은 농업토목 전공 이기은(4)과 최장호(4) 그리고 농업기계 전공 조상기(4)와 차재윤(4)에게 각각 150,000원씩 합계 600,000원을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학기 장학생은 같은 학생들에게 일반기금 각각 250,000원씩과 특별장학기금 각각 150,000원씩 합계 1,600,000원을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제22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86. 10.9)에서 안재숙(농대, 1948) 동문이 제11대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1987년도 사업계획으로 동창회 기금 확대와 장학금을 일반기금에서 5십만 원씩 4인에게 지급하고, 특별기금에서 3십만 원씩 6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농공학과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필요한 컴퓨터 모니터를 기증하기로 하였다. 제1차 임원회의(1987. 1. 23)에서 신 · 구 임원들이 함께 모여 회장선거제도의 개선 방안, 동창회 기금 모금과 관리 방안 등 장학금 단위와 액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장학금 수혜자를 전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장학금 수혜자가 차후에 장학금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또한 회장 선거가 회원 친목을 해치고 회원들이 선배들을 잘 알지 못한 가운데 결정하는 모순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회장선거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기 1, 2개월 전에 농공동창회 기별간사회의에서 차기 동창회 회장을 선출하고, 정기총회 시에는 만장일치로 승인하는 형식으로 회장을 추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제1차 확대임원회(1987. 2. 13)에서 임원회의에서 논의된 회장선거 개선 방안을 결정하였다. 또한, 농공동창회의 기금 모금과 관리 그리고 장학금의 단위액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1987년도 제1학기 장학생 선정은 농공학과로부터 A급과 B급으로 나누어진 장학생 추천서를 받아 처리하였다. 문서로 남아 있는 첫 추천서는 그림 1-6과 같다. 그리고 모교 학교 연구시설물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2차 확대임원회(1987. 9. 30)에서는 동창회 특별찬조금에 대한 것과 장학금 지급의 일원화와 이에 따른 단위액수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으며, 1985년부터 시행해 오던 장학금 제도(농공동창회 일반기금과 특별기금의 장학금)를 1987년도까지만 집행하기로 하고 이를 정기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입학 30년을 맞은 56학번 동기들이 농공동창회 정기총회의 2부 순서를 맡을 기회가 없어진 아쉬움을 대신하여 입학 30주년 기념으로 농공학과의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각종 농업토목 및 농업기계 현장의 기술 상황을 교실에서 익힐 수 있도록 학습용 비디오 시설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

1987년 9월에 장학기금으로 농공동창회 명예회원이신 박성우 명예교수가 2,000,000원



농공동창회 장학생 추천서

농공(토목)학과

학년	학 번	성 명	금 액	비 고
4	8407-3186	조 정 묵	250,000.-	A 급
4	8407-3117	김 종 덕	250,000.-	A 급
4	8407-3201	한 광 훈	150,000.-	B 급
4	8407-3148	신 경 수	150,000.-	B 급
4	8407-3144	성 근 열	150,000.-	B 급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1987. 2. 23.

농 공 (토 목) 학 과 장 정 하 우

농공동창회 장학생 추천서

농공(기계)학과

학년	학 번	성 명	금 액	비 고
4	8107-1589	백 주 형	250,000.-	A급
4	8407-3177	정 승 영	250,000.-	A급
4	8107-1591	손 영 선	150,000.-	B급
4	8407-3142	변 창 덕	150,000.-	B급
4	8207-3532	임 동 수	150,000.-	B급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1987. 2. 23.

농 공 (기 계) 학 과 장 정 창 주

그림 1–6 농공학과의 장학생 추천서(1987년 1학기)

(1986. 10. 27)을, 그리고 이봉국(농대(전), 1946) 동문이 미국에서 254,619원($300, 1987. 3. 11)을 희사하였고, 66학번 동기회가 1,000,000원을 특별장학기금으로 출연하였다. 이에 대해 제23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87. 10. 18)에서 박성우 명예교수에게 특별장학기금 희사에 대한 감사패와 특별장학기금을 출연한 66학번 동기들에 감사패를 그리고 56학번의 모교후원사업 지원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1987년 9월에는 농공동창회의 기금 모금액은 3,409,619원에 이르렀으며, 이월금과 이자이익금으로 11,958,110원과 기타(졸업생 입회금, 특별찬조금)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장학금과 동창회 일반지출 금액을 제한 81,953,107원을 농공동창회 기금으로 이월하였다. 이렇게 하여 농공동창회 기금 총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여덟 번째 발걸음을 옮겼다.

1987년도 제1학기 일반기금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종덕(4)과 조정묵(4), 농업기계 전공 백주형(4)과 정승영(4)에게 각각 250,000원씩 합계 1,000,000원을 등록금으로 지급하였고, 특별기금 장학생은 농업토목 전공 성근열(4) · 신경수(4) · 한광훈(4), 농업기계 전공 변창덕(4) · 손영선(4) · 임동수(4)에게 각각 150,000원씩 합계 900,000원을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학기 일반기금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종덕(4)과 신경수(4) 그리고 농업기계 전공 백주형(4)과 정승영(4)에게 각각 250,000원씩 합계 1,000,000원을 등록금으

로 지급하였고, 특별기금 장학생은 농업토목 전공 이두철(4) · 최은철(4) · 한광훈(4), 농업기계 전공 변창덕(4) · 손영선(4) · 오동환(4)에게 각각 150,000원씩 합계 900,000원을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3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87. 10. 18)에서 1988년부터 현재의 장학금 지급 방법, 즉 농공동창회 일반기금의 장학금 단위(50만 원)와 특별기금의 장학금 단위(30만 원 및 15만 원)를 폐지하고, 농공동창회 장학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장학생 수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결의하였다. 이유는 개인 명의의 특별기금 장학금 제도가 초기에는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후속적인 장학금 출연자가 없고, 또한 개인 명의로 출연된 특별기금 장학기금의 이자이익금으로는 장학금으로 지급하기에는 금액이 적어 농공동창회 기금에서 지급하는 일반기금 장학금액과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의 통장 관리가 복잡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농공동창회를 소개하기 위하여 농공동창회장과 간사장이 참여한 기자 간담회(1988. 3. 2)를 가졌으며, 제1차 확대임원회의(1988. 9. 20)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일반기금과 특별기금으로 분리된 장학금 지급 방식의 개선에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1988년 9월에는 67학번 동기들이 출연한 300,000원을 포함하여 농공동창회의 기금 모금은 1,160,000원에 이르렀으며, 이월금과 이자이익금으로 13,840,045원과 기타(졸업생 입회금, 특별찬조금)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장학금과 동창회 일반지출 금액을 뺀 90,584,712원을 농공동창회 기금으로 이월하였다. 이렇게 하여 농공동창회 기금 총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아홉 번째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1988년도는 장학금 예산에서 1, 2학기에 각각 5명에게 5십만 원씩 장학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두 전공에서 사람을 배분하기가 어려워 학생 수는 늘리고, 금액은 조정하여 지급하였다. 그래서 제1학기 일반기금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윤성수(4)와 이은재(4), 농업기계 전공 권순환(4)과 김기웅(4)에게 각각 500,000원씩을 등록금으로 지급하였고, 또 특별기금 장학생은 농업토목 전공 우유진(4), 농업기계 전공 박권재(4)에게 각각 250,000원씩 합계 2,500,000원을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학기 일반기금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우유진(4)과 이은재(4), 농업기계 전공 권순환(4)과 김기웅(4)에게 각각 500,000원씩을 등록금으로 지급하였고, 또 특별기금 장학생은 농업토목 전공 윤성수(4), 농업기계 전공 박권재(4)에게 각각 250,000원씩 합계 2,500,000원을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4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88. 10. 9)에서 이철주(농대, 1949) 동문이 제12대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그리고 1989년도 사업계획으로 동창회 기금을 확대하는 것과 장학금을 1, 2학기에 각각 6인에게 5십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회장은 모교 농공학

과의 전직 교수로 봉사하였기에 더욱 열정을 가지고 농공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 회장은 신 · 구회장단회의(1988. 12. 22)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일정액 장학금의 수준을 등록금 전액으로 올려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대상 수를 확대하는 것과 농공동창회 기금액이 증대됨에 따른 기금 관리 문제와 기금 모금의 확대에 대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면서 대안으로 장학재단 설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제1차 확대임원회의(1989. 2. 10)에서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장학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임원 및 재단설립추진위원회의(1989. 7. 14)를 개최하여 농공동창회의 기금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의 기금 운용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재단 설립 방안으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육연구재단'의 정관을 기초로 검토하였으며, 제2차 확대임원회의(1989. 9. 28)에서 장학재단 설립(안)에 따른 내용의 설명과 방안 및 재단설립추진위원의 선임에 대해 정기총회에서 논의하도록 결정하였다.

1989년 장학기금 모금에서 모교 교수인 고재군 농공동창회 전 회장이 2,000,000원을 희사하였고, 68 입학 동기들이 1,000,000원을 출연해 주었다. 이에 대해 제25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89. 10. 9)에서 고재군 전 농공동창회 회장에게 장학기금 희사에 대해 감사패를, 68동기들의 장학기금 출연에 대한 감사패를 그리고 58동기들이 모교 후원기금을 출연한 데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1989년 9월 농공동창회의 기금 모금은 3,141,000원이 되었고, 이월금과 이자이익금으로 13,408,462원과 기타(졸업생 입회금, 특별찬조금)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장학금과 동창회 일반지출 금액을 뺀 101,661,474원을 농공동창회 기금으로 이월하였다. 드디어 농공동창회 기금 총액이 1억 원을 돌파하는 열 번째의 거보를 내디뎠다.

1989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광수(4) · 김민근(4) · 송한용(4), 농업기계 전공 심규돈(4) · 이승훈(4) · 이종순(4)에게 각각 534,000원씩 합계 3,204,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제2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광수(4) · 김민근(4) · 송한용(4), 농업기계 전공 심규돈(4) · 이승훈(4) · 진제용(4)에게 각각 534,000원씩 합계 3,204,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제25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89. 10. 9)에서 결의된 사항은 장학금을 매 학기 6인에게 5십5만 원씩을 지급할 것과 모교의 농공학관이 준공하여 이전하게 될 때 모교 후원금을 지원할 것 그리고 농동동창회 기금의 확대 방안과 장학재단의 설립에 대해 그동안 임원 및 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듣고 이에 제안한 장학재단 설립(안)을 받기로 결의하였다. 장학재단 설립(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1-6과 같다. 이에 따라 1989년 10월 9일 정기총회에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결정권을 위임받아 동년 11월 9일에 농공장학재단의 창립 이사회에서

표 1-6 (가칭)농공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제안 보고사항

1) 가정: 장학재단기금을 5천만 원으로 하고, 장학재단 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현재 수준으로 한다.
2) 장학재단 설립 허가 절차 및 준비사항
(1) 허가 절차
(2) 농공동창회 총회에서 토의할 사항
가) 정관 작성에 필요한 내용: 재단 명칭, 설립목적, 재단법인의 소재지, 사업내용, 임원(이사 및 감사의 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나) 임원 선임
다) 재단설립 비용
(3) 창립이사회 개최
(4) 재단법인설립추진위원회 구성(안)

정관을 확정하고, 1990년 1월 8일 수원시교육청에 재단법인 설립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동년 3월 29일 재단설립 허가서를 취득하게 되었다.

이후부터 농공동창회의 기금은 일반관리로 운영되었고, 농공장학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회계 관리는 법인회계법에 따라 회계 관리가 이루어졌다.

1990년 농공장학재단이 발족한 이후에 농공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을 출연해주신 분은 고 임영춘(농전, 1944) 동문의 미망인 이상금 여사가 3천만 원을, 유한홍(농대, 1949) 재단이사가 1천만 원을,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가 2천만 원을, 이철주(농대, 1949) 이사장이 2백만 원을, 그리고 권오완(농대, 1956) 동문이 3십만 원을 농공장학재단에 희사하였다. 또한 69학번 동기회가 1백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해 주었다. 이에 대해 제26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90. 10. 9)에서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으로 희사하신 고 임영춘 동문의 미망인 이상금 여사, 재단이사이신 유한홍(농대, 1949) 동문, 재단이사이신 윤대섭(농대, 1949) 동문, 그리고 69동기들의 장학기금 출연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고, 59동기의 모교후원사업 기금을 출연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다. 1989년 12월 농공동창회는 기존 기금액(101,661,474원)에서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으로 5천만 원을 이관(1989. 12. 13)하고, 남은 금액(51,661,474원)과 농공동창회 기금을 모금한 1,240,000원과 이자수익금인 8,822,859원과 기타(졸업생 입회금, 특별찬조금)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장학금과 동창회 일반지출 금액을 제한 49,469,440원을 농공동창회 회계로 이월하였다.

1990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광오(4) · 김윤용(4) · 나정균

(4), 농업기계 전공 김한태(4) · 이기택(4) · 이상주(4)에게 각각 546,000원씩 합계 3,276,000원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제2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광오(4) · 나정균(4) · 박대현(4), 농업기계 전공 김한태(4) · 민곤(4) · 이상주(4)에게 각각 546,000원씩 합계 3,276,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제2학기의 장학금은 농공동창회에서 4명에게 지급하였고, 장학재단에서 2명(1,092,000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다.

제26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90. 10. 9)에서 임원 개선이 있었는바 이희영(농대, 1950) 동문이 제13대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또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장학금을 매 학기 1인에게 6십만 원씩을 지급할 것과 장학재단에서 제1학기에 5인에게 그리고 제2학기에 7인에게 각각 6십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금을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모교의 농공학관 개관 및 농공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축하기념 식수와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이희영 회장이 농공동창회를 운영할 초기에는 농공동창회 임원회와 농공장학재단 이사회는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었다. 즉, 농공동창회 회장은 이희영 동문이 맡았으나 농공장학재단 이사장은 이철주 동문이 맡아 운영하였다. 이는 이철주 전임 회장이 장학재단의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에 농공동창회 회장이었기에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4년 임기로 법인등기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농공동창회에서 학생들에게 지급되던 장학금의 지급 주체가 농공동창회와 상관이 없는 농공장학재단 주관으로 주어지게 되는 모순을 안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공동창회 제1차 임원회의(1990. 11. 22)에서 1991년부터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농공장학재단에서만 하기로 결의하고, 농공동창회는 동창회 운영에만 전념하고 대신 농공동창회 정기총회에는 장학금 지급 현황과 장학재단의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농공동창회의 운영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대출되었던 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하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또 모교 농공학관이 신축됨에 따라 2백만 원을 학과에 기증하기로 하였다. 농공동창회 제2차 확대임원회의(1991. 9. 19)에서 농공동창회가 계속 이원적 조직으로 운영됨에 따라 농공동창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장학금이 농공장학재단의 주관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보았다. 그래서 농공동창회와 농공장학재단의 운영을 일원화하기로 하여 농공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의했다.

1991년 9월 농공동창회 기금모금은 1,800,000원이 되었고, 이월금과 이자이익금으로 5,766,398원과 기타(졸업생 입회금, 특별찬조금)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농공동창회 일반지출 금액을 뺀 51,681,068원을 농공동창회 회계로 이월하였다.

제27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91. 10. 3)에서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으로 희사하신 재단이

사이신 윤대섭(농대, 1949) 동문(유화증권(주)과 일동통상(주))에게 그리고 70학번 동기들의 장학기금 출연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중요 의결 사항은 장학금 지급은 농공장학재단에서만 시행하도록 하되 농공동창회와 농공장학재단의 운영에 있어 일원화의 필요성에 관한 토의를 거쳐 차기 임원부터 일원화된 운영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사장 임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원활화하기 위하여 농공동창회장을 농공장학재단의 이사로 취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독립기관인 농공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이 농공동창회와 관련성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 1992년에 들어서도 계속 발생되어 양 기관의 운영에 일원화되지 못한 문제들이 상존함에 따라 농공동창회의 회칙에 명시하여 장학재단을 농공동창회의 산하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제1차 확대임원회의(1992. 1. 28)와 제1차 임원회의(1992. 5. 23)에서 논의되었고, 제2차 확대임원회의(1992. 9. 16)에서 농공동창회의 회칙 개정안에서 대학 명칭, 회원 자격, 사업조항 추가 및 농공동창회와 장학재단의 관계정립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 농공동창회 정기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1992년 9월 농공동창회 기금모금은 2,000,000원이 되었고, 이월금과 이자이익금으로 4,660,716원과 기타(졸업생 입회금, 특별찬조금)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동창회 일반지출 금액을 제한 56,794,034원을 농공동창회 회계로 이월하였다.

1992년 10월 3일 제28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에서는 이상호(농대, 1952) 동문이 제14대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총회에서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으로 재단이사이신 윤대섭 동문(농대, 1949)이 1천만 원을 그리고 김원세(농대, 1957) 동문이 1천만 원을 희사하신 것과 71학번 동기들이 특별장학기금으로 1백만 원을 희사하고, 61학번 동기들의 모교후원사업 기금을 희사한 데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그 밖에 농공동창회 회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주요한 의결사항으로 대학의 명칭이 농과대학에서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칙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와 함께 농공동창회와 농공장학재단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이를 결정하였다. 농공동창회와 농공장학재단의 운영 일원화를 위한 회칙 개정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면 표 1-7과 같다.

농공동창회가 1966년 1월에 창립된 이후 1967년 2월 4일 제2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재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모금을 결정하였다. 이 장학기금을 기반으로 1968년 제2학기부터 시작하여 약 24년간 지속되었으며, 그동안 장학금을 지급한 연도별 장학생들과 장학금액 그리고 농공동창회 임원들과 여러 동창님의 정성스런 모금과 기금의 증대와 장학급 지급액 추이를 정리해 보면 표 3-2와 그림 3-1과 같다. 이는 실제로 농공동창회가 회원친목보다 우선 사업으로 장학생의 수를 증대하는 것과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일념밖에 모르는 임원

표 1–7 농공동창회 회칙의 변경사항

회칙 제13조(신설) 본회는 제3조 4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농공장학재단을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이사장은 동창회장이 겸임한다.
2. 임원은 재단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동창회 확대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기타 운영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단 정관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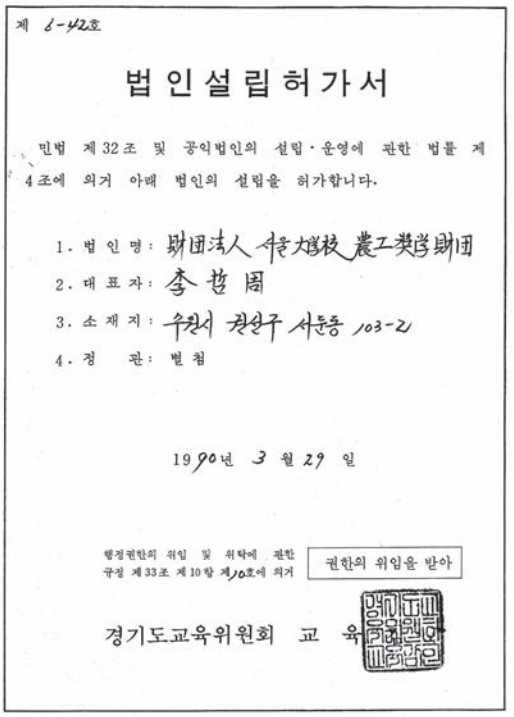
들과 회원의 눈물겨운 땀방울을 보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것이 농공동창회가 갖는 애정의 정도가 여타 학과동문회와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하며, 감사의 예를 드리며 자랑스럽게 기리고자 한다.

2. 농공장학재단의 설립과 약진기 (1990~2008)

지금까지 농공장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 22년 반(1968년 2학기~1990년 2학기) 동안 농공동창회의 기금을 확장하고 그의 운영 이익금을 가지고 지급해 왔었다. 반면 농공동창회의 기금 운영 총액이 1억 원을 넘기면서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나 기금의 운영을 통하여 수익금을 확대하는 데 있어 점차 어려움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철주 농공동창회 회장은 1989년도에 들어와서 제1차 확대임원회의(1989. 2. 10)를 소집하여 농공장학기금의 확충과 기금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재단법인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고, 제25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89. 10. 9)에서 이를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윤대섭(농대, 1949) 전임 농공동창회 부회장은 전임 윤오섭(농대, 1948) 동창회장이 역임하였을 때에도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동기인 이철주 농공동창회 회장에게 다시 이 방안을 적극 권유하여 장학재단의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로서는 생소하고 신선한 제안이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개인사업자나 개인이 기부금을 냈을 때 개인 소득세 감면을 해 주는 기부금 세금감면제도에 대해 일부 동창회원들을 제외하면 자세히 잘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법 제도가 도입된 것을 보면, 개인사업자인 경우 자신의 소득세에서 기부금이 필요 경비로 인정된 것이 1968년 1월 1일(1949년 7월에 제정한 세법을 1967년 11월 29일에 전면 개정)부터 시행되었고,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액에서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인정한 것은 1982년 1월 1일(1981년 12월 31일에 개정)부터 처음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체인 장학재단을 설립하면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동창회원의 다수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기금 운영도 정상적으로 법정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공정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89년 2월 10일에 장학재단설립 추진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1989년 9월 28



제 8-42호

법 인 설 립 허 가 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아래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1. 법 인 명: 財団法人 서울大學校 農工奨学財団
2. 대 표 자: 李 哲 圭
3. 소 재 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
4. 정 관: 별 첨

1990년 3 월 29 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0항 제10호에 의거 권한의 위임을 받아

경기도교육위원회 교 육

그림 1-7 농공장학재단법인설립 허가서

사 업 자 등 록 증
(법인사업자용)

등록번호 124 - 82 - 02726

❶상호(법인명): (재단)서울대학교농공장학재단 ❷성명(대표자): 이 철주
❸개업년월일: 1990. 3. 30 ❹법인등록번호: 120111-0081902
❺사업장소재지(주사업장):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 서울농대장학관내
❻사업자의주소: 상 동
❼사업의종류: 업태 종목
❽교부사유: 신규

❾검열사항

신청년월일					
검열년월일					
검 열 인					
신청년월일					
검열년월일					
검 열 인					

90년 4월 17일
수원세무서장인

그림 1-8 농공장학재단법인 사업자등록증

일에 장학재단설립 추진위원으로 고재군, 정진호, 윤오섭, 안재숙, 이철주, 신동수, 오무영, 최찬식, 윤대섭, 정창주, 배정길(11명)을 추대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만들고, 농공동창회 임원들과 공동으로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89년 10월 9일 농공동창회 총회에서 설립과 추진, 임원 선임 등의 제반사항에 대한 위임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제1차 추진위원회의(1989. 10. 20)를 갖게 되었으며, 이사로 이철주, 정진호, 고재군, 윤오섭, 안재숙, 유한홍, 윤대섭, 정창주, 신동수 동문을 선임하고, 감사로 김재곤, 배정길 동문을 선임하였다. 이사 선임의 기준으로 이사는 단임제로 하고, 당연직 이사는 학과장, 농공동창회장, 기금회사자로 정하였다. 그리고 정관(안)을 검토하였다. 1989년 11월 9일에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의 정관을 제정하였고, 기본재산의 재원은 농공동창회의 기금 중에서 5천만 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제반 경비는 농공동창회의 기금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당시에는 농공동창회 기금이 회원들에게 대출이 되어 있어 곧바로 회수가 어려워서 우선 농공동창회 기금에서 25,221,193원을 내놓고, 정진호(농대(전), 1946) 동문이 3,000,000원, 윤대섭(농대, 1949) 동문이 22,000,000원을 회사하여 합계 50,221,193원을 마련하였다. 이 중에서 5천만 원을 농공장학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대한투자신탁은행에 예탁하였다.

그리고 1990년 1월 8일 장학재단법인 설립의 신청서를 감독관청인 수원시교육청에 접수하여 심의를 거쳐 1990년 3월 29일에 농공장학재단의 설립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발족하기에 이르렀다(그림 1-7 참조). 그 후 수원지방법원의 등기부 등본을 받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장학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그림 1-8 참조). 장학재단 설립 당시의 임원진은 표 1-8과 같으며, 초기 장학재단 임원진들은 장학재단의 비용을 아끼고자 이사회를 모일 때마다 개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경비부담을 기꺼이 감수하였다. 오늘의 장학재단으로 장족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하셨던 여러 선배님들의 노고에 대해 우리 동창회원들은 오래오래 그 뜻을 기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에 장학재단 설립 과정을 자세히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표 1-8 설립 당초 임원과 임기

직위	임기
이사장	4년
이사	4년
이사	4년
이사	4년
이사	4년
이사	2년
이사	2년
이사	2년
이사	4년
감사	2년
감사	2년

장학재단 설립 과정

1) 1989. 2. 10(대림정): 농공동창회 확대임원회의에서 재단설립 추진 발의함.
2) 1989. 7. 14(우리집): 농공동창회 임원회의에서 명칭, 정관, 이사선임, 추진위원선임 문제 등을 토의 및 설립신청서류와 예상 문제점을 검토함.
3) 1989. 9. 28(우리집): 농공동창회 임원회의에서 허가절차, 농공동창회 총회 의결사항 등을 검토 및 설립추진위원(안) 구성함.
4) 1989. 10. 9(농대): 농공동창회 총회에서 정관에 필요한 제반사항(명칭, 목적, 사업내용, 임원선임 등)을 토의 함.
   추진위원을 의결, 재단 설립에 관한 제반사항은 추진위원회의에 일임하되 창립이사 선임은 농공동창회 임원회의에서 추인하기로 의결함.
5) 1989. 10. 20(우리집): 재단설립 추진모임에서 창립이사 선임(안), 이사 선임 기준 토의, 정관(안) 검토함.
6) 1989. 11. 3(우리집): 농공동창회 확대임원회의에서 창립이사 선임 추인함.
7) 1989. 11. 9(반포회관): 재단 창립이사회에서 정관 의결, 향후 2년간 사업계획서 및 재단 설

표 1–9 농공장학재단 설립취지문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설립취지문

인류 역사와 함께 태동한 농업은 지구촌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존속되어야 할 기간산업으로서 이를 뒷받침하는 농업과학 및 기술은 필연적으로 발전 계승되어야 할 분야이다. 농업공학은 이와 같이 농업과학 및 기술의 한 분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는 학문으로 정의되고 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공학에서 담당하는 분야로는 개간, 간척 등을 통한 농지의 확대, 저수지, 양수장 등의 설치에 의한 농업용수원의 확보, 경지정리, 수리구조물의 설치 등과 같은 농지의 정비, 작물의 생육에 알맞은 관개배수, 농작물의 파종, 재배, 관리, 수확 등에 필요한 각종 농업기계, 수확된 농산물의 건조, 조제, 가동 및 저장에 필요한 각종 농산가공기계 등이 있으며,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되는 분야로는 농촌주택, 축사 및 저장시설, 수질오염의 방지, 농업용 열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이용 등이 있다.

나아가서, 과학문명 및 산업기술이 발전과 더불어 생물공학의 농업에의 응용, 환경조절시설을 갖춘 식물공장, 각종 농업기술의 진단을 위한 Expert System, 농업생산시설 및 농업기계의 자동화, 농업노동력의 감소에 대비한 농업용 로봇의 개발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공학은 전통적인 관념에서의 농업발전은 물론 첨단적인 농업기술의 개발 및 육성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공학의 학문적 탐구와 인재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공업 분야의 발전에 따라 도농 간의 소득격차의 심화,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 상실, 농촌문화의 퇴폐와 전통성 상실 등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궁극적인 대책은 농업기술개발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물론 농업기반의 조성, 농업구조의 개편, 경영형태의 개선, 농업기계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귀결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는 1943년에 창설된 이래, 1989년 현재 1,400여 명의 학사, 140여 명의 석사, 40여 명의 박사를 배출한 한국 농공학의 산실로서 본 학과의 졸업생들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들 동창생들이 1966년에 농공동창회를 결성하여 모교의 발전 및 농공학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장학기금의 확대조성과 장학사업의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농공동창회원의 뜻을 모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의 설립취지는 전통적인 농업과학 및 기술의 계승발전은 물론, 새로운 과학과 첨단기술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농업에 응용하기 위하여

첫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공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둘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의 교육 및 연구 시설의 확충과 동 학과의 교수들에게 학문탐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 발전시키는 데 있다.

1990. 1.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설립자 대표 이 철 주 (인)

립 취지문 작성, 신청서류 등을 검토함.

8) 1989. 11. 10~1989. 12. 31: 재단 설립 신청서류 준비함.

9) 1990. 1. 8: 수원시교육청에 장학재단법인 설립 신청서를 접수함.

10) 1990. 3. 29: 장학재단설립 허가서를 취득함.

11) 1990. 4. 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재단설립 등기부 등본을 취득함.

12) 1990. 4. 17: 수원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취득함.

13) 1990. 4. 20: 수원시교육청에 법인설립등기 이행을 보고함으로써 재단설립이 완료됨.

농공장학재단 창립 이사회의(1989. 11. 9)에서 검토된 자료는 정관, 설립 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990년도 사업계획, 1991년도 사업계획, 장학재단 설립 취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설립취지문(표 1-9)을 여기에 싣고자 하며, 기타 사항은 별첨물로 부록에 남긴다.

농공장학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와 일치해야 하므로 장학재단의 자료를 이에 준해 정리하기로 한다. 1990년도 제1차 이사회의(1990. 4. 21)가 이철주 이사장의 주제로 열렸다. 주요 내용은 수원시교육청으로부터 장학재단 설립허가서 취득, 재단설립 등기부등본 취득, 사업자 등록번호 취득 등의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재단 설립에 따른 결산보고와 1990년도 사업계획(1990. 4. 1~1990. 12. 31)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제2차 장학재단 이사회의(1990. 7. 9)에서는 농공장학재단의 설립과 재단기금의 확대조성 방안에 대해 농공동창회원들에게 알리는 안내문을 재단법인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겸 농공동창회 회장 명의로 발송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안내문을 포함하여 재단 명칭(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재단 설립 취지, 사업내용, 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기본재산, 재단 임원, 기금 확충의 필요성, 기금의 출연방법, 기금 출연에 대한 세제혜택, 기금 출연자의 내역을 수록하였으며, 기금 확대 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농공장학재단 제3차 이사회의(1990. 11. 23)에서는 장학재단 설립 시의 농공동창회에서 받은 지원금, 재단 발족 이후 장학기금 출연자와 출연금, 이자 등의 수입과 장학금 지급, 일반경비 지출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 보고가 있었으며, 농공동창회와의 연계성과 장학기금의 확충에 기여할 동문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9명의 이사를 2명 증원하여 11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의하고, 감독청에 신청하는 문제 토의와 임기완료 되는 감사의 추대문제를 토의했으며,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1990년도부터 장학재단의 회계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하여 세입부와 세출부로 나누어 처리하게 되었다. 장학재단의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의 이자이익금과 보통재

표 1–10 1990년도 예산 · 결산 사항(1989. 12. 13~1990. 12. 31)

1. 기본재산(1990. 4. 3~1990. 12. 31)

(1) 수입부

항목	결 산 액	비고
기본재산 기금	50,000,000	농공동창회의 출자(1989. 12. 13)
기본재산 이자	3,704,354	
계	53,704,354	

(2) 지출부

항목	결 산 액	비고
차기 이월금	50,000,000	
보통재산 이월금	3,704,354	
계	53,704,354	

2. 보통재산(1989. 12. 13~1990. 12. 31)

(1) 수입부

항목	결 산 액	비고
출연금	62,000,000	
보조금	2,705,193	농공동창회 지원금
보통재산 이자	3,382,877	
법인회계 이월	3,704,354	기본재산 이자
계	71,792,424	

(2) 지출부

항목	결 산 액	비고
차기 이월금	5,527,724	
장학금	3,276,000	
재단설립비용	800,000	
회의비	118,700	
운영비	70,000	
기본재산 증자	62,000,000	
계	71,792,424	

산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생의 숫자를 늘리고 장학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장학재단의 회계연도는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1990년의 내역만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지만, 장학재단이 처음 출발하는 단계에서의 회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1990년도의 결산 내역에 초기 내역을 포함하여 표 1-10에 수록하였다. 초기 기본재산은 농공동창회에서 50,000,000원과 법인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경비 2,705,193원을 지원 받았다.

1990년에 장학재단 법인이 출범한 이후 장학재단에 출연한 동문으로 고 임영춘(농전, 1944) 전 농공동창회 회장을 대신해 그의 미망인 이상춘 여사가 30,000,000원을, 이철주(농대, 1949) 이사장이 2,000,000원을, 유한홍(농대, 1949) 재단이사가 10,000,000원을,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가 20,000,000원[유화증권(주): 1천만 원, 일동통상(주): 1천만 원]을, 그리고 권오완(농대, 1956) 동문이 300,000원을 각각 희사하여 총 출연기금 금액은 62,300,000원에 이르렀다. 1990년도의 장학재단 기본재산은 50,000,000원이었다.

1990년도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은 재단의 발족 후에 이자수익금이 늦게 발생하므로 제2학기부터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장학재단에서 2명에게 각각 546,000원씩 합계 1,092,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1991년도 농공장학재단 제1차 이사회의(1991. 1. 17)에서는 1990년도의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이어 감사의 결과보고 후 1991년도의 장학재단 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심의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동문의 출연금 6천2백3십만 원 중에서 6천2백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증자하기로 하였으며, 장학생 수를 2개 학기에 걸쳐 16명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등록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농공학과(농업토목 전공 및 농업기계 전공)의 연구시설에 각각 1백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사 2명을 증원하기로 결의하였다. 제3차 이사회의(1991. 7. 5)에서 장학재단 정관 변경(이사 정수 증원, 기본재산 증액)에 관련하여 감독관청으로부터 허가(1991. 3. 12)를 받고, 등기부등본을 취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은 1억 1천2백만 원이 되었다. 그리고 증원되는 2명의 이사는 이희영 농공동창회 회장과 유근학(농대, 1955) 동문을 선임하고, 감사 1명은 유임하기로 결의하여 감독관청에 신청하였다. 제27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91. 10. 3)에서는 장학재단의 기금 출연자에 대한 감사패를 윤대섭(유화증권(주)과 일동통상(주)) 재단이사와 70학번 동기회에 농공동창회장 명의로 수여했다. 제4차 이사회의(1991. 12. 19)에서는 수원시교육청의 감사에서 장학재단이 공익법인이므로 수입 중 60% 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1991년도 장학재단에 출연한 동문으로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가 10,000,000원을,

유근학(농대, 1955) 재단이사가 1,000,000원을, 김원세(농대, 1957) 동문이 10,000,000원을, 배정길(농대, 1961) 재단감사가 1,000,000원을, 이진우(농대, 1965) 동문이 1,064,934원을, 61학번 동기회에서 1,000,000원을 각각 희사하여 총액 24,064,934원을 출연하였다. 이에 대해 제28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92. 10. 3)에서 장학재단의 기금 출연에 대한 감사패를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와 김원세(농대, 1957) 동문과 71학번 동기회에 농공동창회장 명의로 수여하였다. 1990년도에 출연한 기금 중에서 62,000,000을 증자하여 1991년도 장학재단 기본재산의 총액은 112,000,000원(1991. 3. 12)으로 장학기금이 1억 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보통재산은 전기이월금과 출연금, 기본재산 이자와 보통재산 이자로 이루어지는 총수입액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농공학과 시설지원금과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 31,020,989원이 이월되었다.

1991년도부터는 농공장학재단에서 모든 장학금을 매 학기에 8명씩 연간 16명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동선(4) · 손옥주(4) · 정상호(4) · 최병옥(4), 농업기계 전공 고국원(4) · 정용철(4) · 최원익(4)에게 각각 600,500원씩을 지급했으며, 석사과정의 농업기계 전공 우상하(1)에게 600,500원을 지급해 합계 4,804,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으며, 제2학기 장학생은 같은 학생들에게 합계 4,804,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1992년도 제1차 이사회의(1992. 2. 13)에서는 이사 정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는 것과 전년도 장학기금 출연금(2천4백만 원)과 보통재산 중에서 일부를 추가하여 25,000,000원을 기본재산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한 진행보고가 있었고, 수원시교육청으로부터 장학생 선발 규칙과 학문연구 지원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라는 공문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2차 이사회의(1992. 3. 25)에서는 이사 정수를 13명으로, 기본재산을 1억 3천7백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등기 중임을 보고하고,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1991년도 결산과 19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장학생 선발 규칙을 심의 · 결정하였는바 그 내용은 표 1-11과 같다. 제3차 이사회의(1992. 7. 16)에서 정관 변경에 따른 등기부 등록을 취득하였다는 보고와 연임 이사(유한홍, 고재군, 정창주, 신동수) 4명과 신임 이사 김원세(농대, 1957) 1명 그리고 연임 감사(김재곤)에 대한 수원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제28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92. 10. 3)에서 제14대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이상호(농대, 1952) 동문이 추대되었다. 이에 따라 농공동창회 회칙에 따라 농공동창회 회장이 농공장학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도록 하되 장학재단 회계연도가 12월 말이므로 이에 따른 일정에 맞추어 장학재단의 이사회에서 임원 개선이 되도록 하였다.

1992년도에는 장학재단에 고재군(농대, 1951) 전 농공동창회 회장이 1,000,000원을, 정창

표 1–11 장학생 선발 규정

장학생 선발 규칙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1. 장학생 자격 요건

(1) 애국사상 · 효친사상이 투철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학과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3) 학과장의 추천이 있는 학생
(4) 직전 학년의 1, 2학기 평균성적이 4.3 기준 3.0 이상인 학생

2. 결격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없다.

(1) 휴학, 군입대,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자
(2) 다른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장학금의 수혜가 있는 자
(3) 기타 재단 장학사업의 취지 및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3. 구비서류

장학생 추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전 학년도 성적증명서 1부

4. 기타

(1) 2학기 장학생 추천 대상이 되는 1학기 장학금 수혜자 중 2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학년에서 보궐,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1학기에 이어 2학기에 재추천하는 장학생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주(농대, 1953) 재단이사가 1,000,000원을 희사하여 총액 2,000,000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였다. 1991년도에 출연한 기금 중에서 25,000,000원을 증자하여 1992년도의 장학재단 기본재산 총액은 137,000,000원(1992. 2. 24)에 이르렀고, 보통재산은 전기이월금과 출연금, 기본재산 이자와 보통재산 이자로 이루어지는 수입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농공학과 시설지원금과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 13,356,936원을 차기로 이월하였다.

1992년도의 제1학기 장학생은 10명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신상호(4) · 신형주(4) · 하좌근(4), 농업기계 전공 김국환(4) · 연홍석(4) · 이광제(4) · 조병

관(4)에게 각각 649,500원씩을 지급하였으며,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윤성수(2)와 이도섭(2), 농업기계 전공 우상하(2)에게 각각 649,500원씩 합계 6,495,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제2학기 장학생은 농업토목 전공 신상호(4) · 신형주(4) · 임효선(4) · 하좌근(4), 농업기계 전공 김국환(4) · 유동호(4) · 이광제(4) · 조병관(4)에게 각각 649,500원씩을 지급하였으며,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윤성수(2), 농업기계 전공 우상하(2)에게 각각 649,500원씩 합계 6,495,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1993년도 농공장학재단 제1차 이사회의(1993. 4. 1)에서 1992 회계연도 결산보고 및 1993 회계연도 예산보고가 있었고, 이상호 농공동창회 회장의 이사 취임 승인(1993. 3. 2) 보고가 있었다. 또한 심의 안건으로 제2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이상호(농대, 1952) 동문이 선임되었으며, 이희영 재단이사 후임으로 김경욱(농대, 1968) 동문이 신임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199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심의가 있었다. 제2차 이사회의(1993. 9. 23)에서 이철주 전 이사장과 이상호 신임이사장의 인수인계(1993. 9. 22)가 되었음을 보고하고, 임원 변경으로 이상호 이사장 취임, 이철주 재단이사 취임, 김경욱 재단이사의 상임이사 취임, 유근학 재단이사의 연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제29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이철주 전임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그리고 장학재단 기본재산에 출연하신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와 72학번 동기회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철주 전임 이사장은 농공동창회의 정관 변경에 따른 조기 사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이때에 윤대섭 재단이사의 강력한 권유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3년간을 유지하면서 장학재단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1993년도는 장학재단에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가 10,000,000원(1993. 3. 3)을, 이상호(농대, 1952) 장학재단 이사장이 1,000,000원(1993. 10. 10)을 희사하여 장학기금으로 총 11,000,000원이 출연되었으나 기본재산으로 증자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30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94. 10. 3)에서 장학재단에 출연하신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1993년도의 장학재단 기본재산액은 137,000,000원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보통재산은 전기이월금과 출연금, 기본재산 이자와 보통재산 이자로 이루어지는 총수입금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농공학과 시설지원금과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 19,203,785원이 차기로 이월되었다.

1993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강민구(4) · 이강민(4) · 정형석(4), 농업기계 전공 김대호(4) · 신상규(4) · 류일훈(3) · 임도형(2)에게 각각 731,000원씩을 지급했으며,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우철웅(2)과 최병옥(2), 농업기계 전공 김채주(2)에게 각각

731,000원씩 합계 7,310,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제2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강민구(4) · 이강민(4) · 정형석(4), 농업기계 전공 김대호(4) · 신상규(4)에게 각각 731,000원씩을, 또 농업기계 전공 류일훈(3)에게 746,000원과 정영주(2)에게 762,000원을 지급했으며,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우철웅(2)과 최병옥(2), 농업기계 전공 김채주(2)에게 각각 812,000원씩 합계 7,599,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여기서 학부생의 장학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매년 등록금이 인상됨에 따라 2, 3, 4학년생의 등록금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1994년도 장학재단 제2차 이사회의(1994. 3. 5)에서는 1993년도 장학재단의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및 199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수원교육청에 보고한 내용의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토의사항으로 기본재산의 증자금액(5천2백만 원)에 따른 정관 개정에 관한 것과 이사 갱신에 대한 것, 장학생 선정과 지급액에 대한 것이 있었다. 그러나 제3차 이사회의(1994. 5. 13)에서 기본재산을 2억 원으로 만들기 위해 현 기본재산 137,000,000원에 추가로 윤대섭 재단이사의 출연금에서 1천만 원(1993. 3. 3), 윤대섭 재단이사의 출연금에서 1천만 원(1994. 3. 22), 유화증권의 만기이자에서 1천만 원(1994. 3. 30), 농공동창회의 기금에서 3천3백만 원(1994. 3. 30)을 합하여 63,000,000원을 만들어 증자금액으로 충당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정관 제20조 1항 규정에 따라 이사 중에서 특수관계이사(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이사)의 숫자가 이사 정수의 1/5 이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재단이사가 3명이나 되므로 그 중에서 1명을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토의한 결과로 재단 정관을 고쳐 이사 정수를 2명 늘리는 방안으로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수원교육청으로부터 기본재산 2억 원으로 변경(1994.6.2)과 이사 정수를 13명에서 15명으로 변경(1994.5.24)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박승우(농대, 1967) 동문을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김재곤(농대, 1951) 감사 후임으로 조범호(농대, 1958) 동문을 감사로 선임하였다. 제30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94. 10. 3)에서 제15대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엄태영(농대, 1953) 동문을 추대하였다.

1994년도는 장학재단에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유화증권(주))가 10,000,000원(1994. 3. 22)을, 고재군(농대, 1951) 농공동창회 전 회장이 3,000,000원(1994. 6. 1)을 희사하였으며, 유화증권의 만기이자에서 1천만 원(1994. 3. 30)과 농공동창회에서 출연한 33,000,000원을 합하여 장학기금으로 출연된 총 금액은 56,000,000원이었다. 이 중에서 53,000,000원과 윤대섭 재단이사가 출연한 10,000,000원(1993. 3. 3)을 합해 63,000,000원을 증자하여 1994년도의 장학재단 기본재산 총액을 200,000,000원으로 확충시켰다(1994. 6. 2). 보통재산은 전기이월금과 출연금, 기본재산 이자와 보통재산 이자로 이루어지는 총수입금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농공학과 시설지원금과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 23,069,619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넘겼다.

1994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강석(4) · 박수훈(4) · 배연정(4) · 유기섭(4), 농업기계 전공 김민수(4) · 류일훈(4) · 이동렬(4)에게 각각 831,500원씩을, 또 농업기계 전공 전성필(2)에게 867,500원을 지급했으며,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고광돈(1), 농업기계 전공 김대호(1)에게 각각 1,084,500원씩 합계 8,857,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박수훈(4) · 배연정(4) · 유기섭(4) · 정종홍(4), 농업기계 전공 김민수(4) · 류일훈(4) · 이동렬(4)에게 각각 831,500원씩을, 또 농업기계 전공 신유성(4)에게 867,500원을 지급했으며,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고광돈(1), 농업기계 전공 김대호(1)에게 각각 977,500원씩 합계 8,643,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1995년도 장학재단 제1차 이사회의(1995. 1. 24)에서는 1994년도의 결산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엄태영(농대, 1953) 동문이 15대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추대됨에 따라 엄태영 동문을 농공장학재단의 제3대 이사장으로 선임하였으며, 당연직 임원의 사퇴를 인준하고, 2명의 이사 충원에 관련한 업무를 이사장에게 일임하기로 한 후에 1995년도의 예산(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제2차 이사회의(1995. 4. 13)에서는 신임 재단이사로 김환종(농대(전), 1946) 동문과 지근진(농대, 1958) 동문을 선임하였으며, 제1학기 장학생 10명을 선발 · 승인하였다. 제3차 이사회의(1995. 8. 22)에서는 제2학기 장학생 10명을 선발 · 승인하고, 배정길 감사의 후임으로 정하우(농대, 1959) 동문을 감사로 선임했다. 그리고 김환종(농대(전), 1946) 재단이사가 농공장학재단으로 5백만 원을 희사하였다는 것과 고 이창구 교수 추모기념사업의 진행 보고가 있었다.

1995년도는 장학재단에 고 이창구 교수의 동상제막에 따른 감사로 유족들이 5,000,000원을, 동상제막을 추진한 추모회에서 5,000,000원을, 또한 김환종(농대(전), 1946) 재단이사가 5,000,000원을 희사하여 장학기금으로 총 15,000,000원을 모금하였다. 1995년도의 장학재단 기본재산액은 200,000,000원으로 변동이 없었고, 보통재산은 전기이월금과 출연금, 기본재산 이자와 보통재산 이자로 이루어지는 총수입금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농공학과 시설지원금과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 29,567,380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넘겼다.

1995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박우식(4) · 배승종(4) · 장주흠(4) · 최승만(4), 농업기계 전공 이재훈(4) · 신유성(3) · 이성욱(3) · 박주헌(2)에게 각각 965,500원씩을 지급했으며,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고광돈, 농업기계 전공 김대호에게 각각 1,144,500원씩 합계 10,013,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박우식(4) · 배승종(4) · 장주흠(4) · 최승만(4), 농업기계 전공 이재훈(4) · 신동준(3) · 이성욱(3) · 박주헌(2)에게 각각 965,500원씩을 지급했으며,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고광돈, 농업기계 전공 김대호에게 각각 1,144,500원씩 합계 10,013,000원을 전액 등록

표 1-12 1996년도 장학생 명단과 추천 내역

성명	학년	추천사유	등록금액(원)	비고
김성일	4	성적우수 · 모범생으로 지도교수 추천자임.	1,108,000	
김성필	4	성적우수 · 모범생으로 지도교수 추천자임.	1,108,000	농업토목
라준엽	4	학회활동	1,108,000	전공
이대희	4	학회장(학과회장)	1,108,000	
엄명철	대학원 박1	성적우수 · 모범생으로 지도교수 추천자임.	1,520,000	
계	5명		5,952,000	
성명	학년	추천사유	등록금액(원)	비고
박정인	4	성적우수 · 모범생으로 지도교수 추천자임.	1,108,000	
신유성	4	성적우수 · 모범생으로 지도교수 추천자임.	1,108,000	농업기계
이성욱	4	성적우수 · 모범생으로 지도교수 추천자임.	1,108,000	전공
최창호	4	성적우수 · 모범생으로 지도교수 추천자임.	1,108,000	
김우기	대학원 석2	성적우수 · 모범생으로 지도교수 추천자임.	1,369,000	
계	5명		5,801,000	

금으로 지급하였다.

1996년도 장학재단 제1차 이사회의(1996. 2. 14)에서는 제1학기 장학생 선발과 인준이 있었고, 기본재산에 대한 5천만 원의 증자문제를 결정했다. 재원은 농공동창회의 기금에서 1천만 원, 고 이창구 교수 추모기금에서 1천만 원, 김환종(농대(전), 1946) 재단이사의 5백만 원,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의 2천만 원(1996. 2. 14), 그리고 장학재단의 보통재산에서 5,000,000원을 출연하여 충당하기로 하였다. 제2차 이사회의(1996. 8. 20)에서 장학재단 기본재산이 2억 5천만 원(1996. 4. 14)으로 증자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제2학기 장학생의 선발과 인준이 있었는바 특별한 것은 이때부터 장학생들의 선발 대상이 박사과정까지 확대되었다.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학과에서 추천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추천서의 내용을 보면, 표 1-12와 같이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생인 자, 학회활동이 우수한 자, 학과 학생회장 등 학과를 위한 학문이나 학생활동에 기여한 자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농공동창회의 임원 개선에 따라 장학재단 이사회 임원들의 변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바 농공장학재단의 이사장과 농공동창회 회장의 임기의 시작 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그동안 업무진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공동창회 정기총회 이전에 농공동창회 확대임원회의에서 농공동창회 회장을 미리 추천하는 관례에 따라 농공장학재단의 상임이사를 조기에 지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신임 재단이사로 이정재(농대, 1969) 동문을 선임하였다. 제32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96. 10. 3)에서는 제16대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유근학(농대, 1955) 동문을 추대하였다.

1996년도는 장학재단에 김환종(농대(전), 1946) 재단이사가 5,000,000원을, 유한홍(농대, 1949) 재단이사가 10,000,000원을,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가 20,000,000원을, 고재군(농대, 1951) 전 동창회장이 3,000,000원을, 지근진(농대, 1958) 재단이사가 2,000,000원을, 농공동창회에서 10,000,000원을 희사하여 총 50,000,000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였다. 1996년도 장학재단 기본재산액은 총 250,0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1996. 4. 14), 보통재산은 전기이월금과 출연금, 기본재산 이자와 보통재산 이자로 이루어지는 총수입금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농공학과 시설지원금과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19,877,737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넘겼다.

1996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성일(4) · 김성필(4) · 라준엽(4) · 이대희(4), 농업기계 전공 박정인(4) · 신유성(4) · 이성욱(4) · 최창호(4)에게 각각 1,108,000원씩을 지급했으며, 박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엄명철(1)에게 1,520,000원을 지급했고, 석사과정의 농업기계 전공 김우기(2)에게는 1,369,000원을 지급해, 합계 11,753,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성일(4) · 김성필(4) · 라준엽(4) · 이대희(4), 농업기계 전공 박정인(4) · 신유성(4) · 이성욱(4) · 최창호(4)에게 각각 1,108,000원씩을 지급했으며, 박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엄명철(1)에게 1,520,000원을 지급했고, 석사과정의 농업기계 전공 김종순(2)에게는 1,402,000원을 지급해, 합계 11,786,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1997년도 장학재단 제1차 이사회의(1997. 2. 14)에서는 1996년도 장학재단의 결산보고 및 1997년도 사업보고를 의결하였고, 지난해에 실시한 장학생 선발 사유의 명시에 대한 타당성 토론을 거쳐 장학생 대상자의 선정은 모교 재직 교수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이사회에서 승인 절차만을 거치도록 결의했다. 그리고 기본재산에 3천만 원을 증자하기로 의결했다. 재원은 이월된 유한홍(농대, 1949) 동문의 출연금 1천만 원과 윤대섭(농대, 1949) 이사의 출연금 2천만 원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제2차 이사회의(1997. 4. 16)에서 기본재산의 증자 금액에 대하여 윤대섭(농대, 1949) 이사로부터 추가로 출연한 2천5백만 원을 합하여 5천5백만 원을 증자하기로 수정 의결하였다. 그리하여 장학재단의 총 기본재산액은 305,000,000원(1997. 7.1)으로 증자 허가를 받았다. 제3차 이사회의(1997. 8. 29)에서는 유근학(농대, 1955) 재단이사가 제32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96. 10. 3)에서 제16대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추대됨에 따라 이사장으로 선임하였고, 엄태영 이사장의 사임과 이사로의 취임을 승인하였으며, 박승우 상임이사의 후임으로 이정재(농대, 1969) 동문을 상임이사로 선임하였다. 그러나 재단이사들의 임기 조정에 따른 행정 절차상의 오류가 발생하여 일정이 다소 늦은 6월에 이르러 유근학 이사장의 법적 취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2학기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을 승인하였다.

1997년도는 장학재단에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가 2월에 20,000,000원, 3월에 25,000,000원을 희사하여 총 45,000,000원이 기본재산의 증자에 활용되었다(1997. 7. 1). 1997년도의 장학재단 기본재산액은 총 305,000,000원으로 증가되었고, 보통재산은 전기이월금과 출연금, 기본재산 이자와 보통재산 이자로 이루어지는 총수입금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농공학과 시설지원금과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19,425,202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넘겼다.

1997년도의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준희(4) · 박승찬(4) · 서교(4) · 서동욱(4), 농업기계 전공 김종언(4)과 임정호(4)에게 각각 1,200,000원씩, 또 농업기계 전공 김경출(3)과 현충호(3)에게 각각 1,228,000원씩을 지급했으며, 박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강문성(1)에게 1,683,000원을 지급하였고, 석사과정의 농업기계 전공 최현준(2)에게 1,523,000원을 지급해, 합계 12,862,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대일(4) · 서교(4) · 서동욱(4) · 이강민(4), 농업기계 전공 김종언(4)과 임정호(4)에게 각각 1,200,000원씩, 또 농업기계 전공 김경출(3)과 현충호(3)에게 각각 1,228,000원씩을 지급했으며, 박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강문성(1)에게 1,560,000원을 지급하였고, 석사과정의 농업기계 전공 정병학(1)에게 1,560,000원을 지급해, 합계 12,776,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1998년도 장학재단 제1차 이사회의(1998. 2. 11)에서는 1997년도의 결산보고가 있었고, 1998년도의 예산(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그리고 1998년도 제1학기 장학생 수혜자를 학부 8명과 대학원생 2명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제2차 이사회의(1998. 4. 10)에서는 이사 보선에 대한 결정이 있었고,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가 희사한 5천만 원(1998. 3. 30)을 장학재단 기본재산으로 증자하기로 의결하였다. 제3차 이사회의(1998. 7. 15)에서 이사회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4차 이사회의(1998. 8. 28)에서 장학재단 목적사업비의 지출 규정을 충족하도록 장학생의 숫자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에 따라 2명의 장학생을 제2학기부터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장학생의 추천 건에 대해 승인하였다. 제5차 이사회의(1998. 11. 6)에서는 제34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98. 10. 3)에서 홍승만(농대, 1957) 동문이 제17대 동창회장으로 추대됨에 따라 장학재단의 제5대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장학재단 이사들의 연임(엄태영)과 신임(박원규), 해임(이철주)의 의결이 있었으며, 조범호 감사의 후임으로 변양석(농대, 1959) 동문을 선임하였다. 또한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이 3억 5천5백만 원(1998. 10. 2)으로 증자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제6차 이사회의(1998. 12. 11)에서는 모교의 학제 개편에 따라 장학재단의 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대학의 명칭 및 수혜 대상의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초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당해년 결산보고와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그리고 동

문들이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쉽게 낼 수 있도록 은행 구좌를 신설하도록 했으며, 등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재단 이사의 임기를 비슷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1998년도는 장학재단에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가 50,000,000원을 장학기금으로 희사하였다. 1998년도의 장학재단 기본재산액은 총 355,0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1998. 10. 2), 보통재산은 전기이월금과 출연금, 기본재산 이자와 보통재산 이자로 이루어지는 총수입금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농공학과 시설지원금과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 16,144,940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넘겼다.

1998년도의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성태(4) · 김형진(4) · 전종완(4) · 편기현(4), 농업기계 전공 남기찬(4) · 박영준(4) · 정철호(4)에게 각각 1,200,000원씩, 또 농업기계 전공 이기재(3)에게 1,228,000원을 지급했으며, 박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이호재(1)에게 1,683,000원을 지급하고, 석사과정의 농업기계 전공 이정엽(2)에게 1,523,000원을 지급해, 합계 12,834,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학기 장학생은 기본재산 이자수입의 증가로 인해 12명으로 증원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성태(4) · 김형진(4) · 전종안(4) · 조운(4), 농업기계 전공 박영준(4)과 현충호(4)에게 각각 1,234,000원씩, 또 농업기계 전공 구승범(3)과 이호석(3)에게 각각 1,262,000원씩을 지급했으며, 박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원정윤(1)에게 1,66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권명준(1)에게 1,667,000원을, 농업기계 전공 이종수(2)에게 1,626,000원을, 또 이주완(1)에게 1,667,000원을 지급해, 합계 16,555,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1999년도 장학재단 제1차 이사회의(1999. 2. 11)에서 본교의 학제 변경에 따라 장학재단의 정관 중에서 목적(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사업(제4조), 법인 공여 수익의 수혜자(제5조)에서 농과대학을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그리고 수혜자의 대상을 농공학과 재학생에서 농공학을 전공하는 재학생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취지를 의장이 설명하고, 이를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1998년도의 결산안과 신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1999년도 제1학기 장학생의 수는 기본재산의 이자수익율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장학생을 10명으로 축소 승인했으며, 장학생들의 추천 사유와 성적표를 첨부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제2차 이사회의(1999. 3. 12)에서 농공동창회 주관으로 추진된 제5차 장학기금 모금을 위해 농공동창회 전 회원들에게 모금에 관련한 안내문을 보내기로 의결했으며, 이정재 상임이사의 대학본부 보직수행으로 인하여 후임으로 조성인(농대, 1977) 동문을 상임이사로 선임하였다. 제3차 이사회의(1999. 5. 21)에서 지난 3월에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가 출연한 5천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증자할 것을 추인하였다. 제4차 이사회의(1999. 7. 14)에서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

라 김환종 이사 후임으로 이희영(농대, 1950) 동문을 그리고 김원세 이사 후임으로 고학균(농대, 1958) 동문을 선임하였다. 또 농공동창회에서 추진한 특별장학기금의 모금으로 1999년 7월 12일까지 기부된 8백3십만 원을 1차적으로 기본재산으로 증자할 것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제2학기 장학생 10명의 선발에 대한 승인을 했다. 제6차 이사회의(1999. 12. 3)에서 정관 변경과 임원 변경에 따른 등기 완료됨과 장학기금의 모금액이 9백2십만 원에 이른다는 현황 보고가 있었다. 장학기금 모금에 참여 동문들과 출연 금액은 부록 표 4-20과 같다.

1999년도는 장학재단에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가 50,000,000원(1999. 3. 31)을, 그리고 12월에 70,000,000원(유화증권: 5천만 원, 성보화학: 1천만 원, 일동통상: 1천만 원)을 희사하였다.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모금을 통하여 12월까지 9,550,000원이 입금되어 총 129,550,000원이 출연되었다. 이 중에서 7월 12일까지 모금되었던 윤대섭 재단이사의 출연금 50,000,000원과 농공동창회의 모금액 중에서 8,300,000원을 우선적으로 기본재산으로 증자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장학재단 기본재산액은 총 413,3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1999. 9. 16). 또한 9,550,000원 모금액 중에서 1백만 원 이상 출연한 동문은 정창주(농대, 1953) 재단이사가 1,000,000원, 유근학(농대, 1955) 재단이사가 1,000,000원, 권오완(농대, 1956) 동문이 1,000,000원, 홍승만 농공동창회장이 1,000,000원, 김철중(농대, 1964) 동문이 2,500,000원을 각각 출연하였다. 보통재산은 전기이월금과 출연금, 기본재산 이자와 보통재산 이자로 이루어지는 총수입금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농공학과 시설지원금과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21,609,282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넘겼다.

1999년도의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기성(4) · 이경도(4) · 이동호(4) · 최용준(4), 농업기계 전공 공대광(4) · 김정욱(4) · 윤승환(4) · 최선종(4)에게 각각 1,257,000원씩을 지급했으며, 박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성필(1)에게 1,897,000원을 지급하였고, 석사과정의 농업기계 전공 안은수(1)에게 1,897,000원을 지급해, 합계 13,850,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기성(4) · 이경도(4) · 이호상(4) · 최용준(4), 농업기계 전공 구승범(4)과 제영호(4)에게 각각 1,306,000원씩, 또 농업기계 전공 이광희(3)과 조훈구(3)에게 각각 1,337,000원씩을 지급했으며,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송인홍(1), 농업기계 전공 안은수(1)에게 각각 1,849,000원씩을 지급해, 합계 14,208,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2000년도 장학재단 제1차 이사회의(2000. 1. 14)에서 1999년도의 결산보고와 신년도 예산안을 심의 · 의결했다. 그리고 2000년도 제1학기 장학생 수를 11명으로 늘리고 이에 따른 장학금 지급 계획에 대한 심의와 기본재산 증자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제2차 이사회의(2000. 3. 24)에서 기본재산 7천만 원의 증자(2000. 2. 18)가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장학생의 장학

금 지급 내역에 대한 보고와 임원의 보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바 고재군 재단이사의 후임으로 허유만(농대, 1963) 동문을 선임했다. 제3차 이사회의(2000. 8. 28)에서 제2학기 장학생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 또한, 장학재단의 기본재산 관리를 유화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하도록 이관하기로 하였다. 제4차 이사회의(2000. 11. 3)에서 조범호(농대, 1958) 재단이사가 제36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18대 농공동창회 회장(2000. 10. 3)으로 추대됨에 따라 홍승만 이사장의 후임으로 장학재단의 제6대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2000년도는 장학재단에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가 12월에 총 80,000,000원[유화증권(주): 5천만 원, 성보화학(주): 2천만 원, 일동통상(주): 1천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희사하였다. 2000년도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은 1999년도에 윤대섭 재단이사가 출연한 70,000,000원을 증자한 것을 합하여 총 483,3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2000. 2. 18), 보통재산은 전기이월금과 출연금, 기본재산 이자와 보통재산 이자로 이루어지는 총수입금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농공학과 시설지원금과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944,312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넘겼다.

2000년도의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은수(4) · 김재형(4) · 조호석(4), 농업기계 전공 박종혁(4)과 조정효(4)에게 각각 1,463,000원씩을, 또 농업기계 전공 정왕조(3)에게 1,499,000원을 지급했으며, 박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강민구(1)과 장민원(1), 농업기계 전공 채희연(1)에게 각각 2,29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며, 석사과정의 농업기계 전공 황진성(2)에게 2,112,000원과 최상현(1)에게 2,290,000원을 지급해, 합계 20,086,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재형(4) · 임재천(4) · 황선일(4), 농업기계 전공 김상범(4) · 조훈구(4) · 이대웅(3)에게 각각 1,463,000원씩을 지급했으며, 박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강민구(1)과 장민원(1), 농업기계 전공 김유용(1)에게 각각 2,167,000원씩을 지급하였고,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송인홍(2), 농업기계 전공 백승규(2)에게 각각 2,112,000원씩을 지급해, 합계 19,503,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2001년도 장학재단 제1차 이사회의(2000. 1. 12)에서 2000년도의 결산보고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 · 의결하였으며, 2000년도에 윤대섭 이사가 출연한 8천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증자하기로 하였다. 제2차 이사회의(2001. 2. 23)에서 기본재산의 증자하는 허가(2001. 2. 6)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고, 결의사항으로 2001년도 제1학기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액을 승인하였으며, 조성인 상임이사의 사임으로 후임에 이중용(농대, 1977) 동문을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 제3차 이사회의(2001. 8. 20)에서 제2학기 장학생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

2001년도는 장학재단에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가 12월에 총 70,000,000원[유화증권(주): 5천만 원, 일동통상(주): 1천만 원, 성보화학(주): 1천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희사하였다. 2001년

도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은 2000년에 출연된 80,000,000원을 증자하여 총 563,3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2001. 2. 6), 보통재산은 전기이월금과 출연금, 기본재산 이자와 보통재산 이자로 이루어지는 총수입금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농공학과 시설지원금과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 5,964,279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넘겼다.

2001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정형택(4)과 최은호(4), 농업기계 전공 가상현(4)과 권상욱(4)에게 각각 1,573,000원씩을, 또 농업토목 전공 김락중(3), 농업기계 전공 임수인(3)에게 각각 1,611,500원씩을 지급했으며, 박사과정의 농업기계 전공 김유용(1)에게 2,274,500원을 지급하였고,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조영현(1)과 허준(1)에게 각각 2,403,500원씩, 농업기계 전공 모창연(2)과 박영준(2)에게 각각 2,274,500원씩을 지급해, 합계 21,145,5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만수(4)와 전기설(4), 농업기계 전공 박기준(4)과 박종혁(4)에게 각각 1,527,500원씩을. 또 농업토목 전공 이민권(3), 농업기계 전공 전홍규(3)에게 각각 1,564,500원씩을 지급했으며, 박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배승종(1)에게 2,403,500원을 지급하였고,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재형(1)과 조영현(1), 농업기계 전공 안용구(2)와 김은수(1)에게 각각 2,274,500원씩을 지급해, 합계 20,740,5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2002년도 장학재단 제1차 이사회의(2002. 1. 11)에서 2001년도의 결산보고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 · 의결하였으며, 2001년도에 윤대섭 재단이사가 출연한 70,000,000원을 기본재산으로 증자하기로 하였다. 장학생 수와 지급액에 대한 3가지 제안 중에서 제1안인 학부생 12명과 대학원생 6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안을 채택하였다(표 1-13 참조). 그리고 학과지원금을 포함하여 목적사업비 비율을 70.27%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2차 이사회의(2002. 2. 15)에서 2002년도 제1학기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액을 승인하였으며, 제3차 이사회의(2002. 4. 17)에서 장학재단 기본재산의 증자를 수원교육청에 허가(2002. 3. 2)를 받고 등기를 완료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제5차 이사회의(2002. 8. 14)에서 제2학기 장학생 선발과 승인이 있었다. 제6차 이사회의(2002. 12. 20)에서 정하우(농대, 1959) 감사가 제38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19대 농공동창회 회장(2002. 10. 3)으로 추대됨에 따라 조범호 이사장의 후임으로 장학재단의 제7대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2002년도는 장학재단에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가 80,000,000원[유화증권(주): 5천만 원, 성보화학(주): 1천만 원, 일동통상(주): 2천만 원], 이중용 이사가 1,000,000원을 희사하여 총 81,000,000원을 출연하였다. 2002년도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은 2001년에 출연된 7천만 원을 증자하여 총 633,3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2002. 3. 2), 보통재산은 전기이월금과 출연금, 기

표 1-13 장학금 배분 방안

구분	지원방안	장학생 수	장학금 총액(원)	예산대비 목적사업비 비율	비고
1안	전액장학금	대학원 6명 학부 12명	35,428,350	70.27% (학과지원금 포함)	입학금 포함 (2명×135,450원)
2안	전액장학금	대학원 4명 학부 16명	36,926,900	73.07% (학과지원금 포함)	
3안	기성회비	대학원 8명 학부 14명	36,793,900	72.83% (학과지원금 포함)	

본재산 이자와 보통재산 이자로 이루어지는 총수입금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농공학과 시설지원금과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 2,333,267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넘겼다.

2002년도 기본재산의 이자수익금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장학금을 9명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강동성(4) · 김만수(4) · 정명재(4), 농업기계 전공 이덕호(4)와 진우성(4)에게 각각 1,668,000원씩을, 또 농업기계 전공 최상명(3)에게 1,709,000원을 지급했으며, 박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서교(1)에게 2,791,000원, 농업기계 전공 장금송(2)에게 2,289,000원을 지급하였고, 석사과정의 농업기계 전공 이호상(2)에게 2,289,000원을 지급해, 합계 17,892,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장태일(4)과 한이철(4), 농업기계 전공 김민정(4)에게 각각 1,668,000원씩을, 또 농업토목 전공 황세운(3), 농업기계 전공 박백순(3)과 이왕희(3)에게 각각 1,709,000원씩을 지급했으며, 박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박미정(1)에게 2,495,000원을 지급하였고,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심상원(1)에게 2,495,000원, 농업기계 전공 서민(1)에게 2,360,000원을 지급해, 합계 17,481,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2003년도 장학재단 제1차 이사회의(2003. 1. 23)에서 2002년도의 결산보고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 · 의결하였으며, 2002년도에 장학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8천1백만 원과 정하우 이사장이 출연한 2백만 원(2003. 1. 23)을 합하여 총 8천3백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증자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엄태영 재단이사의 후임으로 최찬식(농대, 1956) 동문을 이사로 그리고 정하우 이사장 취임에 따른 감사의 후임으로 장정수(농대, 1964) 동문을 감사로 선임했다. 제2차 이사회의(2003. 2. 19)에서 이자수익금의 감소와 등록금의 증대로 인하여 장학생 수를 7명으로 줄여 2003년도 제1학기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액을 승인하였다. 장학생들에 대한 추천 정보에 새롭게 출신고교를 추가하여 지역성의 편중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표 1-14 참조). 제3차 이사회의(2003. 6. 20)에서 임원 개선에 따라 조범호(농대, 1958) 전임 이사장과 김철중(농

표 1-14 장학금 수혜자의 추천 정보(2003년도 1학기)

수혜자				추천 사유	지급내역	
전공	학년	성명	출신고		학기	지급액(원)
농업토목	학부 3년	박성직	수원 창현고	성적 우수	1학기	1,966,000
	학부 4년	황세운	진주 동명고	성적 우수	1학기	1,822,000
	석사 1년	장태일	대구 협성고	성적 우수	1학기	2,712,000
농업기계	학부 3년	백영기	강원과학고	성적 우수	1학기	1,966,000
	학부 4년	이왕희	창원 창신고	성적 우수	1학기	1,822,000
	학부 4년	최준호	광주 문성고	성적 우수	1학기	1,822,000
	박사 2년	이희영	포항고	성적 우수	1학기	2,519,000
	합 계	7명				14,629,000

별첨: 학생카드 및 성적표 사본 참조.

대, 1964) 동문을 신임 이사로 선임하였다. 그리고 농공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현직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그리고 본 재단이사로 역임하였던 이사들 중에서 몇 분을 임명직으로 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 운영과 기금 운영 등을 자문 받도록 하는 안을 심의 · 의결했다. 이는 새로운 이사들과 초창기 이사들이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부록 표 1-2-4 참조). 제4차 이사회의(2003. 8. 12)에서 제2학기 장학생 수혜자의 승인이 있었고, 기타 안건으로 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관 35조를 근거로 하여 세칙으로 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자문위원회는 전임 농공장학재단 이사를 역임하였던 자로 구성하고, 연1회 재단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차 이사회의(2003. 10. 24)에서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관악이전에 따라 장학재단 사무소의 소재지를 수원에서 서울시 관악구 신림 9동 산 56-1 서울대학교 농생대 상록관 내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농공학과 설립 60년을 맞이하여 『농공 60년』 발간을 장학재단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재단으로 납입된 기부금 영수증은 장학재단 명의로 발급하도록 하는 안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광고와 관련한 안내문을 70개 업체에 발송했다(2003. 12. 8).

2003년도는 장학재단에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가 170,000,000원[개인재산: 1억 원, 유화증권(주): 5천만 원, 일동통상(주): 1천만 원, 신사상가(주): 1천만 원], 최찬식(농대, 1956) 재단이사가 5,000,000원, 이병철(농대, 1959) 동문이 2,000,000원, 정하우(농대, 1959) 이사장이 2,000,000원, 장길평(농대, 1962) 동문이 10,000,000원, 이중용(농대, 1977) 재단이사가 1,000,000원을 출연하여 총 190,000,000원을 장학재단 장학기금으로 출연했다. 2003년도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은 2002년과 2003년 초에 출연한 83,000,000원을 증자하여 총 716,3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2003. 3. 5), 보통재산은 전기이월금과 출연금, 기본재산 이자와 보통재산 이자 그리고 농공 60년사의 기금모금액(1천6백5십만 원)으로 이루어지는 총수입금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농공학과 시설지원금과 농공 60년사의 지원 예정금액(1천6백5십만 원)과의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 5,001,677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넘겼다.

2003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황세운(4), 농업기계 전공 이왕희(4)와 최준호(4)에게 각각 1,822,000원씩을, 또 농업토목 전공 박성직(3), 농업기계 전공 백영기(3)에게 각각 1,966,000원씩을 지급했으며, 박사과정의 농업기계 전공 이희영(2)에게 2,519,000원을 지급하였고,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장태일(1)에게 2,712,000원을 지급해, 합계 14,629,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황세운(4), 농업기계 전공 정훈의(4)에게 각각 1,822,000원씩을, 또 농업토목 전공 권성길(3)과 이은정(3), 농업기계 전공 이상훈(3)에게 각각 1,966,000원씩을 지급했으며,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한이철(1), 농업기계 전공 황성규(1)에게 각각 2,712,000원씩을 지급해, 합계 14,966,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2004년도 제1차 이사회의(2004. 1. 9)는 현 이사들과 자문위원들의 연석회의로 진행하였다. 여기서 『농공 60년』 발간을 위해 기부금 사용 승인을 위한 신청서 제출(2003. 12. 26)에 대해 기부금을 보통재산으로 산입하여 사용해도 좋다는 감독관청의 승인(2004. 1. 3)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2003년도의 결산과 200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으며, 장학재단의 정관 제4조 사업 중에서 목적사업에 학생들의 학사업무를 원활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농공학을 전공하는 학생 및 교수의 학사활동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게 정관 개정을 추진하도록 의결했다. 제2차 이사회의(2004. 2. 23)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이 증가됨에 따라 2004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 수혜자의 수를 6명으로 승인하였으며, 2003년도에 출연한 기금 중에서 잔여금 188,000,000원의 증자를 의결했다. 제4차 이사회의(2004. 8. 23)에서 제2학기 장학생 수혜자를 승인하였다. 또 장학재단의 사무소 소재지의 이전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관할 주무 관청을 경기도 수원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으로 이전 등기 완료(2004. 6. 23)하였고, 관할 세무서도 수원세무서에서 금천세무서로 이전 등기 완료(2004. 8. 18)되었음을 보고했다. 제5차 이사회의(2004. 11. 25)에서 주무 관청인 동작교육청으로의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지연되었던 장학재단의 기본재산 증자가 이루어져 904,300,000원으로 등기 완료(2004. 9. 10)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2004년도 결산과 200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변양석 감사의 후임으로 권진봉(농대, 1971) 동문을 선임하기로 하였다.

2004년도는 장학재단에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가 230,000,000원[윤대섭: 1억 5천만

원, 유화증권(주): 5천만 원, 성보화학(주): 1천만 원, 일동통상(주): 1천만 원, 신사상가(주): 1천만 원], 장병욱(농대, 1964) 재단이사가 1,000,000원을 희사하여 총 231,000,000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했다. 그 밖에 『농공 60년』을 발간하기 위한 기부금은 제외하였다. 2004년도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은 2003년에 출연된 190,000,000원 중에서 이미 증자된 2,000,000원을 제외한 188,000,000원을 장학재단 기본재산으로 증자하여 총 904,3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2004. 9. 10). 보통재산은 전기 이월금과 출연금, 기본재산 이자와 보통재산 이자로 이루어지는 총수입금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농공학과 시설지원금과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3,425,927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넘겼다.

2004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태곤(4), 농업기계 전공 이상훈(4)과 한성(4)에게 각각 2,114,000원씩을, 또 농업토목 전공 신정범(3)에게 2,247,000원을 지급했으며,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웅구(1)에게 2,961,000원, 농업기계 전공 황성규(2)에게 2,811,000원을 지급해, 합계 14,361,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태곤(4), 농업기계 전공 윤수호(4)에게 각각 2,114,000원씩을, 또 농업토목 전공 신정범(3), 농업기계 전공 이민욱(3)에게 각각 2,247,000원씩을 지급했으며,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조영경(1)에게 2,961,000원, 농업기계 전공 황성규(2)에게 2,766,000원을 지급해, 합계 14,449,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2005년도 제1차 이사회의(2005. 2. 18)에서 2004년에 장학기금으로 출연된 2억 3천1백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증자할 것을 의결했고, 2005년도의 제1학기 장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승인했다. 다만, 장학 대상에서 졸업 후 농공학 분야에서 더 활발히 활동하는 대학원생들에 대해 더 많은 배려를 원하는 학과로부터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제40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2004. 10. 3)에서 허유만(농대, 1963) 동문을 제20대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추대함에 따라 정하우 이사장 후임으로 허유만 재단이사를 장학재단의 제8대 이사장으로 선임하였으며, 허유만 이사의 후임으로 변양석 감사를 재단이사로 그리고 이중용 상임이사의 후임으로 최진용(농대, 1984) 동문을 선임했다. 제2차 이사회의(2005. 8. 16)에서는 231,000,000원의 증자가 서울시 동작교육청의 승인(2005. 5. 9)을 받아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이 1,135,300,000원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즉, 한 작은 학과 동창회가 10억이 넘는 장학재단 기본재산을 가진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일 뿐 아니라 또한 새로운 거대한 장학재단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2학기 장학금 수혜자는 제1차 이사회의에서 결정한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대학원생 수를 증원한 학과의 제안을 승인하였고, 임원 개선으로 박원규 재단이사의 후임으로 장정수(농대,

1964) 감사를 선임하였으며, 장정수 감사의 후임으로 서택동(농대, 1973) 동문을 선임했다. 제3차 이사회의(2005. 11. 29)에서 2004년도 결산과 2005년도의 예산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2005년도는 장학재단에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가 총 280,000,000원[윤대섭: 2억 원, 유화증권(주): 5천만 원, 성보화학(주): 1천만 원, 일동통상(주): 1천만 원, 신사상가(주): 1천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했다. 2005년도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은 2004년의 출연금액 231,000,000원을 장학재단 기본재산으로 증자하여 총 1,135,3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2005. 5. 9). 보통재산은 전기 이월금과 출연금, 기본재산 이자와 보통재산 이자와 법인세 환급금으로 이루어지는 총수입금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938,623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넘겼다.

2005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신정범(4), 농업기계 전공 양재일(4)과 이동욱(4)에게 각각 2,370,000원씩을, 또 농업토목 전공 황종섭(3)에게 2,416,000원을 지급했으며,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옥경(1), 농업기계 전공 심성보(1)에게 각각 3,121,500원씩을 지급해, 합계 15,769,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황종섭(3), 농업기계 전공 송황재(3)에게 각각 2,416,000원씩을 지급했으며,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신정범(1)과 오윤경(1), 농업기계 전공 이기욱(1)과 이상훈(1)에게 각각 3,121,500원씩을 지급해, 합계 17,318,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2006년도 제1차 이사회의(2006. 2. 21)에서 2005년도 결산에 대한 인준과 제1학기 장학생 수혜자를 학생카드와 성적표를 참조하여 매 학기 6명씩 지급하기로 승인하였으며, 2005년에 장학기금으로 출연된 2억 8천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증자할 것을 의결했다. 제2차 이사회의(2006. 4. 11)에서 기본재산이 1,415,300,000원으로 증자 등기 완료(2006. 4. 10)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임원 개선에서 정진호 재단이사와 홍승만 재단이사의 후임으로 각각 최현섭(농대, 1966) 동문과 김현영(농대, 1969) 동문을 선임하였다. 제3차 이사회의(2006. 8. 24)에서 제2학기 장학생을 승인했다. 제4차 이사회의(2006. 10. 9)에서는 제42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2006. 9. 9)에서 권상필(농대, 1964) 동문이 제21대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추대됨에 따라 허유만 이사장의 후임으로 권상필 동문을 제9대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제5차 이사회의(2006. 12. 20)에서 결산보고와 2007년 예산안을 심의 · 결정하였다. 제6차 이사회의(2006. 12. 29)에서 임원 개선이 있었는바 최찬식 재단이사의 후임으로 정진구(농대, 1965) 동문을 선임하였다.

2006년도는 장학재단에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와 가족이 총 460,000,000원[개인재산: 1억9천만 원, 윤태현: 1억 원, 유화증권(주): 1억 원, 성보화학(주): 2천만 원, 일동통상(주): 2천만 원, 신사상가(주): 1천만 원, 성보실업(주): 2천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했다. 2006년도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은 2005년에 출연한 윤대섭 재단이사의 280,000,000원을 장학재단 기본재산으로 증자하

여 총 1,415,3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2006. 4. 10). 보통재산은 전기 이월금과 출연금, 기본재산 이자와 보통재산 이자와 법인세 환급금으로 이루어지는 총수입금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 1,378,193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넘겼다.

2006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박종욱(4), 농업기계 전공 송황재(3)에게 각각 2,511,000원씩을 지급했으며,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서일환(1)과 이창구(1), 농업기계 전공 주창규(1)와 황기영(1)에게 각각 3,320,000원씩을 지급해, 합계 18,302,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송익균(3), 농업기계 전공 심민진(3)에게 각각 2,551,000원씩을 지급했으며,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이은정(2)과 함영주(2)에게 각각 3,085,000원씩, 농업기계 전공 박세홍(1)에게 3,320,000원과 이성대(1)에게 3,161,000원을 지급해, 합계 17,753,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2007년도 제1차 이사회의(2007. 2. 26)에서 2006년도 결산에 대한 인준과 제1학기 장학생 수혜자를 학생카드와 성적표를 참조하여 매 학기 6명씩 주기로 승인하였으며, 2006년에 장학기금으로 출연된 4억 6천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증자할 것을 의결했다. 그리고 고 고학균 재단이사의 후임으로 류관희(농대, 1963) 동문을 선임하였다. 제2차 이사회의(2007. 7. 19)에서 증자에 대한 진행사항의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한 진행과정에서 서울시 동작교육청으로부터 정관에 기록된 기본재산(1,875,300,000원)과 위탁자 잔고증명서에 기록된 취득가액(채권 1,866,638,785원)과의 차이를 보전하고, 현금에서 채권을 구입할 때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집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채권을 모두 매도한 후에 RP(환매조건부채권)상품을 매수하도록 의결하였다. 제2학기 장학생의 승인이 있었고, 임원 개선에서 조범호 재단이사의 후임으로 이창구(농대, 1966) 동문을,

표 1-15 2007년도 출연자와 출연 내역

기부자	종별	수량(주)	단가(원)	평가액(원)	비고
윤대섭	유화증권 보통주 유화증권 우선주	8,366 7,717	20,011 13,173	167,412,026 101,656,041	2007. 12. 21 (증권 예치)
윤태현	유화증권 우선주 유화증권 우선주	4,100 2,780	20,011 13,173	82,045,100 36,620,940	
성보화학(주)	현 금			20,000,000	2007. 12. 14~17
성보실업(주)	현 금			10,000,000	
(주)신사상가	현 금			10,000,000	
일동통상(주)	현 금			20,000,000	
합 계				447,734,107	

김철중 재단이사 후임으로 박승우(농대, 1967) 동문을, 지근진 재단이사 후임으로 홍병만(농대, 1969) 동문을 선임했다. 제3차 이사회의(2007. 9. 4)에서 기본재산이 1,875,300,000원으로 증자 등기 완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제2학기 장학생 중에서 석사과정 대상의 1명을 교체하기로 승인하였다. 제4차 이사회의(2007. 12. 11)에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 · 결정하였다.

2007년도는 장학재단에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와 가족이 총 447,734,107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했다. 그 내용은 표 1-15와 같다. 2007년도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은 2006년에 출연된 460,000,000원을 장학재단 기본재산으로 증자하여 총 1,875,3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2007. 8. 9). 보통재산은 전기 이월금과 출연금, 기본재산 이자와 보통재산 이자와 법인세 환급금으로 이루어지는 총수입금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7,186,253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넘겼다.

2007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중곤(3), 농업기계 전공 김준용(4)에게 각각 2,685,000원씩을 지급했으며, 박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노수각(1)에게 3,726,000원을 지급했고,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정한석(1), 농업기계 전공 심민진(1)과 임애리(1)에게 각각 3,726,000원씩을 지급해, 합계 20,274,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중곤(3), 농업기계 전공 김효진(4)에게 각각 2,685,000원씩을 지급했으며,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이상현(1)과 홍은미(1), 농업기계 전공 김수철(1)에게 각각 3,726,000원씩을, 또 농업기계 전공 임애리(1)에게 3,562,000원을 지급해, 합계 20,110,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2008년도 제1차 이사회의(2008. 2. 27)에서 2007년도 결산에 대한 인준과 제1학기 장학생 수혜자를 매 학기 6명씩 주기로 승인하였으며, 2007년에 장학기금으로 출연된 447,734,107원을 기본재산으로 증자할 것을 의결했다. 그리고 임기 완료된 임원을 개선하여 서병륜 재단이사 후임으로 윤여두(농대, 1969) 동문을, 변양석 재단이사 후임으로 이석우(농대, 1958) 동문을 선임하였다. 제2차 이사회의(2008. 8. 20)에서 제1차 이사회의 이후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가 500,000,000원의 현금을 출연(2008. 3. 31)함에 따라 2007년도에 출연된 60,000,000원과 합하여 현금 560,000,000원과 주식 22,963주(387,734,107원)으로 이루어진 총 947,734,107원을 증자하여 장학재단 기본재산이 2,823,034,107원으로 증자 등기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제2학기 장학생 6명을 절차에 따라 승인했다. 제3차 이사회의(2008. 9. 3)에서 증자된 기본재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자이익금이 135,000,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관 규정에 따라 제2학기 장학생을 10명 추가하여 총 1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변경하여 장학생을 선발 · 승인했다. 제4차 이사회의(2008. 12. 29)에서 3차 이사회의에서 선발된 장학생 중에

표 1-16 2008년도 출연자와 출연 내역

기부자	종별	수량(주)	단가(원)	평가액(원)	비고
윤대섭	현금			500,000,000	2008. 3. 31
㈜신사상가	현금			20,000,000	2008. 12. 16
일동통상(주)	현금			30,000,000	2008. 12. 24
윤대섭	유화증권 보통주 유화증권 우선주	24,400 24,400	12,250 9,860	298,900,000 240,584,000	2008. 12. 26 (증권 예치)
윤태현	유화증권 보통주 유화증권 우선주	8,400 8,400	12,250 9,860	102,900,000 82,824,000	
성보실업(주)	현금			10,000,000	2008. 12. 29
성보화학(주)	현금			40,000,000	2008. 12. 30
유화증권(주)	현금			200,000,000	2008. 12. 31
합계				1,525,208,000	

서 2명을 다른 학생으로 변경 · 승인하였고, 2008년도 결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 · 결정하였다. 또한 의제 외에 농공동창회에서는 제44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2008. 10. 11)에서 제22대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박승우(농대, 1967) 동문이 추대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2008년도는 장학재단에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와 가족이 총 1,525,208,000원을 장학재단 장학기금으로 출연했다. 그 내용은 표 1-16과 같다. 2008년도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은 2007년에 출연한 윤대섭 재단이사의 447,734,107원과 현금 500,000,000원(2008. 3. 31)을 합해 장학재단 기본재산으로 증자하여 총 2,823,034,107원(2008. 5. 29)으로 증액되었다. 보통재산은 전기 이월금과 출연금, 기본재산 이자와 보통재산 이자와 법인세 환급금으로 이루어지는 총수입금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31,461,143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넘겼다. 이렇게 하여 농공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이 30억 원을 바라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진기를 벗어나 새로운 목표를 향한 도약 발판을 만드는 중요한 고개를 넘어가게 되었다.

2008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모두 6명에게 지급되었는바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황순호(3)에게 2,889,000원, 농업기계 전공 천세환(4)에게 2,821,000원을 지급했으며, 박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이창구(1)에게 4,030,000원을 지급했고,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유재인(석1), 농업기계 전공 조현호(1)와 최진웅(1)에게 각각 4,030,000원씩을 지급해, 합계 21,830,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학기 장학생은 모두 16명으로 제1학기보다 10명이 추가되었다.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황순호(3)에게 2,889,000원, 농업기계 전공 박진혁(4)

에게 2,821,000원을 지급했으며, 박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남원호(1)와 이제명(1)에게 각각 3,861,000원씩을 지급했고,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이성용(2)과 홍은미(2)에게 각각 3,746,000원씩을, 또 김용희(1) · 유재인(1) · 윤득노(1)에게 각각 4,030,000원 씩을, 농업기계 전공 남주석(2)과 임애리(2)에게 각각 3,746,000원씩을, 또 박수현(1) · 손현목(1) · 오주선(1) · 최진웅(1)에게 각각 3,861,000원씩, 또 서현권(1)에게 4,030,000원을 지급해, 합계 59,811,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3. 농공장학재단의 도약기 (2009~현재)

2009년도 제1차 이사회의(2009. 2. 16)에서 2008년도 결산에 대한 승인과 제1학기 장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승인하였다. 그리고 임원 개선으로 제44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2008. 10. 11)에서 제22대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박승우(농대, 1967) 동문이 추대됨에 따라 권상필 이사장 후임으로 박승우 모교 교수를 장학재단의 제10대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또한 권진봉 감사의 후임으로 김풍진(농대, 1971) 동문을 선임했다. 제2차 이사회의(2009. 2. 26)에서 2008년에 장학기금으로 출연된 1,525,208,000원 중에서 이미 증자된 500,000,000원을 제외한 1,025,208,000원이 2월 들어 주식 단가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총액 1,008,775,200원[주식 708,775,200원(수량 65,600주)와 현금 300,000,000원]으로 감소된 금액을 기본재산에 증자할 것을 의결했다. 제3차 이사회의(2009. 4. 15)에서 주식의 시가액이 장부금액보다 많을 때는 매각하여 정기예금으로 현금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에 따라 이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제4차 이사회의(2009. 7. 31)에서 주식 88,563주 중에서 1차로 매각한 61,146,458원(5,550주)을 기본재산에 증자하기로 의결했다. 제5차 이사회의(2009. 8. 31)에서 제2학기 장학생 20명을 절차에 따라 승인했다. 임원 개선으로 장정수 재단이사의 후임으로 이정재(농대, 1969) 동문을, 서택동 감사의 후임으로 윤춘경(농대, 1974) 동문을 선임했다. 제6차 이사회의(2009. 12. 1)에서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 · 결정하였다.

2009년도는 장학재단에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와 가족이 총 1,055,443,600원을 장학재단 장학기금으로 출연했다. 그 내용은 표 1-17과 같다. 2009년도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은 2008년에 출연한 총 1,008,775,200원을 기본재산으로 증자하여 총 3,831,809,307원(2009. 3. 19)으로 증액되었다. 보통재산은 전기 이월금과 출연금, 기본재산 이자와 보통재산 이자, 법인세 환급금으로 이루어지는 총수입금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1,210,803,963원(기본재산 편입 예정 금액 포함)을 차기 이월금으로 넘겼다. 그리하여 농공장학재

표 1–17 2009년도 출연자와 출연 내역

기부자	종별	수량(주)	단가(원)	평가액(원)	비고
윤대섭	유화증권 보통주 유화증권 우선주	14,000 14,000	14,591 12,925	204,274,000 180,950,000	2009. 12. 22 (증권 예치)
윤수현	유화증권 보통주 유화증권 우선주	2,600 2,680	14,591 12,925	37,936,600 34,639,000	
윤태현	유화증권 보통주 유화증권 우선주	9,000 9,000	14,591 12,925	131,319,000 116,325,000	
성보화학(주)	현금			50,000,000	2009. 12. 29
일동통상(주)	현금			300,000,000	2009. 12. 30
합계				1,055,443,600	

단의 기본재산은 이월금을 고려하면 이제 40억 원을 지나 50억 원이란 고개를 넘어 전체 학생들에게 전액 등록금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큰 발판을 이루었다.

2009년도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황순호(4), 농업기계 전공 강병곤(4)에게 각각 2,889,000원씩을 지급했으며,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현정(2) · 유재인(2) · 이상현(2) · 이성용(2) · 한용운(2) · 홍은미(2) · 권경석(1) · 김용희(1), 농업기계 전공 박수현(2) · 손현목(2) · 오주선(2) · 최진웅(2) · 서현권(1)에게 각각 3,861,000원씩을, 또 농업토목 전공 정기웅(1), 농업기계 전공 백수정(1) · 이재정(1) · 이진웅(1) · 이춘구(1)에게 각각 4,030,000원씩을 지급해, 합계 76,121,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황순호(4), 농업기계 전공 현은제(4)에게 각각 2,889,000원씩을 지급했으며, 박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남원호(2) · 이은정(2) · 이형진(2)에게 각각 3,861,000원씩을, 또 홍은미(1)에게 4,030,000원을 지급했고,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권경석(2) · 김용희(2) · 윤득노(2) · 박정안(1)에게 각각 3,861,000원씩을, 또 최지선(1)에게 4,030,000원을, 그리고 농업기계 전공 박수현(2) · 최진웅(2) · 서현권(1)에게 각각 3,861,000원씩을, 김소희(1) · 김준용(1) · 백수정(1) · 심동국(1) · 이재정(1) · 이진웅(1)에게 각각 4,030,000원씩을 지급해, 합계 76,628,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2010년도 제1차 이사회의(2010. 2. 17)에서 2009년도 결산에 대한 승인과 제1학기 장학생 수혜자 2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승인하였다. 제2차 이사회의(2010. 3. 8)에서 2009년도 출연금인 1,055,443,600원을 증자하기로 의결하였고, 임원 개선으로 최현섭 재단이사와 김현영 재단이사 후임으로 노상하(농대, 1966) 동문과 최은수(농대, 1978)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그

동안 농공동창회에서 추진하였던 특별장학금 제도에 따라 출연자의 이름으로 된 장학명칭의 부여를 사양하고 농공동창회와 농공장학재단의 명칭을 고수하며 무명으로 장학기금 조성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신 윤대섭(농대, 49) 재단이사에게 모교에서는 감사의 뜻을 기리고자 농공장학재단 이사장인 박승우 교수와 학과 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농업생명과학대학 상록관 3220실을 '윤대섭 강의실'로 명명하였고, 농공장학재단 출연자와 수혜자의 명단을 담은 현판을 제작하여 제막식을 2010년 5월 18일 동시에 가졌다(그림 1-9, 그림 1-10 참조). 제3차 이사회의(2010. 8. 24)에서 2009년 출연금의 기본재산 증자를 결정한 이후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가 현금 200,000,000원을 추가로 출연(2010. 3. 31)함에 따라 이것을 합한 총 1,255,443,600원으로 변경하여 증자할 것을 재차 의결했다. 또 최진용 상임이사의 후임으로 정종훈(농대, 1977) 동문을 선임하였다. 제4차 이사회의(2010. 10. 28)에서는 제46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2010. 10. 9)에서 김경욱(농대, 1968) 동문을 제23대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추대함에 따라 박승우 이사장의 후임으로 김경욱(농대, 1968) 동문을 장학재단의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제5차 이사회의(2010. 12. 2)에서 신년도 예산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2010년도는 장학재단에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와 가족이 1,653,180,000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했다. 그 내용은 표 1-18과 같다. 2010년도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은 윤대섭 재단이사가 2009년에 출연한 1,055,443,600원[주식 705,443,600원(수량 51,280주)와 현금 350,000,000원]과 2010년에 출연한 현금 200,000,000원(2010. 3. 31)을 합하여 1,255,443,600원을 기본재산으로 증자하여 총 5,087,252,907원(2010. 9. 30)으로 증액되었다. 보통재산은 전기 이월금과 출연금, 기본재산 이자와 보통재산 이자, 법인세 환급금으로 이루어지는 총수입금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1,743,310,223원(기본재산 편입 예정 금액 포함)을 차기 이월금으로 넘겼다. 이렇게 하여 농공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이 50억 원을 돌파하는 장학재단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그림 1-9 윤대섭 동문명의 강의실 헌정

그림 1-10 농공장학재단 현판 제막식

표 1-18 2010년도 출연자와 출연 내역

기부자	종별	수량(주)	단가(원)	평가액(원)	비고
윤대섭	현 금			200,000,000	2010. 3. 31
윤대섭	유화증권 보통주 유화증권 우선주	21,600 21,600	15,550 13,000	335,880,000 280,800,000	2010. 12. 28 (증권 예치)
윤수현	유화증권 우선주	10,000	13,000	130,000,000	
윤태현	유화증권 보통주 유화증권 우선주	21,600 12,600	15,550 13,000	335,880,000 163,800,000	
박연진	유화증권 우선주	5,140	13,000	66,820,000	
일동통상(주)	현금			140,000,000	2010. 12. 28
합계				1,653,180,000	

2010년도 장학생은 학기당 24명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정다운(4)에게 1,937,000원, 이영연(3)과 홍민기(3)에게 각각 3,179,000원씩, 농업기계 전공 권혁정(4) · 김협(4) · 홍성표(4)에게 각각 3,087,000원씩을 지급했으며, 박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이형진(2)과 홍은미(1)에게 각각 3,861,000원씩, 이성용(1)에게 4,030,000원, 농업기계 전공 박수현(1)에게 3,861,000원을 지급했고,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박정안(2) · 윤득노(2) · 최지선(1)에게 각각 3,861,000원씩, 송상현(1) · 은상규(1) · 이태석(1)에게 각각 4,030,000원씩, 농업기계 전공 백수정(2) · 이진웅(2) · 조현호(2)에게 각각 3,861,000원씩, 김소희(1) · 김준용(1) · 박성민(1) · 심동국(1) · 최종우(1)에게 각각 4,030,000원씩을 지급해, 합계 88,575,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이현우(4)에게 3,087,000원, 이영연(3)과 정찬민(3)에게 각각 3,179,000원씩, 농업기계 전공 김현재(3) · 조윤수(3) · 김송현(2)에게 각각 3,179,000원씩을 지급했으며, 박사과정의 농업기계 전공 박수현(1)에게 3,861,000원을 지급했고,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최지선(2) · 송상현(1) · 은상규(1) · 이성복(1) · 이태석(1) · 최순군(1)에게 각각 3,861,000원씩, 김재현(1) · 이한귀(1) · 하태환(1)에게 각각 4,030,000원씩, 농업기계 전공 김소희(2) · 김준용(2) · 백수정(2) · 신창섭(2) · 박성민(1) · 최종우(1)에게 각각 3,861,000원씩, 김동현(1)과 장정욱(1)에게 각각 4,030,000원씩을 지급해, 합계 89,325,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2011년도 제1차 이사회의(2011. 3. 3)에서 2010년 12월 말에 윤대섭 재단이사와 가족으로부터 기금 출연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2010년도 결산의 승인이 있었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여 장학금 규모를 250,000,000원으로 조정하는 것과 교육 및 연구지원금

표 1-19 2011년도 출연자와 출연 내역

기부자	종별	수량(주)	단가(원)	평가액(원)	비고
윤대섭	현금			200,000,000	2011. 3. 31
윤대섭	유화증권 보통주 유화증권 우선주	34,500 34,500	13,850 11,750	477,825,000 405,375,000	2011. 12. 27 (증권 예치) 보통주: 116,000 우선주: 37,400
윤수현	유화증권 보통주	17,000	13,850	235,450,000	
윤태현	유화증권 보통주	57,800	13,850	800,530,000	
박연진	유화증권 보통주 유하증권 우선주	6,700 1,900	13,850 11,750	92,795,000 22,325,000	
일동통상(주)	현금			300,000,000	2011. 12. 27
소 계				2,534,300,000	
이홍주	현금			5,000,000	2011. 12. 29
합 계				2,539,300,000	

100,000,000원을 책정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제1학기 장학생 3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승인하였다. 임원 개선으로 정진구 이사의 후임으로 권진봉(농대, 1971) 동문을, 류관희 이사의 후임으로 박원규(농대, 1960) 동문을, 권상필 이사 후임으로 윤오섭(농대, 1948) 전 농공동창회 회장을 선임하였고, 김풍진 감사는 유임하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정관 개정으로 제1조(목적)에서 전공의 명칭을 '농공학'에서 내용을 구체화하여 '농공학(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공학 이하 동일)'으로 변경하는 것을 결의했다. 그 밖에 『농공장학재단 20년』의 발간사업을 위하여 30,000,000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제2차 이사회의(2011. 6. 17)에서 3명의 신임 이사(윤오섭, 박원규, 권진봉)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10년도의 출연금인 1,476,543,920원이 증자되어 등기 중임을 보고하였다.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가 출연한 현금 200,000,000원(2011. 3. 31)을 추가 증자하기로 결의하였다. 제3차 이사회의(2011. 8. 24)에서 200,000,000원의 추가 증자가 완료되었다는 보고와 『농공장학재단 20년』의 발간사업에 대한 집필계약(2011. 7. 15)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 룸(2011. 9. 6, 16:00)에서 농공장학재단 이사와 농공동창회 회장단, 지역시스템공학 및 바이오시스템공학의 전 · 현직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생 총 60명 대상자 중에서 38명(농토목 18명, 농기계 20명; 2개 학기 장학생 22명, 1개 학기 장학생 16명)에게 장학증서의 수여식을 가질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임원 개선에서 이창구 이사와 홍병만 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으로 장석효(농대, 1967) 동문과 이성호(농대, 1971) 동문을 신임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윤춘경 감

사는 유임하기로 했다. 그리고 제2학기 장학생 30명을 선정하였다. 제4차 이사회의(2011. 12. 1)에서 2011년도 결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예산안 중 목적사업비에 장학금 310,000,000원, 교육활동 및 교육시설 지원금 10,000,000원, 기타 목적사업금 10,000,000원을 책정했으며, 경상비에 동문수첩 제작비를 포함시켰다.

2011년도는 장학재단에 윤대섭(농대, 1949) 재단이사와 가족이 2,534,300,000원을, 이홍주(농대, 1961) 동문이 5,000,000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했다(표 1-19 참조). 2011년도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은 2010년에 윤대섭 재단이사와 가족이 출연한 1,476,543,920원(2010. 12. 28)과 2011년에 출연한 현금 200,000,000원(2011. 3. 31)을 증자하여 기본재산이 총 6,763,796,827원(2011. 8. 17)으로 증액되었다. 보통재산은 전기 이월금과 출연금, 기본재산 이자와 보통재산 이자, 법인세 환급금으로 이루어지는 총수입금 4,594,420,133원에서 장학금 지급액 224,289,000원과 학과 지원금 10,000,000원과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2,643,719,633원(기본재산 편입 예정금액 포함)을 차기 이월금으로 넘겼다. 이렇게 하여 농공장학재단이 기본재산 67억 원과 증자 예정 금액을 합하면 약 91억 원을 가진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장족의 발전과 함께 연간 60명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주는 장학재단으로 크게 도약하는 가속적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1년도 장학생은 학기당 30명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1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계웅(3), 농업기계 전공 조윤수(4) · 손대식(3) · 이윤주(3)에게 각각 3,179,000원씩을 지급했으며, 박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이상현(2)에게 3,861,000원을, 농업기계 전공 남주석(2) · 선우훈(1) · 신창섭(1) · 이춘구(1)에게 각각 3,483,000원씩을 지급했고,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송상현(2) · 은상규(2) · 이성복(2) · 이태석(2) · 최순군(2) · 이한귀(1) · 하태환(1)에게 각각 3,861,000원씩, 강진규(1) · 김광민(1) · 김지혜(1) · 박지훈(1) · 송정헌(1) · 이인(1)에게 각각 4,030,000원씩, 농업기계 전공 박성민(2) · 양민호(2) · 최종우(2) · 김동현(1) · 장정욱(1)에게 각각 3,861,000원씩, 김준용(2) · 심동국(2) · 최규정(1)에게 각각 3,483,000원씩을 지급해, 합계 111,470,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제2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김계웅(3)에게 3,179,000원, 농업기계 전공 김송현(3)과 이준민(3)에게 각각 2,801,000원씩을 지급했으며, 박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이성용(2), 농업기계 전공 남주석(2) · 선우훈(2) · 신창섭(1) · 이진웅(1) · 이춘구(1)에게 각각 3,861,000원씩을 지급했고, 석사과정의 농업토목 전공 송상현(2) · 은상규(2) · 이성복(2) · 이태석(2) · 이한귀(2) · 하태환(2) · 황순호(2) · 강진규(1) · 김지혜(1) · 박나영(1) · 박지훈(1) · 송정헌(1) · 이인(1), 농업기계 전공 김동현(2) · 박성민(2) · 양민호(2) · 장정욱(2) · 최종우(2) · 김원경(1)에

게 각각 3,861,000원씩, 최규정(1)에게 3,483,000원, 정수(1)에게 4,030,000원을 지급해, 합계 112,819,000원을 전액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농공장학재단이 1990년 3월에 설립된 이후 2011년까지 약 22년간 지속되었으며, 그동안 장학금을 지급한 연도별 장학생들과 장학금액 그리고 농공동창회 동창회원과 특별한 독지가의 정성스런 출연금과 기본재산의 증대와 장학금 지급액 추이를 정리해 보면 표 3-3, 그림 3-3, 그림 3-5에서 알 수 있다. 이제 1백억 원이란 기본재산이 눈앞에 다가왔다. 여기에는 초기에 많은 동창회원들의 참여가 있었지만 농공장학재단의 기금을 이렇게 증대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윤대섭 동문의 지극한 정성과 집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 재학시절에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 이창구 교수의 숨은 손길로 학업을 마쳤다고 한다. 이는 그 고마움의 표현이기도 했다. 특히 우리가 가슴 속에 간직했으면 하는 것은 지금까지 89억여 원을 아무런 명예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묵묵히 후학들의 번영을 위해 장학기금으로 쾌척해 주신 윤대섭 동문의 숭고한 뜻을 승화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 동안 기금의 모금과 축적 그리고 세심한 절약정신에 근거해 관리를 맡았던 역대 선임 재단이사회 임원들의 수고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큰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며, 이 분들의 뜻을 가슴에 기억하고 농공학의 앞날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후학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2장

농공장학금 수혜자의 현황과 활동

1. 농공장학생 수의 추이
2. 농공장학생의 학위과정 분포
3. 농공장학금 수혜자의 활동 상황

20

1. 농공장학생 수의 추이

이 장은 농공동창회의 회원들이 늘 궁금해하는 장학생 수가 얼마나 되느냐와 그들이 사회에 나아가 얼마나 농공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농공학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마련하였다.

농공동창회가 설립된 이후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수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장학금의 액수와 장학생 수의 증대에는 상반된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968년 2학기에 처음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해서 연수로는 4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의 농공장학생(중복 수령 횟수 포함)는 연인원으로 657명에 이른다. 그러나 장학금을 받은 실제 수혜자(개인) 수는 359명이며, 이 중 농업토목 전공의 수혜자는 179명이고 농업기계 전공의 수혜자는 180명이다. 여기서 두 전공 수혜자의 숫자가 상이한 것은 장학금을 지급할 초기에는 전공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중복으로 수령한 수의 차이 때문이다. 양 전공이 분리 운영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부터였다.

제1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농공동창회를 통한 장학 사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단계는 태동기(1968~1990)로 농공학과 동창회가 직접 24년간 장학사업을 펼쳐나갔다. 이 기간의 농공장학생 수는 연인원 185명으로 농업토목 전공의 학생 100명 그리고 농업기계 전공의 학생 8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장학생들 중에는 농업기계 전공 석사과정의 대학원생 1명(1976)을 제외하면 모두 학부 학생들이며 4학년생을 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농공동창회 산하에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하여 21년간 장학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 기간의 농공장학생 수는 연인원 472명으로 농업토목 전공의 학생 236명과 농업기계 전공의 학생 23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졸업 후 농공학 분야의 발전에 더 많은 활동과 기여를 바라는 뜻을 담아 1991년부터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둘째 단계는 농공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을 약진기(1991~2008)와 도약기(2009~현재)를 하나로 묶어 볼 수 있다. 약진기는 장학재단의 출범과 함께 장학기금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하지 못한 기간이었다. 그 중에는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장학기금 확보에 비해 등록금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도약기에 들어서면서 장학기금의 출연금이 급격히 증대되고 과실금도 증대하면서 장학재단 목적사업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장학생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농공장학재단이 출범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농공학을 전공하고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 농공동창회 장학사업의 장학생 수의 추이

1968년부터 1990년까지의 장학금은 농공동창회의 장학기금에서 얻어지는 이자이익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장학기금을 계속 축적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제3장 장학기금 모금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될 것이다. 장학기금의 확충에 맞추어 장학생의 수가 완만하게 증대되어 가는 추이는 표 2-1과 그림 2-1에서 볼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1984년에서 1988년까지는 농공동창회가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 명의로 특별장학금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장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연도에 따라 다른 금액이었지만 농공동창회 일반장학기금에서 250,000원~500,000원씩 지급하였다. 특별장학기금에서는 150,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장학생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개인이 받은 금액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는 장학금액을 등록금 전액으로 목표를 삼았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겨 1989년부터는 특별장학금 제도를 폐기하고, 다시 장학생의 수는 줄이되 장학금액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표 2-1 농공동창회 장학사업의 연도별 장학생 수의 변화 (단위: 명)

연도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장학생	1	4	4	4	4	4	4	4	6	8	8	8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합계
장학생	8	8	8	8	8	8/14	8/16	8/20	8/12	12	(10)/12	185

주 : /는 전체 장학생 중에서 일반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수, ( )는 농공동창회 장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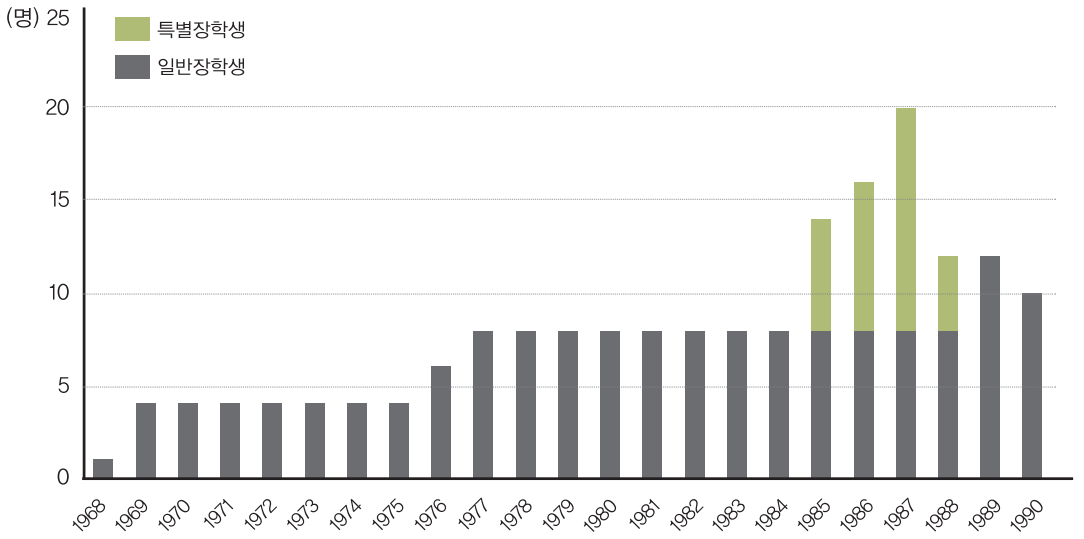


그림 2–1 농공동창회 장학사업의 연도별 장학생 수의 추이

농공동창회가 장학사업을 수행한 22년 동안에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 장학생 수의 변동을 살펴보면 1968년 1명의 장학생에서 1990년에 12명(농공장학재단 장학생 포함)의 장학생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2) 농공장학재단 장학사업의 장학생 수의 추이

농공장학재단이 5천만 원의 기본재산으로 1990년 3월에 출범되었지만, 장학기금의 과실소득금(기본재산의 이자이익금)이 당해 연도에는 적었기 때문에 농공동창회의 기금에서 12명 중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농공장학재단에서는 2명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1991년부터 2008년까지의 장학금은 농공장학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1억 원 이상의 장학기금에서 얻어지는 과실소득금 중에서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과 학과 지원금을 주 대상으로 하여 50%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공동창회의 기금에서 지급하던 규모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었다. 따라서 1991년에는 16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1997년까지는 20명씩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1997년에 IMF 환란이 발생하여 과실소득금 변동 영향이 2006년까지 미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등록금도 계속 상승하게 되어 장학생 수의 변동도 다소 있었다. 그러나 2006년에 이르러 농공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이 약

19억 원이 되었고, 2007년부터 과실소득금액이 정상화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대학등록금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2008년도 제2학기에 이르러서야 장학생 숫자를 늘려 갈 수 있게 되었다. 2009년에 이르러서는 농공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이 38억 원을 넘어섰고, 과실소득금액이 1억 9,700만원에 달하여 장학금 지급액이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장학생 4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에는 48명에게 그리고 2011년에는 6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농공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의 확충에 맞추어 장학생 수를 증대해가는 추이는 표 2-2과 그림 2-2에서 볼 수 있다.

농공장학재단이 장학사업을 수행한 22년 동안에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 장학생 수의 변동을 살펴보면 1990년 장학생 12명(농공동창회 장학생 포함)에서 2011년에 60명의 장학생으로 크게 증대되었다. 이후로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2-2 농공장학재단 장학사업의 연도별 장학생 수의 변화 (단위: 명)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장학생	16	20	20	20	20	20	20	22	20	22	22	18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장학생	14	12	12	12	12	22	40	48	60	(120)	472	

주 : ( )는 예상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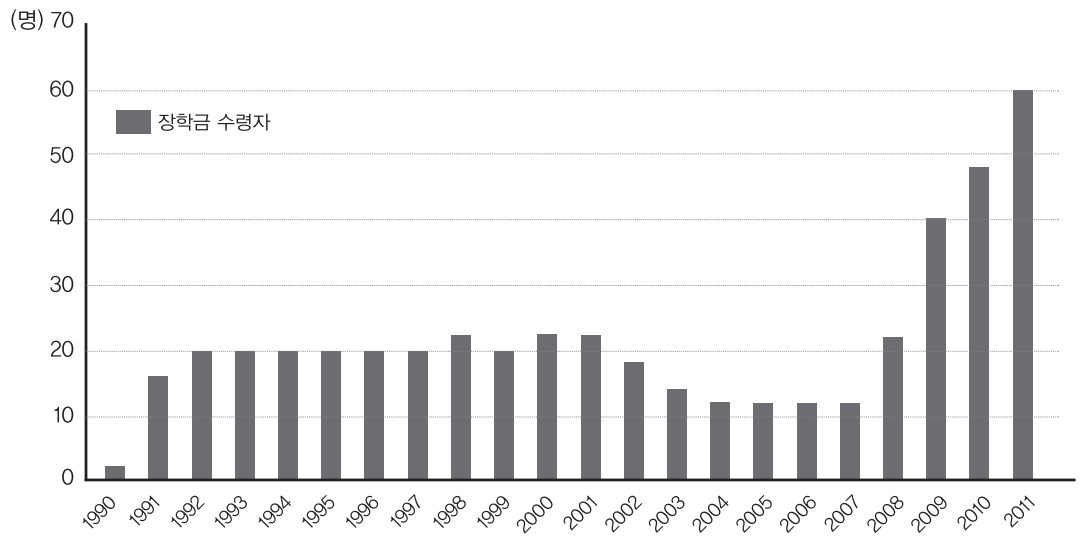


그림 2-2 농공장학재단 장학사업기의 연도별 장학금 수령자의 추이

2. 농공장학생의 학위과정 분포

1) 농공장학생의 학위과정

초창기인 농공동창회가 장학 사업(1986~1990)을 시행할 때에는 학부과정의 학생들 중에서 고학년을 대상으로 장학생 선발을 하였다. 그 중 1976년에는 예외적으로 1명의 석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1968년 제2학기부터 1990년까지 농공동창회에서 수여한 장학생이 총 185명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 183명(99%)은 학사과정의 학생들이었고, 2명(1%)은 석사과정의 학생이었다. 이의 분포도를 보면 그림 2-3과 같다.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 사업(1991~2011)이 추진되면서 장학기금의 확충과 장학재단의 목적사업 비율이 증대함에 따라 장학생의 수적 증가도 이루어졌다. 또한, 대학원 재학생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1991년부터 적은 수이지만 석사과정의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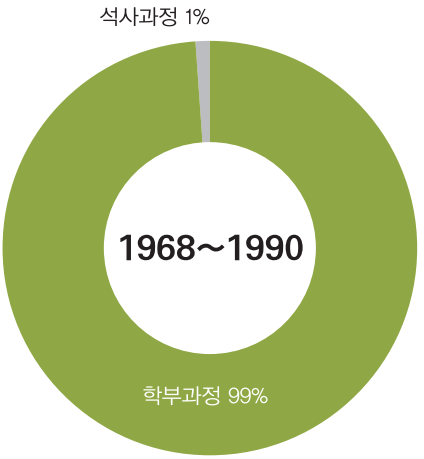


그림 2-3 농공장학생의 학위과정 분포(1968~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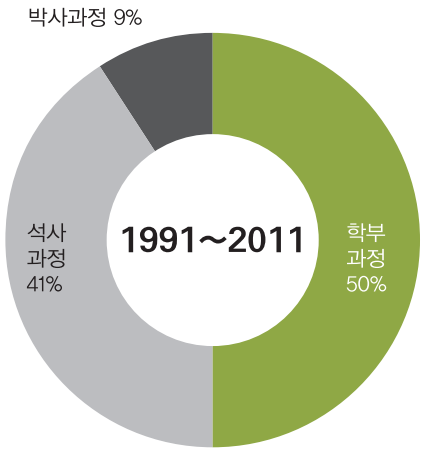


그림 2-4 농공장학생의 학위과정 분포(1991~2011)

기 시작하였다. 1996년에 들어오면서 대학원 박사과정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대상자를 넓혔다. 이는 장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농공학의 학문과 기술발전에 기여하리라는 기대가 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더 많아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2000년에 이르러서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비중이 약 반반으로 이루어졌다. 2006년에 들어오면서 대학원생들에 대한 비중이 더욱 많아졌다. 여기에는 교육정책이 이공계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제도에 따른 현상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1991년부터 2011년도까지 농공장학재단에서 지급한 장학생 수가 총 472명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 학사과정의 학생들은 234명(50%)이고, 석사과정의 학생들은 195명(41%)이었으며, 박사과정의 학생들은 43명(9%)에 달하였다. 이의 분포도를 보면 그림 2-4와 같다.

2) 농업토목 전공의 장학생 학위과정

초기 농공동창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전공 분리가 되지 않았다. 1970년부터 전공 분리된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졌고, 장학생으로는 1973년부터 분리되어 선발되었다. 그러므로 전체 농업토목학을 전공한 장학생은 1968년부터 1990년까지 100명(100%)에 이르렀다. 그리고 농공장학재단에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장학생의 수는 총 236명이었다. 그 중에서 학사과정의 학생은 115명(49%)이었고, 석사과정의 학생은 94명(40%)이었으며, 박사과정의 학생은 27명(11%)에 이르렀다. 이의 분포도를 보면 그림 2-5와 그림 2-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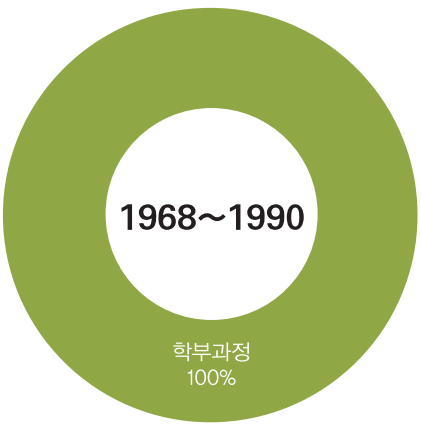


그림 2-5 농업토목 전공 농공장학생의 학위과정 분포(1968~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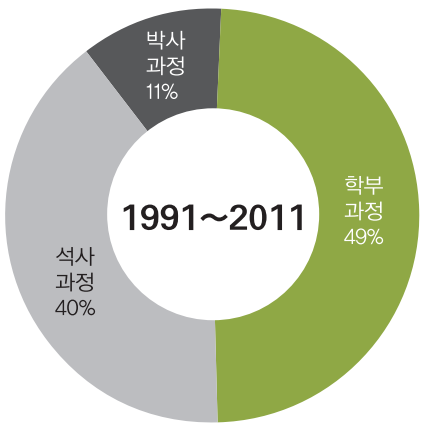


그림 2-6 농공토목 전공 농공장학생의 학위과정 분포(1991~2011)

3) 농업기계 전공의 장학생 학위과정

초기 농공동창회에서 농업기계 전공의 장학생을 선발을 시작한 시기는 1973년부터였다. 그 이후 전체 농업기계학을 전공한 장학생은 1973년부터 1990년까지 85명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 학사과정의 장학생이 83명(98%)이었고, 석사과정 장학생이 2명(2%)이었다. 그리고 농공장학재단에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장학생의 수는 총 236명이었다. 그 중에서 학사과정의 학생은 119명(50%)이었고, 석사과정의 학생은 101명(43%)이었으며, 박사과정의 학생은 16명(7%)에 이르렀다. 이의 분포도를 보면 그림 2-7과 그림 2-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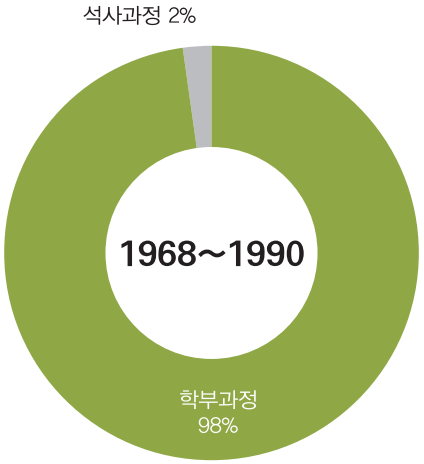


그림 2-7 농업기계 전공 농공장학생의 학위과정 분포(1968~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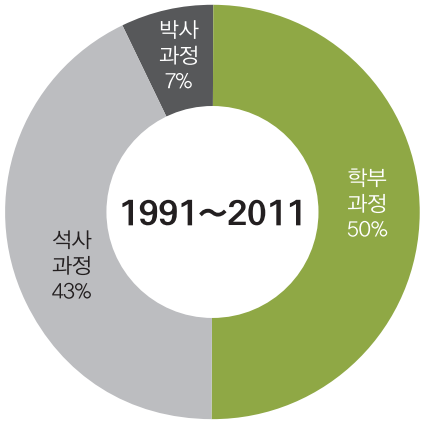


그림 2-8 농업기계 전공 농공장학생의 학위과정 분포(1991~2011)

3. 농공장학금 수혜자의 활동 상황

1) 농공학 분야의 장학금 수혜자

농공동창회가 추구하였던 후배들을 위한 장학 사업은 단순히 후진의 학업에 보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열악한 농공학의 발전에 인재들의 양성과 이를 뒷받침할 교육시설의 확충에도 관심이 있었다. 더욱이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기반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 내실과 국가 정책에 기여할 농공기술 개발을 위한 고급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보급하는데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장학금 수혜자의 총수는 359명으로서 농공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교수, 공무원, 정부산하 공사, 국책연구원, 건설/기계분야 기업)이 191명으로 53.2%에 해당한다. 또한, 잠재인력은 재학생으로 대학원을 수학하는 자가 대부분 농공학 분야로 진출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252명으로써 70.2%에 이른다. 기타 분야에서는 자유업에 종사하고 있는 졸업생이 현재 49명으로 13.6%에 이른다. 그러나 나머지 학부 재학생이나 군입대자들은 농공학 분야에 취업할 잠재인력에 속한 것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농공장학재단의 장학목적사업에 부합한 사회에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볼 수 있어, 농공학 교육의 성취에도 만족스럽다고 생각된다. 이를 전공별 사회활동으로 분류하여 보면 표 2-3과 같다.

여기서는 장학금 수혜자들에 대한 전공별 사회활동 면에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는 적지만 농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 후에 사회에서 활동한 업적을 보면, 국가적 과업에 실제로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공동창회에서 장학사업의 목적 중에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이란 면에서 볼 때 크게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농공학을 전공한 전체의 수에 비해서는 비록 작은 수이지만, 장학금을 수혜하고 농공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의 학력 분포는 표 2-4와 같다. 2011년

표 2-3 농공학 분야 농공장학금 수혜자의 활동 상황 (단위: 명)

전공	교수	공무원	공사	연구원	건설/기계	기타 사업	재학생			군입대	이민	미상	별세	합계
							대학원		학부					
							국내	외국						
농토목	13	11	25	11	47	19	28	3	4	3	(2)	13	2	179
농기계	11	2	7	10	55	30	28	2	7	1	2	25	0	180
합 계	24	13	32	21	102	49	56	5	11	4	2(2)	38	2	359

( )는 본업에 종사한 이민자로 누계되지 않음.

표 2-4 농공학 분야 농공장학금 수혜자의 학위 취득 및 취학 상황 (단위: 명)

기간	학사			석사				박사			
	본교	타교	재학	본교	타교	외국	재학	본교	타교	외국	재학
1968~1990	101	0	0	23	0	1	0	8	3	12	0
1991~2011	232	17	9	111	10	2	17	26	4	8	24
합계	333	17	9	134	10	3	17	34	7	20	24

말 현재 학사학위 취득자는 전체 359명 중 본교에서 333명이었고, 타교에서 취득한 자는 17명이었으며, 현재 학부 재학 중인 자는 11명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체 147명 중에서 본교에서 134명이었고, 외국으로 유학한 학생은 3명이었으며, 본교에서 석사과정의 재학생으로 17명이 등록하고 있었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본교에서 34명이었고, 국내 타 대학에서 취득한 자가 7명 그리고 외국에서 20명이었으며, 본교에서 24명이 등록하여 재학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학사학위를 받고 현장에서 기술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도 있지만,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아 기술교육의 발전과 기술정책의 개발과 지원에 기여한 고급 인력의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를 심층적으로 보기 위하여 전공별로 장학금 수혜자들 중에서 각 전공분야에 취업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농업토목 전공의 장학금 수혜자

농업토목 분야에서는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8년부터 1990년까지 졸업생의 경

표 2-5 농업토목 전공 농공장학금 수혜자의 활동 상황 (단위: 명)

기간	교수	공무원	공사	연구원	건설	기타 사업	재학생			군입대	이민	미상	별세	합계
							대학원		학부					
							국내	외국						
1968~1990	8	4	5	3	22	10	0	0	0	0	(2)	1	1	54
1991~2011	5	7	20	8	25	9	28	3	4	3	0	12	1	125
합 계	13	11	25	11	47	19	28	3	4	3	(2)	13	2	179

( )는 본업에 종사한 이민자로 누계되지 않음.

표 2-6 농업토목 전공 농공장학금 수혜자의 학위 취득 및 취학 상황 (단위: 명)

기간	학사			석사				박사			
	본교	타교	재학	본교	타교	외국	재학	본교	타교	외국	재학
1968~1990	54	0	0	9	0	0	0	6	2	4	0
1991~2011	120	3	2	51	0	1	13	20	0	3	14
합계	174	3	2	60	0	1	13	26	2	7	14

우 80%는 본업(농업토목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약 19%는 기타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민 상태에 있어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민 이전에는 본업(농업토목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는 졸업생의 경우 52%가 본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7%는 기타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재학생(대학원, 학부생)과 군입대자의 수가 30%에 이르는바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본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살펴보면 교육계에서는 국내외 대학에서 교수로 1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중앙관서의 공무원으로 11명이, 정부산하 기관인 공사의 중요부서에 25명이, 국책연구기관에서 11명이, 그리고 토목건설 분야의 현장에서 46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 농공장학금을 수혜한 자들로서 농업토목 분야에서 양성된 인재들을 살펴보면 표 2-6과 같다. 2011년 말 현재 학사학위의 취득자는 전체 179명 중 본교에서 174명이었고, 타교에서 취득한 자는 3명이었으며, 학부 재학 중인 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체 74명 중 본교에서 60명이었고, 외국으로 유학한 학생은 1명이었으며, 본교 재학생으로 13명이 등록하고 있었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본교에서 26명이었고, 국내 타 대학에서 취득한 자가 2명 그리고 외국에서 7명이었으며, 총 35명의 박사학위자는 장학금 수혜자 179명 중 약 20%에 해당하며, 현재 본교에서 14명이 등록하여 재학 중에 있다. 이렇게 박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은 대학 교수를 비롯하여 중앙관서와 국책연구원과 국가 산하기관인 공사(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그리고 주요 산업체에서 중추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3) 농업기계 전공의 장학금 수혜자

농업기계 분야에서는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8년부터 1990년까지 졸업생의 경우 56.5%는 본업(기계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약 30.4%는 기타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는 졸업생의 경우 44%가 본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11.9%는 기타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재학생(대학원원, 학부생)과 군입대자의 수가 28.4%에 이르는바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또 농공장학금을 수혜한 자들로서 농업기계 분야에서 양성된 인재들을 살펴보면 표 2-8과 같다. 2011년 말 현재 학사학위 취득자는 전체 180명 중 본교에서 159명이었고, 타교에서 취득한 자는 14명이었으며, 학부 재학 중인 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체 90명 중에서 본교에서 74명이었고, 외국으로 유학한 학생은 2명이었으며, 본교에서 재학생으

표 2-7 농업기계 전공 농공장학금 수혜자의 활동 상황 (단위: 명)

기간	교수	공무원	공사	연구원	기계	기타 사업	재학생			군입대	이민	미상	별세	합계
							대학원		학부					
							국내	외국						
1968~1990	6	1	3	1	15	14	0	0	0	0	1	5	0	46
1991~2011	5	1	4	9	40	16	28	2	7	1	1	20	0	134
합 계	11	2	7	10	55	30	28	2	7	1	2	25	0	180

표 2-8 농업기계 전공 농공장학금 수혜자의 학위 취득 및 취학 상황 (단위: 명)

기간	학사			석사				박사			
	본교	타교	재학	본교	타교	외국	재학	본교	타교	외국	재학
1968~1990	47	0	0	14	0	1	0	2	1	8	0
1991~2011	112	14	7	60	10	1	4	6	4	5	10
합계	159	14	7	74	10	2	4	8	5	13	10

로 4명이 등록하고 있었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본교에서 8명이었고, 국내 타 대학에서 취득한 자가 5명 그리고 외국에서 13명이었으며, 총 26명의 박사학위자는 장학금 수혜자 180명 중 약 14.5%에 해당하며, 본교에서 10명이 등록하여 재학 중에 있다. 이렇게 박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은 대학 교수를 비롯하여 중앙관서와 국책연구원(국립농업과학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그리고 주요 산업체에서 중추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제3장

농공 장학기금의 확충과 장학금의 지급 상황

1. 농공장학기금의 확충
2. 장학금 지급액의 추이
3. 농공장학금 수혜자 명단 및 지급 금액의 추이

20

1. 농공장학기금의 확충

1) 농공동창회의 농공장학기금 확충 과정

이 시기는 태동기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즉, 1966년 1월 29일 농공동창회의 창립 이듬해인 1967년 2월 4일 제2차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모교의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학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GNP가 43,000원인 상황에서 당해 연도에 251,100원이란 거금을 단시간에 모금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동창애가 발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금액을 한국은행의 경제 통계 자료에 의해 2010년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현재 화폐가치는 6,773,749원에 해당한다. 초대 농공동창회 회장이셨던 이창구 모교 교수님이 약 8년에 걸쳐 장학기금의 기틀을 다져 주셨고, 이를 계기로 1, 2차 그리고 3차에 걸쳐 졸업생을 대상으로 모금하게 되었는바 1974년 9월에는 1,045,034원이란 기금을 모금하게 되었다(부록 표 4-1, 부록 표 4-2 참조). 이 기간에는 기록이 농공동창회 일반회계와 장학재단의 기금 관리가 혼합되기도 했으며, 불확실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장부 기록과 회의록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 장부 기록을 우선으로 계수가 조정되기도 했다. 제5대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취임한 임영춘 회장은 재임 2년에 걸쳐 주요 정부기관과 대학교와 농어촌진흥공사 등의 상위 직급에 해당하는 동문을 대상으로 하여 제3차 장학기금 모금을 펼쳐 1976년 9월에는 장학기금을 5,522,441원으로 증대시켰다(표 1-1, 부록 표 4-5-1 참조). 제6대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남영희 회장이 취임한 후에 모금 대상을 특정인에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졸업생을 대상으로 배정액(59학번 이전: 3만 원, 60학번 이후: 2만 원)을 정하고, 각 입학 기별 간사를 임명하여 각 기별 모금 목표액을 정해 독려하였는바 1980년 9월에는 농공동창회의 기금이 12,256,228원에 이르렀다(부록 표 4-6~부록 표 4-9 참조). 제8대 고재군 농공동창회장이 취임한 후에 기금 모금이 더욱 활발하여 1982년 9월에는 21,731,102원에 이르렀다(부록 표 4-10, 부록 표 4-11 참조). 제9대 정진호

농공동창회 회장이 취임하여 특별장학금제도를 도입하여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1984년 9월에는 농공동창회 기금으로 35,470,125원을 확보하게 되었는바(부록 표 4-12, 부록 표 4-13 참조) 2010년도 기준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1억 6백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었다. 제10대 윤오섭 농공동창회 회장이 취임한 후 개별적인 노력으로 동문들 중에서 특별한 모금운동을 펼쳐 1986년 9월에는 74,000,533원을 농공동창회의 기금으로 조성하였다(부록 표 4-14, 부록 표 4-15 참조). 제11대 안재숙 농공동창회 회장이 취임한 후에 특별장학기금제도의 개선과 함께 장학금 지급액을 등록금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1988년 9월에 이르러서는 농공동창회 기금액이 90,584,712원에 달했고(부록 표 4-16, 부록 표 4-17 참조), 1989년 9월에는 농공동창회의 장학기금이 101,661,474원에 이르렀다(부록 표 4-18 참조). 농공동창회의 회장 임기에 따른 기금 총액을 2010년도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표 3-1과 같다. 비록 현금 관리 측면에서 보면 1억 원의 장학기금이 1989년이 되어서 확보되었지만,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우리 농공동창회에서는 1984년에 이미 1억 원의 장학기금을 초과 확보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제12대 이철주 농공동창회 회장(1988. 10. 9)이 취임한 후에 농공동창회 기금의 실제 관리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기금 모금의 한계성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금 운영에도 개인 및 기업체 대출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공동창회 정기총회에서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확정하고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농공동창회의 기금 중 5천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이관하였다. 1990년 3월 29일에 재단 설립에 관련한 허가를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아 법인체 등록을 마쳤다.

표 3-1 장학기금 모금액의 2010년 기준의 화폐가치 비교표 (단위: 원)

연도	장학기금모금금액	현재화폐가치	비고
1967	251,100	6,733,749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을이용한 2010년도기준의 화폐가치임.
1974	1,045,034	11,936,378	
1976	5,522,441	43,665,941	
1980	12,256,228	50,495,659	
1982	21,731,102	68,844,131	
1984	35,470,125	106,233,024	
1986	74,000,533	210,531,526	
1989	101,661,474	247,749,012	

표 3-2 농공동창회 장학기금의 재산 결산표(1967~1990) (단위: 원)

구분	1967	1968	1969	1970	1971
동창회 기금	251,100	273,900	359,800	501,775	478,854
이월금	251,100	273,900	359,800	501,775	478,854
이자이익금	–	15,000	145,900	102,555	45,454
장학금 모금	251,100	22,800	미상	64,100	10,100
기 타	–	251,100	273,900	426,620	523,900
수입 합계	251,100	288,900	145,900	593,275	579,454
일반지출	–	–	–	7,500	600
장학금 지급	–	15,000	60,000	84,000	100,000
학과 지원금	–	–	–	–	–
지출 합계	–	15,000	60,000	91,500	100,600
장학생 수	–	1	4	4	4

구분	1972	1973	1974	1975	1976
동창회 기금	860,070	1,043,070	1,045,034	3,638,168	5,522,441
이월금	860,070	1,043,070	1,045,034	3,638,168	5,522,441
이자이익금	75,640	미상	164,622	446,596	1,580,863
장학금 모금	447,000	183,000	69,000	1,987,500	671,300
기 타	483,890	991,470	963,412	2,067,487	3,795,778
수입 합계	1,006,530	1,174,470	1,197,034	4,501,583	6,047,941
일반지출	10,660	미상	2,000	575,715	14,400
장학금 지급	135,800	131,400	150,000	287,700	511,100
학과 지원금	–	–	–	–	–
지출 합계	146,460	131,400	152,000	863,415	525,500
장학생 수	4	4	4	4	6

구분	1977	1978	1979	1980	1981
동창회 기금	6,007,616	6,748,236	8,323,701	12,256,228	17,851,867
이월금	6,007,616	6,748,236	8,323,701	12,256,228	17,851,867
이자이익금	1,100,237	1,270,085	1,049,950	2,330,597	5,649,109
장학금 모금	460,000	510,000	1,590,000	2,567,000	1,579,000
기 타	5,754,441	6,358,616	7,791,736	9,418,701	13,721,228
수입 합계	7,314,678	8,138,701	10,431,686	14,316,298	20,949,337
일반지출	559,062	579,265	1,242,385	974,070	1,602,270
장학금 지급	748,000	811,200	865,600	1,086,000	1,495,200
학과 지원금	–	–	–	–	–
지출 합계	1,307,062	1,390,465	2,107,985	2,060,070	3,097,470
장학생 수	8	8	8	8	8

표 3–2 농공동창회 장학기금의 재산 결산표(1967~1990) (계속) (단위: 원)

구분	1982	1983	1984	1985	1986
동창회 기금	21,731,102	25,804,356	35,470,125	43,821,974	74,000,533
이월금	21,731,102	25,804,356	35,470,125	43,821,974	74,000,533
이자이익금	5,020,785	5,148,754	6,760,209	8,286,929	11,466,773
장학금 모금	972,000	1,844,000	4,150,000	3,130,000	22,407,146
기 타	19,761,867	22,820,102	28,609,356	37,230,125	46,711,974
수입 합계	25,754,652	30,412,856	39,519,565	48,647,054	80,585,893
일반지출	2,235,550	2,732,500	2,249,440	2,125,080	3,385,360
장학금 지급	1,788,000	1,876,000	1,800,000	2,700,000	3,200,000
학과 지원금	–	–	–	–	–
지출 합계	4,023,550	4,608,500	4,049,440	4,825,080	6,585,360
장학생 수	8	8	8	14	16

구분	1987	1988	1989	1990
동창회 기금	81,953,107	90,584,712	101,661,474	49,469,440
이월금	81,953,107	90,584,712	101,661,474	49,469,440
이자이익금	11,958,110	13,840,045	13,408,462	8,822,859
장학금 모금	3,409,619	1,160,000	3,141,000	1,240,000
기 타	77,491,754	85,108,977	95,619,712	73,782,192
수입 합계	92,859,483	100,109,022	112,169,174	66,199,333
일반지출	3,256,250	3,524,310	4,099,700	6,269,893
장학금 지급	3,800,000	5,000,000	6,408,000	5,460,000
학과 지원금	3,850,126	1,000,000	–	5,000,000
지출 합계	10,906,376	9,524,310	10,507,700	16,729,893
장학생 수	20	12	12	10/12[1)]

주: 1) 10/12는 12명 중에서 10명은 농공동창회 장학금에서 지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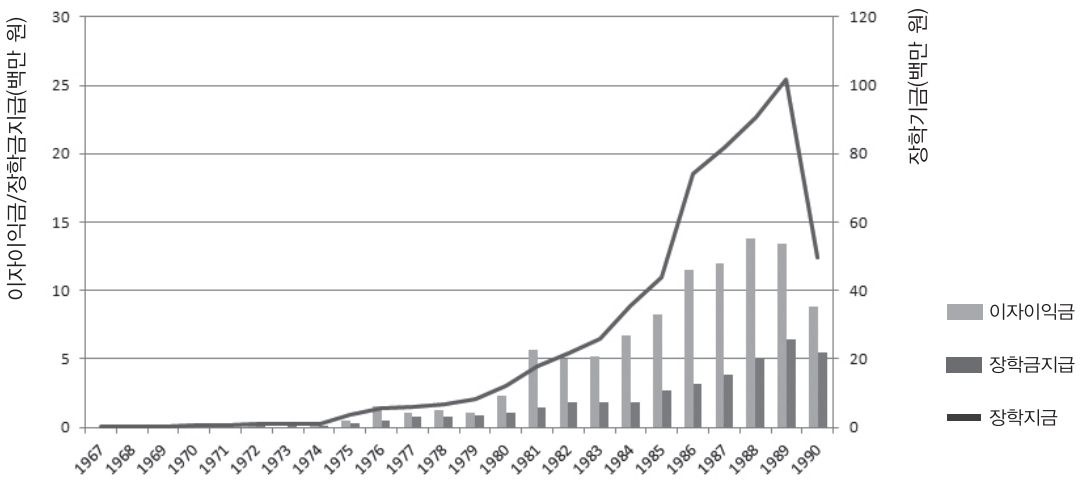


그림 3–1 농공동창회 기금, 이자이익금 및 장학금 지급액의 비교(1967~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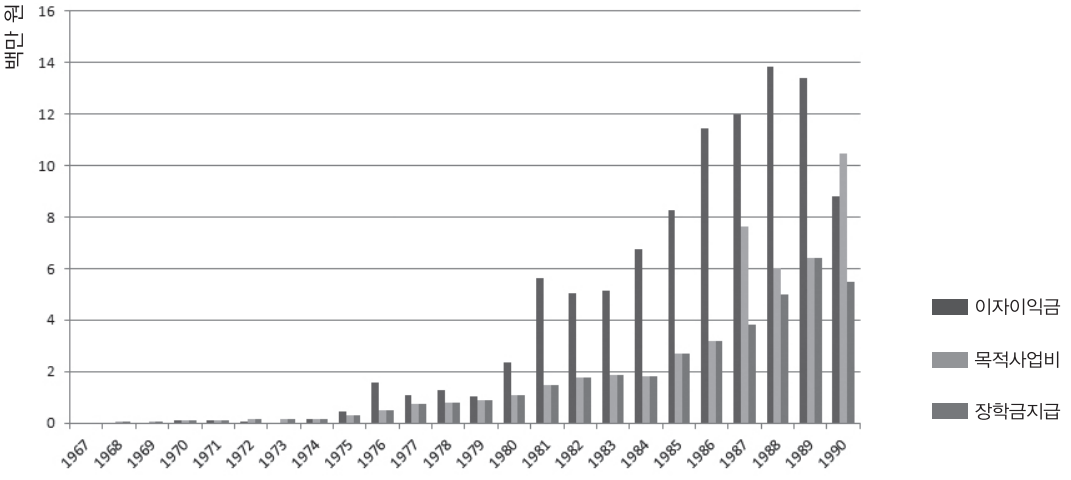


그림 3-2 이자이익금, 목적사업비 및 장학금 지급액의 비교(1967~1990)

1967년부터 1990년까지 농공동창회 장학기금의 축적 과정, 기본재산의 변동 상황, 장학기금의 이자이익금, 장학금 지급 및 학과지원금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은 표 3-2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그림 3-1에서 보면 농공동창회에서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증대하는데 열정을 쏟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즉, 농공동창회 기금액이 증가하는 데 따라 이자이익금도 증가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장학금 지급액은 크게 늘리지 못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림 3-2에서 보면 이자이익금 중에서 목적사업비(장학금 지급과 학과지원비)의 비중이 큰 것을 3회(1987, 1988, 1990)에 걸쳐 보여 주고 있는바, 이는 학과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큰 지원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2) 농공장학재단의 장학기금 확충 과정

이 시기는 약진기(1990~2008)와 도약기(2009~현재)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약진기간으로는 1990년 3월 29일에 농공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어 초대 이사장으로 이철주 농공동창회 회장이 취임하였다. 그 해에 이상금(고 임영춘 동문의 미망인)과 이철주 이사장, 유한홍 재단이사, 윤대섭 재단이사 및 권오완 동문들로부터 총 출연금 62,300,000원을 희사 받았으며, 1991년에는 윤대섭 재단이사, 유근학 재단이사, 김원세 재단이사, 배정길 재단감사 및 이진우 동문의 출연금 24,064,934원을 희사 받아 기본재산 증자과정을 거쳐 1992년에는 137,000,000원의

기본재산을 갖게 되었다. 1992년에는 고재군 재단이사와 정창주 재단이사들로부터 총 출연금 2,000,000원을 희사 받았으나 증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철주 이사장의 재임기간에는 1억 3천7백만 원으로 제2대 이상호 이사장에게 넘겨졌다. 1993년에 이상호 이사장과 윤대섭 재단이사들로부터 총 출연금 11,000,000원을 희사 받았으며, 농공동창회의 출연금 등을 합하여 1994년에는 기본재산이 200,000,000원으로 증자되었고, 증자된 상태에서 1994년 12월에 제3대 엄태영 이사장에게 업무를 넘겼다.

1994년에 윤대섭 재단이사와 고재군 재단이사의 출연금 13,000,000원을 희사 받았고, 1995년에 고 이창구 교수의 가족과 이창구 흉상제막을 위한 추모사업 추진위원회와 김환종 재단이사들로부터 총 출연금 15,000,000원을 희사 받았으며, 여기에 농공동창회의 지원금을 합하여 1996년에는 250,000,000원으로 기본재산을 만들었다. 1996년 12월에는 제4대 유근학 이사장이 취임하였다. 1996년에 김환종 재단이사, 윤대섭 재단이사, 고재군 재단이사, 및 지근진 재단이사들로부터 총 출연금 39,000,000원을 희사 받았고, 1997년 윤대섭 재단이사의 45,000,000원을 희사 받았으며, 또 농공동창회의 출연금을 합하여 1998년에는 기본재산을 355,000,000원으로 만들었다. 1998년 12월에 제5대 홍승만 이사장이 위임하였다. 1998년에 윤대섭 재단이사가 50,000,000원을 희사하였고, 1999년에 윤대섭 재단이사의 120,000,000원과 제5차 특별장학기금 모금을 추진하여 홍승만 이사장을 비롯한 정창주 재단이사, 유근학 재단이사, 권오완 동문, 김철중 동문 등의 출연금 9,550,000원(부록 표 4-20 참조)을 합하여 총 129,550,000원을 희사 받아 증자하여 2000년에는 기본재산이 483,300,000원에 이르렀다.

2000년 12월에 제6대 조범호 이사장이 취임하였다. 윤대섭 재단이사가 2000년에 80,000,000원을 그리고 2001년에 70,000,000원을 희사하여 2002년에는 기본재산 총액이 633,300,000원으로 되었다. 2002년 12월에 제7대 정하우 이사장이 취임하였다. 2002년에 윤대섭 재단이사와 이중용 재단이사가 81,000,000원을 희사하였으며, 2003년에 정하우 이사장, 윤대섭 재단이사, 최찬식 재단이사, 이병철 동문, 장길평 동문 및 이중용 재단이사들로부터 총 190,000,000원을 희사받아 증자하여 2004년에 기본재산이 904,3000,000원에 이르렀다. 2004년 12월에 제8대 허유만 이사장이 취임하였다. 2004년에 윤대섭 재단이사와 장병욱 재단이사들로부터 총 231,000,000원을 희사받았고, 2005년에 윤대섭 재단이사가 280,000,000원을 희사하였으며, 2006년에는 기본재산이 1,415,300,000원으로 증자되었다. 2006년 12월에 제9대 권상필 이사장이 취임하였다. 윤대섭 재단이사와 가족이 2006년에 460,000,000원과 2007년에 447,734,107원을 희사하였으며, 2008년 3월에 500,000,000원을 추가 희사함으로서 2008년에는 기본재산이 2,823,034,107원으로 증자되었다.

도약기간은 2008년 12월 제10대 박승우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의 시기이다. 윤대섭 재단이사와 가족이 2009년에 1,055,443,600원을 희사해 기본재산이 3,831,809,307원으로 증자되면서 기본재산에 의한 과실금액이 커지고, 장학생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는 획기적인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2010년에는 윤대섭 재단이사와 가족으로부터 희사받은 1,255,443,600원을 증자하여 기본재산이 5,087,252,907원으로 증자되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로서 매년 10

표 3-3 농공장학재단 재산 결산표(1990~2011) (단위: 원)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기본재산	50,000,000	112,000,000	137,000,000	137,000,000	200,000,000
보통재산이월	5,527,724	31,020,989	13,356,963	19,203,785	23,069,619
과실소득금 재산증자기부 기 타 보통수입 합계	3,704,354 62,000,000 6,088,070 71,792,424	15,855,680 23,064,934 71,204,955 110,125,569	20,846,849 2,000,000 37,158,974 60,005,823	21,726,000 (11,000,000) 6,993,510 42,076,235	22,623,320 56,000,000 35,295,206 113,918,526
일반지출 장학금 지급 학과 지원금 기본재산증자 보통지출 합계	989,184 3,276,000 – 62,000,000 66,265,184	5,759,930 9,608,000 2,000,000 62,000,000 79,104,580	5,658,860 12,990,000 3,000,000 25,000,000 46,648,860	4,963,450 14,909,000 3,000,000 (11,000,000) 22,872,450	7,348,907 17,500,000 3,000,000 63,000,000 106,569,619
장학기금모금	62,300,000	24,064,934	2,000,000	11,000,000	56,000,000
장학생 수	2/12	16	20	20	20

주: 1990년도의 장학생은 12명 중에서 2명은 농공장학재단의 장학금에서 지급됨.
( ) 안에 있는 금액은 증자 대기상태로 입출로 잡히지 않음.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기본재산	200,000,000	250,000,000	305,000,000	355,000,000	413,300,000
보통재산이월	29,567,380	19,877,737	19,425,202	16,144,940	21,609,282
과실소득금 재산증자기부 기 타 보통수입 합계	22,389,660 6,500,000 29,757,710 58,647,370	22,379,502 46,000,000 38,437,360 106,816,862	42,218,430 45,000,000 25,669,842 112,888,272	27,781,490 50,000,000 29,721,890 107,503,380	41,171,200 58,300,000 28,976,367 128,447,567
일반지출 장학금 지급 학과 지원금 기본재산증자 보통지출 합계	6,053,990 20,026,000 3,000,000 – 29,079,990	13,518,125 23,421,000 – 50,000,000 86,939,125	10,853,070 25,610,000 2,000,000 55,000,000 93,463,070	11,969,440 29,389,000 – 50,000,000 91,358,440	16,480,285 28,058,000 4,000,000 58,300,000 106,838,285
장학기금모금	15,000,000	50,000,000	45,000,000	50,000,000	129,550,000
장학생 수	20	20	20	22	20

억 원이 넘는 증자가 이루어진 것과 하나의 작은 학과단위에서 50억 원이란 거금을 확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틀이 확고히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2010년 12월 제11대 김경욱 이사장이 취임하였다. 윤대섭 재단이사와 가족(윤수현 손녀, 윤태현 손자, 박연진 자부, 이병휘 사위)이 2010년에 1,653,180,000원과 2011년에 2,539,300,000원을 희사하여 2012년에는 농공장학재단의 총 기본재산이 약 91억 원으로 기금 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중에서 윤대섭 재단이사가 28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오

표 3-3 농공장학재단 재산 결산표(1990~2011) (계속) (단위: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기본재산	483,300,000	563,300,000	633,300,000	716,300,000	904,300,000	1,135,300,000
보통재산이월	944,312	5,964,279	2,333,267	5,001,677	3,425,927	938,623
과실소득금	33,831,777	51,808,970	36,422,718	45,654,401	39,645,270	38,570,240
재산증자기부	70,000,000	80,000,000	70,000,000	83,000,000	188,000,000	231,000,000
기타	28,458,255	11,414,039	14,250,759	23,561,427	10,960,737	9,279,163
보통수입 합계	132,290,032	143,223,009	120,673,477	152,215,828	238,606,007	278,849,403
일반지출	16,756,720	13,372,730	11,737,210	29,619,151	14,370,080	13,823,780
장학금 지급	39,589,000	41,886,000	34,603,000	29,595,000	28,810,000	33,087,000
학과 지원금	5,000,000	2,000,000	2,000,000	5,000,000	4,000,000	–
기본재산증자	70,000,000	80,000,000	70,000,000	83,000,000	188,000,000	231,000,000
보통지출 합계	131,345,720	137,258,730	118,340,210	147,214,151	235,180,080	277,910,780
장학기금모금	80,000,000	70,000,000	81,000,000	190,000,000	231,000,000	280,000,000
장학생 수	22	22	18	14	12	12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본재산	1,415,300,000	1,875,300,000	2,823,034,107	3,831,809,307	5,087,252,907	6,763,796,827
보통재산이월	1,378,193	7,186,253	31,461,143	1,210,803,963	1,743,310,223	2,643,719,633
과실소득금	44,846,431	60,095,000	119,374,160	197,445,412	195,430,358	417,652,923
재산증자기부	280,000,000	460,000,000	947,743,107	1,055,443,600	1,798,631,905	2,539,300,000
기타	6,733,273	15,463,573	23,908,333	1,135,211,681	1,210,826,259	1,637,467,210
보통수입 합계	331,579,704	535,558,573	1,091,025,600	2,388,100,693	3,204,888,522	4,594,420,133
일반지출	14,146,511	27,988,320	30,180,350	16,080,530	28,234,699	39,867,580
장학금 지급	36,055,000	40,384,000	81,641,000	152,441,000	177,900,000	224,289,000
학과 지원금	–	–	–	–	–	10,000,000
기본재산증자	280,000,000	460,000,000	947,743,107	1,008,775,200	1,255,443,600	1,676,543,9201
보통지출 합계	330,201,511	528,372,320	1,059,564,457	1,177,296,730	1,461,578,299	950,700,500
장학기금모금	460,000,000	447,734,107	1,525,208,000	1,055,443,600	1,653,180,000	2,539,300,000
장학생 수	12	12	22	40	48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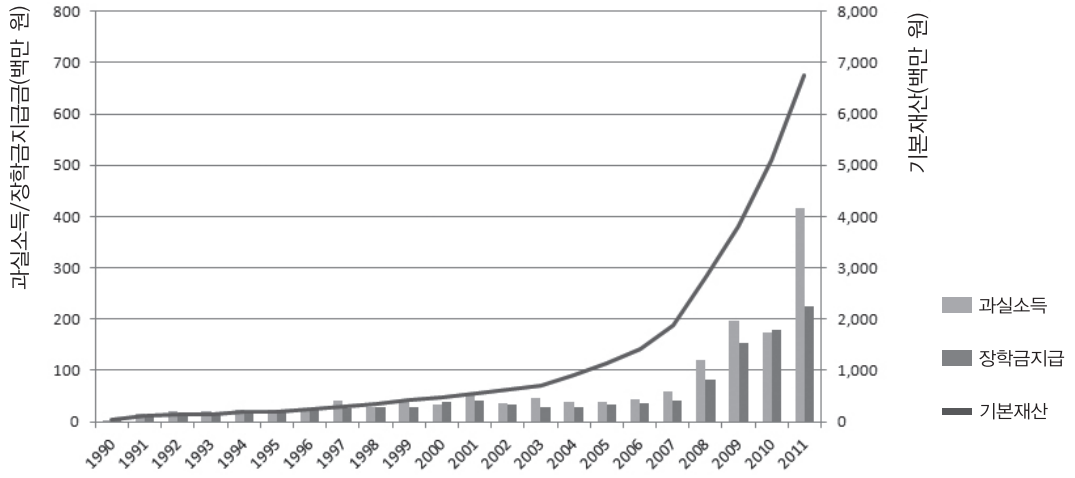


그림 3-3 농공장학재단의 기본재산, 과실소득 및 장학금 지급액 비교(199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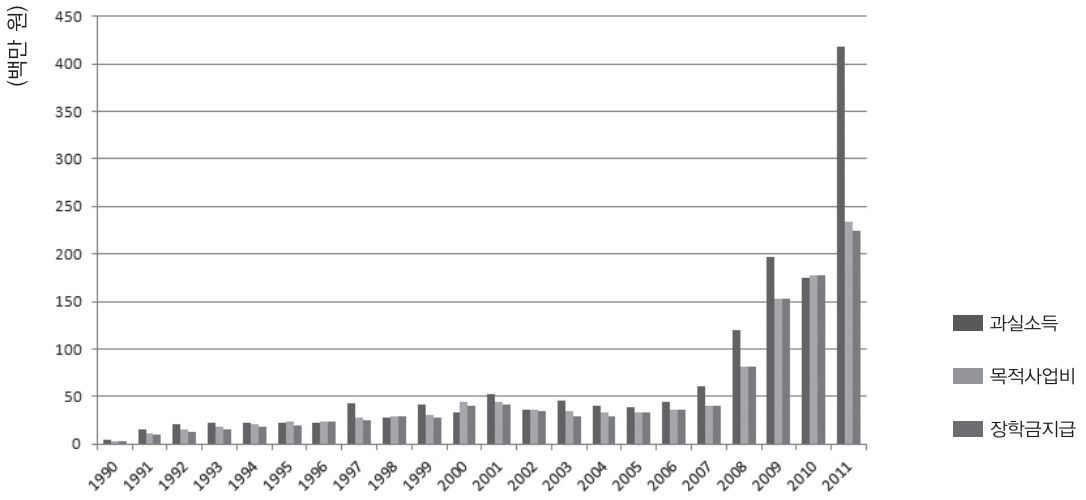


그림 3-4 농공장학재단의 과실소득금, 목적사업비 및 장학금 지급액 비교(1990~2011)

직 한결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후진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농공장학재단에 출연하였는바 현재 89억여 원은 그와 가족들에 의해 희사되었다.

이에 대한 각 연도별 기본재산 현황과 보통재산의 운용, 장학금 기금의 모금 현황, 장학금 지급액, 학과 지원금 등에 관한 내역은 표 3-3에 수록되어 있다. 그림 3-3, 그림 3-4에서 보면 1990년에서 2004년까지는 IMF 환란 이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 미미한 상태이면서도 꾸준하게 기본재산액이 증가하다가 2005년에 10억 원을 넘으면서 서서히 약진하는 모습을 드러

냈다. 2008년 2학기부터 기본재산액이 38억 원을 넘으면서 과실소득금액도 증대하여 장학생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장학금의 지급액도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지금까지 목적사업 중의 하나인 학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과 지원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이제 농공장학재단의 기본재산액이 100억 원대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는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할 당시의 꿈이었던, 농공학을 전공하는 전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는 것에 큰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다.

농공동창회 회원들은
지금까지 정성을 쏟아주신 동문들과
특히 윤대섭 재단이사님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 농공장학재단 기본재산의 변동 추이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한 이후 당해 년에 기본재산액이 1억 원을 넘겼고, 3년 후에 1억 원을 증자하여 기본재산이 2억 원이 되었다. 다시 3년 후에 1억 원씩 증자하게 되어 1997년에는 약 3억 원에 이르렀다. 이후에는 2년에 1억 원을 그리고 2년 후에 1억 5천만 원을 증자하여 2001년에는 기본재산액이 약 5억 6천만 원에 이르렀다. 이후 4년에 걸쳐 5억 7천 만원을 증자하여 2005년에는 11억여 원의 기본재산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2년 동안에 7억 4천만 원을 증자하였고, 다시 2년 동안에는 매년 10억 원이란 금액을 출연 받아 2009년에는 38억여 원의 기본재산을 갖게 되었다. 이후에는 12억 원, 17억 원 그리고 25억 원의 출연금을 얻어 2012년에는 약 91억 원의 기본재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보면 그림 3-5와 같으며, 관할 교육청에서 증자 허가를 받은 연도에 따른 기본재산액은 표 3-4에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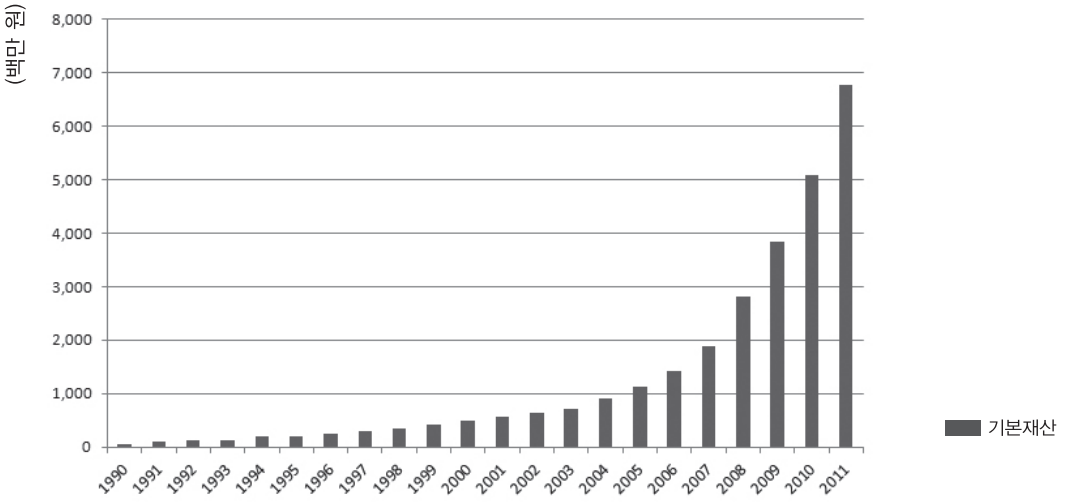


그림 3-5 농공장학재단 기본재산의 변동 추이

표 3-4 농공장학재단 기본재산의 변동 추이 (단위: 원)

연도	기본재산액	연도	기본재산액
1990. 3. 29	50,000,000	2003. 2. 5	716,300,000
1991. 3. 12	112,000,000	2004. 9. 10	904,300,000
1992. 2. 24	137,000,000	2005. 5. 9	1,135,300,000
1994. 5. 26	200,000,000	2006. 4. 3	1,415,300,000
1996. 4. 14	250,000,000	2007. 8. 9	1,875,300,000
1997. 4. 16	305,000,000	2008. 5. 29	2,823,034,107
1998. 4. 10	355,000,000	2009. 3. 19	3,831,809,307
1999. 7. 14	413,300,000	2010. 9. 30	5,087,252,907
2000. 1. 14	483,300,000	2011. 8. 17	6,763,796,827
2001. 1. 12	563,300,000	2012	(9,100,000,000)
2002. 1. 11	633,300,000		

주: ( )는 예상액임.

4) 농공장학기금의 기부자와 금액

농공동창회의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시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에는 1차와 2차에 걸쳐 졸업생을 대상으로 배정액을 정하여 모금하였다. 1975년부터는 특정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3차 배정액을 정하여 모금을 추진하였고, 1977년 이후에는 모든 동창회원을 대상으로 입학단위별로 4차 배정액을 정하여 기별 간사를 통해 독려하였다. 1983년 이후에는 특별장학제

도를 도입하여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장학기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별장학제도는 기금 모금의 부진과 소액 장학금액으로 인하여 본래의 장학금액이 등록금 전액이란 목표에 미치지 못해 이 제도를 폐기하게 되었다. 1985년 이후에는 동창회장이 다시 농공동창회 회원 중에서 특정 독지가를 찾아 장학기금을 확보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농공동창회의 기금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공동창회원을 대상으로 대부이자로 증식을 축적해 왔었다.

1987년 이후에는 농공동창회 기금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장학기금의 모금과 함께 기금 관리 문제가 시급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농공장학재단의 법인체 운영을 모색하게 되었고, 장학재단의 정관에 따라 재산 관리와 함께 장학제도가 안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기업의 세금 감면이란 이점을 활용하여 다액의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제1차에서 제5차까지의 특별모금 시 참여한 동창회원 명단과 모금액 그리고 제4차 배정 시 규칙에 따라 농공동창회의 입회비와 성금을 납부한 회원들의 명단과 금액은 회의록과 기록에 남아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여 부록 표 4-1~부록 표 4-19에 수록하였다. 이 중에서 부록 표 4-4-2는 별도로 기록된 자료에서 얻어 수록한 것이다. 1967년부터 1990년까지의 장학기금 조성에 참여한 인원은 총 1,012명으로 학과 졸업생이 1,001명이고, 고농 졸업생이 6명이었으며, 모과에 재직한 교수가 5명이었다. 그리고 1990년 3월부터 2011년까지 농공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에 참여한 인원은 제5차 장학기금 모금(1999년)을 포함하여 총 67명으로 학과 졸업생이 62명이고, 고농 졸업생이 1명이며, 윤대섭 재단이사의 가족 4명이었다. 이 중에서 4명(윤대섭 동문의 가족)을 뺀 63명은 이미 1990년 이전 장학기금 조성에 참여하신 분들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장학기금 조성에 참여하신 총 인원은 1,016명이지만 농공인(본과 교수, 고농 및 농대 농공학 동문)은 1,012명이며, 비농공인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제5차 장학기금 모금에 참여한 내역은 부록 표 4-20에 수록하였다.

또한, 연도별 농공동창회 및 농공장학재단의 장학기금 다액 출연자와 기부금액을 정리하면 부록 표 4-21, 부록 표 4-22와 같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다액을 출연해 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별도의 명단과 출연금을 표 3-5에 수록하였다. 1991년 이후 동기회에서 후원한 장학기금은 농공장학재단의 출범 이후이므로 농공동창회에서 받아 농공장학재단으로 이첩하게 됨에 따라 농공장학재단에서 직접 기부금을 받은 내역에서 생략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공동창회의 기금 모금으로 약 4천1백만 원과 특별장학기금 출연으로 약 1억 4천4백만 원 그리고 윤대섭 회원과 가족의 출연으로 89억 1천5백만 원을 합하여 2011년 현재 약 91억여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여기서 특별히 조심스러운 것은 기본 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에 양해를 구하며, 오류를 알려주면 추후 정정하려 한다.

표 3–5 농공장학기금 기부 내역(개인, 단체) (단위: 천 원)

성명	기부금 및 납부 시기	합계
농공동창회	52,705(90/12), 33,000(94/3), 10,000(96/2), 9,550(99/12)	105,225
이창구(고농6)	400(81/6), 600(82/3), 1,000(83/10), 10,000(96, 가족과 기념사업회)	12,000
남영희(고농10)	500(79/8), 150(80/10)	650
박성우(명예)	2,000(86/10)	2,000
고 임영춘(이상춘)	30,000(90/10)	30,000
김환종(46)	1,000(83/12), 5,000(95/8), 5,000(96/2)	11,000
이봉국(46)	172(86/7), 255(87/3)	427
정진호(46)	1,000(83/3), 1,000(83/10), 1,000(85/11), 3,000(89/12)	6,000
유한홍(49)	10,000(90/7), 10,000(96/8)	20,000
윤대섭(49)	2,000(85/9), 20,000(85/12), 22,000(89/12), 10,000(90/10), 10,000(90/12), 10,000(91/12), 10,000(93/3), 10,000(94/3), 20,000(96/2), 20,000(97/2), 25,000(97/3), 50,000(98/3) , 50,000(99/3), 70,000(99/12), 80,000(00/12), 70,000(01/12), 80,000(02/12), 170,000(03/12), 230,000(04/12), 280,000(05/12), 460,000(06/12), 447,734(07/12), 500,000(08/3), 1,025,208(08/12), 1,055,443(09/12), 200,000(10/3), 1,453,180(10/12), 200,000(11/3), 2,334,300(11/12)	8,914,865
이철주(49)	2,000(90/7)	2,000
고재군(51)	2,000(89/2), 1,000(92/3), 3,000(94/6), 3,000(96/2)	9,000
이상호(52)	1,000(93/10)	1,000
정창주(53)	1,000(92/9), 1,000(99/6)	2,000
유근학(55)	1,000(91/7), 1,000(99/3)	2,000
권오완(56)	300(90/12), 1,000(99/5)	1,300
최찬식(56)	5,000(03/11)	5,000
김원세(57)	10,000(91/10)	10,000
홍승만(57)	1,000(99/5)	1,000
지근진(58)	2,000(96/2)	2,000
이병철(59)	2,000(03/12)	2,000
정하우(59)	2,000(03/1)	2,000
배정길(61)	1,000(91/11)	1,000
이홍주(61)	5,000(11/12)	5,000
장길평(62)	10,000(03/10)	10,000
김철중(64)	2,500(99/3)	2,500
장병욱(64)	1,000(04/12)	1,000
이진우(65)	1,065(91/10)	1,065
이중용(77)	1,000(02/12), 1,000(03/12)	2,000
56 동기회	200	200
57 동기회	1,000(87/10)	1,000
59 동기회	2,000(89/10)	2,000
61 동기회	1,000(91/11)	1,000
63 동기회	1,000(83/10)	1,000
64 동기회	1,000(84/10)	1,000
65 동기회	1,000(85/10), 1,000(99/11)	2,000
66 동기회	1,000(86/10)	1,000
67 동기회	300(87/10)	300
68 동기회	1,000(88/10)	1,000
69 동기회	1,000(89/10)	1,000
70 동기회	1,000(90/10)	1,000
합계		9,176,562

2. 장학금 지급액의 추이

1) 대학등록금과 장학금 지급의 동향

농공동창회가 장학 사업을 시작할 때의 장학제도는 장학금액을 대학등록금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을 목표로 하고 출발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1984년에 들어와서 독지가의 출연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장학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장학기금 조성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기본 장학제도를 수정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즉, 동창회 장학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일반장학금으로 명하여 등록금액의 반액을 지원하고, 특별장학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특별장학금으로 기성회/수업료의 반액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84년에는 동창회 일반장학금으로 학기당 4명씩에게 등록금 반액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1985년부터 1988년까지 4개년 동안은 동창회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학기당 4명에게 일반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였고, 특별장학기금에서는 3명의 개인명의 특별장학금과 2개 단체명의 특별장학금을 학기당 2~6명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의 증가에 따른 특별장학기금의 확보가 어렵고 추가로 특별기금 출연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본래의 목표에도 맞지 않아 1989년부터 대학등록금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특별장학제도를 폐지했으며, 모금된 기금은 동창회 장학기금으로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장학기금의 증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90년에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장학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금은 꿈이 서린 농공장학재단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대학등륵금액과 장학금의 지급 현황을 농공동창회의 장학사업 기간(1968~1990)과 농공장학재단의 장학사업 기간(1990~2011)으로 나누어 연도별로 비교해 표 3-6, 그림 3-6 그리고 표 3-7, 그림 3-7에 수록했다. 여기서 보면 농공동창회 장학사업 기간인 1990년도 대학등록금액(546,000원)의 증가율이 1968년도의 대학 등록금액(15,000원)에 비해 36배 정도 늘어났으

며, 농공장학재단의 장학사업 기간인 2011년도의 대학등록금액(3,179,000원)이 1990년도 대학등록금액(546,000원)에 비해 6배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의 총 지급액 규모를 비교하면 농공동창회의 장학사업에서 지급한 것보다 농공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을 통해 지급한 것이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장학금 지급 추이

1960년대의 화폐가치에 대한 비교가 쉽지 않아 등록금과 1인당 국민총소득액과 대비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그런데 1969년 이전에는 GNI(1인당 국민총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어 GNP(국민총생산액)로 비교하고, 1970년 이후에는 GNI의 값과 비교하기로 한다. 이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주요연간지표에서 1인당 국민총소득액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당시 국민소득 속에 학생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GNI와 비교해 봄으로써 장학금이 얼마나 필요로 했던 것인가를 유추해 본다.

(1) 농공동창회의 장학 지원(1968~1990)

1968년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농공학과 1, 2학기 등록금은 GNP의 55.5%에 해당하였으며, 1970년의 농과대학의 농공학과 1, 2학기 등록금은 GNI의 46.7%에 해당하였다. 1975년도의 농공학과 1, 2학기 등록금은 GNI의 52.2%에 해당하였고, 1980년도의 등록금은 GNI의 26.9%에 해당하였다. 1985년도의 농공학과 1, 2학기 등록금은 GNI의 43.3%에 해당하였고, 1990년도의 등록금은 GNI의 24.5%에 해당하였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1968년부터 1977년도까지 대학생 등록금의 차지하는 비율은 GNI의 약 55~37%에 해당하였던바 학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던 생활환경이었으며,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였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의 등록금과, 1인에게 지급된 장학금과 장학생 숫자에 따른 총장학금 지급액, 우리나라의 GNP와 GNI의 값을 표 3-6과 그림 3-6에 수록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1인당 한 학기 등록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8년 15,000원이던 것이 1990년 546,000원으로 증가되었다. 또 농공동창회가 장학금을 지원한 규모 면에서 살펴보면 1968년에 1명에게 15,000원 지급하던 것이 1990년에 12명(농공장학재단의 지원 포함)에게 6,552,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2년간 총 장학금 지급액은 39,605,000원에 이르렀다.

표 3-6 연도별 및 학기별 등록금(납입금)과 장학금 지급액 비교(1968~1990) (단위: 원)

연도	학기	등록금액	1인 장학금	장학지급총액	학생수(명)		GNP/GNI
					학기	연간	
1968	1	15,000	–	–	–	1	54,000
	2	15,000	15,000	15,000	1		
1969	1	15,000	15,000	30,000	2	4	68,000
	2	15,000	15,000	30,000	2		
1970	1	20,000	20,000	40,000	2	4	90,000
	2	22,000	22,000	44,000	2		
1971	1	23,000	23,000	46,000	2	4	100,000
	2	27,000	27,000	54,000	2		
1972	1	34,300	34,000	68,000	2	4	130,000
	2	33,900	33,900	67,800	2		
1973	1	33,800	35,700	71,400	2	4	160,000
	2	34,050	30,000	60,000	2		
1974	1	47,850	35,000	70,000	2	4	230,000
	2	47,650	40,000	80,000	2		
1975	1	68,500	68,850	137,700	2	4	290,000
	2	83,000	75,000	150,000	2		
1976	1	85,300	85,300	255,900	3	6	400,000
	2	85,300	85,300	255,200	3		
1977	1	93,500	93,500	374,000	4	8	500,000
	2	93,500	93,500	374,000	4		
1978	1	101,400	101,400	405,600	4	8	670,000
	2	101,400	101,400	405,600	4		
1979	1	108,200	108,200	432,800	4	8	850,000
	2	108,200	108,200	432,800	4		
1980	1	132,750	132,750	531,000	4	8	1,010,000
	2	138,750	138,750	555,000	4		
1981	1	167,800	186,800	747,600	4	8	1,240,000
	2	167,800	186,800	747,600	4		
1982	1	223,500	223,500	894,000	4	8	1,410,000
	2	223,500	223,500	894,000	4		
1983	1	234,500	234,500	938,000	4	8	1,640,000
	2	234,500	234,500	938,000	4		
1984	1	418,000	225,000	900,000	4	8	1,850,000
	2	418,000	225,000	900,000	4		
1985	1	444,000	225,000 (150,000)	1,500,000	4(4)	14	2,050,000
	2	444,000	225,000 (150,000)	1,200,000	4(2)		
1986	1	460,000	250,000 (150,000)	1,600,000	4(4)	16	2,380,000
	2	460,000	250,000 (150,000)	1,600,000	4(4)		

표 3-6 연도별 및 학기별 등록금(납입금)과 장학금 지급액 비교(1968~1990) (계속) (단위: 원)

연도	학기	등록금액	1인 장학금	장학지급총액	학생수(명)		GNP/GNI
					학기	연간	
1987	1	478,500	250,000 (150,000)	1,900,000	4(6)	20	2,800,000
	2	478,500	250,000 (150,000)	1,900,000	4(6)		
1988	1	501,500	500,000 (250,000)	2,500,000	4(2)	12	3,320,000
	2	501,500	500,000 (250,000)	2,500,000	4(2)		
1989	1	534,000	534,000	3,204,000	6	12	3,730,000
	2	534,000	534,000	3,204,000	6		
1990	1	546,000	546,000	3,276,000	6	10/12	4,460,000
	2	546,000	546,000	2,184,000	4		

자료 출처: 서울대학교 예산과에서 제공(농생대의 자연계열 4학년의 기준으로 한 등록금).
( ): 특별장학기금에서 지급된 금액과 학생 수.
/: 농공동창회에서 장학지급 학생 수/대상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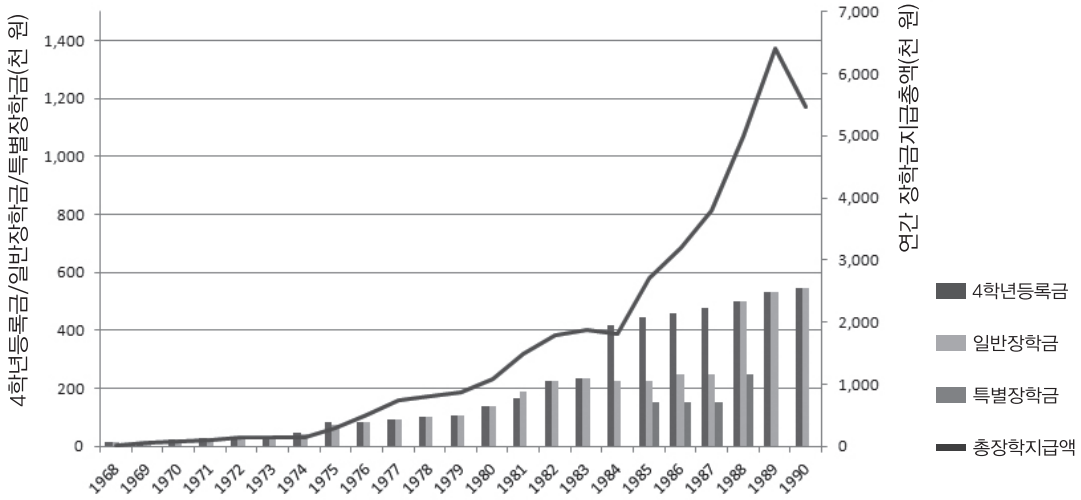


그림 3-6 등록금, 장학금 지급 및 전체 장학금액의 추이

(2) 농공장학재단의 장학 지원(1990~2011)

1990년도 농과대학의 농공학과 1, 2학기 등록금은 GNI의 24.5%에 해당하였으며, 1995년 농과대학의 농공학과 1, 2학기 등록금은 GNI의 21.3%에 해당하였다. 2000년도 농공학과 1, 2학기 등록금은 GNI의 22.9%에 해당하였고, 2005년도 등록금은 GNI의 26.4%에 해당하였

으며, 2010년도 농공학과 1, 2학기 등록금은 GNI의 26.0%에 해당하였다. 이 기간에도 대학 등록금이 국민소득과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를 넘나드는 중요한 지출의 대상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일찍부터 시작해 온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의 등록금과, 1인에게 지급된 장학금과 장학생 숫자에 따른 총장학금 지급액, 우리나라의 GNP와 GNI의 값을 표 3-7과 그림 3-7에 수록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1인당 한 학기에 부담하는 등록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546,000원이던 것이 2011년 3,179,000원으로 증가되었다. 또 농공장학재단이 장학금을 지원한 규모 면에서 살펴보면 1990년에 2명에게 1,092,000원 지급하던 것이 2011년에 60명에게 224,28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2년간 총 장학금 지급액은 1,103,337,000원에 이르렀다.

표 3-7 연도별 및 학기별 등록금(납입금)과 장학금 지급액 비교(1990~2011) (단위: 원)

연도	학기	등록금액	1인 장학금	장학지급총액	학생수(명)		GNI
					학기	연간	
1990	2	546,000	546,000	1,092,000	2	2/12	4,460,000
1991	1	600,500	600,500	4,804,000	8	16	5,340,000
	2	600,500	600,500	4,804,000	8		
1992	1	649,500	649,500	6,495,000	10	20	6,020,000
	2	649,500	649,500	6,495,000	10		
1993	1	731,000	731,000	7,310,000	10	20	6,740,000
	2	731,000	731,000	7,599,000	10		
1994	1	831,500	831,500	8,857,000	10	20	7,820,000
	2	831,500	831,500	8,643,000	10ㅌ		
1995	1	965,500	965,500	10,013,000	10	20	9,050,000
	2	965,500	965,500	10,013,000	10		
1996	1	1,108,000	1,108,000	11,753,000	10	20	10,070,000
	2	1,108,000	1,108,000	11,786,000	10		
1997	1	1,200,000	1,200,000	12,862,000	10	20	10,940,000
	2	1,200,000	1,200,000	12,776,000	10		
1998	1	1,200,000	1,200,000	12,834,000	10	22	10,640,000
	2	1,234,000	1,234,000	16,555,000	12		
1999	1	1,257,000	1,257,000	13,850,000	10	20	11,630,000
	2	1,306,000	1,306,000	14,208,000	10		
2000	1	1,463,000	1,463,000	20,086,000	11	22	12,770,000
	2	1,463,000	1,463,000	19,503,000	11		

표 3–7 연도별 및 학기별 등록금(납입금)과 장학금 지급액 비교(1990~2011) (계속) (단위: 원)

연도	학기	등록금액	1인 장학금	장학지급총액	학생수(명)		GNI
					학기	연간	
2001	1	1,527,500	1,573,000	21,145,500	11	22	13,720,000
	2	1,527,500	1,527,500	20,740,500	11		
2002	1	1,668,000	1,668,000	17,122,000	9	18	15,140,000
	2	1,668,000	1,668,000	17,481,000	9		
2003	1	1,822,000	1,822,000	14,629,000	7	14	16,040,000
	2	1,822,000	1,822,000	14,966,000	7		
2004	1	2,114,000	2,114,000	14,361,000	6	12	17,260,000
	2	2,114,000	2,114,000	14,449,000	6		
2005	1	2,370,000	2,370,000	15,769,000	6	12	17,960,000
	2	2,370,000	2,370,000	17,318,000	6		
2006	1	2,511,000	2,511,000	18,302,000	6	12	18,820,000
	2	2,511,000	2,511,000	17,753,000	6		
2007	1	2,685,000	2,685,000	20,274,000	6	12	20,100,000
	2	2,685,000	2,685,000	20,110,000	6		
2008	1	2,821,000	2,821,000	21,830,000	6	22	21,130,000
	2	2,821,000	2,821,000	59,811,000	16		
2010	1	3,087,000	3,087,000	88,575,000	24	49	23,780,000
	2	3,087,000	3,087,000	89,325,000	24		
2011	1	3,179,000	3,179,000	111,470,000	30	60	24,920,000
	2	3,179,000	3,179,000	112,819,000	30		

자료 출처: 서울대학교 예산과에서 제공(농생대의 자연계열 4학년의 기준으로 한 등록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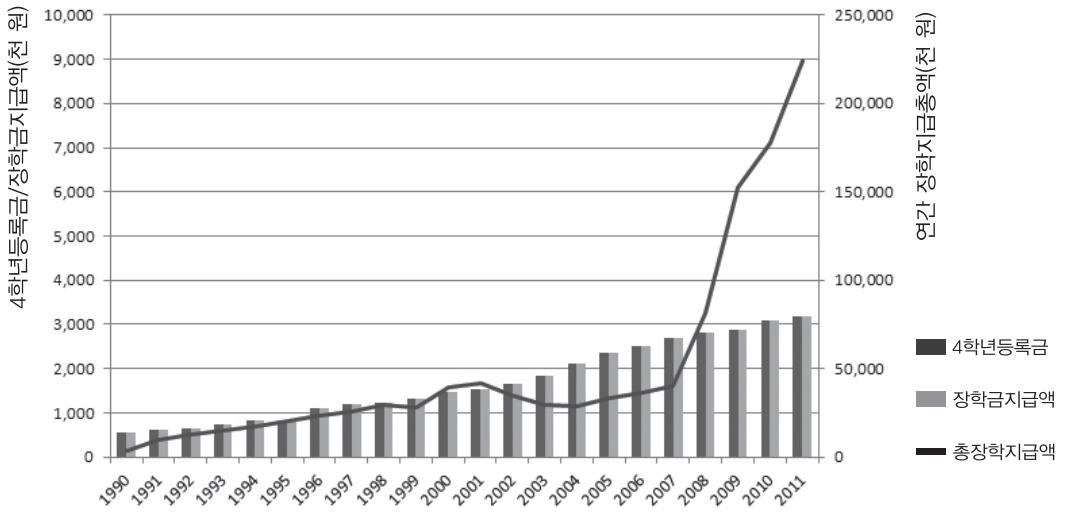


그림 3–7 등록금과 장학금 지급액의 추이

3. 농공장학금 수혜자 명단 및 지급 금액의 추이

농공동창회 장학사업의 출범에 따라 전개된 전체 장학생들과 장학금액을 살펴보면 44년간에 걸쳐 장학생 연인원은 657명이고, 지급된 장학금액은 총 1,141,850,000원에 이른다. 이를 2011년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4억 6천만여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장학생 명단과 학생들의 소속 전공과 학위과정 그리고 학기별 지급 금액을 농공동창회에서 지급한 대상과 농공장학재단에서 지급한 대상으로 전공별로 나누어 표 3-8과 표 3-9에 수록하였다. 1968년에서 1990년까지의 장학생은 연인원 185명 중에서 학사과정 장학생이 183명이었고, 석사과정 장학생은 2명이었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장학금 혜택을 받은 자는 연인원 472명 중에서 학사과정 장학생은 234명이었고, 석사과정 장학생이 194명이었으며, 박사과정 장학생이 44명이었다.

표 3-8 농공동창회와 농공장학재단의 농업토목 전공 장학생 명단과 지급액(1968~2011)

연도	농업토목(지역시스템공학) 전공	지급액(원)
1968	윤병호(4)	15,000
1969	이재영(4), 김철중(3)	60,000
1970	김철중(4), 권희교(3)	84,000
1971	유철근(4), 오병환(3), 윤재호(3)	100,000
1972	윤재호(4), 김동환(3)	135,800
1973	이승우(4)	65,700
1974	전재화(4)	75,000
1975	고홍석(4)	143,850
1976	박한기(4)	170,600
1977	권진봉(4), 박광수(4)	374,000
1978	윤치욱(4), 이종식(4)	405,600

표 3-8 농공동창회와 농공장학재단의 농업토목 전공 장학생 명단과 지급액(1968~2011) (계속)

연도	농업토목(지역시스템공학) 전공	지급액(원)
1979	안치일(4), 이봉영(4)	432,800
1980	김근원(4), 이용직(4)	543,000
1981	박병태(4), 신태은(4)	747,600
1982	박병흔(4), 이무종(4)	894,000
1983	이환우(4), 허선우(4)	938,000
1984	김춘삼(4), 이병국(4)	900,000
1985	권기대(4), 김현준(4), 김석철(4), 이상진(4), 이한구(4)	1,350,000
1986	문병두(4), 박종민(4), 이기은(4), 최장호(4)	1,600,000
1987	김종덕(4), 신경수(4), 조정묵(4), 성근열(4), 이두철(4), 최은철(4), 한광훈(4)	1,900,000
1988	윤성수(4), 이은재(4), 우유진(4)	2,500,000
1989	김광수(4), 김민근(4), 송한용(4)	3,204,000
1990	김광오(4), 김윤용(4), 나정균(4), 박대현(4)	3,276,000
1991	김동선(4), 손옥주(4), 정상호(4), 최병옥(4)	4,804,000
1992	신상호(4), 신형주(4), 임효선(4), 하좌근(4), 윤성수(석2), 이도섭(석2)	6,495,000
1993	강민구(4), 이강민(4), 정형석(4), 우철웅(석2), 최병옥(석2)	7,472,000
1994	김강석(4), 박수훈(4), 배연정(4), 유기섭(4), 정종홍(4), 고광돈(석1)	8,714,000
1995	박우식(4), 배승종(4), 장주흠(4), 최승만(4), 고광돈(석2)	10,013,000
1996	김성일(4), 김성필(4), 라준엽(4), 이대희(4), 엄명철(박1)	11,904,000
1997	김대일(4), 김준희(4), 박승찬(4), 서 교(4), 서동욱(4), 이강민(4), 강문성(박1),	12,843,000
1998	김성태(4), 김형진(4), 전종안(4), 조 운(4), 편기현(4), 원정윤(박1), 이호재(박1), 권명준(석1)	14,753,000
1999	김기성(4), 이경도(4), 이동호(4), 이호상(4), 최용준(4), 김성필(박1), 송인홍(석1)	13,998,000
2000	김은수(4), 김재형(4), 임재천(4), 조호석(4), 황선일(4), 강민구(박1), 장민원(박1), 송인홍(석2)	19,804,000
2001	김만수(4), 전기설(4), 정형택(4), 최은호(4), 김락중(3), 이민권(3), 배승종(박1), 김재형(석1), 조영현(석1), 허 준(석1)	21,136,500
2002	강동성(4), 김만수(4), 장태일(4), 정명재(4), 한이철(4), 황세운(3), 서 교(박1), 박미정(박1), 심상원(석1)	17,534,000
2003	황세운(4), 권성길(3), 박성직(3), 이은정(3), 장태일(석1), 한이철(석1)	14,966,000
2004	김태곤(4), 신정범(3), 김웅구(석1), 조영경(석1)	14,644,000
2005	신정범(4), 황종섭(3), 김옥경(석1), 오윤경(석1)	16,566,500
2006	박종욱(4), 송익균(3), 이은정(석2), 함영주(석2), 서일환(석1), 이창구(석1)	17,872,000
2007	김중곤(3), 노수각(박1), 이상현(석1), 정한석(석1), 홍은미(석1)	20,274,000

표 3-8 농공동창회와 농공장학재단의 농업토목 전공 장학생 명단과 지급액(1968~2011) (계속)

연도	농업토목(지역시스템공학) 전공	지급액(원)
2008	황순호(3), 남원호(박1), 이제명(박1), 이창구(박1), 이성용(석2), 홍은미(석2), 김용희(석1), 유재인(석1), 윤득노(석1)	40,973,000
2009	황순호(4), 남원호(박2), 이은정(박2), 이형진(박2), 홍은미(박1), 권경석(석2), 김용희(석2), 김현정(석2), 유재인(석2), 윤득노(석2), 이상현(석2), 이성용(석2), 한용운(석2), 홍은미(석2), 박정안(석1), 정기웅(석1), 최지선(석1)	75,783,000
2010	이현우(4), 정다운(4), 이영연(3), 정찬민(3), 홍민기(3), 이형진(박2), 이성용(박1), 홍은미(박1), 박정안(석2), 윤득노(석2), 최지선(석2), 김재현(석1), 송상현(석1), 은상규(석1), 이성복(석1), 이태석(석1), 이한귀(석1), 최순군(석1), 하태환(석1)	88,421,000
2011	김계웅(3), 이상현(박2), 이성용(박2), 송상현(석2), 은상규(석2), 이성복(석2), 이태석(석2), 이한귀(석2), 최순군(석2), 하태환(석2) 황순호(석2), 강진규(석1), 김광민(석1), 김지혜(석1), 박나영(석1), 박지훈(석1), 송정헌(석1), 이인(석1)	115,480,000
합 계	179명	574,364,950

표 3-9 농공동창회와 농공장학재단의 농업기계 전공 장학생 명단과 지급액(1968~2011)

연도	농업기계(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지급액(원)
1973	이정원(4)	65,700
1974	김경욱(4)	75,000
1975	이대연(4)	143,850
1976	김상헌(4), 박경구(석1)	340,500
1977	남상일(4), 이원남(4)	374,000
1978	김석진(4), 전찬영(4)	405,600
1979	이종갑(4), 장광윤(4)	432,800
1980	문성채(4), 이중용(4)	543,000
1981	강영선(4), 김용현(4)	747,600
1982	나용운(4), 한철수(4)	894,000
1983	김치환(4), 이영권(4)	938,000
1984	유의경(4), 이환승(4)	900,000
1985	송석한(4), 이비용(4), 국인석(4), 김기영(4), 박복응(4)	1,350,000
1986	유한상(4), 정길호(4), 조상기(4), 차재윤(4)	1,600,000
1987	백주형(4), 정승영(4), 변창덕(4), 손영선(4), 오동환(4), 임동수(4)	1,900,000
1988	권순환(4), 김기웅(4), 박권재(4)	2,500,000
1989	심규돈(4), 이승훈(4), 이종순(4), 진제용(4)	3,204,000

표 3-9 농공동창회와 농공장학재단의 농업기계 전공 장학생 명단과 지급액(1968~2011) (계속)

연도	농업기계(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지급액(원)
1990	김한태(4), 민 곤(4), 이기택(4), 이상주(4)	3,276,000
1991	고국원(4), 정용철(4), 최원익(4), 우상하(석1)	4,804,000
1992	김국환(4), 연홍석(4), 유동호(4), 이광제(4), 조병관(4), 우상하(석2)	6,495,000
1993	김대호(4), 신상규(4), 류일훈(3), 정영주(3), 임도형(2), 김채주(석2)	7,437,000
1994	김민수(4), 류일훈(4), 이동열(4), 신유성(2), 전성필(2), 김대호(석1)	8,786,000
1995	이재훈(4), 신동준(3), 신유성(3), 이성욱(3), 박주헌(2), 김대호(석2)	10,013,000
1996	박정인(4), 신유성(4), 이성욱(4), 최창호(4), 김종순(석2), 김우기(석1)	11,635,000
1997	김종언(4), 임정호(4), 김경출(3), 현충호(3), 최현준(석2), 정병학(석1)	12,795,000
1998	남기찬(4), 박영준(4), 정철호(4), 현충호(4), 구승범(3), 이기재(3), 이호석(3), 이종수(석2), 이정엽(석1), 이주완(석1)	14,636,000
1999	공대광(4), 구승범(4), 김정욱(4), 윤승환(4), 제영호(4), 최선종(4), 이광희(3), 조훈구(3), 안은수(석1)	14,060,000
2000	김상범(4), 박종혁(4), 조정효(4), 조훈구(4), 이대웅(3), 정왕조(3), 김유용(박1), 채희연(박1), 백승규(석2), 황진성(석2), 최상현(석1)	19,785,000
2001	가상현(4), 권상욱(4), 박기준(4), 박종혁(4), 임수인(3), 전홍규(3), 김유용(박1), 박영준(석2), 모창연(석2), 안용구(석2), 김은수(석1)	20,749,500
2002	김민정(4), 이덕호(4), 진우성(4), 박백순(3), 이왕희(3), 최상명(3), 장금송(박2), 이호상(석2), 서 민(석1)	17,069,000
2003	이왕희(4), 정훈의(4), 최준호(4), 백영기(3), 이상훈(3), 이희영(박1), 황성규(석1)	14,629,000
2004	윤순호(4), 이상훈(4), 한 성(4), 이민욱(3), 황성규(석2)	14,166,000
2005	양재일(4), 이동욱(4), 송황재(3), 심성보(석1), 이기욱(석1). 이상훈(석1)	16,520,500
2006	송황재(3), 심민진(3), 박세홍(석1), 이성대(석1), 주창규(석1), 황기영(석1)	18,183,000
2007	김준용(4), 김효진(4), 김수철(석1), 심민진(석1), 임애리(석1)	20,110,000
2008	박진혁(4), 천세환(4), 남주석(석2), 임애리(석2), 박수현(석1), 서현권(석1), 손현목(석1), 오주선(석1), 조현호(석1), 최진웅(석1)	40,668,000
2009	강병곤(4), 현은제(4), 박수현(석2), 손현목(석2), 오주선(석2), 최진웅(석2), 김소희(석1), 김준용(석1), 백수정(석1), 서현권(석1), 심동국(석1), 이재정(석1), 이진웅(석1), 이춘구(석1)	76,966,000
2010	권혁정(4), 김 협(4), 홍성표(4), 김현재(3), 조윤수(3), 김송현(2), 박수현(박1), 김소희(석2), 김준용(석2), 백수정(석2), 신창섭(석2), 이진웅(석2), 조현호(석2), 김동현(석1), 박성민(석1), 심동국(석1), 장정욱(석1), 최종우(석1)	89,479,000
2011	조윤수(4), 김송현(3), 손대식(3), 이윤주(3), 이준민(3), 남주석(박2), 선우훈(박2), 신창섭(박1), 이진웅(박1), 이춘구(박1), 김동현(석2), 김준용(석2), 박성민(석2), 심동국(석2), 양민호(석2), 장정욱(석2), 최종우(석2), 김원경(석1), 정 수(석1), 최규정(석1)	108,809,000
합 계	180명	567,485,050

제4장

역대 임원

1. 농공동창회의 역대 임원
2. 농공장학재단의 역대 임원
3. 농공장학재단의 역대 임원 임기

1. 농공동창회의 역대 임원

농공동창회의 장학 사업에 수고하였던 역대 임원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농공동창회의 장학 사업이 추진되던 초기에는 농공동창회 회장을 중심으로 여러 임원들의 협력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초대 이창구 회장은 1966년 1월 29일부터 1974년 10월 9일까지 약 8년 8개월에 걸쳐 제1차와 제2차의 모금을 통해 장학기금 조성의 기틀을 다져 놓으셨다. 이후 임영춘 회장이 2년간 역임하면서 제3차 모금을 시도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어 남영희 회장이 4년간에 걸쳐 특정인에서 전 회원으로 대상을 바꾸고, 입학년도에 기별 간사를 선정하고 2단계로 나누어 입학 기수에 따라 배정액을 달리하여 제4차 모금을 전개함으로써 지속적인 모금의 길을 열었다. 고재군 회장이 2년간에 걸쳐 장학기금 모금에 열정을 쏟아 미수된 입학 기별 모금을 선두에 서서 독려하여 많은 모금을 하였다. 그러나 기별로 배정된 모금을 모두 모금했다고 해도 많은 금액은 아니고, 단지 농공동창회원으로 참여한다는 데 이의를 두었다. 정진호 회장은 회원들 중에서 거금을 출연하도록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특별장학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여 모금을 시도했다. 그러나 별 성과를 얻지는 못한 상태에서 종료되었다. 이후 윤오섭 회장은 기업에 종사하는 동문들에게 후진들을 위한 특별 지원을 요청하여 당시로는 큰 금액을 모금하였다. 그 때 처음으로 재단 법인화를 도입하는 제안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농공동창회 기금액이 많지 않은 상태였기에 미루고 있었다. 또한, 재단법인이 되면서 개인 또는 법인의 세금 감면 혜택도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상태였다. 안재숙 회장은 농공동창회 기금의 모금과 관리에 집중하여 특별장학제도를 없애고, 기금 대출의 관리에 힘을 기울였다. 이어서 이철주 회장이 취임하면서 윤대섭 동문의 강력한 추천으로 1억 원이 넘는 기금의 관리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드디어 1990년 3월 재단법인 농공장학재단을 인가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그 후 이희영 회장이 취임하면서 농공동창회와 농공장학재단의 운영에 일관된 장학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어

표 4-1 농공동창회 임원진(1966~1992)

대수	기간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장	상임간사
1대	1966~1968	이창구	박기승, 임영춘	이재기, 장재중	이희영	이상호
2대	1968~1970	이창구	박기승, 임영춘	이재기, 장재중	이희영	이상호
3대	1970~1972	이창구	임영춘, 이한영	이재기, 장재중	이상호	신동수
4대	1972~1974	이창구	정진호, 최현국	이희영, 이상호	고재군	이종호
5대	1974~1976	임영춘	노태래, 김시원	김재곤, 김종성	고재군	이종호
6대	1976~1978	남영희	안재숙, 오완수	엄태영, 유근학	정창주	정하우
7대	1978~1980	남영희	안재숙, 오완수	엄태영, 유근학	정창주	정하우
8대	1980~1982	고재군	이기춘, 김시원, 유근학	엄태영, 최찬식	신동수	고학균
9대	1982~1984	정진호	윤오섭, 김재곤, 정창주	김남혁, 이재기	황경구	김문기
10대	1984~1986	윤오섭	김환종, 윤선병, 이희영	김윤태, 이계홍	류관희	남상일, 김용환
11대	1986~1988	안재숙	윤대섭, 이재기, 한상욱	최찬식, 조수형	권순국	이용직, 이신호
12대	1988~1990	이철주	신동수, 오무영, 최찬식	신현주, 황경구	노상하	이용환
13대	1990~1992	이희영	이중기, 이계홍, 김정한	홍승만, 민병선	장병욱	남상훈

서 다시 농공동창회 정관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농공장학재단은 농공동창회 산하 기관으로 정의하고, 농공동창회 회장은 농공장학재단의 이사장을 겸임하도록 농공동창회 정기총회에서 결의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들 과정에서 하나의 사심 없이 오직 농공학의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였기에 모든 농공동창회 회장을 위시한 임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여기에 역대 임원 명단을 표 4-1에 소개한다.

2. 농공장학재단의 역대 임원

한편 농공동창회의 임원은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임기가 정리되어 있으나, 농공장학재단의 경우에는 초기에 농공동창회와의 관계설정이 정확하지 않아 재임 기간이 일정하지 못한 점도 있었고, 업무가 익숙지 않아 장학사업의 보고와 이사진의 임면 의뢰가 원활하지 못하여 임기 기간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농공동창회 회장은 짝수년 10월 정기총회 이후부터 업무가 시작되었으므로 농공장학재단의 이사장 취임은 회계기준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을 고려하여 보통 농공동창회장의 임기 시작 그 해 12월에 농공장학재단 이사장의 업무를 넘겨받아 왔기 때문에 실제 재단 운영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지난 22년간 모교의 농공학 발전을 위하여 더욱 알찬 교육 성과와 후학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정성을 쏟았던 농공장학재단의 임원들과 모교 교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장학기금을 출연해 주신 모든 동문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여기에 농공장학재단의 역대 임원 명단을 표 4-2에 소개한다.

표 4-2 농공장학재단 이사회 임원진(1990~2011)

대수	기 간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1대	1990. 3~1993. 3	이철주	정창주	정진호, 안재숙, 윤오섭, 유한홍, 윤대섭, 고재군, 신동수, (이희영, 유근학)	김재곤, 배정길
2대	1993. 3~1995. 1	이상호	김경욱	정진호, 안재숙, 윤오섭, 유한홍, 윤대섭, 이철주, 고재군, 정창주, 신동수, 유근학, 김원세	김재곤, 배정길
3대	1995. 1~1997. 6	엄태영	박승우	김환종, 정진호, 윤오섭, 유한홍, 윤대섭, 이철주, 고재군, 이상호, 정창주, 신동수, 유근학, 김원세, 지근진	조범호, 정하우
4대	1997. 6~1998. 12	유근학	이정재	김환종, 정진호, 윤오섭, 유한홍, 윤대섭, 이철주, 고재군, 이상호, 엄태영, 정창주, 신동수, 김원세, 지근진	조범호, 정하우

표 4-2 농공장학재단 이사회의 임원진(1990~2011) (계속)

대수	기 간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5대	1998. 12~2000. 11	홍승만	조인성	정진호, 유한홍, 윤대섭, 이희영, 고재군, 이상호, 엄태영, 정창주, 신동수, 유근학, 고학균, 지근진, 박원규, 허유만	변양석, 정하우
6대	2000. 11~2002. 12	조범호	이중용	정진호, 유한홍, 윤대섭, 이희영, 이상호, 엄태영, 정창주, 신동수, 유근학, 고학균, 지근진, 박원규, 허유만	변양석, 정하우
7대	2002. 12~2004. 12	정하우	이중용	정진호, 유한홍, 윤대섭, 최찬식, 홍승만, 고학균, 조범호, 지근진, 박원규, 허유만, 김철중, 장병욱, 서병륜	변양석, 장정수
8대	2004. 12~2006. 12	허유만	최진용	정진호, 유한홍, 윤대섭, 최찬식, 홍승만, 고학균, 조범호, 지근진, 변양석, 김철중, 장병욱, 장정수, 서병륜	장정수, 권진봉
9대	2006. 12~2009. 3	권상필	최진용	유한홍, 윤대섭, 조범호, 지근진, 변양석, 류관희, 김철중, 장병욱, 장정수, 정진구, 최현섭, 김현영, 서병륜	권진봉, 서택동
10대	2009. 3~2011. 1	박승우	최진용	유한홍, 윤대섭, 이석우, 류관희, 권상필, 장병욱, 정진구, 이창구, 최현섭, 윤여두, 김현영, 이정재, 홍병만	김풍진, 윤춘경
11대	2011. 1~현재	김경욱	정종훈	윤오섭, 유한홍, 윤대섭, 이석우, 박원규, 장병욱, 노상하, 이창구, 윤여두, 이정재, 홍병만 권진봉, 최은수	김풍진, 윤춘경

3. 농공장학재단의 역대 임원 임기

임원들의 협력과 수고로 농공장학재단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장학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목적사업에 적극 적용함으로써 오늘의 튼튼한 장학재단으로 도약 궤도에 올려놓게 되었다. 역대 임원 중에는 정성스러운 출연금을 희사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며, 특히 윤대섭 재단이사의 헌신적 사랑이 서울대학교 역사에 길이 남을 농공장학재단으로 발전시켜 놓게 되었다.

이제 농공학을 전공하는 전체 학생들은 등록금에 얽매여 희망의 끈을 잃는 자가 없을 것이며, 오직 무엇으로 농공학의 장을 새롭게 창조적인 개척의 길을 열어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꿈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농공학 발전을 위해 수고하는 교수들이 젊은 학생들과 꿈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선택적 학술연구의 지원에도 아낌없이 투자할 때가 오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이 장학 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진출하여 훌륭하게 봉사하는 자들이 되고,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의 지도자들로 활동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를 위해 임원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방향 설정에 더욱 큰 관심을 기대한다.

그동안 수고하신 농공장학재단 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임원들의 각 기능별 활동 내용을 담기 위하여 역대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임기를 정리하여 표 4-3, 표 4-4, 표 4-5 및 표 4-6에 소개한다.

표 4–3 농공장학재단의 이사장 임기

대수	성명	임 면 일 자		실 제 집 행	
		시작	종료	시작	종료
1대	이철주	1990. 3. 29	1993. 4. 1	1990. 3. 29	1993. 4. 1
2대	이상호	1993. 9. 6	1995. 1. 23	1993. 4. 2	1995. 1. 23
3대	엄태영	1995. 1. 24	1997. 7. 4	1995. 124	1996. 12. 18
4대	유근학	1997. 7. 4	1998. 11. 22	1996. 12. 19	1998. 12. 21
5대	홍승만	1998. 12. 22	2000. 11. 3	1998. 12. 22	2000. 12. 21
6대	조범호	2000. 11. 3	2002. 12. 21	2000. 12. 22	2002. 12. 21
7대	정하우	2002. 12. 22	2005. 7. 15	2002. 12. 22	2004. 12. 21
8대	허유만	2005. 7. 15	2006. 12. 21	2004. 12. 22	2006. 12. 21
9대	권상필	2006. 12. 22	2009. 3. 30	2006. 12. 22	2008. 12. 21
10대	박승우	2009. 3. 30	2010. 12. 21	2008. 12. 22	2010. 12. 21
11대	김경욱	2011. 1. 6	2015. 1. 5	2010. 12. 22	현재

표 4–4 농공장학재단의 상임이사 임기

대수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대수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1대	정창주	1990. 3. 29	1993. 6. 6	5~6대	조성인	1999. 8. 2	2001. 2. 23
2대	김경욱	1993. 6. 7	1995. 1. 24	6~7대	이중용	2001. 2. 23	2005. 7. 15
3대	박승우	1994. 7. 16	1997. 7. 4	8~10대	최진용	2005. 7. 15	2010. 7. 15
4~5대	이정재	1997. 7. 4	1999. 7. 15	11대	정종훈	2010. 9. 10	

표 4–5 농공장학재단의 이사 임기

대수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대수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1~8대	정진호	1990. 3. 29	2006. 4. 10	7~9대	최찬식	2003. 1. 24	2007. 1. 23
1~2대	안재숙	1990. 3. 29	1994. 3. 5	7~9대	조범호	2003. 8. 18	2007. 8. 17
1~5대	윤오섭	1990. 3. 29	1998. 3. 29	7~9대	김철중	2003. 8. 18	2007. 8. 17
1~11대	유한홍	1990. 3. 29	2016. 5. 29	7~11대	장병욱	2004. 3. 30	2012. 5. 29
1~11대	윤대섭	1990. 3. 29	2014. 5. 27	7~8대	서병륜	2004. 3. 30	2008. 3. 29
1~5대	고재군	1990. 3. 29	2000. 3. 30	8~9대	변양석	2005. 7. 15	2008. 3. 29
1~7대	정창주	1990. 3. 29	2004. 3. 29	8~10대	최진용	2005. 7. 15	2010. 7. 15
1~7대	신동수	1990. 3. 29	2004. 3. 29	8~9대	장정수	2005. 9. 5	2009. 9. 4

표 4-5 농공장학재단의 이사 임기 (계속)

대수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대수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1~2대	이희영	1990. 11. 23	1993. 4. 1	8~10대	최현섭	2006. 5. 19	2010. 4. 9
1~3대	유근학	1991. 4. 2	1997. 7. 3	8~10대	김현영	2006. 5. 19	2010. 4. 9
1~5대	김원세	1992. 4. 1	1999. 7. 15	9~11대	정진구	2007. 2. 22	2011. 2. 21
1대	이상호	1993. 3. 2	1993. 4. 1	9~11대	류관희	2007. 4. 6	2011. 4. 5
2대	김경욱	1993. 6. 7	1995. 1. 24	9~11대	이창구	2007. 10. 2	2011. 10. 1
2~4대	이철주	1993. 4. 1	1997. 9. 5	9대	박승우	2007. 10. 2	2009. 3. 29
2~3대	박승우	1994. 7. 16	1997. 7. 4	9~11대	홍병만	2007. 10. 2	2011. 10. 1
3~5대	김환종	1995. 6. 20	1999. 6. 19	10~11대	이석우	2008. 5. 30	2012. 5. 29
3~9대	지근진	1995. 6. 20	2007. 8. 17	10~11대	윤여두	2008. 5. 30	2012. 5. 29
4~5대	이정재	1997. 7. 4	1999. 7. 15	10~11대	권상필	2009. 11. 13	2011. 5. 3
4~6대	이상호	1998. 4. 10	2002. 4. 9	10~대	이정재	2009. 11. 13	2013. 11. 12
5~7대	엄태영	1998. 12. 22	2003. 1. 23	11~대	노상하	2010. 5. 28	2014. 5. 27
5~8대	박원규	1998. 12. 22	2005. 8. 16	11~대	최은수	2010. 5. 28	2014. 5. 27
5~7대	유근학	1999. 7. 14	2003. 7. 13	11~대	정종훈	2010. 9. 10	2014. 9. 9
5~6대	이희영	1999. 7. 16	2003. 7. 15	11~대	윤오섭	2011. 5. 3	2015. 5. 2
5~8대	고학균	1999. 7. 16	2007. 1. 8	11~대	박원규	2011. 5. 3	2015. 5. 2
5~6대	조성인	1999. 8. 2	2001. 2. 23	11~대	권진봉	2011. 5. 3	2015. 5. 2
6~8대	허유만	2000. 3. 30	2005. 7. 15	11~대	장석효	2011. 10. 21	2015. 10. 20
6~7대	이중용	2001. 2. 23	2005. 7. 15	11~대	이성호	2011. 10. 21	2015. 10. 20
7~8대	홍승만	2002. 4. 10	2006. 4. 10				

표 4-6 농공장학재단의 감사 임기

대수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대수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1~2대	김재곤	1990. 3. 29	1994. 3. 29	7~8대	장정수	2002. 12. 22	2005. 8. 21
1~3대	배정길	1990. 3. 29	1995. 6. 6	8~9대	권진봉	2005. 1. 10	2007. 1. 9
3~4대	조범호	1994. 8. 3	1998. 8. 2	9~10대	서택동	2005. 10. 1	2009. 10. 1
4~6대	정하우	1995. 8. 22	2003. 8. 21	10~11대	김풍진	2009. 3. 30	2011. 3. 28
5~7대	변양석	1998. 12. 22	2004. 12. 21	11~대	윤춘경	2009. 11. 13	2011. 11. 12

제5장

회고담

1. 농공동창회 임원과 회원
2. 특별대담
3. 장학금 수혜자

1. 농공동창회 임원과 회원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의 태동기를 회상하며

48학번, 제10대 농공동창회 회장 **윤오섭**

본인은 1984년 10월 농공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생각지도 아니한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약 1년을 지내고 보니 농공동창회 발전의 첫째 사업은 동창회 기금 확충에 있는데 그간 모금액이 아주 저조하여 동창회 기금 확충 방법을 바꾸기로 하고 당시 졸업생의 취직이나 그 후까지도 관심을 갖고 졸업생의 현황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계시며 1966년에 농공동창회의 창립을 이끌고 초대부터 4대까지 동창회 회장을 역임하신 이창구 교수님을 찾아가서 동창회의 그간의 현황과 동창회 기금 확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원에 대해 상의를 하였다. 당시 성보실업 부회장이신 윤대섭 회장과 대림정의 회장이시고 농공동창회의 6대 및 7대 회장을 역임하신 남영희 회장 두 분을 천거하셨다. 그런데 남영희 회장님은 원로하시어 현업에서 손을 뗀 상태였으므로 연락 자체가 여의치 아니하였고, 성보실업의 윤대섭 회장은 한 번의 전화로 방문시간이 약속되었다.

당시 동창회 간사장은 류관희 교수가 맡고 있었는데 윤대섭 회장에게 설명할 자료를 간사장에게 작성케 하여 갖고 가기에는 시간이 맞지 아니하여 본인이 직접 농공동창회 일반 현황과 기금의 대출 현황 및 운영상태 등 상세한 현황을 '미니 차트'로 만들어 약속 시간에 방문하여 설명하였다. 윤대섭 회장은 관심 있게 질문을 하였고 답변을 통하여 현황이 파악되었으며 설명이 끝나자 윤대섭 회장은 "동창회 기금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 및 회원들의 기금 출연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인체로 바꾸어야 하니 지금부터 바로 법인체 발족을 추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다. 다음은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것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꾸준히 농공동창회 발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것이다"라는 답변에 "알겠다"며 바로 캐비닛을 열더니

현금 200만 원을 내놓았다(한번에 200만 원 출연하기는 동창회 창립 이후 처음임).

그리고 그 후 3개월이 지난 그해(1985년) 연말에 윤대섭 회장으로부터 점심이나 같이 하자는 전화가 있어 방문하였다. 점심식사를 같이 한 후 윤대섭 회장으로부터 봉투를 받았는데 꺼내보니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두 장 들어 있었다. 처음 거액을 몸에 지니고 보니 겁도 나고 하여 정신없이 인사하고 택시로 거래은행에 직행하여 즉시 동창회 통장에 입금하였다. 그러나 흥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아니하였다. 그 후 류관희 간사장에게는 이틀 후엔가 전화로 연락하니 류 교수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아도 동창회 상임간사가 은행에 볼일이 있어 갔다 오더니 "동창회 통장에 뭉칫돈이 잘못 입금되어 있다"며 법석이었다고 하였다.

역대 회장님들이 10여 년간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농공동창회 기금이 1984년 10월 본인이 회장 취임 시에 약 3,50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본인의 동창회장 재임 2년간에 윤대섭 회장이 출연한 2,200만 원과 64 및 65 입학동기가 각각 100만 원씩 출연함에 힘입어 동창회 기금이 약 7,400만 원이 조성되었다. 1986년 10월에 조성된 동창회기금과 윤대섭 회장의 의견이며 부탁이었던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수집된 자료와 함께 후임 안재숙 회장에게 인계하였고, 안재숙 회장은 재임기간 중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분석하여 다시 후임인 이철주 회장에게 인계하였다. 이철주 회장 임기 중 1990년 3월에 마침내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간 윤대섭 회장은 동창회기금을 출연하였고, 특히 바라던 농공장학재단이 설립된 후에는 끊임없이 거액의 기금을 출연하여 현재와 같이 어느 대학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명실공히 거대한 장학재단으로 성장하였음은 오로지 윤대섭 회장의 농공동창회에 대한 강한 애착과 열의 및 굳건한 의지로 이룩한 것이다. 우리는 윤대섭 회장과 같은 분이 우리 동창회 회원임에 긍지를 느끼며, 특히 본인이 동창회장 당시에는 농공동창회의 기금 운영이 윤대섭 회장이 바라던 법인체도 아니고, 동창회 창설 후 현재까지의 운영에 부실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동창회와 본인을 믿고 거금을 쾌척하여 서울대 농공장학재단을 태동시켰으며 현재와 같은 농공장학재단으로 키워준 것을 충심으로 감사하는 바이다.

농공장학재단 창설 20주년을 맞으며

49학번, 제1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이철주**
(제12대 농공동창회 회장)

현 농공동창회장 및 농공장학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농공장학재단이 설립 후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기금이 약 90억 원에 달하여 매 학기 60여 명의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내가 시작했던 때의 규모와 비교해 볼 때 그 기금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어 매우 감개무량하였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몸담고 있던 20여 년의 모교를 떠나 인도의 I.I.T.(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Kharagpur)에 교환 교수로 가게 되었고, 그 후 필리핀의 I.R.R.I.(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를 거쳐 A.D.B.(AsianDevelopment Bank)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의 교수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8년 국외 근무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농공동창회장 및 농공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게 되었다.

내가 외국에 살면서 많은 외국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학생 시절 장학금을 받아 공부를 마치고 훗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사회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하였는지 절실히 보고 느낀 바 크다. 그래서 우리도 후진의 발전을 위해선 이와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장학재단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장학기금 조성에 기여하는 분, 수혜학생, 장학금의 액수 또는 기여자의 세금 혜택 등 제반 사항에 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재단의 설립을 서둘렀던 것이다. 그 당시 동창회 간사였던 노상하 교수의 적극적인 협조로 장학재단의 정관을 만들었고 동창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분 중엔 성보실업의 윤대섭 회장님이 계셨다. 윤 회장님은 후진 양성을 위해 이 기금 조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셨고, 매년 계속적으로 큰 도움을 주셔서 오늘의 큰 장학재단의 기틀을 마련하셨다.

내가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느껴온 것은 많은 대학이 모교 발전을 위해 동문들이 구체적으로 노력하며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화된 그들의 기부문화는 후진 양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우리나라의 문화, 경제, 국민소득 등은 과거에 비해 놀라운 발전을 했으나 외국에 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갖는 기부문화는 아직도 미미한 상태로 많이 뒤떨어져 있음을 실감한다.

20년간 내가 몸담아 왔던 모교를 떠나 다른 국제기관에서의 또 다른 20여 년간의 근무기간 동안 느낀 바로는 세상의 문은 넓게 열려 있고 다양한 환경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후배들은 나의 세대의 열악한 학창시절의 여건에 비해 비교할 수도 없는 좋은 조건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최선의 조건에서 좋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무한경쟁에 도전하는 약진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 농공장학재단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여 우리 후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

농공장학재단을 생각하며

53학번, 농공장학재단 초대 상임이사 **정창주**

농공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하였다. 재단의 설립 당시 상임이사로서 재단 설립의 실무적 업무를 담당했던 나로서는 작금의 재단 발전상을 생각하는 것이 남다른 감회를 갖게 한다. 불과 오천만 원의 동창회 출연금으로 시작한 농공장학재단은 이제 기금이 구십억 원이 넘어서는 실로 경이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재단의 기본 사업인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도 초기의 학부생 한두 명에서 근래에는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학과 절반 이상의 학생이 등록금 전액을 지급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대학의 학과 단위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한 사례도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막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농공동창 모두는 농공장학재단의 존재를 자랑으로 삼고 불과 20여 년의 짧은 기간에 이룬 성과를 초석으로 삼아 앞으로 더 큰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농공장학재단은 일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장학재단과는 다른 특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 학과 단위에서 동창회가 중심이 되어 학과 후속세대를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는 점이다. 농공동창회는 재단이 설립되기 약 20년 전에 재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졸업생으로부터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소나 논밭을 팔아 학비를 마련하여 어렵게 공부한 많은 졸업생이 후배들의 학자금을 돕기 위해 적은 돈 큰돈을 장학기금으로 쾌척하기 시작했다. 고 이창구 동창회장을 비롯한 뜻있

는 원로급 동창들의 비교적 큰 성금은 기금 확충 속도를 가속시켰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동창 개인이나 동창이 소속한 기업을 통하여 이윤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투자하여 기금 증식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동창회의 장학기금이 증가함에 따라 돈의 안전관리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고, 기금의 계속적 확대 조성을 위해서도 재단의 설립이 절실했던 것이다. 농공동창회는 타 과에서는 생각도 못할 때 이렇게 동창들이 푼푼이 모은 기금으로 농공장학재단을 창설하게 된 것이다.

오늘의 농공장학재단 발전이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한 동창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기에는 지면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공장학재단의 설립과 발전에 지대한 업적을 세운 윤대섭 동문의 이야기는 간단하게나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윤대섭 동문은 재단 설립 이전부터 동창회에 장학금으로 거액을 몇 번에 걸쳐 출연하였다. 누구보다도 먼저 재단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립 업무를 자문하였다. 설립 후에는 때로는 한 해에 몇 번, 거의 매년 거액의 장학기금을 출연한 것이다. 현재 재단 재산 총액의 거의 90%가 윤대섭 동문의 출연금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면 그의 기여도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윤대섭 동문은 넉넉하지 못했던 재학시절에 장학금 수혜자였던 것을 감사하면서 학과에 이를 보답하는 심정으로 장학기금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검소하고 절약하는 삶을 견지하면서 후배의 장학 사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재를 아낌없이 희사하는 것을 생각하면 윤대섭 동문은 후배들에게 돈의 가치와 장학사업의 숭고한 뜻이 무엇인지를 실천을 통하여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바라건대, 농공동창회의 후배 중에 제2 제3의 윤대섭 동문이 많이 나타나 그의 숭고한 뜻이 계승 · 발전되기를 기원한다.

농공장학재단의 업적은 목적사업의 수행 실적에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재단사업의 핵심인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기금의 증가에 발맞추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재학생의 전체 장학금 중 농공장학재단 장학금의 지급비율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의 재산이 더욱 커지면 재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시대도 멀지 않아 도래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목적사업은 장학금지급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목적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학과의 발전이나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를 드높이는데 기여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농공장학재단은 설립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발전하였으며 앞으로도 큰 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단의 면모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재단의 고유 업무를 관장할 사무국의 확대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재단의 재산이 지속해서 확충된다면 장학금 지급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농공장학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

며, 그 업적과 효과는 어떠한지 대내외에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농공장학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재단법인 농공장학재단의 설립

55학번, 제12대 농공동창회 부회장 **신동수**

1990년 10월 우리 농공동창회 정기총회가 모교(수원 소재)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회순에 따라 임원 개선에서 02학번, 즉 1949년도에 입학해서 석사학위까지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한 후 모교에 재직하시다가 UN 기관에서 근무한 후 필리핀 마닐라 소재 아시아 개발은행, 즉 ADB(Asian Development Bank)에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 식량농업개발사업의 투자관리 분야에서 사업 심의 평가에 관한 심사 역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귀국하신 이철주 박사(현재 미국거주)를 제12대 농공동창회장으로 모시게 되었다.

회장으로 추대되신 이철주 박사께서는 농공동창회 부회장단의 선임을 위임받아 부회장에 55학번인 필자 신동수와 56학번인 최찬식 씨를 선임하여 인준 받았으며, 동창회 간사장에는 노상하 씨가 맡도록 하였다. 당시 부회장 신동수는 농어촌공사 사업담당 본부장(이사)으로, 최찬식 씨는 건설부 호남국토관리청장으로 그리고 노상하 박사는 모교 농공학과의 농업기계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제 전임 회장단으로부터 회무를 인수인계받은 우리는 향후 2년간(1990. 10~1992. 10) 동창회 운영에 소임을 맡게 되어 심도 있게 검토한바 동창회 설립 목적사업으로 동창상호 간의 친목과 매년 시행하는 정기총회 모임이나 가족모임도 중요하지만, 기금의 증액 확보로 장학 사업이 활발해야 하겠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장학금 모금 운동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행하였으며, 동창 독지가들로부터의 성금도 있었지만 기본 재산에 대한 자금 관리 면에서 문제도 있었고 재산증식의 방법도 미흡하였음을 인수인계를 거치면서 알게 되었다.

신임 회장이 되신 이철주 박사는 장학금 모금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선후배 동창 또한 동기생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하신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와 협의했다. 내용인즉 제조 판매 무역과 금융업을 하시는

동기생 Y씨와 무역업을 하시는 동기생 R씨 등에게 받은 자문은 현재 상황의 동창회 이름으로는 장학기금을 기부금으로 출연 지원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나 법인기업체로서는 지출비용으로 처리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개인 기업이나 법인기업체가 일반적 기부금이나 장학기금에 출연하게 되면 조세특례법상으로 세액 공제 감면 혜택도 인정받고 또한 기업을 하는 법인체로서도 비용처리가 확실하고 명분도 확실한 재단법인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한다면 기업을 경영하는 법인체는 물론 개인 사업을 하는 동창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자문이었다.

우리 농공동창회 임원들은 재단법인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여 설립위원회를 조직하고 재단 이사진을 구성하였다. 이사진으로는 동창회장 이철주 박사와 대학 전문부의 (주)신창 엔지니어링 고 정진호 회장(2009년도 작고), 대학 48학번의 (재)한국농지개발연구소 고 안재숙 이사장(2009년도 작고), 대학 48학번의 (재)한국농지개발연구소 윤오섭 소장, 대학 49학번의 성보 그룹(성보실업, 서울농약, 유화증권 등) 윤대섭 부회장, 대학 49학번의 (주)미영상사 유한홍 회장, 대학 51학번 농공학과 교수 고 고재군 박사(2012년도 작고), 대학 53학번 농공학과 교수 정창주 박사 그리고 대학 55학번의 농어촌공사 신동수 본부장(이사) 등 아홉 명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에 이철주 박사를 그리고 상임이사에 정창주 교수를 선임했다.

아홉 명의 이사들은 각자의 일과 업무를 마치고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회의실에 모여 정관과 사업계획 내용에 대하여 수차례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법인 설립에 관한 제반 신청양식과 정관상의 설립목적 사무소의 위치, 임원구성, 설립 자본금 및 운영계획서 등 일체 서류를 갖추어 학교 소재지 관할 교육청인 수원시교육청에 제출하여 약 삼 개월 만에 승인을 받고, 관할 법원에서 법인등기를 마쳤다.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은 정관에서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그리고 자본금의 규모와 연도별 집행 예산액이 재단의 규모를 대표한다.

초기 재단법인의 설립 자본금과 운영비는 설립 발기인(설립 이사진)이나 독지가의 출연금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의 우리 농공장학재단은 자본금의 출연 여건과 시기적으로 어려운 일이기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동창회의 기금으로 창립 자본금과 운영 예산으로 전환하고, 장학금 지급과 동창회 경상운영비를 재단에서 지원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설립 자본금과 연간 운영 예산을 편성하여 신청하였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법인체 설립등기가 나오자 성보그룹 윤대섭 부회장과 (주)미영상사 유한홍 회장께서 각각 거액의 금일봉을 장학금으로 기부하셨던 것으로 회고하며, 특히 성보그룹의 윤대섭 부회장께서는 1992년 이래 매년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이로써 대학의 학

과동창회 단위에서 국내 유일한 최다 장학기금을 보유 · 운영하는 장학재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 동문 일동은 위에서 거명한 두 선배님의 재단 설립에 대한 자문과 설립 이래 재단이사로서 또한 매년 거액의 장학금을 출연해 주셔서 오늘의 농공장학재단을 있게 한 공헌에 대하여 특별히 감사와 긍지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두 알의 밀알이 썩어 거목이 되다!

56학번, 농공학과 **권오완**

5월은 어린이날 외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라 하지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공학과 후배들이 매년 주최하는 '대선배를 모시는 초청' 행사를 우리 동문의 큰 자부심이자 긍지를 느끼는 선 · 후배들이 기다려지는 5월이다.

농공동창장학회 20년사 기념사업 일환으로 원고 청탁을 받고 회고하건대, 고이창구 박사님/고 임영춘 선배님의 '동창회 장학기금 모금' 필요성에 동감 · 동참은 내 생애 가장 보람있는 사업으로 평가되며, 멘토이신 고인의 명복을 비옵니다.

생각건대 2000년 동신기술개발공사 근무시 수자원공사 울산지사 방문할 기회에, 수자원공사 김택구 본부장으로부터 울산지사 후배 소개를 받고 찾아간 일이 기억되며 후배님 친절에 늦었지만 감사를 드린다.

약속된 일시에 방문한 후배님은 따뜻한 차 앞에 놓고 뜬금없이 "선배님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나를 당황하게 했다. 후배님 점심 접대를 다음 기회로 미루고 돌아오며 '선배님 알고 있다'를 생각하니 기회 있을 때마다 동창회 기금 모금 참여가 농공동창회보에 기록된 것을 후배가 읽고 기억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장학기금 동참을 보람 있는 일로 처음 느낌을 받았다.

사회에서 퇴직했지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구직처가 요구하는 이력서/자기소개서를 제출(3회)했으나 면접 통지조차 받지 못하던 차, 2011년 5월 용인지역신문을 보고 구직처가 요구한 이력서 외 자기소개서 대신 '농공동창회보(제32호) 장학기금 모금 현황/장학금 수혜자 명단'과 '교회헌금확인서/헌혈증서/시신기증 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

였더니 곧 면접 통지를 받았다.

약속된 장소, 시간에 여러 이사님 앞에서 면접을 받게 되었는데, 기획담당 이사는 포럼에서 요구한 자기소개서 대신 '농공동창회보와 2010년 교회헌금확인서'로 대신했는데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십시오"라는 질문을 받았다.

'농공동창회/장학재단' 현황(2011년 재학생 60명에게 등록금 전액 지급 및 현재까지 600명의 수혜자 배출한 서울대학교 과별 최대 장학재단)을 간략히 설명하고, 장학기금 참여자 동창회보 기록을 동창들은 '명예전당' 입성으로 인식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본인은 1990년 기금모금 초기와 1999년 정년퇴직 전 '명예전당' 2회 등재했다. 장학기금 모금 참여와 첨부물은 포럼 설립 목적과 같으므로 소개서 대신 첨부한 것이다.

면접시험에 통과 2011년 6월02일 '(사)용인미래포럼' 모니터(Monitor) 팀장직을 받고, 포럼에서 주관하는 각 분야별 세미나 계획 및 결과를 취합하는 직은 '농공장학재단'에서 마련하여 준 사회에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영광스런 영원한 직장으로 생각한다.

장학기금 모금을 위해 이 교수님은 제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농업진흥공사 임 동문이사(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사무실을 수년간(1회/년) 찾아와 장학기금 중요성/필요성을 두 분은 공감하시고, 참여가 뜻있는 사업이라는 설명(반갑지 않은 소리였음)을 듣고 동참하였다.

임 동문님은 이 교수님과 대담 후 늘 나를 부르신다. 그리고 장학금 모금을 위한 기안문 작성을 지시하고, 먼저 서명과 금액을 기입한 후 "권 군! 부장들에게 받고 과장과 계장 순서로 하라고!"까지 자상하게 지시하는 등, 장학기금 모금에 앞장서신 분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모금된 기금은 (주)극동건설에 근무하는 전무 이재기 동문에게 공사비(아산 및 남양방조제 공사)에 투자토록 하고 시장 고금리를 받아 기금을 증식했다. 더하여 임영춘 님의 후배를 사랑하는 뜻을 받들어 이상금 여사의 기부금을 합하여 1990년 4월 농공장학재단 설립이 오늘에 전국 대학교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모범 장학재단으로 발전했고, 선 · 후배가 만나는 '대선배의 날' 행사까지 이르게 되었다.

원고를 준비하며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존경받는 '록펠러 장학재단'을 조사했다. 뉴욕에서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1939. 7. 8) 록펠러는 센트럴 고등학교를 졸업(1955)하고 뉴욕 시 소규모 기업체 경리과 직원에 취업(4달러/주)하였다. 그는 싸구려 하숙집(1$/주) 지불 외에도 소액기부(75센트) 모임, 교회헌금(5센트), 빈민구제 활동 10센트, 해외 선교 활동에 10센트 헌금했다. 그는 주급 시절부터 자신의 수입의 10% 헌금을 평생 낸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근검절약/시간절약'으로 모은 거대한 재산은 당대에 시쳇말로 악덕 재벌기업의 전형으로 미국 연방최고재판소로부터 반트러스트

법 위반 기업이라고 해산명령을 받기까지 했다. 이후 자선사업에 몰두, 미국사회에 가장 많은 금액 투자로 미국 역사상 존경받는 자선사업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재산으로 설립한 록펠러 장학재단은 전 세계 각국 교육 사업을 통해 인류에 공헌함으로써 록펠러 사망 이후 100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

지금 생각건대, 내가 오늘에 있게 한 두 분을 가까이 모시면서 멘토 받을 수 있었음은 나의 영광이고 가장 귀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 이 교수님/임 선배님은 존경스럽기만 하다. 두 분이 모은 적은 기금에 12억 원을 출연 서울대 최대 과별 장학재단으로 발전시킨 회장 윤대섭 선배님을 매년 동창회보에서 대하면서 록펠러 장학재단을 상상케 한다.

이 박사님과 임 선배님은 후배들에게 삶의 지혜를 일깨워주신 선구자이다. 두 알의 밀알이 썩어 새싹이 나온 지 20여 년 만에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농공장학재단을 후배들이 설립했고, 여기에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신 윤대섭 동문(49기)의 뜻을 담아 모교에 '윤대섭 강의실' 헌정은 세계 농업토목의 중심 산실 역을 담당하게 되리라 믿으며 농공동창들의 영원한 자랑스럽고, 명예스런 전당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선 · 후배님께 그리고 농공장학재단 이사장님께 두 개 사항을 말씀드린다.

첫째 이민규(아주대 심리학 교수) 저서 『1% 실행하면 100% 달성한다』를 읽은 기억이 있다. 오늘 장학재단 발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기간에 구애 없이 '장학재단을 위해 동문 선 · 후배님께서 1% 관심을 두고 1%만 실행하자'. 그리고 100년 후 농공장학재단이 어떻게 발전했나를 상각해 보았으면 한다.

둘째 농공동창회보(제33호) 회장 김경욱 '동창회장 인사' 중 "농공동창회가 이루어 놓은~~. 이 장학기금으로 금년에는 60명 장학금 지급~~, 동창회장단, 모교의 전 · 현직 교수를 모시고 간단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를 읽으며 수여식에 장학기금 참여자가 함께 하는 자리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수여식이 끝나고 이창구 교수님 흉상에 꽃다발 증정/임영춘 동문님 묘소 참배(1회/매 10년) 행사도 생각한다.

각지에 계시는 대선배님들에게 사랑하는 후학 동문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자리이자, 선배님의 삶의 지혜를 이어받고 존경의 마음을 표할 수 있는 '대선배의 날'을 제정한 홍승만 전 회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첨언하여 전 수자원공사 김택구 본부장님과 울산지사 근무하신 후배님께도 동문의 따뜻한 정을 표한다.

농공인의 마음

57학번, 제5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홍승만**
(제17대 농공동창회 회장)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파도가 출렁이는 망망대해와 잔잔한 담수호가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준다. 그 한쪽에 풍차가 돌아가며 완연한 한여름을 일러주는 푸르른 산과 들이 어우러져 자연 그대로를 마음껏 느낄 수 있다. 저쪽에는 물살을 가르고 배도 흘러간다. 많은 자동차도 흘러간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작품인 방조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가슴이 벅차오른다. 몇 해 전인가 내가 농공동창회장 겸 장학재단 이사장을 한 일이 있다. 맡고 보니 어려움도 많고 보람 있는 일도 많았다. 동창회 장학기금으로 많은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전국에 계신 동창 모두에게 수차례 걸쳐 편지를 발송한 일이 생각난다.

많은 분이 각자 형편에 따라 십시일반으로 보내주셨고 어느 분들은 아주 큰 돈을 보내주셔서 여러 명의 학생에게 '농공동창회 장학금'으로 전달할 수 있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 장학금 전달은 지금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장학금의 도움으로 대학을 무사히 마치고 본인의 오늘이 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는 동문을 만났을 때의 그 고마움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 벅참을 느껴도 보았다. 우리 동문 모두는 선배에게 감사하고 후배에게 도움 주는 내림사랑, 즉 선후배 간에 따뜻한 온정이 오고 갈 때 제일 기쁜 것이다.

'농공동창회 장학금'의 계속되는 발전을 기대하며 그때의 어려웠던 일과 가슴 벅차게 기뻤던 일을 회고하면서 이 글을 쓴다.영원한 발전을 기대하며.

애환이 서린 입학

57학번, 제16대 농공동창회 부회장 **홍종진**

농공학과에 입학한 것이 1957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54년 전 일이다. 6·25 한국전쟁의 상처가 아물기에는 아직도 먼 때였다.

세상에 모든 일은 다 때가 있고 인생에서도 배움엔 때가 있는 법이다. 기억력이 왕성하고 지식욕이 뛰어날 때 공부를 해야 한다. 나는 중국 열자(列子)의 말인 득시자창(得時者昌), 실시자멸(失時者滅)이란 말을 좋아한다. 즉, 기회를 붙잡는 자는 성공하고, 기회를 놓치는 자는 실패한다는 말이다.

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 등록을 못해 추가등록을 할 때의 이야기이다.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 모교에 들려 선생님들께 잘 가르쳐 주셔서 합격하였다는 인사차 들렸다. 여러 선생님께서도 축하해주셨지만, 특히 정계열(鄭繼烈) 교장 선생님께서는 자기 제자가 서울대학교에 입학이 됐다고 퍽 좋아하셨다. 그 합격의 즐거움은 잠시였고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고사성어가 나에게 맞을 줄이야. 손자는 대학에 합격하고 조부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으니 말이다. 입학시험 보러 간다고 할 때 할아버지께서 "열심히 하였으니 최선을 다하렴"이라고 하신 말씀이 생전에 마지막 말씀이 될 줄이야!

조부께서는 조선조 고종황제 시절 무관학교를 1회로 졸업하시고 통정대부 정삼품 (通政大夫 正三品)을 지낸 분으로 당시에 신학문을 공부하신 분이다. 지금은 그 무관학교의 옛터가 서울 신문로에 표지판만 남아 있다. 문화를 사랑하고 옛것을 보존 잘하는 일본이나,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 같으면 덩그러니 터의 표지판만 남아 있겠나! 대한제국에서 국방을 담당할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을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의 문화보전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미국 게티 박물관(Getty Center)에서 관람하고 느낀 것인데 미국은 문화 역사 자료가 될 만한 것은 다 찢어져 없어지고 한쪽만 남은 편지 하나라도 진열하고 인디언들의 보잘것 없는 물건들도 진열한 것을 보았다.

나는 시골에서 광동산림고등학교(光東山林高等學校)를 어렵게 졸업하였다. 어려운 형편에 고등학교를 겨우 마쳤는데 할아버지 장례까지 치렀으니 무슨 돈이 있겠는가. 실은 대학교 입학원서를 쓸 때 교장 선생님께서 대학에 합격하면 다닐 수 있느냐고 질문하신 적이 있었다. 그때는 "예"하고 대답을 하였다. 6년간 갈고닦은 실력을 대학입시에서 평가받고 싶었던 것이다.

입학식도 지난 4월 어느 날 정 교장 선생

님께서 아우를 보고 너의 형 등록해서 잘 다니고 있느냐고 물으셨다. 아우는 집에서 할아버지 장례 치른 이야기를 하고 등록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일 부친과 형을 학교로 와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다음날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을 뵈니 아버님께 등록금을 일시 빌려 드릴 테니 나중에 갚으라 하신다. 사실 아버님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나 우리 집 형편이 돈을 빌려 주면 받을 길이 안 보이니까 못 구한 것이다. 마련을 못한 아버님은 돈에 대해서 거의 탈진 상태였던 때이다.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표정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그때 아버지의 심정은 사막에서 물을 찾다가 오아시스를 만난 그 기쁨이었을 것이다. 돈은 산의 나무를 베어 팔아 갚겠다고 하셨다.

입학식도 지났으니 내일이라도 당장 학교에 가서 등록하라고 하시며 선생님의 농업은행 청량리지점 예금통장과 도장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당시에 등록금이 82,500圜(등록금 62,000圜, 교복값 20,000圜)이었다. 선생님이 등록금을 주신 것만도 백골난망(白骨難忘)인데 어떻게 염치없이 교복값을 포함하겠는가. 이런 교장 선생님의 고마우신 은혜는 오늘날까지 잊어 본 적이 없으며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개교 이래 신입생이 추가 등록한 예는 필자가 전무후무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선생님은 내가 추가 등록을 하여야만 될 이유를 후배인 교무과장인 심종섭 교수님께 서신을 쓰셨다. 특별히 배려를 부탁한 것 아닌가 싶다. 교수님은 서신을 읽어 보시더니 사무 처리를 도와주셨다. 그 당시에 정 교장 선생님의 사위인 한인근 교수님이 농과대학에서 물리학을 담당하고 계셔서 같이 다니며 업무처리를 도와주셔서 수속을 쉽게 끝마칠 수가 있었다. 정 교장 선생님의 하늘같이 높은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의 필자가 있었겠는가.

이것이 계기가 돼 서울대 농과대학에서 농공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졸업 후에 토지개량조합연합회(현 농업진흥공사)에 입사하여 관개배수와 농지조성사업 설계분야에 참여하게 되었다. 전국에 18,000여 개 크고 작은 댐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필수분야인 수문학(水文學) 분석도 할 수 있었다. 나에게는 정 교장 선생님의 은혜는 학업 면에서 부모님과 같은 은혜를 받은 분이라고 생각된다. 농공학(農工學)을 전공함으로써 토목기술사의 자격도 취득하게 되었다. 영국 Oxford 수문연구소에서 수문분야 기술 연수도 하게 되었고, 동남아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의 농업 분야 기술용역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덴마크에서 개최된 국제대댐회 회의나, 헝가리에서 개최된 국제관개배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은 농공학과에서 공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문에 보보등고(步步登高)란 말이 있다. 즉,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꾸

준히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우리 후배들에게 보보등고하며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67학번, 제10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박승우**
(제22대 농공동창회 회장)

2008년 10월 농공의 날, 내가 농공동창회장으로 선출되어 2년 동안 농공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었다. 67학번의 졸업생이 동창회장을 맡도록 논의되어 내가 추천되었다는 변명 말씀을 남기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동창회와 장학재단은 모교 교수가 아닌 분이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선배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나는 농과대학 재학 시절인 1968~1971년 동안 3·1 장학재단으로부터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었다. 당시 등록금은 대부분의 재학생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그런데 장학금은 수업료 면제 등으로 제한되었던 시절이었으니,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것은 큰 도움이고 혜택이었다.

내가 대학원 재학시절인 1973~1977년 동안 동창회에서는 장학금 모금에 많은 노력을 했었다. 당시에는 졸업생이 참여하여 기금을 만들고, 그 이자로 한 명의 장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했었다. 지금은 많은 재학생, 대학원생 등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지만, 초기에는 그렇게 출발하였다.

1984년 모교 교수로 부임했을 때는 동창회 때마다 장학기금 모금과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로 해서 고성이 오가던 일도 있었다. 선배 여러분의 노력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기금 관리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윤대섭 선배님의 출연으로 지금은 91억 원의 장학기금으로 발전해왔으니, 그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내가 장학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기간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할까 한다.

농생대 동창회장단회의에서 있었던 일이다. 농생대 어떤 학과 동창회장께서 당신은 여러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모교 학과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기부하신다고 하셨다. 그 이유는 "아무도 장학금 받은 것을 고맙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분이 설립한 장학재단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기

부하면, 학생들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셨다.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도 연하장을 보내고, 감사의 글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보내주는 분도 있다고 한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받을 때마다 장학사업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감동적이고, 마음 깊이 반성하는 무엇인가를 느낀 계기가 되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학창시절에 받은 소중한 장학금을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나도 잊고 있었고, 장학금을 지원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고 반성하게 되었다. 농공학과 동창들은 어떠한가? 내 기억으로는 대부분의 장학금 수혜자들은 감사하는 말을 표시하지 않거나, 당연히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의 하나로 여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그 몇 분의 동문은 학과 발전이나 후배들을 위해 발전 기금을 보내주셨다. 이 지면을 빌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외국대 학에서는 캠퍼스 빌딩마다 기부자 또는 출연자들의 이름을 명명하는 예가 많다. 그 빌딩 건축비보다 출연한 기부금이 작은 경우도 그랬다. 그분들의 기부에 감사하고 기념하여 빌딩 이름으로 영원히 남기고 있는 것이다.

농공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장학재단에 사재를 출연해 주신 윤대섭 선배님께 모교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감사의 뜻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였다. 학과 교수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학과 세미나실을 '윤대섭강의실'로 명명하도록 했다. 그분의 간단한 약력을 담은 판을 만들어 농공장학재단 이사님들을 모시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었다. 농공장학금을 받고 있는 재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모두 단정한 차림으로 참석하여 장학재단 이사회에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재학생 대표는 '감사의 글'을 읽었다. 너무나 큰 감동을 주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다.

그것이 바로 작은 출발이라 생각된다. 그렇다. 장학금을 받아 감사하다는 말씀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감사를 표시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당연히 받는 장학금이란 있을 수 없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에만 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이렇게 소리쳐 말해보면 어떨까? "선배님, 감사합니다."

2. 특별대담

1) 유한홍 동문 편

농공장학재단에 참여하게 된 동기

편집위원회 편집

지난 2012년 5월 3일에 농공장학재단 이사이신 유한홍(농대, 1949) 미영상사(주) 회장님을 만나기로 약속했었다. 1년에 한두 번씩 만나 뵙는 선배님이지만 항상 온화하며 자상하게 후배를 대해 주어서 홀가분하게 찾게 뵙기로 하였다.

오늘은 특별히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초대 재단이사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장학재단의 장학 사업을 위해 다액의 출연금을 희사하셨기에 회장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장학재단이나 장학금 수혜자들에게 바람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 만남을 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금번 대담을 편집하는 데는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유 회장님의 완강한 거부에 직면하기도 하였지만, 어려운 사회환경 속에서도 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잃지 않고 정직과 성실로 거친 세파를 이기시고 오늘에 이르신 모습이 고마웠기에 극구 사양하시는 대담을 편집하게 되었다.

요즈음 건강관리와 대외적인 활동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전에는 농공학과를 나온 동창들 모임인 화홍회에 나가 함께 골프를 하였지만, 요사이는 골프를 하지 않고 대신 사무실에서 약 30분 떨어진 곳에 하차하여 걸어서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귀가 시에도 마찬가지로 매일 최소한 시간은 걸어 다니며, 휴일에는 집 근처에서 같은 시간 동안 걸어 다니는 게 유일한 운동입니다. 현재는 후진들의 사업을 위한 고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학과에 들어오시게 된 동기와 학창생활을 알고 싶습니다.

농공학과에 들어온 동기는 평소 공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대학교 입학 당시 부모님께

서 수원에 거주하시어 그곳에서 가까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공학에 관련한 학과가 있어서 지원하였고, 그래서 농공학과에서 수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대학의 학기 시작이 9월부터였기 때문에 입학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이듬해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여 학생들은 각각 흩어졌으며, 전시상태에서 대학교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늘날과 같이 동기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가운데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활이 1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1950년 3월의 아침 등교 시에 학교 근처에 오면 확성기로 음악을 늘 들려주었는데, '요한스트라우스의 왈츠곡'의 선율을 들으며 즐거워했던 추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게 된 동기를 듣고 싶습니다.

대학 졸업 후 1957년부터 철강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철강 자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으며, 전후 복구사업이 한창 진행되었고, 국가의 재건시기를 맞아 철강 수요도 급증하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영상사㈜를 설립하여 무역 사업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농공장학재단에 참여하게 되신 동기와 후학들에 대한 기대를 듣고 싶습니다.

농공장학재단에 참여한 계기는 시대적 긴박한 환경으로 비록 농공학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는 못하였지만, 대학 동기생인 당시 이철주 농공동창회 회장과 동기인 윤대섭 회장이 연락하여 농공학과의 가정이 어려운 재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모금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좋아 쾌히 아주 작은 액수지만 돕고자 했던 것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연금을 많이 내지 못하여 오히려 미안할 뿐입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한국 사회에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 주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유 회장님은 사회의 경제구조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정직과 보편적 가치관의 삶을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기업을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대화 속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 오늘날 특권의식과 물질 만능 사상에 사로잡혀 황폐해져 가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불의의 유혹을 떨치고 진실과 성실이 절실히 필요한 젊은 후진들에게는 좋은 삶의 귀감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렇게 후배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한결같은 순수한 사랑의 손길 속에서 선배님들이 후배들을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의 농공학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농공장학재단이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지 않았나 회상하면서 다시 한 번 고마움에 고개를 숙인다. 이 아름다우신

유한홍 동문님의 뜻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농공동창회 회원들과 편집위원들 그리고 장학금 수혜자들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감사합니다. 선배님을 존경합니다!

(대담: 정하우 편집위원)

2) 윤대섭 동문 편

뵙고 싶었습니다

편집위원회 편집

농공장학재단은 2012년 2월 27일 소공동 한국은행 후문에 자리 잡고 있는 윤대섭 동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여러 회사의 회장직함을 갖고 있는 윤 동문의 사무실은 검소함을 그대로 보여 주는 낡은 소파와 책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윤 동문은 여든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선에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으로 소탈한 웃음과 함께 인터뷰 일행을 맞이하여 주셨다. 이런저런 근황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을 받는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서울대 농공학과에 1949년에 입학한 윤대섭 동문은 졸업 후 형님 윤장섭 전 성보화학 회장을 도와 사업가로서 평생을 살아오셨다. 형인 윤장섭 전 성보화학 회장과 함께 성보화학을 세우고 성보화학 회장을 비롯하여 여러 사업체의 회장을 맞고 있는 윤대섭 동문은 농공장학재단을 성장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2006년에는 농대 동창회에서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요즈음 건강관리와 대외적인 활동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일주일에 2~3회 골프, 주말에 낚시를 갑니다. 농공과 나온 동창들 모임인 화홍회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골프를 칩니다. 그리고 주로 겨울에는 주말에 근처 저수지로 낚시를 갑니다. 요즘은 노천에서 안 하고 비닐하우스에서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춥지도 않고 물이 얼지 않아요. 비바람이 불어도 관계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농생대 배구부 주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기계체조도 하고 몸이 무척 날렵했습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현재도 일동통상(日東通商)과 성보화학(成保化學)에서 회장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농공학과에 들어오시게 된 동기와 학창 생활을 알고 싶습니다.

그때는 농사에 관심이 많을 때고 개성에서 부모님이 삼포도 경작하시고 농사도 많이 하시고 정미소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농대에 갔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농화학과에 들어갔습니다. 2학년 올라가면서 농공과로 바꿨지요. 바꾸고 난 다음에 한국전쟁이 났습니다. 부산에서는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농화학과에서 농공학과로 바꾼 이유는 그때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걸 많이 시켜서 나도 실험을 많이 했지요. 나는 운동하고 그러는 걸 좋아하는데 실험실에 앉아서 실험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제 성격과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들판을 다니고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나 싶어서 농공과로 바꾸었습니다. 그때 다닐 때 배운 것 중에 측량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웃음). '공장을 어디에 앉혀야 하느냐', '어떻게 앉혀야 하느냐', '금을 어떻게 그어야 하느냐' 그런 것은 좀 도움이 됐습니다. 한강 하류에 성보화학 자리를 잡을 때 높낮이를 정할 때였습니다. 서울 근교의 산 높이에서부터 레벨 측량으로 한강 둑을 내다보니 11m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을 11m로 맞췄죠. 덕분에 우리 공장을 짓고 수해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게 도움이 된 것이죠. 농약회사 시작할 때 농대 졸업생들 협조 많이 받았습니다. 농수산부에나 농촌진흥청에 가면 다 아는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청에 가도 국장, 과장들이 농대 출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업하시게 된 동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집이 정미소를 하고 또 집에 농사가 많았습니다. 집에서 삼포(蔘圃)도 많이 했는데 인삼밭이지요. 포명이라고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삼포경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포명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명 소유자가 많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한 삼백 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삼포경작권이 없으면 인삼경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삼포경작권은 상속이 되는 것으로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상속되었지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사람들이 그걸 없애려고 해서 개성에서 포명이 있는 사람들과 일본인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막내로 태어났으며, 어릴 적 기억에는 사업을 하여 집에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미소도 하고 중국에서 청소미, 수수, 콩을 수입해다 팔았으니 수출입 사업도 했습니다. 싼 곡식을 중국서 다 들여오고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은 일본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쌀이 모자라지니까 쌀값이 비싸지고, 중국서 온 수수나 좁쌀을 팔았습니다. 좁쌀은 팽창률이 좋아서 밥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백미보다 좁쌀이 많이 팔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삼포를 경영하시니까, 삼포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논밭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므로 우리 집안엔 아저씨들이 많았

습니다. 식량이 어려울 때도 우리 집안은 우리 집에서 다 공급했습니다. 북한에 남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주단 포목공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분 둘이 출자를 해서 그걸 세웠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보라고 해서 한번 갔습니다. 가보니 학교가 있었어요. 공원들이 교대시간에 교대하고 나오면 공장에서 공원들을 가르쳤습니다. 거기 기숙사에서 여공을 다 재우기도 하고, 선생은 다 공장 직원들이었죠. 공장에 투자한 지가 십여 년이 넘도록 실제 이익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매년 증가해서 출자했죠. 공장을 확장하거나 기계를 더 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니까 이북과 갈라지고, 삼팔선이 생기니까 공장은 이북에 그냥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사업에 접할 기회가 많았고, 형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형님을 도와서 자연스럽게 사업가의 길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지요. 현재는 아니지만 저는 다섯 개 영리회사와 세 개의 재단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농공장학재단을 육성하셨는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출연하셨으며, 장학재단을 성장시키신 기억을 말씀해 해주세요.

내가 이창구 선생님한테 받은 장학금을 보답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복학해서 대학에 가니까 등록금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등록금이 얼마 안 됐는데, 한 삼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낼 돈도 없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창구 학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학과장님이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자네 같은 사람이 학교 다녀야지. 자네 등록금 생각하지 말고 와!" 하시며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나는 '누가 주는지, 어떤 장학금인지도 모르고' 장학금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나중에 이창구 선생님께서 제게 후배 장학금 주는데 좀 보태야겠다고 몇 번 오셨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오셨을 때 5만 원 드리고, 누구 낼만한 사람 또 없냐고 하시기에 근처에서 사업을 하던 유한홍 동문을 알려드렸죠. 그 당시 시청 옆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유한홍 동문에게 가시니 그분도 5만 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아 몇 백만 원 만들었습니다. 이창구 선생님 정년퇴직하고 나신 다음에도 동창회에서 몇 번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장학재단이 법인 아니었고, 운영도 개인이 하다 보니까 사고도 있었습니다. 농공동창회의 회장이며 동기인 이철주 동문에게 재단법인을 만들어 관리를 제대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기부한 사람들 체면을 살리는 일 아니겠는가 말하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도록 강하게 주장하여 설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단 설립 등록을 하려면 기본재산으로 오천만 원이 되어야 장학재단 등록을 받아주는 겁니다. 오천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천이백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선 주었고, 일단 재단법인부터 만들자고

한 것이죠.

오천만 원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니까 그 땐 과실이자의 8할을 목적사업에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과실이자금의 8할을 쓰려니까 그 땐 장학금을 꽤 많이 줄 수 있어서 한 학기에 10명씩 줬던 것 같습니다. 전액 장학금 주는데 그땐 7만 원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자율은 자꾸 줄어들고 등록금은 기하급수로 늘어나니 나중엔 한 학기에 육칠 명밖에 못 줬었죠. 회비나 운영비 쓸 돈 없으니까 이사들끼리 밥값은 각자가 내는 걸로 하고 이사들끼리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밥값을 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재단이 더 활성화가 되고 좋아질지 매달 모여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키워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여기저기서 재단에 기부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장학재단 이사장의 임기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이철주 이사장에게 장학재단의 운영 기틀이 정착될 때까지 버티고 있으라고 내가 붙들어 놓은 기억도 있습니다.

대학 학창시절에 기억에 남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지요.

학교 다닐 때 방학 동안에는 현장실습이란 것이 있었는데 이창구 교수가 농수산부에 개량과장이 우리 선밴데 거길 찾아가 봐라 하시면서 명함을 하나 주었어요. 명함을 들고 선배님에게 찾아갔더니 그럼 경남에 가라고 했지요. 경남 도청 계량과장이 또 농대 출신 이수걸 선배님이었구요. 이창구 선생이랑 비슷한 나이이신데, 지프차를 한 대 내주셔서 한 달 동안 김해로 해서 창령으로 그것을 타고 다녔지요. 가는 곳마다 또 용돈도 받고, 숙식비를 그곳에서 다 대어주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 한 번 경남 고성에서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금 지급문제가 생겨가지고, 조합 대의원들과 시공회사 사이에 말썽이 생겼습니다. 기성고가 안 되는데 다 됐다고 돈 내라는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로 분쟁이 생겼지요. 마침 토지개량조합 연합회에서 현장감독이라고 한 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자기가 보니까 기성고가 맞는데 대의원들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다고 주장하니까 너희들 직접 기성고가 맞나 안 맞나 측량해 보라는 요청이 있었지요.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측량 결과를 주었더니 대의원들이 학생들이 판정을 해줬다며 고맙다고 크게 한턱 받았습니다.

후배들과 동창회원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저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며, 그리고 이제 세계화가 되니까 국제적인 일를 위해서 일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대가 잘 되게 힘이 되는 대로 돕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족들을 소개 좀 해 주시지요.

가족은 아내 김명희 여사와의 사이에 1남

윤대섭 회장님과
사모님, 아들 및
셋째 딸의 가족

3녀가 있습니다. 장남인 윤재갑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기술고시에 합격하여 상공부 방산국에서 근무하다가 특허청 전산과장(부이사관)으로 옮겨 특허와 관련한 업무의 전산화에 힘을 쏟았지요. 한국의 특허청 전산화를 둘러본 스위스 로잔에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사무총장이 WIPO의 전산화를 위해 윤재갑 부이사관을 특별 초청함에 따라 그곳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에 과로로 순직하였습니다. 순직 후 한국의 특허청에서는 이사관으로 추서 받았습니다. 장남 윤재갑 이사관과 며느리 박연진의 사이에는 장녀 수현 양과 장남 태현 군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세 딸 중에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첫째 사위도 연세대 치과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다시 학교를 졸업하여 현재 미국에서 병원을 하고 있고, 둘째 사위는 어려서 미국에 가 미국서 쭉 자랐습니다. 거기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막내딸은 성보학교에 선생으로 있습니다. 막내 사위는 연세대학 경영대 졸업해서 우리 회사에 일동통상(주) 사장으로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가족소개를 들으며 인터뷰가 마무리되었는데, 윤대섭 동문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족 이름으로 우리 장학재단에 기부가 이루어졌다. 앞서 소개된 가족 중에서 윤대섭 동문님의 자부 박연진 여사님, 손녀 윤수현님, 손자 윤태현님 그리고 막내 사위 이병휘 사장님이

윤대섭 회장님의 뜻에 의하여 2006년 이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윤대섭 회장님 자신의 생활은 철저하게 검소하면서도 지난날의 어려웠던 학창 생활을 생각하시며, 젊은 후학들이 구김 없는 환경에서 학문의 나래를 펼쳐 희망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23년에 걸쳐 89억여 원이란 장학기금을 출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장학재단의 과실금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의 선택과 운용, 기본재산의 운영 및 경상비의 최소화를 위해 세심하게 자문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농공학 전공의 전체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농공장학재단으로 키우고자 하는 꿈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지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숭고하신 윤대섭 동문님의 뜻과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농공동창회 회원들과 편집위원들 그리고 장학금 수혜자들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담: 최진용 편집위원)

3. 장학금 수혜자

농공동창회의 장학재단 설립 20주년 기념사 발간에 즈음하여!

61학번, 농공학과 **윤병호**

회고담을 쓰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동창회와 재단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월을 거슬러 생각해보니 44년이 흘러갔습니다.

1968년! 농공동창회 장학금 1호 수령자!!! 참으로 믿기지 않는 나의 인생에서의 한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군 제대 후에 복학한 후라 졸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삶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모두가 어려운 생활이었는데 특히나 지방에서 온 학생은 더 힘이 들었습니다. 학비도 직접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아야 하고, 숙식을 해결하려면 가정교사로 학생 집에 기거하는 곳을 얻어야 하고, 서울에서 수원까지 기차 통학을 해야 하니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학업을 도중에 휴학도 하고 군에도 지원해서 갔다 오며 학비도 마련하고 지연작전을 쓰면서 1961년에 입학하여 1969년에 어렵게 드디어 9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농공동창회 장학금을 받기 전에는 장학금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여장학금은 있었으나 취직 후 갚아야 하는 조건이므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취업 후의 앞날을 알 수 없으니….

4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내야 할 즈음에 고 이창구 교수님 학과장실에서 오라는 연락이 와서 가보니, 이창구 교수께서 가정형편과 고향 등등을 물어보시며, 함경도 북청 출신이고 6 · 25 때 피난 나온 것도 아시는데 쑥스러웠습니다. 다행히 학점이 B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등록금 면제 영수증을 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마웠고 기뻤는지, 평생 잊지 못할 인생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최초에 장학기금을 만들어 농공과에 주신 선

배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에 와서 기금이 조성되고 운영되면서 거액의 장학기금을 내신 선배님들의 열정과 사랑의 역사를 알고 보니, 삶의 현장에서 이제까지 정신없이 지나쳐 버린 학교생활과 일들이 후회스럽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오면 보답을 해야만 마음의 빚을 갚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옛 학창시절을 돌아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농공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는 선친께서 피난 나와서 시골 수리조합에 근무하시다가 토지개량조합 연합회 지부에 지금의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데에 근무하시며, 고등학교 때 방학에 집에 가면 아버지께서 연합회 본부에 서울대 농대 출신들이 몇 명 있는데 유능하고 똑똑하고 일들 잘한다고 칭찬을 여러 번 하시는 것을 들었던 것이 농대에도 토목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의 잘 모르고 있었던 학과였습니다.

운 좋게 입학하여 기숙사에 들어가 2학년 초까지 잘 지내고 있었으나, 선친께서는 저수지 축조공사장에서 토량운반차를 타고 가시다가 뚝길에서 차량이 뒤집히면서 다리 한쪽이 절단되는 사고로 오랫동안 치료하시다 일찍 은퇴하시게 되니, 집안이 기울고 어려워 학교 다니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1학년 입학 후에는 의무적으로 기숙사에 들어가야 하니 어떻게 달리 생활을 해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지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덕분에 기숙사에서 대학생으로서의 모든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특히 연습림 자연 학습장에서의 모임, 여대생들과의 미팅, 야외 정원에서의 교수님의 철학적인 인생 강좌, 강당에서의 고전음악 문화 행사 등등 삶을 깨닫고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많은 이벤트가 심신을 살찌웠습니다. 기숙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정말로 심신을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1학년은 교양과목만 수강하니 전공 분야보다는 학업의 부담이 없었습니다.

저녁 일과 후에도 많은 이벤트가 있었고, 기숙사 창가에서 창문을 열고 연습림 방향을 내다보면 푸르른 숲 쪽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향….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울리는 '물망초', '너는 왜 나를 위해 울지 않고' 같은 오페라 아리아가 기숙사 옆 회관에서 울려 나와 속으로 읊조리며 심각하게 들었던 추억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부모님이 주셨으니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2학년이 되면서는 전공과목의 학업 부담이 커지니까 학년 초까지는 도서관도 이용하면서 많은 시간을 지식 습득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과목이 어렵고 수업이 지루하니까, 교수님이 15분만 늦게 오시면 휴강하는 것으로 유도하여 강의실에서 빠져나가 딴 짓들을 하는데, 뒤늦게 교수님이 오셔서 불러 모으면 버티다가 잔디밭 정원에서 교수님 모시고 시간 때우기도 하며 철딱서니 없이 애를 태우게 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어이없는 일

이지요.

이런 풍요로움이 아버지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2학년 1학기까지만 버티다가 휴학과 군대생활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느라 5년 동안이나 학업 중단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군대 제대 후에 복학하고 서울에서 수원까지 기차 통학으로 가정교사도 하며,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학업을 마칠 수 있었으니 천만다행이지요. 취직자리도 별로 없던 시절에 대학이라도 졸업해야 변변한 취직자리가 있으니까….

졸업 덕분에 공무원보다는 월급이 많은 개인 회사를 선호하니까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인생살이를 시작합니다. 해외 근무를 하면 수당도 더 얹어주니까 점점 몰입하여 해외 근무만 하게 됩니다.

수십 년 해외 건설현장을 전전하다가 퇴직하게 됩니다. 한숨 돌리고 돌아보니 나이 70대 초반이 되었네요. 해외 드나들면서 그동안 국내에서 학교나 동기생들의 활동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 부끄럽고 후회가 됩니다. 어쩌다 동기생 모임에서 장학금 후원금 모금에 조금 납부한 것을 다 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뒤늦게나마 동창회나 장학회 등에 관심을 갖고 주변 여러 가지 일들을 챙겨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 듯합니다.

바람에 꺼질 듯한 촛불을 막아 살리듯이 마지막 학기에서나마 장학금을 받아 학업을 겨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최초 장학금 수혜자의 의무를 이제야 깨달은 듯합니다. 최초에 장학기금을 발의 하신 선배님들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당시에는 큰 은혜를 못 느끼고 뒤늦게 나이 먹어야 알게 되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고 이창구 교수님, 고재군 교수님, 명복을 빕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농업기계와 나-

70학번, 농업기계 전공 **이정원**

운명의 시작

사실 내가 농업기계 전공을 택한 것은 정말 너무나 순수한 동기에서였다. 언제인가 알 수도 없는 선조에서부터 충청북도에서도 앞 뒷산에 장대가 걸릴 정도의 벽지인 내 고향에 터를 잡으셨고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이어져 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나였기에 그냥 농과대학이라는 곳을 고향과도 같이 마음 편하게 생

각을 하고 있었다.

진학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서울대 농과대학을 마음에 두고 입시 상담을 하게 되었고, 그런 나에게 담임선생님께서는 어이가 없어 하시면서 "자연계인 자네라면 공대를 가야지 왜 농대를 가려고 하느냐"고 한사코 나를 설득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여곡절 끝에 농업과 공업이라는 이름이 함께 들어간 농공학과로 타협을 하면서 마침 그 해 창설이 된 농업기계 전공을 운명적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었다.

나의 나 된 것은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내가 대학을 선택했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시험을 통해서 대학이 나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시련은 일찍부터 나를 찾아왔다. 대학에 입학한 지 한 달이 지난 4월 초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 주신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시골에 계신 아버님의 바람과 나의 의지로 교양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자취로 시작해서 입주과외로 한 해가 그렇게 지났다.

수원 캠퍼스로 옮긴 지 반년이 지나고 2학기 등록을 앞두고는 더 이상 고향에 계신 아버님께 손을 내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내 스스로 휴학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을 정리한 다음 당시 열역학과 동력학 강의를 하시던 고학균 교수님을 찾아뵙고 "아무래도 휴학을 한 다음에 다시 형편을 보아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때 왜 내가 고학균 교수님을 택해서 찾아가게 되었는지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마음이 푸근하시고 내 이야기를 부담 없이 들으실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내 말을 다 듣고 나신 선생님은 "지금 휴학을 한다면 더 이상 후일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다녀야 하는데 내가 한 번 알아볼 테니 내일 다시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는 것이 아니신가. 다음날 선생님께서는 말없이 2학기 등록금을 내 손에 쥐어주시면서 "이것으로 등록을 하게나.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어."

그렇게 등록을 해서 학업은 이어지게 되었고 3학년에 접어들어서는 농공학과 장학생 중 농업기계 전공으로는 처음으로 내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모르긴 몰라도 고학균 교수님께서 나의 사정을 장학위원들에게 설명하셨음에 틀림이 없다.

돌이켜보면 2학년 2학기에 내가 고학균 교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후 3학년에서 농공학과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했었다면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나로 바뀌었을 것이다.

나는 지금 2천 년 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감히 드리고자 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이 모든 분들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분들 은혜로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지만)

농업기계가 뭔데?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나의 전공이 나를 그토록 옭아 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군복무를 마치면서 1976년 당시 농업기계 부문에서의 취업 기회는 너무나 좁았기 때문에 마침 삼성그룹에서 공채로 신입사원들을 선발하는 시험에 일반 기계 분야로 응시했다.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난 이후 면접시험에서 면접관들이 색다른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일반 기계 부문인데 이정원 씨는 농업기계를 전공하고서 응시를 했군요.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면접관의 질문에 나는 자신 있게 대답을 했다.

"이미 필기시험을 통하여 저의 전공 부문에 대하여는 평가를 하셨겠습니다만 농업기계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순수기계학문을 바탕으로 농업 부문에 응용하는 학문이 농업기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섬유 부문이면 섬유기계가 되기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위 계급장을 단 작지만 다부진 나의 대답 덕분인지 면접을 통과하여 취업관문을 통과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질문들은 그 이후에도 언제까지나 반복해서 나에게 던져지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이러한 것을 의식하면서 '완벽한 업무 위주'에 초점을 맞추어 나를 채찍질하여 왔었다. 조직생활 내내 그것도 나의 전공과는 전혀 동떨어진 항공산업 부문에서 공과대학의 일반기계를 전공한 선배, 동료, 후배들에 둘러싸여 업무를 하면서도 혹시라도 "농대를 나왔기에 또는 농업기계를 전공했으니 그렇겠지!" 하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오히려 인정을 받게 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간부사원으로, 해외 주재 책임자로 그리고 임원으로 조직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나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여전히 나에게는 '농업기계 전공자'라는 인식표가 붙어 있다. 나의 항공 부문 23년의 경력과 중공업 부문 경력 3년 그리고 이후 자동차 타이어 부문 9년까지 포함한다면 35년 동안 회사에서 실무를 통하여 습득한 일반기계 분야 전공은 언제까지나 4년간의 학교 전공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에필로그

나를 비롯한 제1회 농업기계 전공 동기들은 농업기계 전공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어느 학과의 졸업생들보다 더 아름다운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기계를 전공하고 교수로 관료로 근무하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외 몸은 비록 농업기계를 떠났지만 새롭게 IT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는 친구, 중장비 부문에서 국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친구, 선진국 공작기계를 국내 산업체에 공급하는 친구, 대기업에서 성공적으로 근무하다가 이제는 은퇴자로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 등등 모두가 우리 농업기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채무자로서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고 산다는 말도 바로 나에게 해당하는 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조직에 있을 때는 경쟁에 지지 않기 위하여 앞만 보며 달리면서 과거를 보지 못했고, 이제는 그런대로 세상을 살만큼 살고 나니 그 과거가 희미한 모습으로만 남아 감흥이 없어지게 되었으니 말이다.

"사랑은 동사다"라는 카피라이터의 말도 그리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어느 기독교 사도의 말도 자꾸만 내 뇌리에서 되살아난다.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농공동창회 장학금 유감(有感)

72학번, 농업토목 전공 **윤치욱**

그때는 참 가난하던 시절이었다. 대부분의 개인은 절대적으로 가난했었고, 국가도 가난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소란하고 어수선했던 시절이었다. 내가 입학하던 1972년, 그 해 유신개헌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내가 2학년을 마친 후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해 졸업하던 1979년까지 데모와 휴교가 매년 계속되어 조용하게 넘어가는 해가 한 해도 없었던,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기록을 뒤적여 보니 내가 입학하던 그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89달러로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다.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에 의해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극심한 빈곤의 악순환 속에 춘궁기(보릿고개)를 어떻게 보낼지를 항상 걱정해야 했던, 절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던 시기였다. 당시의 현실은 어둡고 고통스러웠고 그 현실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이었지만, 희망의 미래가 올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기에는 현실의 어둠이 너무 짙었다. 그러나 잘 살 수 있을 것

이라는 그 불확실한 미래만이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희망이었고 그 당시의 부모님들에게는 오직 장래를 기약하는 자식들의 미래가 유일한 낙이었을 것이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그 당시의 부모였다면 과연 당시의 고단한 삶을 어떻게 꾸려가며 자식들에게 희망의 꿈을 갖게 할 수 있었을까 막막하기만 하다.

사실 막상 대학 합격은 하였으나 몇 년 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살림이 어려웠던 집에서는 등록금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지 부모님은 결혼한 누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매형께서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다고 한다. 나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렇게 학교에 입학하였고 수원에서의 학교생활은 어려운 경제문제와 한참 시끄럽던 사회문제 등에 눈을 뜨면서 이념 서클 활동에 열을 올리게 되었지만 당장 학비와 기숙사비, 수원에서의 생활비라는 현실 역시 외면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르바이트(그 당시는 아르바이트라 하면 가정교사 일을 말한다)를 수원과 서울에서 하였고, 그 사이에도 학과 활동과 학보사 일도 하는 등 조금은 어지러운 학창 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다가 내가 2학년을 마치는 시기에는 동생이 대학에 입학할 때가 되었고 학자금 마련은 여전히 계속되는 우리 집의 가장 어려운 문제였으므로 나는 자연히 군에 입대하여 시간을 버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동생은 다행히 4년 장학생으로 합격하면서 등록금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여 부모님의 커다란 짐을 덜어주었으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군대는 훌륭한 피난처가 되어 어려운 집안 사정을 외면한 채 나 혼자는 아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제대를 앞두게 되자 다시 고민이 깊어졌다. 집안 사정은 더욱 어려워져 있었으므로 이번에는 내가 제대를 하면 동생이 군에 입대하는 것이 순서로 정해졌다. 그러나 그때는 동생이 군에 입대한다 해도 내 등록금을 마련할 처지가 역시 안 되었고 그 동안 해결사 노릇을 했던 누님도 매형의 발병으로 친정을 돌볼 형편은 이미 안 되었다.

형편이 형편인지라 나는 돈을 벌어 학교를 다닐 작정으로(사실 이때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었다) 휴학을 결심하고 제대를 조금 남겨둔 시기에 학교를 찾아가 그 당시 학과장님이시던 박성우 교수님께 이런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였다. 그때의 심정은 참담하고 암울했지만 군대 3년의 경험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용기를 갖도록 해주는 시간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박성우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동창회 장학금 제도가 있으니 어떻게 해 보시겠다 하시며 제대 후 바로 복학을 하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 그때의 느낌은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은 기억이 생생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학교로 다시 돌아

가게 되었다는 생각에 몹시 기쁜 나머지 부대 내무반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던 나는 농공동창회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하며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고, 4학년 때 취업을 확정하고 졸업과 함께 사회로 발걸음을 내 디디며 실질적인 가장 노릇도 해 나갈 수 있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의 가난했던 삶은 비단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고 모두 비슷하였으리라 생각되지만 유독 나만 더욱 불행하다는 생각에 허우적거렸던 젊은 시기에 동창회 장학금의 도움은 나에게 어두운 바다에서 밝은 빛으로 길을 알려주는 등대와도 같은 희망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한켠으로는 동창회에 이바지한 것이 별로 없는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한다.

이제 우리 농공동창회가 그때보다는 규모가 훨씬 커져 후배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주는 동창회로 발전했음은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기쁘고, 혹시라도 지금도 그 옛날의 나처럼 등록금을 해결할 수 없어 고민하며 애태우는 후배들이 있어 우리 농공동창회의 장학금이 그 해결이 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머언 옛날이야기가 되었고 되도록 그 시절은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기억 중의 하나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젊어서 느꼈던 그 어두움에 불이 켜지며 밝아지는 듯하다. 마치 아지랑이 속에서 채색된 그림을 보는 듯 아름답게 느껴진다.

회고담

74학번, 농업기계 전공 **남상일**

회고 1.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했다. 덕수궁 미술관에서 현대 미술인 '팝 아트'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순간적으로 나의 기억은 과거로 돌아가 '아내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그 동안 잊고 살아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비워 둔 채로 지나왔던 과거의 기억을 지금이라도 채워 넣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서양미술사 책을 구입했다. 가능한 어렵지 않은 책을 구입했지만 금년 장마 내내 오래도록 이어지던 빗소리로 비어 있던 과거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었다.

갑자기 현대 미술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집사람과 같이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며, 미리 읽은 서양미술사 책에 있는 내용을 맞춰가며 전시회장을 두 번 돌아보았다.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느낀다. 어떤 그림을 보면서 요즘 내가 원하던 이미지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감흥에 생각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마음속에 이런 이미지를 좀 더 구체화하고 싶은 의욕이 느껴진다.

회고 2.

과거의 수원 캠퍼스 본관 1층 백몇호에선가 책을 보던 생각이 난다. 조명이 그리 좋지 못한 사정이었던지 컴컴했던 곳에서 잠깐 한가한 틈에 책을 보고 있었다. 역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쉽지 않은 내용이라 그런지 전체적인 내용은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도 몇 번인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인용했던 적이 있어서인지 한 토막은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난다. 과거의 역사란 현재의 관점에서 의미를 갖게 되고 현재 또한 미래를 생각할 때 그 의미를 갖게 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학생회관 안의 다방이었던 것 같다. 어느 선배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며 제2의 인생의 중요성을 말했었다. 그러므로 제2의 인생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 정교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막연하게나마 일종의 꿈같은 것이 만들어졌던 것 같다.

어느 선배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나에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결과로 평가하지 않고 과정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었다. 너무나 확신에 찬 그 목소리가 기억 속에 떠오른다. 결과보다 과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는 이미 이상적인 상태의 사회이겠지만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만큼은 이런 가치관이야말로 나의 내면 생활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개념일 것이다.

나는 수원에서 대학과 대학원 생활을 하며 상당히 장학금의 혜택을 많이 본 사람 중 하나이다.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막상 수혜자로서의 회고담을 쓰려하니 너무나 염려되는 바가 많다. 주제넘은 회고담이야말로 유치해지기 쉽고, 주변의 많은 분들과 후배 분들께 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나 자신 겸손하지 못할 수 있어서 두렵기도 하다.

대학원 시절 조교를 하며 동창회 준비하던 기억이 난다. 당시의 경제 사회 여건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마음으로 임했었다. 즐거운 추억이다. 이제는 장학기금이 90억 원에 이르고 재학생 120명/년에게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나는 아직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과거의 일을 화제로 올리는 것을 즐겨 하지 않는다. 차라리 제2의 인생이나 제3의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잘 살까가 더 큰 관심사이다. 그렇

다고 어떤 특정 가치관을 고집하지도 않는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의미는 달라진다는 것을 조금은 알고 있다. 가능한 일관되게 균형감을 잃지 않고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한다. 역사상 경직된 문명과 사조가 오래가지 않았듯이 나 자신도 가능한 경직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싶다. 요청 글에서 희망사항을 담으란 말은 나에게 주제넘고, 부디 후배들이 의미 있는 길을 찾아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맞이하시길 바랄 뿐이다.

폐결핵과 동창회 장학금, 그리고 새만금

74학번, 농업토목 전공 **박광수**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였던 계열별 입학 1기로 1974년 당시의 농과대학에 입학하였다. 교양과정을 거쳐 1학년 말 전공학과를 결정할 때 농공학과(농업토목 전공)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생물학이나 화학에 비해 수학과 물리학에 재미를 느꼈던 것이 첫째였으며, 그 당시 불어 닥친 중동건설 붐으로 인해 드넓은 세계에서 내 삶을 개척해 보겠다는 꿈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2학년이었던 1975년부터 시작된 전공 분야는 특히 편미분방정식의 연속이어서 이해하기 위해 씨름하는 날이 허다했다. 또한, 그 당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렇듯이 나 역시 가정형편 때문에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중 ·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과외활동을 하는 등 과로를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다.

2학년 말경에 ROTC 후보생을 모집하기에 신청하였고 달리기 등의 기초체력 검사 후 국군통합병원에서 신체검사까지 마쳤으나 며칠 후 폐 X선 촬영을 다시 하라는 연락을 받고 재촬영한 후 겨울방학을 맞아 부모님이 계시는 부산으로 내려가 있었다. 1975년 12월 31일 저녁, 병원을 겸하는 친구의 집으로 송년 모임 초청을 받고 그의 집에서 그간의 대학생활과 ROTC 신청 중에 발생했던 사건까지 얘기를 나누던 중, 의사였던 그 친구의 형님께서 나의 폐에 대해 X선 촬영을 다시 하자 하셨다. 그 결과 내가 폐결핵에 걸렸으며 이 때문에 국군통합병원에서 두 번에 걸쳐 X선 촬영을 했고 ROTC 신체검사에서도 떨어졌다. 남들이 모두 끝낸 신원조회가 나에게만 오지 않았으며, 폐결핵이 법정전염병이니 보건소에 들러 확진을 받고 치료해야 한다는 설명도 듣게 되었다.

1976년 새해 연휴가 끝난 후 보건소로부터 폐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진 받았다. 1년간 휴학하고 치료에 전념하는 등 2~3년간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된다는 등의 설명과 함께, 매회 한 움큼에 해당하는 대량의 결핵약(파스)을 매일 3회 복용해야 한다는 의사의 처방도 같이 내려져 폐결핵 치료를 시작하였다. 한 움큼의 약은 2~3번에 나눠 먹어야 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으며, 먹으면 위산이 과하게 분비돼 위 통증과 위염에 시달려야 했으며 길을 걷다가도 통증이 너무 심해 길거리에 쓰러진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부산에서 폐결핵 치료하던 중 친구와 동기들의 얼굴이나 보고 3학년을 휴학해야겠다는 생각으로 1학기 등록시기인 1976년 3월 초 빈손으로 학교에 도착해보니 내가 동창회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금이 없어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휴학을 하게 되면 복학할 때 등록금을 또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적 짐과 함께, 휴학해도 폐결핵 때문에 병역 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을 판정받지 못해 1976년 1년은 허송세월하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휴학 대신 폐결핵 치료와 함께 3학년 학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후 학업과 폐결핵 치료를 동시에 하다가 4학년이었던 1977년 4월, 졸업 전 병역 신체검사에서 폐결핵을 이유로 무종(판정보류)으로 판정하려던 의사에게 1977년 내내 꾸준히 치료해 졸업 후인 1978년에는 정상상태로 현역 입영하겠으니 현역입영 대상 등급으로 판정해 달라고 설득해 최하위 등급인 2급 판정을 받았다.

졸업을 앞둔 1977년 가을, 일반 건설업체에서는 해외 건설공사를 위해 나와 같은 병역미필자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였다. 그러나 언제 완치될지 모르는 폐결핵을 치료 중인 상태에서 일반 건설업체에 채용되면 해외 근무 중 폐결핵 치료 중단이나 과로 등으로 인한 폐결핵 재발 · 확산이 염려되었고 이 경우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한 최악의 건강상태가 예상되었기에 세계를 상대로 내 삶을 개척해 보겠다는 꿈도 접고 일반 건설업체의 취업도 포기하게 되었다.

졸업 직후인 1978년 3월 2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사전 신체검사 과정에서 폐결핵이 문제되어 입소 보름 만에 귀가 판정을 받았다. 귀가 1달 후인 1978년 4월 하순, 재차 받은 병역 신체검사에서 이듬해인 1979년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라는 무종을 판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1979년 상반기까지는 병역미필상태와 미취업상태에서 폐결핵 치료에만 전념해야 하는 내 삶에서 잃어버린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시기였었다.

최고 학부인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취업상태에서 폐결핵 치료를 이유로 집에서 빈둥거린다는 것을 견딜 수 없어 결국 1978년 5월 초 무작정 상경한 후 한국농어촌공사(당시 농업진흥공사) 계약직으로 한시적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해 연말 한국농어촌공사는 병역특례기관이었던 점을 이용해 병역미필자를 포함한 신입사원의 공개모집이 있었다. 나도 그때 응모해 합격한 뒤 1979년 4월 2일자로 저수지 등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주로 설계하는 조사설계1부 신입사원으로 발령받았으며, 이후 새만금사업단, 농어촌연구원, 해외 사업처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요부서에서 오늘까지 농공분야의 사업을 개척하고 추진하는 농공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34년간에 걸친 농공인의 삶 어느 한순간도 치열하게 살지 않은 시간이 없지만 특히 단군 이래 최고의 국책사업이면서 농공 분야의 최고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지구에서 설계반장으로 초기 6년간(1988~1994) 참여하여 직접 설계를 끝낸 것은 나에게는 큰 행운인 동시에 영광이기도 하였다.

특히, 미려한 유압식 선형 배수갑문, 유압발생기기의 설치와 이의 운반용 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내부 공간(Cell)을 디자인한 특수교량, 충주호 유람선이나 준설선을 통과시키며 어도의 역할도 겸비한 독특한 모양의 통선문, 일반적 형상인 4각 기둥 대신에 조각품으로 교명주를 대신하는 등 아름다움 우선의 대담한 설계로 인해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물을 내가 직접 책임 설계 완료하였다는 것은 학창 시절의 폐결핵과 농공장학금이 나에게 베풀어 준 최고 인연의 선물로 여겨지고 있다.

박사학위 취득자를 농어촌연구원에 집결시키는 프로그램에 따라 농어촌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새만금사업의 시공 중 안전관리와 품질관리, 완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기술을 개발 · 보급하는 등 새만금사업을 지원하였던 것도 내 삶의 또 다른 큰 궤적이 되었다.

2010년 4월. 새만금개발처장으로서 대통령님과 111개국 대사 및 2,500여 명의 초청인을 모시고 새만금방조제의 준공식을 총괄 진행하였으며, 이로써 새만금 외곽시설물의 완성을 알리는 마침표의 중심에 서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다. 아울러 노태우 대통령님을 모시고 행한 1991년의 새만금방조제 기공식 행사의 진행까지 감안하면 새만금방조제의 기공식과 준공식을 동시에 진행한 인물이 전 세계에서 나 자신이 유일하며, 이는 학창시절의 폐결핵과 농공장학금이 새만금이라는 큰 선물이 되어 내 삶에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삶이 우연의 연속인지 신이 예지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는지 아직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학창시절 발생한 폐결핵과 3년 반에 걸친 치료, 농공장학금으로 인해 계속할 수 있었던 학업, 폐결핵으로 인해 접은 해외의 꿈과 농공인의 삶, 그리고 새만금과의 만남을 생각하면 신이 예지한 프로그램에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농공장학금에 대한 회고

77학번, 농업기계 전공 **김치환**

벌써 장학금을 받은 지가 30년째 되는가 보다. 장학금을 처음 받고 나서 그때 당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 꽤 자랑스러워 하시고 기뻐하셨던 모습이 아련하게 생각난다. 국립대학교는 등록금이 일반 사립대에 비하여 저렴하였지만 지방에서 상경하여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매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고생해서 보내 주신 속칭 향토 장학금으로만 빠듯하게 생활해야 했던 그 시절에 제대로 된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 드린 것은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기회가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고, 또한 나 자신에게도 일종의 뿌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 후 한참 뒤처진 학점을 만회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던 생각이 난다. 군대 가기 전 엉망이었던 학점이 복학 후에는 A학점 이상이 대부분이어서 졸업 시 평점이 우수했을 정도로 복학생들은 죽어라 공부했다. 하여튼 학점이 잘 나온 덕분에 장학금도 받지 않았나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당시 복학생이 나를 포함하여 3명이 있었는데 같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원역 앞 포장마차에서 매콤한 닭발을 안주 삼아 술도 자주 마셨다. 그때가 정말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다. 남문에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영화 관람 후 차비를 아끼려고 걸어서 학교까지 종종 밤늦게 다녔고 가끔 남문에서 학교 가는 길에 포장마차를 다 들려서 소주 한 잔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서 기숙사까지 걸어가곤 했다.

나는 아들이 둘 있는데 큰 녀석은 올해 졸업 후 취직을 하였고 작은 아들은 복학하여 3학년 재학 중이다. 매년 들어가는 등록금과 생활비가 꽤 드는 상황에서 은근히 장학금을 기대하였지만, 워낙 다들 치열하게 공부하는 지라 결국 큰 녀석은 못 받았고 작은 녀석을 기대하고 있는데 결과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

매월 접하는 동창회보를 보면 동창회에서 여러 가지 장학사업을 규모 있게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내가 장학금을 받은 수혜자로서 이 글을 쓰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장학회에 아직까지 기여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다를 어렵다고 하지만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해주는 것에 일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동문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후학들을 위해 조그마한 보탬이 되어 보지 않으시겠는가?

동창회 회고담

77학번, 농업기계 전공 **이중용**

지난 봄, 동기의 아버지께서 별세하셔서 빈소를 찾았다가 나를 기다려준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그 친구가 대학 시절에 차비가 없어 수업을 빠지고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했다는 말을 했다. 아주 잘 알고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였고, 그렇게 어려우면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점에 그에게 섭섭하기도 했다.

그 친구는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하였는데 언제나 같은 옷이지만 깔끔하였다. 학업성적이 우수했던 친구가 버스비 때문에 수업에 올 수 없었다는 말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쪼들렸는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말이었다. 나 역시 예비고사 볼 때에 일부 과목은 참고서 없이 공부하였고 걸어서 한 시간 정도 되는 거리는 버스를 타지 못할 정도로 쪼들렸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남들은 대학교에 입학하였다고 축하받을 때, 나는 취업해서 돈을 벌어 드리지 못하지만,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대학을 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 후배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어느 세상이나 힘든 사람이 있겠지만, 그 시절 자존심 때문에 그저 숨기고, 참으면서 살았다는 것이 요즘에 이르러 아쉽게 느껴진다. 헌책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된다고 참고서를 사지 못하고, 버스값이 얼마라고 수업을 빠졌는지? 그때 도움의 손길이 미쳤다면 얼마나 감사하며 더 많은 것을 배웠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주변엔 도와줄 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동창회에서 받은 장학금을 돌이켜 보고자 한다. 나는 1977년에 농학계열로 입학하였기에 기억하는 '농공의 날'은 1978년부터이다. 당시 농공의 날은 한글날(10월 9일)이었는데 국정 공휴일이었다. 동창회 장소는 언제나 신관(수원 캠퍼스) 안의 사각 잔디밭이었고, 학부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의 지휘 아래 행사장 준비를 마치고 나면 선배님들로 사각 잔디밭이 가득 찼다.

농공의 날을 위한 별도의 단상(무대)은 없었다. 대신 잔디밭 남쪽 벽면 앞에 흰색 캔버스 천의 천막을 세 개 설치하였고, 그 안에는 교수님과 몇몇 대선배님들이 자리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 해가 높아지면 찬란한 가을볕이 캔버스 천에 반사되어 신관 안 사각 잔디밭 둘레에 볕이 비치는 않는 벽면까지 환해졌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녹색의 잔디(신

관 안에는 금잔디가 아니라 목초 비슷한 잔디가 있어 가을에도 녹색이었음), 흰색의 캔버스, 고동색의 탁자들, 연한 회색의 신관 벽면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웅성거리며 껄껄대고 악수하는 농공의 날은 분명 잔칫날이다.

하지만 이 모습은 내가 잔디에 앉아서 본 것이 아니라 행사장을 스치며 본 기억이다. 왜냐 하면, 학부생인 나는 천막을 설치한 뒤에는 선배들을 접수하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선배님들이 찬조금을 내시면 흰색 종이에 이름과 금액을 적어서 끈에 매달아 걸어 눈에 띄게 하였는데 아주 부러운 모습이었다. 선배님들의 참여도가 높았던 그 시절, 동창회가 열리는 사각 잔디에 내가 아는 선배들은 아예 그 안에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신관 앞 느티나무 아래서 후배들과 같이 식사를 하였다.

내가 4학년이 되었을 때에 나는 선배님으로 가득 찬 사각 잔디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내가 4학년이 되면서 동창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의 규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동창회 장학금은 1학기와 2학기 등록금 전액이었다. 각 학과마다 가장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주는 장학금이 1명에 불과한데 농공학과는 두 개의 전공이 있었기에 학년별로 성적우수 장학금 2명에 동창회 장학금 4명이나 되었다.

내 경우에 그때 받은 전액 장학금이 얼마나 소중하였을지 말할 필요가 없겠다. 하지만 당시의 솔직한 심정은 약간은 부끄럽다는 생각도 있었다. 가난을 억지로 숨길 이유도 없지만 모두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었던 것이다. 아마도 장학생 선정 기준은 성적과 가정 형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졌으리라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 나는 모교의 교수가 되었고 우리 학과 장학금의 내력을 잘 알게 되었다. 후학양성에 고민이 깊으신 몇몇 교수님들의 지혜와 후배를 사랑하는 학과 선배들의 지원 아래 시작된 장학금 지급 사업이 발전하여 기금을 거쳐 국내외에 유례를 찾기 힘든 농공장학재단이 되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늘 뒤에서 지원하신 윤대섭 대선배님은 내 마음 속의 우상이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은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선뜻 남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학생이 농공학을 배우는 지역시스템공학이나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에는 없도록 살펴보겠다. 늘 궁핍하였기에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가난함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한다. 대선배처럼 베푸는 모습을 만분의 일이라도 닮아 보련다.

농공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중심에 서자

83학번, 농업토목 전공 **박종민**

대학을 1983년에 입학하여 1987년에 졸업하였으니, 입학한 지 29년, 졸업한 지 2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관악과 수원에서의 대학 시절이 몇 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순간순간의 일상들이 차곡차곡 꽤 많이 쌓인 것 같다. 졸업한 지 사반세기가 훌쩍 지났으니, 나름 내 자신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강릉이 고향인 나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 땅을 처음 밟아 봤다. 서울로 오는 고속버스에서 두려움 반, 기대 반 아니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다. 학비와 생활비 걱정도 많았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아버지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관사에서 연탄가스를 마시고 돌아가셔서 집안의 수입원이 끊기게 되었다. 어머니는 생활비와 아이들 학비를 대기 위해 강릉고등학교 앞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숙을 하셨는데 그럭저럭 생활할 정도였다. 2남 2녀의 장남인 나는 집안에 변변한 수입의 없는 상황에서 대학을 잘 다닐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지만, 그럭저럭 대학생활을 하였다.

4학년이 되자 동생이 대학을 들어가면서 학비 문제가 많이 걱정되었다. 집안 여건상 동생은 강릉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여 동생의 생활비 문제는 없었지만, 등록금은 부담되는 돈이었다. 군대를 갈까 하는 고민도 많았는데, 우리 농공동창회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한다. 농공동창회 장학금은 내가 대학을 무사히 마치도록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내가 농공 역사의 흐름에서 그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4학년을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였다. 1989년 8월에 제대를 하였는데, 제대하자마자 대우건설에 입사하였다. 대우건설 해외토목부에서 근무하는 어느 날 정하우 교수님께서 학교에 들러 달라고 전화하셨다. 전화 받은 다음날, 점심 식사 후 정 교수님 연구실에 들렀는데, 농림수산부에서 공무원 특별채용 하는데 지원해 보라는 것이었다. 생각해 보겠다고 했더니, 원서 마감 날이 오늘까지이고, 학장 추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결정해야 한다고 하셨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갈림길 역할을 하는데, 공무원 생활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당장에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씀드렸지만, 정 교수님께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기회를 잃게 된다는 충고를 해 주셨다.

정 교수님과 약 1시간 정도 말씀을 나눈 것으로 기억되는데, 오후 2시 30분쯤 되자 학장님(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재군 교수님)이 곧 외부로 출타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학장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빨리 결정을 해야 했다. 나는 원서 접수 후에도 공무원으로 채용되기까지는 시험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원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정 교수님과의 약 1시간여의 만남은 내 인생에 있어 큰 갈림길이 된 것 같다.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 합격 통지를 받고 나서도 고민스러워 직장의 선배와 동료에게 대우건설과 공무원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10명에게 물었는데, 결과는 5:5였다. 나이 드신 선배들은 공무원을, 젊은 동료들은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직업을 선택할 때 생각하는 주요 요소로는 돈, 명예, 성취감, 사명감 등을 들 수 있다. 대우에서 근무하게 되면 돈은 더 많이 벌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농림수산부에 근무하게 되면, 농공 분야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여 집행함으로써 성취감 측면에서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대학 3학년 때 과 회장을 하면서 전국 대학 농공학과 과 회장 회의를 구성하는 등 농공 분야에 대한 애착이 많았고, 특히 농공동창회 장학금을 받은 나로서는 농공 분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 의식도 공무원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1990년 11월 5일 농림수산부에서 근무한 이래 공무원 생활한 지 약 22년이 지나가고 있다.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용수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업용수 수질개선, 대단위농업개발, 새만금사업, 농촌정책 기획 등등을 담당하면서 농공 분야의 역사를 쓰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도 많이 했던 것 같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동문 선배님들과 모교는 내가 더 나은 생활, 더 보람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 주었다. 류성곤(63학번), 이봉훈(74학번) 선배께서는 내가 네덜란드 델프트에 있는 IHE에서 1년간 유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이정재 교수님은 공무원을 하더라도 계속 공부해야 한다고 채찍질을 하셨다. 박승우 교수님께서는 내가 석사와 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 주셨다. 물론 연구실 후배들의 도움 없이는 학위를 마치기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 농공 분야 앞에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금년 봄 108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고 하나, 큰 피해 없이 농사를 짓고 있다. 어느 정도 수리시설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는 우리 농공 분야 선배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리시설이 일정 수준 확충된 상황에서 향후 우리 분야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회 요소도 많이 있다. 영

산강 · 금강 · 임진강 · 남한강 등에서 추진되었던 많은 대단위 농업개발사업들은 외국의 ODA 차관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이러한 사업들은 현재의 수리시설이 확충되도록 하는 기반이 됨과 동시에 우리나라 토목 기술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관개배수 분야의 ODA 지원을 받아 성공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뀌었다. 외국으로부터의 ODA 원조 지원을 받아 성공한 우리 농공 분야도 이제는 개발도상국에 ODA 원조를 지원할 때가 된 것이다. 우리의 성공 경험과 축적된 기술은 개발도상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무대로 하여 우리 농공 분야의 역사를 써 나갈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 자원 개발이 매우 중요하고 농공동창회의 장학기금은 새로운 농공 역사를 써 내려갈 인재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지금도 나는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다짐한다. 농공이란 역사의 큰 물결 속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농공이란 역사의 중심에 서서 역사를 써 내려가는 핵심 역할을 하자. 새로운 농공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갈 후배들이 많이 동참하길 기대한다.

장학금의 의미!

84학번, 농업토목 전공 **신경수**

학부를 떠난 지 25년의 세월이 흘렀다. 25년의 시간 동안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도 참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낀다.

학부를 다닐 때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할수록 아쉽고 마음 아프지만 이것 역시 나와 동기들이 안고 가야 할 숙명이었다는 생각이다.

학부 다닐 때 받았던 동창회 장학금의 의미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화됨을 느낀다. 처음엔 과 선배님들의 후배에 대한 내리사랑이라 생각해서 막연히 고마웠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부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은 "아 그때 내가 받았던 동창회 장학금이 단순한 장학금이 아니었구나. 그 장학금은 단순한 '돈'이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변화'였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장학금을 받은 당신이 이 업계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라는

선배님들의 주문이었음을 이제 깨닫고 있다.

사다리를 오르려면 한 손을 놓아야 올라갈 수 있듯이 이제는 선배님들과 잡았던 두 손 중 한 손을 놓아 후배님들의 손을 잡으련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손을 굳게 잡고 함께 가겠다.

선배님들의 뜻을 올바르게 헤아리며 후배님들이 최고의 기술자이자 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역할을 하겠다. 시공사 엔지니어에서 벤처 업계의 임원으로 거기서 다시 교육사업의 CEO로 변신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왔지만 올바른 성공의 중심에는 끊임없는 변화와 더불어 선배님들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다는 생각이다.

고은 시인의 시가 생각난다.

사랑은 "지금"이다.
사랑은 "하였다"도 "하리라"도 아니다.
언제나 사랑은 "한다"이다.

우리 학과를 사랑하는 마음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속에 영원할 거라 다짐해본다.

사랑합니다.

2012년 8월의 기억

85학번, 농업토목 전공 **윤성수**

2012년 8월 2일. 지금이 현재이다. 이 현재는 나의 시간의 기억 속에 똑같이 영상으로 기억되며 지나간 시간,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상록의 기억과 마찬가지로.

2012년 8월 2일. 나는 지금 미국 애리조나의 하늘 아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라고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황야의 지평선과 500마일을 직선으로 달려야 하는 길 위의 차량들, 높디높은 하늘과 그리고 내 학생들뿐이다. 2012 미국농공학회에 참가하여 발표를 모두 마치고, 은사님이 내게 보여 주신대로, 나 또한 나의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 이들을 데리고, 미국 대륙을 횡단하고 있다.

2012년 8월 2일. 나는 20여 년 전과는 참 다른 곳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20여 년 전에는 상록에서 대학원생으로 공부하고 있

었고, 지금은 어느 지방의 국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년 전의 열정과 용기는 나이 먹으면서 많이 없어졌지만, 그 씨앗만은 가슴에 담고 싶어 내 기억 속에서 되풀이한다. 대신 날 믿고 의지하는 이 어린 학생들에게 어떻게 꿈과 열정, 도전을 보여주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나는 집단의 교육과 집단의 생활을 배웠지만, 이들에게는 개개인의 삶과 개개인 열정을 개개인별로 심어주어야 한다. 이들은 과거와 달리 비슷한 삶이 아니라 개개인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질 테니까.

2012년 8월 2일. 며칠 전까지 나는 내가 있는 대학의 부학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어, 농어촌희망재단 장학생 선발로 그 원칙을 설정하느라 고민하였다. 그 전에는 또 올해 시행된 국가장학금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독려하느라 며칠을 바삐 지냈었다. 이외에 성적장학금, 복지장학금, 근로장학금, 그 외 각종 독지가의 장학금을 배정하고 있다. 우리 학과의 학생들 중 국가장학금을 55% 이상 받으며, 성적장학금으로 30% 이상이 받는다. 이게 교육적인지 회의가 많이 든다. 국가장학금은 전 국민의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 국민에게 준다. 장학금을 복지 관점에서 주고,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이로써 장학금으로 열정과 도전, 극복은 사라졌고, 그 대신 어느 것을 타야 하나 고민하는 세상이 되었다.

2012년 8월 2일. 여기서 농공동창회 장학금을 생각해 본다. 동창회 장학금은 동문의 후학을 위해 조금씩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후학들이 고민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농대에는 15개 학과가 있었다. 이 학과들은 저마다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여 학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각 과들의 분위기는 매우 달랐다. 이것은 소위 학과의 활동력이라 한다. 비슷한 능력과 특성의 학생들로 시작하지만, 1년만 되면 학과의 분위기가 차이나기 시작하고, 학생들의 소속감이 달라지고, 전문가가 되어간다. 그 활동력의 원동력은 분명 동문의 응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장학금으로 나타난다. 농공동창회 장학금은 학과의 상징적 · 실질적 중심으로 성실히 그 역할을 하며, 이제 시작하는 농공의 새싹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준다. 이로써 생성된 줄기와 잎사귀들이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현재와 미래의 농공 분야를 책임지고, 또 리드해 간다. 이것이 농공장학금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2012년 8월 2일. 이제 상록은 아무도 보지 않는 암울한 흑색의 공간에 있다. 요즘 뛰어난 다음, 네이버, 구글맵에서 위성사진으로 상록을 찾으면, 사람의 손길조차 닿지 않는 모습으로 보인다. 내가 살던, 내가 꿈꾸던 시절의 공간을 보다 이내 닫는다. 상록은 관악으로 옮겨 갔다. 진짜. 상록의 정신은 관악의 정신이 되었다. 진짜? 아니 상록의 정신은

관악 속에 유지되고 있다. 진짜? 아니 상록의 정신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대에 맞추어 새롭게 리노베이션하였다. 진짜…. 난 청주에서 많은 학생을 만나며, 공부하고, 웃고, 떠들며 꿈꾼다. 그러면서 상록의 생각과 꿈은 상록에만 있지 않고, 우리나라를 넘어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나라로 퍼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상록의 정신과 꿈은 이제 상록을 넘어 지구 곳곳 많은 곳에서 꿈으로 살아나고 있다. 내가 아는 한 청주,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중국. 20여 년 사이에…. 지금 상록의 정신은 20년 뒤 청주와 세계 곳곳의 정신으로 남게 되기를 바란다. 이는 뛰어난 젊은 후배들의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난 관악 속 상록에 가서 미래의 스승과 주인이 될 후배님들에게 오늘은 무엇을 배워갈까 귀를 세운다.

2012년 8월 2일. 어제는 폭풍우가 불어왔다. 이 넓은 대지에 천둥과 번개 바람이 부니 정말 무시무시했다. 여행이 7일째이다. 여기서 어메니티를 찾기 어렵다. 밥이 그립고, 일이 그립고, 얼굴이 그립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이제 상록을 위협할 새로운 상록의 씨앗에 물을 주러 가야 한다.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던 농공동창회의 혜택

88학번, 농업기계 전공 **김채주**

내가 농공동창회 간사 일을 보던 때는 대학원 시절로 1990년대 초였다. 그 당시에는 삐삐 차고 다니고 벽돌 같은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할 즈음이다. 한번 연락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 긴급하게 연락을 할 때면, 페이저 확인하고 가까운 공중전화 부스에서 십 원짜리 동전으로 전화를 거는 것이 최단의 방법이었다.

어느 해 겨울에 눈이 내리고 몹시 추운 때였다. 나는 고향에 다녀오느라고 무궁화 기차를 타고 있었다. 4시간 동안 기차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엉덩이 아프지 않게 이리저리 엉덩이에 힘을 주는 일과 독서였다. 지금의 아내가 그때 수원역에서 내가 내리기만을 기다렸다. 저녁 시간이 다되어서 살을 에는 듯한 추위 속에서 눈까지 내리고 있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으니 멋진 데이트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독서에 너무 몰입했나 보다. 수원역을 지나쳐 버리고 만 것이다.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안양을 지

나고 있었고, 영등포역에서 내려 다시 내려오는 기차를 타고 왔을 때는 두어 시간이 지난 후였다. 추위에 덜덜 떨면서 그때까지 기다려 준 애에게 너무나 큰 미안함을 가져야 했다.

그 후 농공동창회의 간사일로 선배님을 찾아뵈어야 할 때가 있었다. 벚꽃이 피는 봄날 그 애와 농공동창회 감사를 받기 위해서 안양의 농어촌진흥공사의 선배님을 찾아뵈었다. 선배님은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감사 사인을 하고 가까운 식당으로 갔다. 대학교 시절에는 선배님들이 사주시는 음식은 모두 맛이 있었던 것 같다. 특히, 그때 선배님이 사주셨던 회는 정말 맛이 기가 막혔다. 아내는 신이 나서 젓가락을 놓지 않았고, 선배님도 즐겁게 드셨던 것 같다. 그 바람에 그 추위에 떨던 값을 치렀던 것 같고 그 선배님이 너무 고마웠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회가 먹고 싶다고 할 때도 그 시절의 회 맛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다.

농공동창회라고 하면 항상 그때의 일이 떠오른다. 즐거운 추억으로 만들어 준 것도 고마웠고, 더군다나 농공장학재단의 혜택을 받으면서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 학생들은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기 때문에 그러한 장학 혜택은 연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 같다. 최근에는 대다수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으로 들렸다.

지금은 (주)생명과기술에서 농산물선별설비, 농식품설비에 대한 기술을 펼치고 있는데, 농공동창회의 혜택이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내가 풀을 먹었던 들판에서 떠나와서 저 멀리 보이는 들판의 풀을 찾아 헤매었고 풀을 먹다 보니 다시 그 들판에 돌아와 있는 내 자신의 가치를 일깨워주었던 같다.

나의 농공학 20년

89학번, 농업기계 전공 **김종순**

대학을 입학한 지 23년이 되었다. 1989년 농공학과 농업기계 전공으로 입학했다. 농촌에서 태어나 자랐고 부모님이 정미소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전공이 그리 낯설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의 대학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1학년은 그럭저럭 마칠 수 있었으나 2학년 때는 슬럼프가 왔다. 미래와 삶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시기였기 때

문이다. 강의도 많이 빼먹고, 시험도 보지 않고 그저 시간을 흘러보냈다. 학사 경고에 가까운 학점을 받고 군에 입대를 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2년 6개월의 군복무를 마친 후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서 전공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다. 다른 친구들이 다른 분야로 진출할 때도 나는 우리 분야에 계속 있기로 했다. 4학년 학부 과정을 마치고 농산 가공 분야로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 벼의 흡습 과정을 모델링하는 것으로 석사 논문 주제를 정했고,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며 몇 달 동안 실험을 했다.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Texas A&M 대학교는 미국 남부에 위치한 농공학 프로그램이 매우 좋은 학교이고 그 당시 우리 학과 동문 네 명이 수학하고 있었다. 전공은 전기과, 기계과, 농공학과에 분포되어 있었으나 모두 연구와 학업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12년이 지난 지금 그 동문들은 미국 대학교의 교수와 국내 대기업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다. 내가 처음 미국에 가서 동문들에게 받은 도움은 정말로 컸다. 아마도 우리 농공학 분야의 유대 관계는 어느 다른 분야보다도 돈독한 것 같다.

나의 연구 분야는 농공학 분야 가운데 식품 안전 공학이다. 농식품에 전자선이나 감마선을 쏘아 주어 살균하는 공정을 모델링하고 직접 실험을 통해 검증도 했다. 비록 나에게 있어서 생소한 분야이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 박사 학위도 받고 4년간 박사후과정을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에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나는 농공학 분야를 선택한 것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많은 분야가 있지만 우리 분야는 농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먹거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명감이 있다. 앞으로 농공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나에게 장학금 수혜를 준 농공장학재단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작은 씨앗, 큰 수확
-농공장학금

92학번, 농업토목 전공 **서 교**

대학에서 농공학을 전공으로 공부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농공학이 무언지도 모르고 시작했던 학문의 길을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걸어왔고, 이제는 그 학문을 자라나는 후학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

나는 농공장학금이 학창시절의 그저 작은 도움이 아니라 늘 모자라기만 한 학창시절에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고 기억한다. 풍족하고 부족함을 모르는 시대와 너무도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의 중간 어딘엔가 자리할지 모르는 나에게 농공장학금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저 과외를 통해 버는 돈과는 그 의미와 무게가 달랐고 배움을 통한 그리고 배움을 위한 장학금은 학문의 길에 선 모든 학생들에게 기쁨인 동시에 자랑이리라 생각된다.

내가 걸어온 20년 배움의 과정에 농공장학금은 그렇게 자리하고 있고, 그 가치는 그저 작은 금전적 의미 이상이라고 믿고 있다. 앞으로 농공학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러한 농공장학금의 작은 시작이 돈이 없어서 더 깊은 학문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의 시작을 열어가고 있다고 믿는다.

그간 농공장학재단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이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다.

나를 춤추게 하는 것

94학번, 농업기계 전공 **이호상**

21세기가 화려하게 열리던 때, 그러나 아직 IMF의 여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던 터라 취업도 녹록치 않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일찌감치 나름 대학원에서 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 터라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

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대학 등록금까지만

대주시겠다던 부모님께 '대학원까지만 더 보태주세요'라고 염치없이 부탁드릴 수밖에 없었던 터라 장학금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드려야 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도 보태고, 구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나름 싸게(?)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지만, 지방에서 아들 둘을 서울로 유학 보내는 것이 부모님께 쉬운 일이었을 리 만무했을 터였다.

하지만 다소 부모님께 어려운 부탁을 하고 진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사회로 첫발을 내디딜 용기가 없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학생'이라는 신분에 안주하고 싶었던 마음도 없지만은 않았던 터라, 당시의 나는 정확히 하고 싶은 공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막연히 대학원에 진학해서 혼란을 느끼고 있던 중이었다. 학부에서 이어진 전공이라서 익숙하기도 했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지만, 내심 방황 아닌 방황을 하면서 '과연 나의 선택이 잘한 것이었을까?' 하는 회의가 들기도 했다.

그러던 와중에 농공장학재단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는 정말 고마운 일이 일어났다. 우선은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기쁨과 함께 마음 속 혼란이 진정되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기분이었다. 이후에도 방황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다는 기분은 나를 다잡아주는 계기가 되었다.

석사 학위 취득 후 다시금 돌아온 그 당시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초조해할 때도, 어렵사리 지금의 회사에 합격했지만 처음 맡은 업무가 어려워 밤을 새우며 실패를 거듭할 때에도, 그때의 기분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어 오고 있다. 잠시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글을 쓰면서 그때의 충만감이 다시 차오름을 느낀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던가?

다시금 기억해낸, 수많은 동문들과 교수님들과 학교로부터 받은 '칭찬'은 오래도록 나를 춤추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스스로 사회에 큰 보탬이 되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지만, 농공장학재단이 나에게 주었던 칭찬과 인정의 기운이 다른 동문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사회에 전해진다면, 우리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회고담

95학번, 농업토목 전공 **편기현**

우선, 아련한 기억이 되어가는 학부시절의 이야기를 다시금 추억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농공인들과 장학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지난날 미처 드리지 못한 고마움과 더불어 졸업한 지 10년이 넘어가는 나의 추억을 소담하게 적어 올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회고담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하 회고담임을 감안하여 독백체로 격식 없이 서술하겠다.)

재학시절의 사회적 여건

'21세기 유망직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입학한 농업토목학과! 나름의 포부를 가지고 1995년 3월에 입학하여 학부를 졸업하기까지 줄기차게 학교 생활을 이어나갔고 1999년 2월 꿈에 그리던 졸업을 하였다.

이 기간 1997년 11월에 터진 IMF가 불과 4년 사이에 토목의 방향성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적으로도 향후 10년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곤 입학 당시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먼저 큰 틀에서 보면 IMF 이후 토목산업은 국가 SOC의 확충과 더불어 국제경쟁력의 제고와 부가가치의 향상을 전제로 기존의 거품이 모두 빠진 실로 '깨끗한' 모습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노동생산성 제고,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실업'과 '이직'이 판을 치게 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대표적인 관주도형 산업인 토목산업의 발주 물량이 수요와 예산의 부족으로 거의 바닥나고, 그나마 발주된 사업은 과다경쟁으로 인해 저가의 낙찰률로 입찰이 되는 등 관계 종사자들은 실로 '먹고 살기 힘든' 실정이 되어버렸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2002년 FIFA 월드컵 직후까지 극에 달한 후 지금으로 이어졌다.

당시에 '386' 세대로 일컬어지는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선 세대는 IMF의 직격탄을 맞았고 동시에 사회 진출도 하지 못하고 졸업을 맞이한 이른바 저주받은 학번인 '91, 92, 94, 95' 학번은 이미 사회적으로는 잉여인력화 되어가는 실정이었다.

그런 관계로 소위 토목 분야를 떠나는 사람도 많았고, 사회에 곧바로 진출하지 못하고 학업을 연장하는 사람들 또한 많았지만 나는 결국 토목을 버리지도, 학업을 지속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일반병으로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이유인즉슨, 본래의 목표였던 방위산업체 등의 병역특례 자리는 이미 없어져 버렸고, 사회적 분위기와 집안 사정으로 더 이상 '토목'과 '학업'을 지속할 수도 없었

기 때문이다.

재학 시 학교 활동

학교 활동이라 하면 나름대로 생각나는 여러 단어들이 있다. 다양한 동아리 생활, 선후배 간의 끈끈한 모임들, 농토목과 만의 독특한 분위기, 성실한 면학분위기 등이 그것인데, 사실 난 그 무엇 하나 진득하게 해보거나 좋아했던 것이 없었다.

대학 초년기만 해도 토목산업이 호황이었던 관계로 걸출한 회사들의 학교 홍보도 많았고 학벌도 탄탄한지라 졸업 후 사회 진출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믿었다. 제때 자격증 따고 졸업만 하면 보장된 장래가 날 맞아줄 것이라 생각했다. 나름대로 인생에 자신이 있었던 터였다. 대학 4년간 기억나는 건 농구장에서 사시사철 땀 흘리던 모습이 거의 기억의 전부이다. 부득이 살을 붙이자면 3학년 때 받았던 전액 장학금, IMF 직후인 4학년 때 가세가 기울대로 기울었던 집안 사정을 등지고 어렵사리 따냈던 토목기사 자격증 정도다. 농활 한두 번 따라간 것 등도 있지만 활동이나 기억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엔 너무 소소한 일상이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교수님이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선배들이 끈끈하게 챙겨주었는지 이해가 간다. '인생엔 리허설이 없다'는 말이 맞다. 결국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고 이 선택의 연속이 인생임을 조금 더 빨리 깨달았다면 그때 그렇게 나태하고 방만하게 생활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후회를 하지만 문득문득 지금도 안일하게 생활하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기도 한다. 습관이나 생활 패턴이란 것이 쉽게 고쳐지진 않는 것 같다.

장학금 수혜로 얻은 도움

실제로 졸업 시 평점이 무척이나 안 좋았음에도 해당 학기에 전액 장학금을 받았던 덕에 동기들 간에는 '공부 잘하는 애'로 인식이 되어버렸고, 지금도 사석에서 내 졸업 평점 이야기를 하면 다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곤 한다.

각설하고, 장학금은 그 나름의 상징성이 있어서 경제적인 보상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우선 대학공부는 자기 혼자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렵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일부러 조직하는 '스터디 그룹'까진 아니더라도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소중한 기출문제 풀이를 놓고 마음 맞는 동기들과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연대의식은 단순히 공부 방법뿐만이 아니고 해당 학기 수강과목을 선택하고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치는 일련의 과정 과정에서 아주 지배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 관계로 장학생으로 통보를 받고 나서 혼자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물론 부분 장학금이 있지만, 상징성이 다르다고 본다) 동기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학업이라는 범주에서 우리 학번의 대표적 수혜자라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고 나아가 기회가 생기면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것이 장학금 수혜로 얻은 가장 값진 가치라 여겨진다.

졸업 후의 사회 활동

나의 사회생활은 군대에서 시작되었다. 입대 전 기술인 등록을 해주었고 공군에 입대했던 난 토목병과에 지원하였고, 운이 좋게도 현장에 공사행정병으로 2년간 파견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 복무기간이 실제로 기술인으로서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 기간 동안 7개 공사의 착 · 준공을 보면서 공사업무의 흐름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면서 '토목'의 끈을 놓지 않고 제대를 할 수 있었다.

2002년 2월 제대를 함과 동시에 현대산업개발에 지원, 3월부터 두 달간의 인턴생활을 거쳐 약 1년 10개월간의 현장 공무팀 직원으로서 첫 현장이었던 국도 확포장현장의 준공을 보게 되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인생사 '희로애락'의 압축판이었던 기간이었고 이때 만난 직원들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한편 2003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되살아났다. 동결되었던 물가도 꿈틀거리고 올라갔다.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기존의 공무원에서 공기업까지로 확대하는 한시법을 향후 5년까지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4년 초에 공기업들의 대규모 연합공채가 있었고, 현장 준공과 더불어 놓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던 나는 '한국도로공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 있었다.

메이저 시공사와 공기업은 서로 비교가 어렵다. 나름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당시 내가 선택한 가치는 공기업과 좀 더 부합했던 것 같다. 현재는 한국도로공사의 '과장'이라는 직위로 입사 8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아직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가늠하긴 어렵지만 정말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어른들의 말은 새삼 공감하는 바이다.

장래 바램

참 많이 돌아왔다. 이제 그간의 간단한 소회로써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조직, 사람, 업무 모든 경우에서 보이지 않는 가이드 라인이 그어져 있다. 떨쳐버릴 수 없는 굴레인지도 모른다.

또한, 그간의 경험을 통해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개인의 경력은 개인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마인드가 굳어져 버렸다. 학 · 경력이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뜻이다. 그러면서 어느덧 나의 미래에 고민하고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은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다.

10대에 고민하고 20대에 공부하고 30대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 웃기게도 서른의 중턱에서 이제야 나는 나의 적성에 대

해 고민한다. 물론 '토목인'으로서 이다.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서로 하나가 될 날을 기다리며….

농공장학재단 장학금에 감사하며

96학번,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신창섭**

1996년 2월 대학 합격 통지를 받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12년이 되었다. 1997년부터는 생물자원공학부라는 학부제로 학제가 개편되어 신입생이 들어오게 되었기에 나는 농공학과 농업기계 전공으로 입학한 마지막 학번이 되었다. 평생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등을 바로 세워서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살겠다는 생각으로 나름 열심히 학부 시절을 보냈다. 선후배, 동기간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과 공동체라는 울타리가 있었기에 대학생활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보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과공동체라는 울타리 속에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키울 수 있는 시기를 보낼 수 있었다. 단,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공부해 오던 나였기에, 대학 입학 후에는 공부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그 이외의 여러 활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채워 나갔던 대학 학창 시절이었다.

결국, 학업에서는 부족함을 남겨 두고 대학을 졸업하였고, 병역특례업체와 공작기계 제조업체에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남짓한 시간 동안 근무하였다. 학업에서 부족한 나였기에 실제 현장에서 새롭게 공부에 대한 부족함과 필요성을 느끼고 대학원 진학을 모색하게 되었고, 2009년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 대학원 진학 후 새롭게 학부 2학년 기초 과목부터 청강하였고, 나름대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고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매 학기 많은 과목을 청강하였다.

나는 2004년에 대학 재수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안사람과 결혼을 하여 현재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집안의 도움과 안사람의 경제 활동으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농공장학재단의 장학금은 나에게 가장으로서의 체면도 세워주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었다.

현재는 석 · 박사 통합과정 코스워크를 수료하고 학위 수여까지 논문 작성을 남겨 놓았

다. 더욱 열심히 학업과 연구에 정진하여, 농업기계 전공을 한 사람이자 농공장학재단 장학금의 혜택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마지막으로 농공장학재단이 장학금을 마련해 주셔서 나와 같은 후학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많은 선배님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농공학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들의 마음으로 주어진 다시 한 번의 기회

96학번, 농업토목 전공 **장태일**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누군가 말을 했다. “인간은 과거를 먹고 사는 동물이다”라고. 매번 술자리를 가질 때마다 과거 이야기는 꼭 나오는 주된 안주거리가 되곤 한다. 물론 처음은 정치, 사회, 또는 고단한 삶에 대한 한탄 등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항상 화려하거나 좋았던 과거 이야기로 밝게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도 모른다. 많은 경우,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하거나, 첫사랑 이야기, 또는 함께 공유한 좋았던 기억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바탕 웃고 스트레스를 날리기도 한다. 필자는 지금 미국에서 홀로 지내다 보니 이러한 과거의 기억들이 더욱 소중하게 피부로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오늘은 이런 필자의 과거, 그중 대학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기억을 꺼내 보려고 한다.

필자는 학부제가 아닌 농업토목 전공으로 입학한 마지막 학번이다. 후배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선배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가끔은 받은 만큼 되돌려 주지 못한 건 아닌지 미안한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게 입학하여 짧았던 서울 생활과 걱정으로 시작한 수원에서의 생활. 지금도 막내 학년으로서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지내던 기억들, 가령 수원의 잔디밭에서 성년의 날을 맞아 선배들의 축하를 받으려 막걸리를 마시던 기억, 측량학 수업을 마치고 조교 형들과 맥주를 박스로 마시던 기억, 친구들과 잡담을 하면서 수원 정문 앞 분식점에서 안주 심부름 하던 기억, 축구대회가 끝나고 체육복 차림으로 선배들과 함께 수원역 나이트를 갔던 기억까지 모든 것이 즐겁고 얼굴에 미소가 저절로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많은 이

들이 우리가 전공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시작했던 것 같다. 몇몇 친구는 전공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도 있었지만, 적어도 필자는 앞서 말한 즐거운 대학생활이 학과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으로 이어지게 된 것 같다. 필자의 경우, 사람이 좋아서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여 시작한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누구보다 농공학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며 열심히 하고 있다.

혹자는 농공동창회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과에 대한 애정과 학업에의 열정이 되살아났다는 친구들도 있지만, 필자는 나름 열심히 생활하면서 수고했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 필자가 장학금을 받았던 것은 4학년 마지막 학기로 기억된다. 그 사이 받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 고만고만한 성적에 학생대표 등 특별히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조금 힘든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많은 친구들이 취업을 꿈꾸었기에 수원에서 지내는 동기들이 몇 명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과 소통에서도 부족한 원인으로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또한 동기들과의 소통도 나름 힘들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중간에서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하라고 주었던 것 같다.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상을 받으면 응당 책임감을 지게 마련인데 장학금을 통하여 보다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또한, 자신감과 의무감을 동반하기에 성적도 향상되었고, 돌이켜 보면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밑거름 역할, 아니 그 출발점이 된 것도 사실이다.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누구는 봉사활동을 잘해서, 혹은 또 다른 이유에서 장학금 수혜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장학금 수혜자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우수하다는 뜻은 분명 아닐 것이다. 누구에게나 몇 번의 기회는 주어진다고 한다. 필자를 포함한 몇몇은 그때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아마 그것이 농공동창회 장학금을 만드신 선배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물론 장학금이 인생 전체의 방향을 틀 만큼의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만, 그 장학금을 시작으로 필자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선후배들과 지내면서 지금까지 농공학을 공부하고 있다. 비록 멀리 미국에서 또 다른 성장을 기다리고 있지만, 선배들의 마음을 이번 회고록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며, 앞으로 작으나마 선배들처럼 좋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다짐해 본다.

장학금 수혜 회고

97학번,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김준용**

2007년 8월 29일!

그 날은 내가 바이오시스템공학과로 졸업하던 날이다. 1997년 2월에 생물자원공학부로 입학했으니 대학 졸업까지 10년이 넘게 걸린 셈이다.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는 졸업이었지만 졸업을 할 수 있었기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박사과정으로 공부를 이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내가 졸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농공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를 간단히 이야기 하고자 한다.

내가 입학하던 1997년에는 누구나 잘 아는 IMF가 있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다. IMF를 큰 위험 없이 잘 넘기시는 줄 알았었는데, 1999년 어음 거래로 인한 연쇄도산으로 결국 우리 가족은 회사를 포함한 모든 것을 잃었다. 학교는 휴학할 수밖에 없었고, 여섯 식구나 되는 가족이 한 방에서 생활을 할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았다. 당시 다행히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웠던 나는 여러 선배의 도움으로 연봉 1,400만 원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도 해결하고, 동생들 학업 뒷바라지하면서 복학을 위한 어느 정도의 학비도 준비했다.

2005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복학할 때만 해도 금방 졸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배 가까이 오른 등록금과 동생들 학비문제까지 생기니 휴학해서 다시 직장을 다니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결국, 또 1년간 휴학을 선택했다. 1년 후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동생들 모두 졸업을 했고, 장학금 한 번만 받으면 졸업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2006년 2학기에 복학했다. 장학금을 받겠다는 의지로 군대를 갓 제대해서 정신 차린 복학생처럼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당시 과 조교의 말로는 전체 장학금을 받으려면 학년별로 수석을 해야만 했었는데, 불과 몇 점 차로 차석이라고 했다. 차석에게 따로 주는 장학금은 없었고, 총 금액 10% 수준의 수업료 장학금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받은 성적에 불만을 갖거나 성적을 확인하거나 하는 일은 교수님에 대한 큰 결례라고 생각했었지만,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이강진 박사님께 전화를 드린 기억이 난다. 2006년 2학기 노상하 교수님께서 안식년이셔서 한 과목을 이강진 박사님께서 강의하셨는데, 시험도 잘 본 것 같은데 왜 더 높은 성적이 아닌지를 여쭤본 적이 있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러

운 기억이긴 하지만 꽤나 절박한 심정이었고, 나중에 사과드려야지 생각했었는데 아직 못 드렸다. 혹시나 이 글을 읽으신다면 당시에 당혹스러우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 이후 사실 장학금은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대출도 힘들 것 같았고, 한 번만 더 휴학하면 졸업할 수 있겠다는 심정이었다. 그러던 중에 학과 조교에게 김경욱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서 농공장학재단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웠는지 모른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들었고 도움을 기대하기 힘들었을 때 농공장학재단 장학금이 큰 힘이 되었다.

김경욱 교수님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농공동창회의 여러 선배님께도 감사드리고 있다. 선배님들이 힘써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내가 지금도 공부를 할 수 있고, 더 나은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농공장학재단 장학금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나도 그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편지

97학번,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심동국**

농공학 선배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기계 전공 박사과정 학생 심동국입니다. 농공 선배님과 농공장학재단에 감사드리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저는 학부 졸업 후 회사를 다니다가 대학원에 다시 입학하였습니다. 회사를 그리 오랜 시간 다닌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아 학업과 학비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꿈을 위해 어렵게 결정하여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입학해서는 학교 분위기를 적응하기도 힘들고, 수업을 따라가기도 버거웠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보다 몸은 편하기는 하지만 연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중압감과 졸업 논문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이 심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약간의 돈도 있지만, 일정하게 들어오던 수입이 없어지고, 부모님께 생활비와 학비를 부탁드리는 것 또한 제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배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장학금 덕분에 학업에만 전

념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학교로 돌아와서 꿈을 위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대학원 생활은 제게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회사에서 할 수 없었던 심도 있는 연구 방법을 배우고, 교수님들의 많은 가르침으로 저를 갈고 닦는 시간입니다.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생활이란 학부 때와는 많이 다른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생활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쉽게 나태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나태해지는 것 같으면, 저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선배님들께 도움을 받았고, 이것을 갚는 방법은 열심히 공부하여 나라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진 능력이 너무 보잘 것 없어서 나라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학업을 마치고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제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음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믿고 격려해주시는 부모님께도 감사드리고, 저를 지도해주시는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저를 후원해주시는 농공학 선배들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니 학교생활도 즐겁고 더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돌아와 공부를 하면서, 사회 각층에 선배님들이 계시고 후배들이 연구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항상 기꺼이 도와주시는 것에 놀랐습니다. 많은 선배님이 회사나 국가 기관에서 계시고, 실험에 필요한 장비를 빌려 주시고,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공유해 주시는 선배님 덕분에 제가 공부를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저도 선배님들처럼 나라에 도움이 되고 후배들에게도 공부하는데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특별히 선배님들이 설립하신 농공장학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 무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십시오.

서둔동 캠퍼스의 추억

97학번, 농업토목 전공 **황세운**

안녕하십니까? 97학번 황세운입니다.

학과 교수님으로부터 회고록을 모집한다는 메일을 받았지만 선뜻 펜을 들지 못하고 망설여졌습니다. 원채 글 솜씨가 보잘것 없기도 하지만, '농공장학생'이라는 명칭이 무색하지 않은 멋진 선배님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분들께서 만들어 주실 멋진 회고록을 먼저 그려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덕한 탓에 지난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수일을 망설이다 도리이지 싶어 주제넘지만 제 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

'딱 따닥 따다닥…'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캠퍼스 내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칠판에 분필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수원 캠퍼스의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가지만,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도는 다정한 이 소리와 계절에 맞춰 캠퍼스 한 구석에서 피어나던 꽃 내음은 제가 대학생활을 시작한 서둔동 캠퍼스의 나름 선명한 추억들 중 일부입니다. 관악의 총장 잔디밭 부럽지 않았던 학과 건물 앞 정원에서는 술로, 책으로, 사랑으로, 때론 공놀이며 팩차기로 젊음이 불타올랐고, 그것은 훗날 제가 보았던 관악 중앙도서관 앞의 흔한 광경과는 사뭇 다르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엔 차가워 보이기까지 했던 허름하고 못생긴 우리 과 건물도 생각납니다. 제대하고 얼마 안 되서는 아침 일찍 수업이 있는 춥지 않은 날엔 술자리 막차는 학교에서 벌어지기도 했죠. 어두웠던 강의실 복도와 그 끝에 자리한 재떨이 옆에서 동료들과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는 아마도 지금의 제 모습도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조그마하게 마련된 3층 과방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구석에는 꽤 케릭터 강한 친구 한둘이 곤히 잠들어 있고, 선배 한 명 정도는 꼭 기타를 들고 앉아 몇 안 되는 코드를 집습니다. 쫄티에 통바지로 촌스럽게 멋을 내고 앉아 '술 먹을 건수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는 진주 촌놈도 앉아 있네요. 여학생 수가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작은 칠판에는 미팅 주선 정보가 가득했었죠.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과 엠티다 파티다 놀 궁리하느라 머리 맞대고 히히덕거리는 동안에도 책상 위에 너덜너덜해진 잡기장은 또 조용한 친구들 손에 차곡차곡 채워져 갔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잡기장들은 어디에 보관이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군요.

관악 캠퍼스로 이전한 후 한두 해 지나서인가 아무 생각 없이 들른 서둔동 캠퍼스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무성하게 자리하고 있더군

요. 이젠 정말 추억이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현재 관악에 있는 강의실, 연구실, 과방의 쾌적함과 첨단 시설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누군가 내게 다시 돌아가겠느냐고 물으면 난처해지겠지만, 그 시절 이야기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안주거리가 되는 것은 천상 '추억'이기 때문인가 봅니다.

지금은 또 다른 후배님들이 색다른 분위기가 있는 소중한 캠퍼스의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겠죠. 지금의 저처럼, 훗날 감사하며 떠올려 볼 그런 추억들 말이죠. 10년, 20년 후, 그 후배들의 회고록을 읽어 볼 생각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도 함께 가져봅니다. 막 캠퍼스 이전을 하던 시절에 제가 받은 장학금의 모태가 벌써 20년이나 된 역사 있는 재단이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고 어깨도 무거워지네요.

이 기회를 빌어, 혈기왕성한 시절에 철없이 날뛰던 저에게 아낌없이 가르쳐 주시고 돌봐주신 선생님 그리고 선배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 추억들이 선배님들께는 흐뭇한 미소로 보답이 되고 후배님들께는 작은 희망이 되는 바람을 가져보며 이만 짧지만 행복했던 회상의 시간을 접을까 합니다.

동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공장학금이 자신감을 심어주다

98학번,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서현권**

힘든 연구 생활 속에서 더불어 해이해졌던 나의 마음을 잡아준 건 농공장학재단과의 만남이었다. 'World best'를 꿈꾸며 한국의 농공학계를 지원하는 농공장학재단의 자랑스러운 장학생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국내 농공학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더욱더 발전적인 인력 향상을 위해 장학금을 제공한 농공장학금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농공학도들에게 꿈으로 올라가는 데 필요한 굵은 줄이 되어주었고, 농공장학회에서 만든 그 수많은 끈이 먼 훗날 얽히어 농공학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몇 번의 전환점을 갖는다. 특히나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답이 나왔을 때에는 더욱더 크게 무언가를 깨닫게 된

다. 농공장학재단은 나에게 열심히 정진하면 기회는 열려 있다는 불투명한 미래에 불빛을 밝혀주었고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 농공 장학금을 통해 '자신감'이라는 날개를 달고 지금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경제적 지원을 해주신 농공장학재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계 최고를 꿈꾸며 noblesse oblige를 몸소 실천하는 농공장학재단의 일원이 되어 그에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에 감사드린다.

학과가 나에게 준 소중함

99학번, 지역시스템공학 전공 **신정범**

학교에 처음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1999년 3월의 따스한 봄기운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맘때쯤 되었던 것 같다. 동문이라는 가족의 이름을 내걸고 선배님들이 미숙한 신입생들을 챙기기에 바쁜 하루하루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쯤….

선배가 와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과가 뭐하는지 알고 있니?" 나의 대답은 "아니오" 였다. 이렇게 해서 전공에 대한 선후배 간의 교감은 시작되었고 멋모르는 새내기에게 세계를 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국가를 위해, 학문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보답은 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답을 찾아 시간을 보내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의무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복귀한 학교에서 맞이하는 순수하고 실용적인 학문의 길에 조금이나마 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매진하였다.

학문에 매진하는 동안 주변의 많은 것들이 학문의 열정을 자제시켰고 그중에 가장 큰 요인은 등록금이었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공부하는 것은 재정적 여건이 허락하는 자에게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분주함과 불편함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런 나에게 동창회 장학금은 배움의 생활에 있어서 큰 여유를 안겨다 주었으며, 덩달아 학문과 자유를 동시에 안겨다 주었다. 학문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학문 분야 중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도전을 하게 된 것도 동창회 장학금의 큰 혜택이라 생각된다.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는 매 순간 학우들에게 미안함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나보다 우수한 학우들도 있었고, 더 열악한 경제적 여건을 가졌던 학우도 있었지만, 나에게 이런 큰 혜택을 준다는 것에 동창회에 감사의 마음이 앞선다.

장학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전진하다 보면 나의 앞길이 보일 것 같고, 이에 응당한 결과물이 나의 앞에 재현될 것이라는 굳은 의지와 자신감이 생겼다. 이에 대한 보상이었을까, 난생처음 대학교에서 A+ 학점을 받아보기도 했으며, 평균 A학점의 성적표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동창회에서 받은 장학금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믿음을 나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 아마 장학금을 수여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고마운 심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학사 졸업이 다가왔을 때 인생의 큰 고민을 쉽게 해결하기도 하였다. 공부라는 길을 선택하여 대학원 진학을 하였으며, 석사라는 학위의 길을 걸어가서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여 전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동창회의 큰 도움 덕택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공부하는 중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의 파트너로 마음속에 굳건히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자랑거리인 농공장학재단은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00학번,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박수현**

지난 2005년 부푼 꿈을 안고 서울대 농업기계 전공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지고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국제봉사를 아프리카로 지원하면서 대학원 공부는 2년 반 뒤로 미루게 되었다. 그래서 2008년 학교에 복학을 하고 그때부터 농공장학재단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거의 3년이라는 공백 기간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다.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지…. 대학원을 마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하지만 농공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 혜택을 받으면서 많은 고민이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

른 외부 재단이 아닌 졸업하신 동문 선배님들께서 주시는 장학금을 수혜받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먼저, 쉽게 학업의 연장이라고 느꼈던 대학원에 대한 나의 모습에 자각과 반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다른 전공 혹은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없는 우리 농공장학재단이 있어 많은 학우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학과 전공에 더욱 더 매진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다른 친구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도 농공장학재단을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졸업 선배님들을 본받아 나중엔 꼭 농공장학재단에 후원을 하고 이끌어 나가는 멋진 선배가 되어 후배들에게 같은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겠다는 꿈이 생겼다.

농공 장학금을 통해 학업 공부 및 대학생활에 '자신감'을 주고 그 전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넓은 세계로 날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경제적 지원을 해주신 농공장학재단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계 최고를 꿈꾸며 noblesse oblige를 몸소 실천하는 서울대 지식인의 정신을 따라 나 역시 그에 걸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대학원으로 진학하기까지

00학번, 지역시스템공학 전공 **오윤경**

올해로 12년째 교정에서 맞이하는 3월의 끝자락, 창밖으로 관악산이 봄비와 자욱한 안개 속에 서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쌀쌀한 봄날입니다. 벌써 1년 넘게 지난 2010년 2월, 길었던 가방끈에 매듭을 지으면서 부족한 필력으로 감사의 글을 쓰느라 밤을 하얗게 지새웠었는데, 늦게나마 모든 결실의 시발점이 되어준 농공장학금 및 동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부담 반, 안도 반으로 펜을 듭니다.

사실, 서울대 3대 바보의 정점에 있는 '나 전교 1등 출신이야'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2005년에 동창회에서 주신 농공장학금은 제게는 여러 장학금 중 하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를 거스르는 다복한 가정에서 장녀로 태어난 덕에 고지식한 저는 장학금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고, 근로 장학금, 성적 우수 장학금 등 자격 조건이 되는 장학금

은 야무지게 챙기는 편이었고, 심지어 사교육인 학원 등록금도 친구 소개 및 내신 성적 홍보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움에 대한 흥미와 열정보다는 장학금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은 채로 정신없이 학부 4년을 마치고 대학원 진학과 취업의 갈림길 앞에 섰을 때, 저는 여학생으로서 안정적인 관공서 취업에 뜻을 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농공동창회에서 수여하는 대학원 장학금 소식을 듣고, 개인 형편상 가능성을 닫아 두었던 대학원 진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박사학위를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값 등록금 시위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이공계 기피 및 전문대학원 열풍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 대학원 등록금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으며 능력 있는 이공계생은 국내에 비해 여건이 좋은 해외로 유학을 떠나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 전공에서는 남보다 앞서 noblesse oblige를 실천하신 여러 동문 선후배님들 덕에 타 단대에서 부러워하는 탄탄한 장학재단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자대생의 대학원 진학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주년을 맞이하는 농공장학재단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 전하며, 그 동안 받은 은혜 이상으로 베푸는 농공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겠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감사의 글을 마칩니다.

흔들릴 때 나를 잡아준 선배님들의 손길

03학번, 지역시스템공학 전공 **이성용**

이제 막 박사과정 코스워크를 마치고 나서 돌아보니 연구실에 들어온 지도 벌써 5년째이다. 석사학위를 받고 그 이후에도 공부를 계속해서 박사 수료까지 하게 된 지난 5년은 저 자신을 인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시험해 보고 한층 더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왔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내가 학부시절, 부모님이 동업자와 하던 사업이 있었다. 사업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학부를 졸업할 때쯤, 동업자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

으면서 결국은 지지부진한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나는 석사과정에 진학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아버지의 직장 퇴직이 몇 년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마음 한구석에서 나를 압박해왔다. 연구가 벽에 부딪혀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면 '내가 과연 연구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거나, 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을 보며 '공부 대신 취업을 할까'라고 상상해본 적도 있었다. 만약 그때 내가 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인 고민이 가중되었다면 나의 학업은 정말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주변의 친구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꿈을 우선순위에서 뒤에 놓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선배님들께서 노력과 정성으로 후배들을 돌봐주신 덕분에 그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지금은 박사 수료까지 하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선배님들께서 학교에 계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학과는 헌신적인 교수님들과 열정적이고 정이 넘치는 학생들이 서로를 도와가며 연구와 공부를 하고 있다. 우리가 당장 선배님들에게 직접적으로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장학금 수기 몇 자 적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 더 나은 연구를 하고 우리가 이룬 토대를 후배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배님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해본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농공학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중한 이름 농공학과

05학번, 지역시스템공학 전공 **박정안**

2005년, 설렘과 기쁨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에 들어서던 새내기가 어느덧 지역시스템공학과의 의젓한 박사과정생이 되었다. 어느새 낯설고 어색했던 지역시스템공학과가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이름이 되었다.

지역시스템공학부를 마치고 같은 학부 대학원에 진입하여 석사과정 때 농공장학금을 받으면서, 농공장학재단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선배님들을 뵈면서 전공 분야에 대해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날,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여

일반인들의 기부문화가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배님들께서 설립하신 농공장학재단은 세상에 환원하고 베푸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다. 농공장학재단을 통한 선배님들의 격려와 지지 속에 지금껏 지역시스템공학과 후배로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다. 나 외에도 많은 어린 학생들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등록금 걱정에 대한 시름을 내려놓고 공부에 매진하여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뿐만 아니라, 농공장학재단과 끈끈한 농공동창회를 통해 대선배님들과 꾸준히 소통할 수 있어 나의 삶에 많은 귀감이 되었다. 선후배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공명정대함, 그리고 미래의 인재들을 키워나가 우리 학과의 발전을 견고히 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배울 수 있었으며, 훗날 나도 선배님들께서 해오신 대로 후배들을 사랑하는 농공장학재단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역할을 다 하리라 다짐한다.

다시 한 번 지금까지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많은 선배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다. 돌아오는 봄에는 가정에 더욱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한다.

농공장학재단에의 고마움

06학번,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박성민**

꿈을 향해 학업에 정진하기 위해서 내가 갖춘 것은 굳은 의지와 뜨거운 열정, 그리고 꿈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마음가짐이겠지만, 이러한 믿음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나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고, 학업과 진로에 대해 불안감에 휩쓸리게 되었다. 누구보다 뛰어나게,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오지는 않았지만 내 앞에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였지만, 그 길이 끊어져 버린 상황에 놓였었다.

하지만 농공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끊어졌던 길이 다시 이어졌다. 그 길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내 앞에 내가 걸어나갈 수 있는 길, 나의 미

래를 다시금 열어 주셨다는 데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흔들렸던 나의 믿음을 다시 추스르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 길에서 뒤를 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힘쓰는 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 드리니다.

농공장학재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농공장학금과 함께 한 학창시절

06학번, 지역시스템공학 전공 **황순호**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황순호라고 합니다. 우선 농공장학금을 통해 후배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농공장학금 수기를 쓰게 되어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농공장학금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수업료 감면 등의 학교 차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기는 하였지만 전액을 받게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전액을 받게 된 것도 기뻤지만, 장학금 증서를 농공동창회에서 받을 때는 왠지 상장을 받은 기분이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학년 1년 동안을 장학금을 받고 나서 "더 이상 기회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니 아쉽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1년 동안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 드린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였는지, 그 해에 성적을 잘 받은 덕분에 4학년 한 해 동안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지금도 농공장학금 덕분에 학자금으로 인한 큰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학부 시절에는 돈을 벌 기회도 만만치 않고, 연구실에서 연구 보조를 해도 용돈 벌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기숙사를 살다 3학년부터 자취를 하려니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시기기도 했습니다. 학비에 방세까지 받으며 공부하기에는 부모님에게 죄송하단 생각이 들기 시작한 시기였고 그래서 그런지 농공장학금이 학부시절의 저에겐 더 소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타지에서 혼자 공부하며 학교 다니는데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라며 꼭 장학금의

일부분을 돌려주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돈이 꽤 큰돈이라 한동안 즐거웠습니다. 또 주위 친구들에 비해 제가 기회가 조금 더 있어 받게 된 장학금이어서 괜히 미안한 마음에 친구나 후배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기꺼이 사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며 말이죠. 그렇게 농공장학금은 제 학부 시절에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부담을 덜어주고 친구들에게 생색을 낼 수 있게 해준(?) 감사하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은 저에게 대단히 소중한 부분이었습니다.

1년 정도 전에 할아버지께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보다 절 예뻐하셨고 저에겐 대단히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생전에는 타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를 항상 걱정하시며 전화를 하시고는 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 고향이 마산이어서 거리가 멀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1년에 몇 번 밖에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식에 고향을 내려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저에게 이야기하시기를 할아버지께서 몸이 건강하실 때, 순호가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닌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곤 하셨단 이야길 하셨습니다. 저는 뭘 그런 걸 이야기하고 다니느냐고 투정을 부리듯이 이야기했지만 마음 속으로는 왠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농공장학금은 제 학창 시절 동안에 금전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중한 경험들과 행복한 기억들을 준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후배가 농공장학금이라는 기회를 통해 저처럼 많은 추억과 감사한 경험을 얻을 것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 덕분에 앞으로 학부, 대학원을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면서 살지 않을까란 확신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농공장학금을 주신 많은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기회를 받은 만큼 앞으로 더욱 베풀고 노력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공학과

07학번, 지역시스템공학 전공 **이 인**

어느덧 여섯 번이나 관악캠퍼스의 쌀쌀한 봄을 맞았다. 옷깃을 여미며 밥을 먹으러 갈 때마다 캠퍼스 여기저기에서 3월마다 느껴지는 활기찬 신입생들의 모습을 보며 가만히 나의 학교생활을 돌아보게 된다.

철없던 신입생 시절과 첫 후배를 받아서 모든 것이 새로웠던 2학년, 학부회장을 맡아 정신없이 보낸 3학년,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6년이라는 시간을 돌이켜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역시 매일 얼굴을 보는 우리 학과 동기들과 선후배이다. 언제 말해도 즐겁고 크게 웃을 수 있는 추억들과, 밤 늦게까지 같이 공부했던 시간들, 이런저런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조언해주었던 시간들…. 이런 모든 시간을 함께 해준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또 그러한 사람들로 이끌어준 지역시스템공학과에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학비를 벌어야 한다는 부담이 없이 이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농공장학재단에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학비 때문에 서너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모자라 휴학을 하고, 학업의 꿈을 펼치지도 못하는 내 또래들의 힘겨운 현실을 보면서 나는 참 복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농공장학금이 아니었다면 나도 분명 학비에 대한 부담에 공부할 시간도, 사람들과 만날 시간도,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도 모두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고, 점점 많은 후배를 만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더욱 공부에 매진하여 농공분야에 기여할 수 있고, 내가 느낀 모든 것들을 후배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는 것이다. 최고의 위치에서 성과를 내면서 후배들에게 인생에 대한 조언과 지식, 그리고 인간적인 정도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학과의 선배님들 못지않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선배, 인정받는 농공인이 되기 위해 더욱 부단히 노력하고 매진하겠다.

끝으로 농공장학재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희생의 기쁨을 알게 해준 기회의 손길

08학번, 지역시스템공학 전공 **이영연**

공자의 말과 당대 인물들과의 대화를 제자들이 기록한 책인 『논어(論語)』의 가장 첫머리에 "學而時習之, 不亦樂乎(배우고 때마다 그것을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구절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가 가장 쉽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논어의 저 구절을 본다면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하다. 배우고 익히는 일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항상 즐거울 수 있을까? 공부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하지만, 공자는 누구에게나 원하는 배움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그 옛날부터 말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러하겠지만, 내게도 고등학교 이후로 공부란 논어의 말대로 배우고 때마다 그것을 익히면 즐거운 일이었다. 다 푼 문제집을 쌓아가는 것도, 틀린 문항을 모은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3년간 즐거웠다.

하지만 대학을 처음 입학하고 맛본 '자유'라는 미명하에 해왔던 어쩌면 내가 가장 잘했던 것들을 잃어버렸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 공부가 즐거움이 아니라 귀찮음으로 다가왔고, '일학년은 놀아볼까?'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살았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이제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하고, 지역시스템공학과(농토목과)에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니 남들과는 너무 다른 나를 발견했다. 1년만 뒤쳐지겠지 생각하고 보내버린 1년이란 시간이 이미 저만치 멀리 떨어져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차이가 생겨버림을 실감하였다. 어떤 이는 '이공계 장학금', '성적 우수 장학금'과 함께 학교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신입생 때 바닥을 쳐버린 학점을 끌어올리기엔 너무 버거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랬던 내가 2010년도 학과 회장을 하게 되었다. 내가 공부로는 졸업할 때까지 받기 힘들 것 같았던 장학금을 학과 회장을 하면서 받아버렸다.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힘들게 과를 이끄는 학과 회장에게 격려와 독려 차원에서 농공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나에겐 학교를 입학하고 어떤 때보다 기뻤다. 대학을 입학할 때 이후로, 부끄럽지만 처음 부모님께 '아들,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말을 들어볼 수 있었다.

'渴者甘飮(목마른 자가 마실 것을 달게 느낀다)'이라는 말이 있다. 장학금이라는 혜택을 한번 받아보고 싶었지만, 학점이라는 벽에 막혔던 나에게 꼭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학

과의 일원이자 학과의 장으로서 학과를 잘 이끌어달라는 독려의 취지로 1년간 지원해주신 이 장학금. 내게 들어온 무언가를 진정 '달게 마실 수 있는' 기쁨을 안겨준 '농공동창회 장학재단'에 감사드린다.

3학년을 보내는 내가 아무런 제약 없이 내 꿈을 펼치고, 학과에 공헌할 수 있었던 시간이 돌이켜보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내 꿈에 한 걸음 다가가고 지금보다 더 큰 꿈을 가슴에 품을 수 있으며, 졸업 후 다가올 희망찬 미래를 향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시간이었다.

그런 시간의 주인공이 되게 해준 '농공동창회 장학재단'에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부록

1. 농공장학재단의 정관 및 각종 규정
2. 장학재단 설립 관련 서류
3. 장학생 명단과 지급액
4. 농공동창회 및 농공장학재단의 장학기금 모금 상황
5. 장학증서의 변천

20

1. 농공장학재단의 정관 및 각종 규정

1) 농공장학재단의 정관 변경 사항

농공장학재단의 발전과 소속된 대학의 명칭, 조직 개편 그리고 관악이전에 따라 정관의 변경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 부록 표와 같다.

부록 표 1-1-1 제1차 정관 변경(1991. 3. 12)

개 정 전	개 정 후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9인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1인

부록 표 1-1-2 제2차 정관 변경(1992. 2. 24)

개 정 전	개 정 후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1인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3인

부록 표 1-1-3 제3차 정관 변경(1994. 5. 24)

개 정 전	개 정 후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3인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부록 표 1–1–4 제4차 정관 변경(1998. 12. 11)

개 정 전	개 정 후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수들의 학문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농공학 분야의 인재 양성 및 학문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내의 농공학을 전공하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수들의 학문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농공학 분야의 인재 양성 및 학문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 번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 내에 둔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 번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1항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농공학과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2) 농공학과 교수의 연구 활동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3)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 1항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농공학을 전공하는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2) 농공학을 전공하는 교수의 연구 활동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3)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2항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 학생 및 교수에 한한다.	제5조 2항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 및 교수 중 농공학을 전공하는 자에 한한다.

부록 표 1–1–5 제5차 정관 변경(2004. 7. 2)

개 정 전	개 정 후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 번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 내에 둔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9동 산 56–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상록관 내에 둔다.

부록 표 1–1–6 제6차 정관 변경(2011. 6. 1)

개 정 전	개 정 후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내의 농공학을 전공하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수들의 학문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농공학 분야의 인재 양성 및 학문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내의 농공학(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공학, 이하 동일)을 전공하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수들의 학문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농공학(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공학, 이하 동일) 분야의 인재 양성 및 학문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학제도 관련 사항

농공동창회가 장학 사업을 시작하여 오늘의 농공장학재단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수록하였다. 여기에 농공동창회가 추진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특별장학제도의 운영에 관련한 사항, 농공동창회와 농공장학재단의 관계 설정, 농공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 규정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의 묘를 이루기 위한 세칙 및 현재 정관(2011. 6. 1) 등을 부록 표로 정리하였다.

(1) 농공동창회의 특별장학제도 사항

부록 표 1-2-1 특별장학기금의 조성과 운영 방안(1982. 12. 17)

농공동창회 특별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방안

1. 기금의 조성
   1) 농공동창 중 원로 중견 회원으로서 명예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의 희사로 이루어진다.
   2) 일백만 원(₩1,000,000)을 1구좌로 하고, 1구좌 이상을 기금으로 한다.
   3) 장학기금의 명칭은 희사하신 분의 호, 이름, 기타의 명칭으로 정한다.
   4) 기본 기금의 증식과 장학금 지급 내역은 영구적으로 기장 보존한다.

2. 기금의 운영
   1) 개인명의 장학금은 희사자별의 별도 계좌로 한다.
   2) 기금의 증식은 이자수입, 기타 운영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기본 기금의 확대를 위하여 동창 회원 중 원하는 분은 기존명칭의 기금에 임의로 기여할 수 있다.

3. 수혜자 결정
   1) 수혜 대상자는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한다.
   2) 수혜자의 결정은 특별 장학기금 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수혜 학생은 장래 농공동창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답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 표 1-3과 동일함.

(2) 농공동창회와 농공장학재단의 관계 설정

부록 표 1–2–2 농공동창회 회칙의 변경 사항(1992. 10. 3)

회칙 제13조(신설) 본회는 제3조 4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농공장학재단을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이사장은 동창회장이 겸임한다.
2. 임원은 재단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동창회 확대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기타 운영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단 정관에 따른다.

주: 표 1-7과 동일함.

(3) 농공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 사항

부록 표 1–2–3 장학생 선발 규칙(1992. 3. 25)

장학생 선발 규칙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1. 장학생 자격 요건

(1) 애국사상 · 효친사상이 투철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학과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3) 학과장의 추천이 있는 학생
(4) 직전 학년의 1, 2학기 평균성적이 4.3 기준 3.0 이상인 학생

2. 결격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없다.

(1) 휴학, 군입대,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자
(2) 다른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장학금의 수혜가 있는 자
(3) 기타 재단 장학사업의 취지 및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3. 구비서류

장학생 추천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전학년도 성적증명서 1부

부록 표 1-2-3 장학생 선발 규칙(1992. 3. 25) (계속)

4. 기타

(1) 2 학기 장학생 추천대상이 되는 1학기 장학금 수혜자 중 2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학년에서 보궐,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1학기에 이어 2학기에 재추천하는 장학생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주: 표 1-11과 동일함.

부록 표 1-2-4 장학생 선발 규칙의 추가 사항

장학생 선발 규칙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1996. 2 장학생 선발 규칙에서 장학생을 추천하는 사유를 첨부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정하다.
1997. 2 장학생 대상자의 선정은 모교 재직 교수들에게 일임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다.
2003. 2 장학생 선발 규칙에서 장학생의 출신 고등학교를 명시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정하다.

(4) 농공장학재단의 운영 관련 사항

부록 표 1-2-5 자문위원회 규칙(2003. 6. 20)

자문위원회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농공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임명직 위원은 농공장학재단 이사로 역임하셨던 분으로 이사장이 추천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장학재단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한다.

(4) 위원장은 장학재단 이사장이 겸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부록 표 1-2-5 자문위원회 규칙(2003. 6. 20) (계속)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장학재단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
(2) 장학재단 기금의 운영에 대한 자문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임무)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상임이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6조(회의소집)
(1)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이사회와 연석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

(5) 농공장학재단의 정관(2011. 6. 1 현재)

재단법인 서울大學校 農工奬學財團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人은 社會 一般의 利益에 寄與하기 위하여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따라 서울大學校 農業生命科學大學 內의 農工學(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공학 이하 동일)을 專攻하는 在學生에게 奬學金을 支給하고, 敎授들의 學問 硏究를 支援함으로써 農工學(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공학 이하 동일) 分野의 人才 養成 및 學問 硏究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名稱) 이 法人은 "財團法人 서울大學校 農工奬學財團"이라 한다.

第3條 (事務所의 所在地) 이 法人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 冠岳區 新林 9洞 山56-1 서울大學校 農業生命科學大學 常綠館 內에 둔다.

第4條 (事業)
(1) 이 法人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目的事業을 행한다.
1) 農工學을 專攻하는 在學生에게 奬學金 支給
2) 農工學을 專攻하는 敎授의 硏究 活動 및 敎育施設 擴充을 위한 支援
3) 其他 本 法人의 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項
(2) 第1項의 目的 事業의 經費를 調達하기 위하여 收益 事業을 할 수 있다.

(3) 第2項의 收益 事業을 經營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미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5條 (法人 供與 收益의 受惠者)

(1) 이 法人이 第4條 第1項에 規定한 目的 事業을 遂行함에 있어서 그 受惠者에게 提供하는 利益은 이를 無償으로 한다. 다만, 受惠者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負擔시킬 때에는 미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2) 이 法人의 目的 事業의 遂行으로 因하여 提供되는 利益은 서울大學校 農業生命科學大學 學生 및 敎授 中 農工學을 專攻하는 者에 限한다.

第 2 章 財産과 會計

第6條 (財産의 區分)

(1) 이 法人의 財産은 이를 基本 財産과 보통 財産으로 區分한다.

(2) 다음 各號의 2에 該當하는 財産은 이를 基本 財産으로 하고, 基本 財産 以外의 일체의 財産은 보통 財産으로 한다.

1) 設立時 基本 財産으로 出捐한 財産

2) 寄附에 依하거나 其他 無償으로 取得한 財産 다만, 寄附 目的에 비추어 基本 財産으로 하기 困難하여 監督廳의 承認을 얻은 것은 例外로 한다.

3) 보통 財産中 理事會에서 基本 財産으로 編入할것을 議決한 財産

4) 歲計 剩餘金中 積立金

(3) 이 法人의 基本 財産은 다음과 같다.

1) 設立 當時의 基本 財産은 別紙 目錄 1과 같다.

2) 現在의 基本 財産은 別紙 目錄 2와 같다.

第7條 (財産의 管理)

(1) 第6條 第3項의 基本 財産을 賣渡, 贈與, 貸附, 交換하거나 擔保에 提供하거나 義務 負擔 또는 權利의 抛棄를 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2) 法人이 買收, 寄附 採納 其他 方法으로 財産을 取得할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法人의 財産으로 編入 措置하여야 한다.

(3) 基本 財産 및 보통 財産의 維持, 保存 및 其他 管理 (第1項 및 第2項의 境遇는 除外한다)에 관하여는 理事長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

(4) 基本 財産의 目錄이나 評價額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 別紙 目錄을 變更하여 定款 變更 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8條 (財産의 評價) 이 法人의 모든 財産의 評價는 取得 當時의 時價에 의한다. 다만, 再評價를 實施한 財産은 再評價額으로 한다.

第9條 (經費의 調達 方法 등) 이 法人의 維持 및 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基本財産의 果實, 事業收益 및 其他의 收入으로 調達한다.

第10條 (會計의 區分)

(1) 이 法人의 會計는 目的事業 會計와 收益事業 會計로 區分한다.

(2) 第1項의 境遇에 法人稅法의 規程에 의한 法人稅 課稅 對象이 되는 收益과 이에 對應하는 費用은 收益 事業 會計로 計理하고, 其他 收益과 費用은 目的事業 會計로 計理한다.

(3) 第2項의 境遇에 目的事業 會計와 收益事業 會計로 區分하기 困難한 費用은 共同費用 配分에 관한 法人稅에 관한 法令의 規程을 準用하여 配分한다.

第11條 (會計 原則) 이 法人의 會計는 事業의 經營 成果와 收支狀態를 正確하게 把握하기 위하여 모든 會計 去來를 發生의 事實에 의하여 企業會計의 原則에 따라 處理한다.

第12條 (會計年度) 이 法人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13條 (豫算 外의 債務 負擔 등) 豫算 外의 債務의 負擔 또는 債券의 抛棄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會計年度의 收益金으로 償還할 수 없는 資金을 借入(이하 "長期 借入金"이라 한다)하는 境遇 借入하고자 하는 長期 借入金額이 基本 財産 總額에서 借入 當時의 負債

總額을 控除한 金額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金額 未滿으로써 借入하고자 하는 金額을 包含한 長期 借入金의 總額이 100萬원 未滿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14條 (任員의 報酬 制限 등) 第17條의 規程에 의한 常任理事를 除外한 任員에 대하여는 報酬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實費의 補償은 例外로 한다.

第15條 (任員 등에 대한 財産 貸與 禁止)

(1) 이 法人의 財産은 이 法人과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關係가 있는 者에 대하여 정당한 代價없이 이를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1) 이 法人의 設立者

2) 이 法人의 任員

3) 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者와 民法 第777條의 規程에 의한 親族關係에 있는 者 또는 이에 該當하는 者가 任員으로 있는 다른 法人

4) 이 法人과 財産上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第1項 各號의 規程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者의 境遇에도 法人의 目的에 비추어 정당한 事由가 없는 한 정당한 代價없이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第3章 任員

第16條 (任員의 種類와 定數)

(1) 이 法人에 두는 任員의 種類와 定數는 다음과 같다.

1) 理事 15人

2) 監事 2人

(2) 第 1項 第 1號의 理事에는 理事長과 常任理事를 包含한다.

第17條 (常任理事)

(1) 第4條에 規定한 事業을 專擔하게 하기 위하여 理事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理事中 1人을 常任理事로 任命할 수 있다.

(2) 常任理事의 業務 分掌에 關하여는 理事長이 定한다.

第18條 (任員의 任期)

(1) 理事의 任期는 4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2) 補選에 의하여 就任하는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 期間으로 한다.

第19條 (任員의 選任 방법)

(1) 理事와 監事는 理事會에서 選任하여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 就任한다.

(2) 任期前에 任員의 解任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3) 理事 또는 監事 中에 缺員이 생길 때에는 2月 以內에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

第20條 (任員 選任의 制限)

(1) 理事會 構成에 있어서 理事 相互間에 公益 法人의 設立 運營에 관한 法律 施行令 第12條의 規程에 의한 特殊 關係에 該當하는 理事의 數는 第16條의 理事 定數의 5分의 1을 超過하지 못한다.

(2) 監事는 監事 相互間 또는 理事와 第1項에 規定한 特殊 關係에 該當하는 者가 아니어야 한다.

第21條 (理事長의 選出 方法과 그 任期)

(1) 理事長은 理事會의 互選으로 選出하고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 就任한다.

(2) 理事長의 任期는 理事로 在任하는 期間으로 한다.

第22條 (理事長 및 理事의 職務)

(1) 理事長은 이 法人을 代表하고 法人의 業務를 統理한다.

(2)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이 法人의 業務에 관한 事項을 審議 議決하며, 理事會 또는 理事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常任理事에게 委任한 事項을 除外한다)을 處理한다.

第23條 (理事長의 職務 代行)

(1)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常任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2) 理事長이 闕位되었을 때에는 理事會에서 選出된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3) 第2項의 規程에 의한 理事의 選出은 理事會에서 理事 定數의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4) 第2項의 規程에 의하여 理事長의 職務 代行者로 選出된 理事는 遲滯없이 理事長 選出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24條 (監事의 職務) 監事는 다음의 職務를 행한다.

(1) 法人의 財産 狀況을 監事하는 일

(2)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監事하는 일

(3) 第1號 및 第2號의 監事 結果 不正 또는 不當한 事項이 있음을 發見할 때에는 理事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거나 監督廳에 報告하는 일

(4) 第3號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5) 決算 監事를 하고 그 結果를 理事會에 報告하는 일

(6)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는 일

(7) 理事會의 會議錄에 記名 捺印하는 일

第4章 理事會

第25條 (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하여 議決한다.

(1) 이 法人의 豫算, 決算, 借入金 및 資産의 取得 處分과 管理에 관한 事項

(2) 定款의 改正에 관한 事項

(3) 法人의 解散에 관한 事項

(4) 任員의 任免에 관한 事項

(5) 事業에 관한 事項

(6) 이 定款의 規程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7) 其他 이 法人의 運營上 重要하다고 理事長이 附議하는 事項

第26條 (議決 定數)

(1) 理事會는 理事 定數의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한다.

(2) 理事會의 議事는 出席 理事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3) 理事會의 議決은 大韓民國 國民인 理事가 出席 理事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第27條 (議決 除斥 事由) 理事長 또는 理事가 다음 各號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1) 任員의 就任 및 解任에 있어 自身에 관한 事項을 議決할 때

(2) 金錢 및 財産의 授與를 隨伴하는 事項으로서 自身과 法人의 理解가 相反될 때

第28條 (會期) 理事會는 每年 1回 이를 開催하고 必要가 있을 때에는 隨時 이를 開催한다.

第29條 (理事會의 召集)

(1) 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2)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 前에 會議 目的을 明示하여 各 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이 集會하고 또 그 全員이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0條 (理事會 召集의 特例)

(1) 理事長은 다음 各號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召集 要求日로부터 20日 以內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로부터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할 때

2) 第24條 第4號의 規程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

(2) 理事會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日 以上 理事會 召集이 不可能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

(3) 第2項에 의한 理事會의 運營은 出席理事中 年長者의 司會 아래 그 會議의 議長을 選出하여야 한다.

第31條 (書面 決議 禁止) 理事會의 議事는 書面 決議에 의할 수 없다.

第5章 補 則

第32條 (定款의 變更) 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定數의 3分의 2 以上 贊成으로 議決하여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33條 (解散) 이 法人을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定數의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34條 (殘餘 財産의 歸屬) 이 法人을 解散하였을 때의 殘餘 財産은 서울特別市敎育廳에 歸屬한다.

第35條 (施行細則) 이 定款의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細則으로 定한다.

第36條 (公告 事項 및 方法) 法令의 規程에 의한 事項과 다음 各號의 事項은 이를 京仁日報나 京畿日報에 公告하여 行한다.

(1) 法人의 名稱 및 事務所의 所在地 變更

(2) 其他 理事長이 公告하여야 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37條 (設立當初의 任員 및 任期) 이 法人 設立 當初의 任員 및 任期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이철주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218-1 극동아파트 5-206	1990. 3. 29부터 1994. 3. 29까지(4년)
이 사	정진호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14 신동아아파트 7-1102	〃
이 사	안재숙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5-11	〃
이 사	윤오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7-3	〃
이 사	윤대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
이 사	유한홍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529-30	1990. 3. 29부터 1992. 3. 29까지(2년)
이 사	고재군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6-1 대림아파트 1-901	〃
이 사	정창주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52-3 현대아파트 104-504	〃
이 사	신동수	서울시 송파구 분정동 150 훼미리아파트 304-503	〃
감 사	김재곤	서울시 관악구 봉천 11, 1628-22	1990. 3. 29부터 1992. 3. 29까지(2년)
감 사	배정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20 현대아파트 81-1108	1990. 3. 29부터 1991. 3. 29까지(1년)

附 則

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1990年 3月 29일) 施行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장학재단 설립 관련 서류

1)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1)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2부
(2) 설립취지서	2부
(3) 정관	6부
(4) 창립총회 회의록	2부
(5) 재산목록	2부
(6) 재산출연증서	2부
(7) 재산의 권리증명	2부
(8) 재산의 평가서	2부
(9) 재산의 수익조서	2부
(10) 임원명단	2부
(11) 임원의 이력서	2부
(12) 임원의 신원증명원	2부
(13) 임원의 취임승락서	2부
(14) 임원의 임감증명	2부
(15) 임원의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2부
(16) 민간인 신원진술서	6부
(17) 임원의 호적등본	3부
(18) 향후 2개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부

* 무상임대차 계약서

* 임명권자의 동의서
* 신원조회 회보서

2)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설립 취지문

인류 역사와 함께 태동한 농업은 지구촌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존속되어야 할 기간산업으로서 이를 뒷받침하는 농업과학 및 기술은 필연적으로 발전 · 계승되어야 할 분야이다. 농업공학은 이와 같이 농업과학 및 기술의 한 분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는 학문으로 정의되고 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공학에서 담당하는 분야로는 개간, 간척 등을 통한 농지의 확대, 저수지, 양수장 등의 설치에 의한 농업용수원의 확보, 경지정리, 수리구조물의 설치 등과 같은 농지의 정비, 작물의 생육에 알맞은 관개배수, 농작물의 파종, 재배, 관리, 수확 등에 필요한 각종 농업기계, 수확된 농산물의 건조, 조제, 가동 및 저장에 필요한 각종 농산가공기계 등이 있으며,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되는 분야로는 농촌주택, 축사 및 저장시설, 수질오염의 방지, 농업용 열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이용 등이 있다.

나아가서, 과학문명 및 산업기술이 발전과 더불어 생물공학의 농업에의 응용, 환경조절시설을 갖춘 식물공장, 각종 농업기술의 진단을 위한 Expert System, 농업생산시설 및 농업기계의 자동화, 농업노동력의 감소에 대비한 농업용 로봇의 개발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공학은 전통적인 관념에서의 농업발전은 물론 첨단적인 농업기술의 개발 및 육성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공학의 학문적 탐구와 인재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공업 분야의 발전에 따라 도농 간의 소득 격차의 심화,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 상실, 농촌문화의 퇴폐와 전통성 상실 등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궁극적인 대책은 농업기술개발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물론 농업기반의 조성, 농업구조의 개편, 경영형태의 개선, 농업기계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귀결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는 1943년에 창설된 이래, 1989년 현재 1,400여 명의 학

사, 140여 명의 석사, 40여 명의 박사를 배출한 한국 농공학의 산실로서 본 학과의 졸업생들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들 동창생들이 1966년에 농공동창회를 결성하여 모교의 발전 및 농공학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장학기금의 확대 조성과 장학사업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농공동창회원의 뜻을 모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의 설립 취지는 전통적인 농업과학 및 기술의 계승발전은 물론, 새로운 과학과 첨단기술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농업에 응용하기 위하여

첫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공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둘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의 교육 및 연구 시설의 확충과 동 학과의 교수들에게 학문탐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 · 발전시키는 데 있다.

1990. 1.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설립자 대표 이 철 주 (인)

3) 농공장학재단의 초기 정관(1990. 3. 29)

財團法人 서울大學校 農工奬學財團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人은 社會 一般의 利益에 供與하기 위하여 公益法人의 設立 運營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따라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農工學科 在學生에게 奬學金을 支給하고, 教授들의 學問 研究를 支援함으로써 農工學 分野의 人才 養成 및 學問 研究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名稱) 이 法人은 "財團法人 서울大學校 農工奬學財團"이라 한다.

第3條 (事務所의 所在地) 이 法人의 事務所는 京畿道 水原市 勸善區 西屯洞 103-2 番地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農工學科 內에 둔다.

第4條 (事業)

(1) 이 法人은 제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目的 事業을 행한다.

1) 農工學科 在學生에게 奬學金 支給

2) 農工學科 敎授의 硏究 活動 및 敎育施設 擴充을 위한 支援

3) 기타 本 法人의 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項

(2) 第1項의 目的 事業의 經費를 調達하기 위하여 收益 事業을 할 수 있다.

(3) 第2項의 收益 事業의 經營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미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5條 (法人 供與 收益의 受惠者)

(1) 이 法人이 第4條 第1項에 規定한 目的 事業을 遂行함에 있어서 그 受惠者에게 提供하는 利益은 이를 無償으로 한다. 다만, 受惠者에게 그 代價의 일부를 負擔시킬 때에는 미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2) 이 法人의 目的 事業의 遂行으로 因하여 提供되는 利益은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農工學科 學生 및 敎授에 限한다.

第2章 財産과 會計

第6條 (財産의 區分)

(1) 이 法人의 財産은 이를 基本 財産과 보통 재산으로 區分한다.

(2)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産은 이를 基本 財産으로 하고, 基本 財産 이와의 일체의 財産은 보통 財産으로 한다.

1) 設立時 基本 財産으로 出捐한 財産

2) 寄附에 의하거나 其他 無償으로 取得한 財産

다만, 寄附 目的에 비추어 基本 財産으로 하기 困難하여 監督廳의 承認을 얻은 것은 例外로 한다.

3) 보통 財産 중 理事會에서 基本 財産으로 編入할 것을 議決한 財産

4) 歲計 剩餘金中 積立金

(3) 이 法人의 基本 財産은 다음과 같다.

1) 設立 當時의 基本 財産은 別紙 目錄 1과 같다.

2) 現在의 基本 財産은 別紙 目錄 2와 같다.

第7條 (財産의 管理)

(1) 第6條 第3項의 基本 財産을 賣渡, 贈與, 貸附, 交換하거나 擔保에 提供하거나 義務 負擔 또는 權利의 抛棄를 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2) 法人이 買收, 寄附 滯納 其他 方法으로 財産을 取得할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法人의 財産으로 編入 措置하여야 한다.

(3) 基本 財産 및 보통 財産의 維持, 保存 및 其他 管理(제1항 및 제2항의 境遇는 除外한다)에 관하여는 理事長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

(4) 基本 財産의 目錄이나 評價額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 別紙 目錄을 變更하여 定款 變更 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8條 (財産의 評價) 이 法人의 모든 財産의 評價는 取得 當時의 時價에 의한다. 다만, 再評價를 實施한 財産은 再評價額으로 한다.

第9條 (經費의 調達 方法 등) 이 法人의 維持 및 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基本 財産의 果實, 事業收益 및 其他의 收入으로 調達한다.

第10條 (會計의 區分)

(1) 이 法人의 會計는 目的事業 會計와 收益事業 會計로 區分한다.

(2) 第1項의 境遇에 法人稅法의 規程에 의한 法人稅 課稅 對象이 되는 收益과 이에 對應하는 費用은 收益事業 會計로 計理하고, 其他 收益과 費用은 目的事業 會計로 計理한다.

(3) 第2項의 境遇에 目的事業 會計와 收益事業 會計로 區分하기 困難한 費用은 共同費用 配分에 관한 法人稅에 관한 法令의 規程을 準用하여 配分한다.

第11條 (會計 原則) 이 法人의 會計는 事業의 經營 成果와 收支狀態를 正確하게 把握하기 위하여 모든 會計 去來를 發生의 事實에 의하여 企業會計의 原則에 따라 處理한다.

第12條 (會計年度) 이 法人의 會計年度는 정부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13條 (豫算 外의 債務 負擔 등) 豫算 外의 債務의 負擔 또는 債券의 抛棄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會計年度의 收益金으로 償還할 수 없는 資金을 借入(이하 "長期 借入金"이라 한다)하는 境遇 借入하고자 하는 長期 借入金額이 基本 財産 總額에서 借入 當時의 負擔 總額을 控除한 金額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金額 未滿으로써 借入하고자 하는 金額을 包含한 長期 借入金의 總額이 100만 원 未滿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條 (任員의 報酬 制限 등) 第17條의 規程에 의한 常任理事를 除外한 任員에 대하여는 報酬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實費의 補償은 例外로 한다.

第15條 (任員 등에 대한 財産 貸與 禁止)

(1) 이 法人의 財産은 이 法人과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關係가 있는 者에 대하여 정당한 代價없이 이를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1) 이 法人의 設立者

2) 이 法人의 任員

3) 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者와 民法 第777條의 規程에 의한 親族關係에 있는 者 또는 이에 該當하는 者가 任員으로 있는 다른 法人

4) 이 法人과 財産上 緊密한 關係가 있는 者

(2) 第1項 各號의 規程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者의 境遇에도 法人의 目的에 비추어 정당한 事由가 없는 한 정당한 代價없이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第3章 任 員

第16條 (任員의 種類와 定數)

(1) 이 法人에 두는 任員의 種類와 定數는 다음과 같다.

1) 理事 9人

2) 監事 2人

(2) 第1項 第1號의 理事에는 理事長과 常任理事를 包含한다.

第17條 (常任理事)

(1) 第4條에 規定한 事業을 專擔하게 하기 위하여 理事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理事 中 1人을 常任理事로 任命할 수 있다.

(2) 常任理事의 業務 分掌에 關하여는 理事長이 定한다.

第18條 (任員의 任期)

(1) 理事의 任期는 4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2) 補選에 의하여 就任하는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 期間으로 한다.

第19條 (任員의 選任 方法)

(1) 理事와 監事는 理事會에서 選任하여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 就任한다.

(2) 任期前에 任員의 解任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減毒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3) 理事 또는 監事 中에 缺員이 생길 때에는 2月 以內에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

第20條 (任員 選任의 制限)

(1) 理事會 構成에 있어서 理事 相互間에 公益法人의 設立 運營에 관한 法律 施行令 第12條의 規程에 의한 特殊 關係에 該當하는 理事의 數는 第16條의 理事 定數의 3分의 1을 超過하지 못한다.

(2) 監事는 監事 相互間 또는 理事와 第1項에 規定한 特殊 關係에 該當하는 者가 아니어야 한다.

第21條 (理事長의 選出 方法과 그 任期)

(1) 理事長은 理事會의 互選으로 選出하고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 就任한다.

(2) 理事長의 任期는 理事로 在任하는 期間으로 한다.

第22條 (理事長 및 理事의 職務)

(1) 理事長은 이 法人을 代表하고 法人의 業務를 統理한다.

(2)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이 法人의 業務에 관한 事項을 審議 議決하며, 理事會 또는 理事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常任理事에게 委任한 事項을 除外한다)을 處理한다.

第23條 (理事長의 職務 代行)

(1)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常任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2) 理事長이 闕位되었을 때에는 理事會에서 選出된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3) 第2項의 規程에 의한 理事의 選出은 理事會에서 理事 定數의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4) 第2項의 規程에 의하여 理事長의 職務 代行者로 選出된 理事는 遲滯없이 理事長 選出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24條 (監事의 職務) 監事는 다음의 職務를 행한다.

1) 法人의 財産 狀況을 監査하는 일

2)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監督하는 일

3) 第1號 및 第2號의 監査 結果 不正 또는 不當한 事項이 있음을 發見할 때에는 理事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거나 監督廳에 報告하는 일

4) 第3號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5) 決算 監査를 하고 그 結果를 理事會에 報告하는 일

6)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는 일

7) 理事會의 會議錄에 記名捺印하는 일

第4章 理事會

第25條 (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하여 議決한다.

1) 이 法人의 豫算, 決算, 借入金 및 資産의 取得 處分과 管理에 관한 事項

2) 定款의 改正에 관한 事項

3) 法人의 解散에 관한 事項

4) 任員의 任免에 관한 事項

5) 事業에 관한 事項

6) 이 定款의 規程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7) 其他 이 法人의 運營上 重要하다고 理事長이 附議하는 事項

第26條 (議決 定數)

1) 理事會는 理事 定數의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한다.

2) 理事會의 議事는 出席 理事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3) 理事會의 議決은 大韓民國 國民인 理事가 出席 理事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第27條 (議決 除斥 事由) 理事長 또는 理事가 다음 各號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1) 任員의 就任 및 解任에 있어 自身에 관한 事項을 議決할 때

2) 金錢 및 財産의 授與를 隨伴하는 事項으로서 自身과 法人의 理解가 相反될 때

第28條 (會期) 理事會는 每年 1回 이를 開催하고 必要가 있을 때에는 隋時 이를 開催한다.

第29條 (理事會의 召集)

(1) 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2)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 前에 會議 目的을 明示하여 각 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이 集會하고 또 그 全員이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0條 (理事會 召集의 特例)

(1) 理事長은 다음 各號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召集 要求日로부터 20日 以內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로부터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할 때

2) 第24條 第4號의 規程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

(2) 理事會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日 以上 理事會 召集이 不可能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

(3) 第2項에 의한 理事會의 運營은 出席理事中 年長者의 司會 아래 그 會議의 議長을 選出하여야 한다.

第31條 (書面 決議 禁止) 理事會의 議事는 書面 決議에 의할 수 없다.

第5章 補則

第32條 (定款의 變更) 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定數의 3分의 2 以上 贊成으로 議決하여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33條 (解散) 이 法人을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定數의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34條 (殘餘 財産의 歸屬) 이 法人을 解散하였을 때의 殘餘 財産은 京畿道 敎育委員會에 歸屬한다.

第35條 (施行細則) 이 定款의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細則으로 定한다.

第36條 (公告 事項 및 方法) 法令의 規程에 의한 事項과 다음 各號의 事項은 이를 京仁日報나 京畿日報에 公告하여 行한다.

1) 法人의 名稱 및 事務所의 所在地 變更

2) 其他 理事長이 公告하여야 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37條 (設立當初의 任員 및 任期) 이 法人 設立 當初의 任員 및 任期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이철주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218–1 극동아파트 5–206	1990. 1~1994. 1(4년)
이 사	정진호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14 신동아아파트 7–1102	1990. 1~1994. 1(4년)
이 사	안재숙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5–11	1990. 1~1994. 1(4년)
이 사	윤오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7–3	1990. 1~1994. 1(4년)
이 사	윤대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1990. 1~1994. 1(4년)
이 사	유한홍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529–30	1990. 1~1992. 1(2년)
이 사	고재군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6–1 대림아파트 1–901	1990. 1~1992. 1(2년)
이 사	정창주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52–3 현대아파트 104–504	1990. 1~1992. 1(2년)
이 사	신동수	서울시 송파구 분정동 150 훼미리아파트 304–503	1990. 1~1992. 1(2년)
감 사	김재곤	서울시 관악구 봉천 11, 1628–22	1990. 1~1992. 1(2년)
감 사	배정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20 현대아파트 81–1108	1990. 1~1991. 1(1년)

부 칙

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1990年 3月 29日) 施行한다.

4) 재산목록

(1) 설립 당초의 기본재산 총괄표

① 기본재산 총괄표

(1990년 1월 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50,000,000원	
합 계		50,000,000원	

②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평 가 액	비 고
현 금					50,000,000원	대한투자신탁 수원지점에 예탁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① 기본재산 총괄표

(1990年 1月 日 設立)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50,000,000원	
합 계		50,000,000원	

②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평 가 액	비 고
현 금					50,000,000원	대한투자신탁 수원지점에 예탁

5) 향후 2개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 1990년도 사업계획서

(단위: 원)

구 분	사업 내용	수 입	지 출
수 익 사 업	기본재산 예치이자 수익 (50,000,000×12%)	6,000,000	
목 적 사 업	장학금 지급		4,800,000
운 영 비	회의비(15,000×11인×2회) 회계사 자문비 관리비 통신비 예비비		330,000 200,000 200,000 100,000 370,000
	소 계		1,200,000
계		6,000,000	6,000,000

(2) 1991년도 사업계획서

(단위: 원)

구 분	사업 내용	수 입	지 출
수 익 사 업	기본재산 예치이자 수익 (50,000,000×12%)	6,000,000	
목 적 사 업	장학금 지급		4,800,000
운 영 비	회의비(15,000×11인×2회) 회계사 자문비 관리비 통신비 예비비		330,000 200,000 200,000 100,000 370,000
	소 계		1,200,000
계		6,000,000	6,000,000

6)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의 설립과 재단 기금의 확대 조성 안내

(1)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의 설립을 알리면서

우리 농공동창회는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와 헌신적이 노력의 결정으로 마침내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이 1990년 3월 29일자로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동창회가 실립된 것은 1966년이었고 장학기금의 모금은 1970년대 전반기부터였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1억 2천만 원의 기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동창들의 후진을 위한 열성과 협조에 비롯된 것으로 동창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장학기금의 확대,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장학사업의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동창회의 주요과제라고 인식하여 여러 차례의 동창회 임원회 및 확대기별간사회를 거쳐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근래 급진전되는 산업화 사회에서 심화되어가는 이농현상 및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최소화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한으로 영농근대화가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농공인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첨단적인 생물공학적 기법과 첨단과학의 농업적 이용을 위해 유능한 농공인의 양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장학재단의 설립을 계기로 장학기금이 확대조성 되어서 재단의 설립목적이 충실히 이행됨으로써 우리 모교의 농공학과가 세계적인 수준의 학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창 여러분의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990. 7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동창회장
공학박사 이 철 주

(2) 재단 명칭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3) 재단 설립 취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는 1943년에 창설된 이래 약 2,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개선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학과로서 우리 모두가 자부하는 한국 농업공학의 산실입니다. 농공학과의 동문들은 1966년에 농공동창회를 결성하고 모교의 발전 및 농공학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원하여 왔으며, 장학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장학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동문들이 뜻을 받들어 이번에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농공학은 전통적인 학문적, 직업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생산기반의 유지와 확충, 농림축산자원의 조성과 개발, 농산물의 가공, 저장 및 유통, 영농의 기계화, 시설화 및 자동화, 농촌의 복지환경 개선 등에 부가하여 생명과학, 유전공학, 첨단과학 등의 농업적 이용을 통하여 기간산업인 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공학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지며 이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농공학 분야의 인재 양성과 새로운 학술의 계속적 연구개발은 우리 농공학과에 부가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설립된 본 농공장학재단은 우리 농공학과의 발전을 지원하는 모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4) 사업 내용

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②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의 교육시설 확충과 교수의 연구활동의 지원

③ 기타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

(5)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공학관 306호

우편번호: 441-744, 전화번호: 0331-290-2392

(6) 재단 기본재산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현금 5,000만 원

(7) 재단 임원

이사장: 이철주

이 사: 정진호, 윤대섭, 안재숙, 윤오섭, 유한홍, 고재군, 신동수, 정창주(상임)

감 사: 김재곤, 배정길

(8) 기금 확충의 필요성

농공학과가 우리나라 농업발전과 농업기술 개선을 위해 맡은바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부응하는 교육의 질적 향상, 연구 활동의 강화 등 대학기능의 확충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기의 농업공학은 전통적인 농업공학 기술의 계승과 발전은 물론, 새로운 과학 및 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에 대한 농업공학의 학문적, 직업적 영역의 확충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지금부터 교육 및 연구 분야의 꾸준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업공학이 농업과 공학의 중간적 위상을 갖는 특성 때문에 타 농학과 공학 분야에 비하여 교육 및 연구 분야의 투자상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바 이를 극복하면서 국제수준의 경쟁력 있는 학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공학과가 능동적으로 집행할 교육 및 연구기금의 확대 조성이 요청됩니다.

(9) 기금의 출연방법

본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데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 동문은 물론이려니와 뜻있는 모든 분과 기업체, 관계기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연의 형태는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장학재단의 은행 구좌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주: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구좌번호: 대한투자신탁 50-23-00066-5

입금 통보가 장학재단법인 사무소에 도착하는 대로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정의 영수증을 주소지로 우송할 것입니다.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을 출연하고자 하시는 경우,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기 재단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0) 기금 출연에 대한 세제 혜택

본 장학재단은 비영리장학재단(사업자번호: 124-82-32726)이므로 기금출연자 모두는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기금출연자에게 기금 출연 영수증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제반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① 개인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 소득을 기금으로 출연하신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66조의 3).

② 법인의 소득을 기금으로 출연하신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제18조).

③ 개인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을 기금으로 출연하신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49조).

④ 개인의 상속재산을 기금으로 출연하신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법 제8조의 2).

3. 장학생 명단과 지급액

농공동창회는 장학사업을 196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여기서는 편의상 두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첫째는 농공동창회가 직접 장학업무를 주관하여 시행한 기간(1968~1990)이고, 둘째는 농공동창회가 농공장학재단을 별도로 출범시켜 장학업무를 주관하도록 하여 시행한 기간(1991~2011년 현재)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1990년은 농공장학재단이 출범한 해로서 전체 장학생 12명 중에서 10명에게 농공동창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했고, 농공장학재단에서 2명에게 지급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 불분명하였다. 학기별로 장학금 수령자의 명단과 지급액은 부록 표 3-1과 3-2에 수록하였다.

부록 표 3-1 농공동창회의 장학생 명단과 지급액(1968~1990)

연 도	학 기	전 공	성 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 계(원)
1968	1	농공학	–	–	
	2	농공학(1명)	윤병호(4)	15,000	15,000
1969	1	농공학(2명)	이재영(4), 김철중(3)	30,000	30,000
	2	농공학(2명)	이재영(4), 김철중(3)	30,000	30,000
1970	1	농공학(2명)	김철중(4), 권희교(3)	40,000	40,000
	2	농공학(2명)	김철중(4), 권희교(3)	44,000	44,000
1971	1	농공학(2명)	오병환(3), 윤재호(3)	46,000	46,000
	2	농공학(2명)	유철근(4), 윤재호(3)	54,000	54,000
1972	1	농공학(2명)	윤재호(4), 김동환(3)	68,000	68,000
	2	농공학(2명)	윤재호(4), 김동환(3)	67,800	67,800

부록 표 3-1 농공동창회의 장학생 명단과 지급액(1968~1990) (계속)

연 도	학 기	전 공	성 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 계(원)
1973	1	농업토목(1명) 농업기계(1명)	이승우(4) 이정원(4)	35,700 35,700	71,400
	2	농업토목(1명) 농업기계(1명)	이승우(4) 이정원(4)	30,000 30,000	60,000
1974	1	농업토목(1명) 농업기계(1명)	전재화(4) 김경욱(4)	35,000 35,000	70,000
	2	농업토목(1명) 농업기계(1명)	전재화(4) 김경욱(4)	40,000 40,000	80,000
1975	1	농업토목(1명) 농업기계(1명)	고홍석(4) 이대연(4)	68,850 68,850	137,700
	2	농업토목(1명) 농업기계(1명)	고홍석(4) 이대연(4)	75,000 75,000	150,000
1976	1	농업토목(1명) 농업기계(2명)	박한기(4) 김상헌(4), 박경구(석1)	85,300 170,600	255,900
	2	농업토목(1명) 농업기계(2명)	박한기(4) 김상헌(4), 박경구(석1)	85,300 169,900	255,200
1977	1	농업토목(2명) 농업기계(2명)	권진봉(4), 박광수(4) 남상일(4), 이원남(4)	187,000 187,000	374,000
	2	농업토목(2명) 농업기계(2명)	권진봉(4), 박광수(4) 남상일(4), 이원남(4)	187,000 187,000	374,000
1978	1	농업토목(2명) 농업기계(2명)	윤치욱(4), 이종식(4) 김석진(4), 전찬영(4)	202,800 202,800	405,600
	2	농업토목(2명) 농업기계(2명)	윤치욱(4), 이종식(4) 김석진(4), 전찬영(4)	202,800 202,800	405,600
1979	1	농업토목(2명) 농업기계(2명)	안치일(4), 이봉영(4) 이종갑(4), 장광윤(4)	216,400 216,400	432,800
	2	농업토목(2명) 농업기계(2명)	안치일(4), 이봉영(4) 이종갑(4), 장광윤(4)	216,400 216,400	432,800
1980	1	농업토목(2명) 농업기계(2명)	김근원(4), 이용직(4) 문성채(4), 이중용(4)	265,500 265,500	531,000
	2	농업토목(2명) 농업기계(2명)	김근원(4), 이용직(4) 문성채(4), 이중용(4)	277,500 277,500	555,000

부록 표 3-1 농공동창회의 장학생 명단과 지급액(1968~1990) (계속)

연 도	학 기	전 공	성 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 계(원)
1981	1	농업토목(2명) 농업기계(2명)	박병태(4), 신태은(4) 강영선(4), 김용현(4)	373,800 373,800	747,600
	2	농업토목(2명) 농업기계(2명)	박병태(4), 신태은(4) 강영선(4), 김용현(4)	373,800 373,800	747,600
1982	1	농업토목(2명) 농업기계(2명)	박병흔(4), 이무종(4) 나용운(4), 한철수(4)	447,000 447,000	894,000
	2	농업토목(2명) 농업기계(2명)	박병흔(4), 이무종(4) 나용운(4), 한철수(4)	447,000 447,000	894,000
1983	1	농업토목(2명) 농업기계(2명)	이환우(4), 허선우(4) 김치환(4), 이영권(4)	469,000 469,000	938,000
	2	농업토목(2명) 농업기계(2명)	이환우(4), 허선우(4) 김치환(4), 이영권(4)	469,000 469,000	938,000
1984	1	농업토목(2명) 농업기계(2명)	김춘삼(4), 이병국(4) 유의경(4), 이환승(4)	450,000 450,000	900,000
	2	농업토목(2명) 농업기계(2명)	김춘삼(4), 이병국(4) 유의경(4), 이환승(4)	450,000 450,000	900,000
1985	1	농업토목(4명)	권기대(4), 김현준(4) 이상진(4), 이한구(4)	450,000 300,000	1,500,000
		농업기계(4명)	송석한(4), 이비용(4) 김기영(4), 박복응(4)	450,000 300,000	
	2	농업토목(3명)	권기대(4), 김현준(4) 김석철(4)	450,000 150,000	1,200,000
		농업기계(3명)	송석한(4), 이비용(4) 국인석(4)	450,000 150,000	

부록 표 3-1 농공동창회의 장학생 명단과 지급액(1968~1990) (계속)

연 도	학 기	전 공	성 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 계(원)
1986	1	농업토목(4명)	문병두(4), 박종민(4)	500,000	1,600,000
			이기은(4), 최장호(4)	300,000	
		농업기계(4명)	유한상(4), 정길호(4)	500,000	
			조상기(4), 차재윤(4)	300,000	
	2	농업토목(4명)	문병두(4), 박종민(4)	500,000	1,600,000
			이기은(4), 최장호(4)	300,000	
		농업기계(4명)	유한상(4), 정길호(4)	500,000	
			조상기(4), 차재윤(4)	300,000	
1987	1	농업토목(5명)	김종덕(4), 조정묵(4)	500,000	1,900,000
			성근열(4), 신경수(4), 한광훈(4)	450,000	
		농업기계(5명)	백주형(4), 정승영(4)	500,000	
			변창덕(4), 손영선(4), 임동수(4)	450,000	
	2	농업토목(5명)	김종덕(4), 신경수(4)	500,000	1,900,000
			이두철(4), 최은철(4), 한광훈(4)	450,000	
		농업기계(5명)	백주형(4), 정승영(4)	500,000	
			변창덕(4), 손영선(4), 오동환(4)	450,000	
1988	1	농업토목(3명)	윤성수(4), 이은재(4)	1,000,000	2,500,000
			우유진(4)	250,000	
		농업기계(3명)	권순환(4), 김기웅(4)	1,000,000	
			박권재(4)	250,000	
	2	농업토목(3명)	우유진(4), 이은재(4)	1,000,000	2,500,000
			윤성수(4)	250,000	
		농업기계(3명)	권순환(4), 김기웅(4)	1,000,000	
			박권재(4)	250,000	
1989	1	농업토목(3명)	김광수(4), 김민근(4), 송한용(4)	1,602,000	3,204,000
		농업기계(3명)	심규돈(4), 이승훈(4), 이종순(4)	1,602,000	
	2	농업토목(3명)	김광수(4), 김민근(4), 송한용(4)	1,602,000	3,204,000
		농업기계(3명)	심규돈(4), 이승훈(4), 진제용(4)	1,602,000	
1990	1	농업토목(3명)	김광오(4), 김윤용(4), 나정균(4)	1,638,000	3,276,000
		농업기계(3명)	김한태(4), 이기택(4), 이상주(4)	1,638,000	
	2	농업토목(3명)	김광오(4), 나정균(4), 박대현(4)	1,638,000	3,276,000
		농업기계(3명)	김한태(4), 민 곤(4), 이상주(4)	1,638,000	

부록 표 3-2 농공장학재단의 장학생 명단과 지급액(1991~2011)

연 도	학 기	전 공	성 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 계(원)
1991	1	농업토목(4명)	김동선(4), 손옥주(4), 정상호(4), 최병옥(4)	2,402,000	4,804,000
		농업기계(4명)	고국원(4), 정용철(4), 최원익(4), 우상하(석1)	2,402,000	
	2	농업토목(4명)	김동선(4), 손옥주(4), 정상호(4), 최병옥(4)	2,402,000	4,804,000
		농업기계(4명)	고국원(4), 정용철(4), 최원익(4), 우상하(석1)	2,402,000	
1992	1	농업토목(5명)	신상호(4), 신형주(4), 하좌근(4), 윤성수(석2), 이도섭(석2)	3,247,500	6,495,000
		농업기계(5명)	김국환(4), 연홍석(4), 이광제(4), 조병관(4), 우상하(석2)	3,247,500	
	2	농업토목(5명)	신상호(4), 신형주(4), 임효선(4), 하좌근(4), 윤성수(석2)	3,247,500	6,495,000
		농업기계(5명)	김국환(4), 유동호(4), 이광제(4), 조병관(4), 우상하(석2)	3,247,500	
1993	1	농업토목(5명)	강민구(4), 이강민(4), 정형석(4), 우철웅(석2), 최병옥(석2)	3,655,000	7,310,000
		농업기계(5명)	김대호(4), 신상규(4), 류일훈(3), 임도형(2), 김채주(석2)	3,655,000	
	2	농업토목(5명)	강민구(4), 이강민(4), 정형석(4), 우철웅(석2), 최병옥(석2)	3,817,000	7,599,000
		농업기계(5명)	김대호(4), 신상규(4), 류일훈(3), 정영주(3), 김채주(석2)	3,782,000	
1994	1	농업토목(5명)	김강석(4), 박수훈(4), 배연정(4), 유기섭(4), 고광돈(석1)	4,410,500	8,857,000
		농업기계(5명)	김민수(4), 류일훈(4), 이동렬(4), 전성필(2), 김대호(석1)	4,446,500	
	2	농업토목(5명)	박수훈(4), 배연정(4), 유기섭(4), 정종홍(4), 고광돈(석1)	4,303,500	8,643,000
		농업기계(5명)	김민수(4), 류일훈(4), 이동렬(4), 신유성(2), 김대호(석1)	4,339,500	
1995	1	농업토목(5명)	박우식(4), 배승종(4), 장주흠(4), 최승만(4), 고광돈(석2)	5,006,500	10,013,000
		농업기계(5명)	이재훈(4), 신유성(3), 이성욱(3), 박주헌(2), 김대호(석2)	5,006,500	
	2	농업토목(5명)	박우식(4), 배승종(4), 장주흠(4), 최승만(4), 고광돈(석2)	5,006,500	10,013,000
		농업기계(5명)	이재훈(4), 신동준(3), 이성욱(3), 박주헌(2), 김대호(석2)	5,006,500	

부록 표 3-2 농공장학재단의 장학생 명단과 지급액(1991~2011) (계속)

연 도	학 기	전 공	성 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 계(원)
1996	1	농업토목(5명)	김성일(4), 김성필(4), 라준엽(4), 이대희(4), 엄명철(박1)	5,952,000	11,753,000
		농업기계(5명)	박정인(4), 신유성(4), 이성욱(4), 최창호(4), 김우기(석1)	5,801,000	
	2	농업토목(5명)	김성일(4), 김성필(4), 라준엽(4), 이대희(4), 엄명철(박1)	5,952,000	11,786,000
		농업기계(5명)	박정인(4), 신유성(4), 이성욱(4), 최창호(4), 김종순(석2)	5,834,000	
1997	1	농업토목(5명)	김준희(4), 박승찬(4), 서 교(4), 서동욱(4), 강문성(박1)	6,483,000	12,862,000
		농업기계(5명)	김종언(4), 임정호(4), 김경출(3), 현충호(3), 최현준(석2)	6,379,000	
	2	농업토목(5명)	김대일(4), 서 교(4), 서동욱(4), 이강민(4), 강문성(박1)	6,360,000	12,776,000
		농업기계(5명)	김종언(4), 임정호(4), 김경출(3), 현충호(3), 정병학(석1)	6,416,000	
1998	1	농업토목(5명)	김성태(4), 김형진(4), 전종안(4), 편기현(4), 이호재(박1)	6,483,000	12,834,000
		농업기계(5명)	남기찬(4), 박영준(4), 정철호(4), 이기재(3), 이정엽(석1)	6,351,000	
	2	농업토목(6명)	김성태(4), 김형진(4), 전종안(4), 조 운(4), 원정윤(박1), 권명준(석1)	8,270,000	16,555,000
		농업기계(6명)	박영준(4), 현충호(4), 구승범(3), 이호석(3), 이종수(석2), 이주완(석1)	8,285,000	
1999	1	농업토목(5명)	김기성(4), 이경도(4), 이동호(4), 최용준(4), 김성필(박1)	6,925,000	13,850,000
		농업기계(5명)	공대광(4), 김정욱(4), 윤승환(4), 최선종(4), 안은수(석1)	6,925,000	
	2	농업토목(5명)	김기성(4), 이경도(4), 이호상(4), 최용준(4), 송인홍(석1)	7,073,000	14,208,000
		농업기계(5명)	구승범(4), 제영호(4), 이광희(3), 조훈구(3), 안은수(석1)	7,135,000	
2000	1	농업토목(5명)	김은수(4), 김재형(4), 조호석(4), 강민구(박1), 장민원(박1)	8,969,000	20,086,000
		농업기계(6명)	박종혁(4), 조정효(4), 정왕조(3), 채희연(박1), 황진성(석2), 최상현(석1)	11,117,000	
	2	농업토목(6명)	김재형(4), 임재천(4), 황선일(4), 강민구(박1), 장민원(박1), 송인홍(석2)	10,835,000	19,503,000
		농업기계(5명)	김상범(4), 조훈구(4), 이대웅(3), 김유용(박1), 백승규(석2)	8,668,000	

부록 표 3-2 농공장학재단의 장학생 명단과 지급액(1991~2011) (계속)

연 도	학 기	전 공	성 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 계(원)
2001	1	농업토목(5명)	정형택(4), 최은호(4), 김락중(3), 조영현(석1), 허 준(석1)	9,564,500	21,145,500
		농업기계(6명)	가상현(4), 권상욱(4), 임수인(3), 김유용(박1), 모창연(석2), 박영준(석2)	11,581,000	
	2	농업토목(6명)	김만수(4), 전기설(4), 이민권(3), 배승종(박1), 김재형(석1), 조영현(석1)	11,572,000	20,740,500
		농업기계(5명)	박기준(4), 박종혁(4), 전홍규(3), 안용구(석2), 김은수(석1)	9,168,500	
2002	1	농업토목(4명)	강동성(4), 김만수(4), 정명재(4), 서 교(박1)	7,499,000	17,122,000
		농업기계(5명)	이덕호(4), 진우성(4), 최상명(3), 장금송(박2), 이호상(석2)	9,623,000	
	2	농업토목(5명)	장태일(4), 한이철(4), 황세운(3), 박미정(박1), 심상원(석1)	10,035,000	17,481,000
		농업기계(4명)	김민정(4), 박백순(3), 이왕희(3), 서 민(석1),	7,446,000	
2003	1	농업토목(3명)	황세운(4), 박성직(3), 장태일(석1)	6,500,000	14,629,000
		농업기계(4명)	이왕희(4), 최준호(4), 백영기(3), 이희영(박1)	8,129,000	
	2	농업토목(4명)	황세운(4), 권성길(3), 이은정(3), 한이철(석1)	8,466,000	14,966,000
		농업기계(3명)	정훈의(4), 이상훈(3), 황성규(석1)	6,500,000	
2004	1	농업토목(3명)	김태곤(4), 신정범(3), 김웅구(석1)	7,322,000	14,361,000
		농업기계(3명)	이상훈(4), 한 성(4), 황성규(석2)	7,039,000	
	2	농업토목(3명)	김태곤(4), 신정범(3), 조영경(석1)	7,322,000	14,449,000
		농업기계(3명)	윤순호(4), 이민욱(3), 황성규(석2)	7,127,000	
2005	1	농업토목(3명)	신정범(4), 황종섭(3), 김옥경(석1)	7,907,500	15,769,000
		농업기계(3명)	양재일(4), 이동욱(4), 심성보(석1)	7,861,500	
	2	농업토목(3명)	황종섭(3), 신정범(석1), 오윤경(석1)	8,659,000	17,318,000
		농업기계(3명)	송황재(3), 이기욱(석1), 이상훈(석1)	8,659,000	
2006	1	농업토목(3명)	박종욱(4), 서일환(석1), 이창구(석1)	9,151,000	18,302,000
		농업기계(3명)	송황재(3), 주창규(석1), 황기영(석1)	9,151,000	
	2	농업토목(3명)	송익균(3), 이은정(석2), 함영주(석2)	8,721,000	17,753,000
		농업기계(3명)	심민진(3), 박세홍(석1), 이성대(석1)	9,032,000	

부록 표 3-2 농공장학재단의 장학생 명단과 지급액(1991~2011) (계속)

연 도	학 기	전 공	성 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 계(원)
2007	1	농업토목(3명)	김중곤(3), 노수각(박1), 정한석(석1)	10,137,000	20,274,000
		농업기계(3명)	김준용(4), 심민진(석1), 임애리(석1)	10,137,000	
	2	농업토목(3명)	김중곤(3), 이상현(석1), 홍은미(석1)	10,137,000	20,110,000
		농업기계(3명)	김효진(4), 김수철(석1), 임애리(석1)	9,973,000	
2008	1	농업토목(3명)	황순호(3), 이창구(박1), 유재인(석1)	10,949,000	21,830,000
		농업기계(3명)	천세환(4), 조현호(석1), 최진웅(석1)	10,881,000	
	2	농업토목(8명)	황순호(3), 남원호(박1), 이제명(박1), 이성용(석2), 홍은미(석2), 김용희(석1), 유재인(석1), 윤득노(석1)	30,024,000	59,811,000
		농업기계(8명)	박진혁(4), 남주석(석2), 임애리(석2), 박수현(석1), 서현권(석1), 손현목(석1), 오주선(석1), 최진웅(석1)	29,787,000	
2009	1	농업토목(10명)	황순호(4), 김현정(석2), 유재인(석2), 이상현(석2), 이성용(석2), 한용운(석2), 홍은미(석2), 권경석(석1), 김용희(석1), 정기웅(석1)	37,807,000	76,121,000
		농업기계(10명)	강병곤(4), 박수현(석2), 손현목(석2), 오주선(석2), 최진웅(석2), 백수정(석1), 서현권(석1), 이재정(석1), 이진웅(석1), 이춘구(석1)	38,314,000	
	2	농업토목(10명)	황순호(4), 남원호(박2), 이은정(박2), 이형진(박2), 홍은미(박1), 권경석(석2), 김용희(석2), 윤득노(석2), 박정안(석1), 최지선(석1)	37,976,000	76,628,000
		농업기계(10명)	현은제(4), 박수현(석2), 최진웅(석2), 김소희(석1), 김준용(석1), 백수정(석1), 서현권(석1), 심동국(석1), 이재정(석1), 이진웅(석1)	38,652,000	
2010	1	농업토목(12명)	정다운(4), 이영연(3), 홍민기(3), 이형진(박2), 이성용(박1), 홍은미(박1), 박정안(석2), 윤득노(석2), 송상현(석1), 은상규(석1), 이태석(석1), 최지선(석1)	43,720,000	88,575,000
		농업기계(12명)	권혁정(4), 김협(4), 홍성표(4), 박수현(박1), 백수정(석2), 이진웅(석2), 조현호(석2), 김소희(석1), 김준용(석1), 박성민(석1), 심동국(석1), 최종우(석1)	44,855,000	
	2	농업토목(12명)	이현우(4), 이영연(3), 정찬민(3), 최지선(석2), 김재현(석1), 송상현(석1), 은상규(석1), 이성복(석1), 이태석(석1), 이한귀(석1), 최순군(석1), 하태환(석1)	44,701,000	89,325,000
		농업기계(12명)	김현재(3), 조윤수(3), 김송현(2), 박수현(박1), 김소희(석2), 김준용(석2), 백수정(석2), 신창섭(석2), 김동현(석1), 박성민(석1), 장정욱(석1), 최종우(석1)	44,624,000	

부록 표 3-2 농공장학재단의 장학생 명단과 지급액(1991~2011) (계속)

연 도	학 기	전 공	성 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 계(원)
2011	1	농업토목(15명)	김계웅(3), 이상현(박2), 송상현(석2), 은상규(석2), 이성복(석2), 이태석(석2), 최순군(석2), 강진규(석1), 김광민(석1), 김지혜(석1), 박지훈(석1), 송정헌(석1), 이인(석1), 이한귀(석1), 하태환(석1)	58,247,000	111,470,000
		농업기계(15명)	조윤수(4), 손대식(3), 이윤주(3), 남주석(박2), 선우훈(박1), 신창섭(박1), 이춘구(박1), 김준용(석2), 박성민(석2), 심동국(석2), 양민호(석2), 최종우(석2), 김동현(석1), 장정욱(석1), 최규정(석1)	53,223,000	
	2	농업토목(15명)	김계웅(3), 이성용(박2), 송상현(석2), 은상규(석2), 이성복(석2), 이태석(석2), 이한귀(석2), 하태환(석2), 황순호(석2),강진규(석1), 김지혜(석1), 박나영(석1), 박지훈(석1), 송정헌(석1), 이인(석1)	57,233,000	112,819,000
		농업기계(15명)	김송현(3), 이준민(3), 남주석(박2), 선우훈(박2), 신창섭(박1), 이진웅(박1), 이춘구(박1), 김동현(석2), 박성민(석2), 양민호(석2), 장정욱(석2), 최종우(석2), 김원경(석1), 정수(석1), 최규정(석1)	55,586,000	

4. 농공동창회 및 농공장학재단의 장학기금 모금 상황

농공동창회에서는 1967년도부터 장학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하였는바 초기에는 졸업생들이 많이 모인 기관을 중심으로 모금을 시작하였다. 또 전체 졸업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모금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졸업생들이 많은 각 기관과 기업에서 활동하는 중간 간부급 이상에 속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모금했었다. 비록 현재로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적지 않는 금액이었으며, 많은 동창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참여하였기에 이를 기록에 남기고자 하였다.

기간으로 보면 1967~1990년까지의 연도별로 모금된 내역을 부록 표 4-1~부록 표 4-19에서 볼 수 있는다. 이 중에서 1988년까지는 금전출납부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농공동창회 총회 시의 찬조금은 포함하지 않았다. 1989년과 1990년의 자료는 별도로 보고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부록 표 4-20에서는 농공장학재단이 운영되는 기간 중에서 1999년도에 특별히 모금한 내역이 수록되었다. 한편 부록 표 4-21은 1979년부터 1989년까지 특별히 거액을 기부하신 개인과 단체를 연도별로 정리하였고, 부록 표 4-22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농공장학재단으로 출연한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 · 수록하였다.

부록 표 4-1 제1, 2차 장학기금 모금(1967. 2~1971. 1)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모교 교수	조 광 희	5,000		윤 선 병	3,000		조 철 상	1,500
	박 성 우	3,000		윤 오 섭	3,000		한 찬 택	1,000
	최 재 갑	3,000		주 재 홍	1,000		한 춘 연	1,500
고농 6	이 창 구	5,000	1949	김 락 중	2,000	1953	강 예 묵	2,000
고농 9	이 수 걸	2,000		김 성 래	3,000		김 남 혁	1,500
고농 10	남 영 희	10,000		김 시 원	3,000		김 윤 태	1,500
고농 18	박 기 승	10,000		박 문 규	2,000		박 경 하	1,500
1943(고농)	민 병 섭	3,000		백 은 기	3,000		신 영 우	1,500
	한 욱 동	3,000		서 정 찬	2,000		안 우 손	2,000
1944(전)	김 원 숙	2,000		윤 대 섭	5,000		엄 태 영	2,000
	임 영 춘	5,000		이 성 태	2,000		여 승 현	1,500
	김 학 영	3,000		이 철 주	3,000		이 계 안	1,000
	박 노 옥	1,500		이 회 만	2,000		이 달 형	2,000
	이 한 영	3,000		최 현 국	2,000		이 상 구	1,000
	조 용 칠	5,000		황 은	3,000		이 종 모	1,500
1946(전)	김 환 종	5,000	1950	김 병 혁	1,000		이 재 기	2,000
	노 태 래	2,000		신 유 범	2,000		정 구 현	1,500
	라 도 석	2,000		신 준 우	1,000		정 창 주	3,000
	이 기 춘	3,000		오 완 수	2,000	1954	곽 종 희	3,000
	이 상 용	3,000		이 규 형	1,500		김 남 식	1,000
	이 종 호	5,000		이 희 영	3,000		김 덕 만	1,500
	임 은 진	3,000		조 철 우	1,000		이 상 춘	1,000
	전 기 순	1,500		차 균 도	3,000		김 진 묵	1,500
	정 진 호	3,000		황 희 담	1,000		박 양 진	1,500
	최 귀 열	3,000	1951	고 재 군	3,000		신 언 곤	1,500
1946	여 운 철	3,000		김 영 규	1,500		신 현 주	1,500
	함 준 호	5,000		김 재 곤	2,000		엄 병 현	2,000
1947	손 규 복	3,000		이 필 수	2,000		이 영 렬	1,500
1948	김 철 기	3,000		최 상 균	2,000		장 재 중	2,000
	박 자 현	1,000	1952	박 빈 수	2,000		정 우 창	1,500
	송 영 수	3,000		방 경 수	5,000		조 영 기	1,500
	안 재 숙	2,000		이 상 호	3,000		최 규 홍	1,000
	유 한 열	3,000		이 창 호	2,000		최 한 식	1,000

부록 표 4-1 제1, 2차 장학기금 모금(1967. 2~1971. 1) (계속)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1955	강 인 평	1,500		문 장 호	1,500		민 병 선	1,000
	김 두 식	1,500		박 수 용	1,000		박 동 현	1,000
	김 영 철	1,000		박 준 기	1,500		박 재 룡	1,000
	김 종 성	1,500		손 낙 률	1,500		송 석 은	1,000
	김 지 환	1,500		신 광 식	2,000		신 일 선	1,500
	노 승 봉	1,500		이 계 홍	1,000		신 희 복	1,000
	노 진 표	3,000		이 근 복	1,000		유 범 식	1,000
	박 승 룡	1,500		이 상 명	1,200		유 석 형	1,000
	박 윤 근	5,000		최 찬 식	2,000		안 재 완	1,000
	박 준 용	1,500		황 경 구	1,500		오 세 훈	1,000
	박 창 용	1,000		황 용 진	1,000		이 강 섭	2,000
	박 하 선	1,000	1957	김 종 무	1,000		이 광 식	1,000
	복 진 하	1,500		도 재 휴	1,000		이 수 장	1,000
	서 승 덕	1,500		박 완 순	1,000		정 종 수	1,000
	신 동 수	1,500		윤 우 성	1,500		조 범 호	1,500
	안 병 성	1,500		이 병 열	1,000		지 근 진	1,500
	오 무 영	1,500		장 문 한	1,000		한 상 용	1,000
	오 세 인	1,500		장 세 영	1,000	1959	강 인 상	1,000
	유 근 학	1,500		정 동 성	1,000		강 득 천	1,000
	윤 충 섭	1,500		정 두 호	1,000		김 광 석	1,000
	이 계 은	1,500		정 봉 수	1,000		김 영 창	1,000
	이 만 춘	1,500		조 수 형	1,000		김 재 진	1,000
	이 상 규	1,000		차 봉 기	1,000		김 종 혁	1,000
	이 중 기	1,500		한 중 희	1,000		김 종 호	1,000
	임 경 배	1,500		한 휘 석	1,000		김 진 광	1,000
	정 진 옥	1,500		홍 민 선	1,000		김 진 혁	1,000
	차 준 형	1,500		홍 승 만	1,000		김 철 회	1,000
	한 상 욱	1,500		홍 종 진	1,000		류 기 송	1,000
1956	권 오 완	1,000	1958	고 학 균	1,500		박 중 걸	1,000
	김 기 성	1,000		김 남 훈	1,000		변 양 석	1,000
	김 영 수	1,500		김 문 기	1,200		송 현 갑	1,000
	김 주 창	1,500		김 정 환	1,000		이 방 기	1,000
	노 재 흥	1,000		김 홍 윤	1,000		이 병 철	1,000

부록 표 4-1 제1, 2차 장학기금 모금(1967. 2~1971. 1) (계속)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이 석 우	1,000		이 승 하	2,000	1963	김 교 복	1,000
	이 순 혁	1,000		이 용 국	1,000		류 관 희	1,000
	이 황 의	1,000		이 인 형	1,000		류 성 곤	1,000
	전 진 환	500		이 찬 우	2,000		심 재 구	1,000
	정 하 우	1,000		전 용 운	1,000		윤 학 기	1,000
	주 경 노	1,000		조 서 일	1,000		이 광 규	1,000
	최 예 환	1,000		한 승 수	1,000		이 기 대	1,000
	최 을 표	2,000	1961	김 병 규	1,000		이 상 익	1,000
	한 중 석	1,000		김 윤 배	1,000		이 상 인	1,000
1960	김 영 배	1,000		김 종 성	1,000		임 병 호	1,000
	박 영 헌	1,000		우 철 식	1,000	1964	박 정 도	2,000
	박 원 규	1,000		최 영 호	1,000	합 계	243 명	421,900
	서 대 하	1,000		황 정 일	1,000			
	이 건 일	2,000	1962	신 건 성	1,000			
	이 동 엽	1,000		이 광 호	1,000			
	이 상 만	1,000		이 덕 주	1,000			
	이 성 묵	1,000		장 길 평	2,000			

화폐가치:
1,000원(1967년) = 27,900원(2011년)
1,000원(1970년) = 19,300원(2011년)

부록 표 4-2 제3차 장학기금 모금(1972. 2~1973. 1. 22)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모교 교수	박 성 우	5,000	1946	여 운 철	5,000		이 철 주	3,000
	박 영 관	5,000		함 준 호	5,000		최 현 국	5,000
	변 보 엽	10,000	1947	손 규 복	3,000		황 은	5,000
	최 재 갑	5,000	1948	김 철 기	5,000	1950	신 준 우	2,000
고농 6	이 창 구	10,000		송 영 수	5,000		오 완 수	5,000
1943(고농)	한 욱 동	5,000		안 재 숙	3,000		이 규 형	2,000
1945(전)	김 정 학	3,000		유 한 열	5,000		이 희 영	5,000
	조 용 칠	5,000		윤 선 병	5,000	1951	고 재 군	5,000
1946(전)	이 기 춘	5,000		윤 오 섭	5,000		김 경 수	2,000
	전 기 순	3,000	1949	김 성 래	5,000		김 영 규	2,000
	정 진 호	5,000		윤 대 섭	10,000		김 재 곤	3,000

부록 표 4-2 제3차 장학기금 모금(1972. 2~1973. 1. 22) (계속)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1952	이 상 호	3,000		윤 충 섭	2,000		민 병 선	1,000
	이 창 호	2,000		임 경 배	2,000		박 재 룡	2,000
	한 춘 연	2,000		한 상 욱	2,000		신 일 선	2,000
1953	김 윤 태	2,000	1956	권 오 완	2,000		신 희 복	1,000
	안 우 손	2,000		김 영 수	2,000		유 범 식	1,000
	엄 태 영	3,000		김 원 수	3,000		안 연 우	1,000
	여 승 현	3,000		김 주 창	2,000		오 세 훈	2,000
	이 종 모	2,000		문 장 호	2,000		이 광 식	1,000
	정 창 주	5,000		박 준 기	3,000		이 수 장	1,000
1954	김 덕 만	2,000		신 광 식	3,000		정 종 수	1,000
	이 상 춘	1,000		신 재 인	2,000		조 범 호	2,000
	김 진 묵	2,000		이 근 복	5,000		한 상 용	1,000
	박 양 진	2,000		최 찬 식	3,000	1959	강 인 상	1,000
	신 언 곤	2,000		황 경 구	2,000		김 광 석	1,000
	신 현 주	2,000	1957	박 완 순	1,000		김 재 진	1,000
	엄 병 현	2,000		박 홍 무	2,000		김 종 혁	2,000
	장 재 중	3,000		윤 우 성	1,000		김 진 광	1,000
	조 영 기	2,000		이 덕 우	3,000		김 철 회	3,000
	최 규 홍	5,000		이 성 직	2,000		류 기 송	1,000
	최 한 식	1,000		이 재 호	2,000		박 중 걸	1,000
1955	강 인 평	5,000		이 해 명	2,000		변 양 석	2,000
	김 두 식	2,000		장 문 한	1,000		유 시 창	2,000
	김 영 기	2,000		장 세 영	1,000		이 방 기	1,000
	노 승 봉	2,000		정 두 호	2,000		이 석 우	1,000
	박 윤 근	10,000		조 수 형	1,000		이 순 혁	1,000
	박 준 용	2,000		차 봉 기	1,000		이 황 의	1,000
	박 하 선	1,000		한 중 희	1,000		정 하 우	3,000
	복 진 하	2,000		한 휘 석	1,000		한 중 석	1,000
	서 승 덕	3,000		홍 승 만	2,000	1960	강 관 수	2,000
	신 동 수	2,000		홍 종 진	1,000		박 노 석	2,000
	오 세 인	3,000	1958	고 학 균	3,000		박 영 헌	1,000
	유 근 학	2,000		김 정 환	3,000		박 원 규	2,000

부록 표 4-2 제3차 장학기금 모금(1972. 2~1973. 1. 22) (계속)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이 인 형	1,000		김 량	2,000		이 왕 우	2,000
	한 승 수	1,000		김 택 구	2,000		이 종 태	2,000
1961	권 무 남	3,000		류 성 곤	1,000		장 정 수	2,000
	백 남 웅	2,000		목 세 균	2,000	1966	구 진 철	2,000
	신 용 호	2,000		박 원 옥	1,000		노 상 하	2,000
	우 철 식	1,000		심 재 구	1,000		이 석 건	2,000
	조 진 구	3,000		이 기 대	1,000		이 재 영	1,000
	조 병 진	1,000		이 기 명	2,000	1967	금 동 혁	2,000
	홍 판 기	2,000		이 상 익	1,000		이 종 택	2,000
	황 선 태	2,000		이 상 인	1,000		정 영 근	2,000
1962	김 수 태	2,000		이 승 규	2,000		한 상 남	2,000
	남 광 헌	2,000		임 병 호	1,000	1968	노 경 찬	2,000
	맹 춘 하	2,000	1964	구 자 욱	2,000		윤 수 철	2,000
	박 준 근	2,000		권 상 필	2,000		이 동 현	2,000
	이 규 복	2,000		김 무 열	2,000		장 동 일	2,000
	이 덕 주	1,000		김 인 섭	4,000	합 계	182 명	447,000
	이 종 호	2,000		김 일 수	2,000	화폐가치: 1,000원(1972년) = 15,240원(2011년)		
1963	구 요 한	2,000		김 철 중	2,000			
	김 교 복	1,000		문 성 홍	2,000			

부록 표 4-3 연간 기금 모금(1973. 1. 27~1973. 10. 8)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고농 10	남 영 희	10,000		주 재 홍	3,000		이 계 진	3,000
1944(전)	임 영 춘	10,000	1949	이 회 만	3,000		이 계 홍	1,000
1945(전)	김 학 영	3,000	1951	이 필 수	10,000		황 용 진	2,000
1946(전)	노 태 래	3,000	1953	이 계 안	5,000	1957	정 봉 수	1,000
	라 도 석	5,000		이 달 형	5,000		최 종 용	2,000
	정 진 호	10,000	1954	이 영 렬	3,000	1958	김 홍 윤	1,000
	최 귀 열	5,000	1955	김 종 성	2,000		송 석 은	1,000
1948	고 무 영	10,000		박 윤 근	15,000	1959	강 득 천	1,000
	박 용 하	5,000	1956	손 낙 률	3,000		변 창 선	2,000

부록 표 4–3 연간 기금 모금(1973. 1. 27~1973. 10. 8) (계속)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최 예 환	2,000	1963	류 관 희	1,000		최 영 해	2,000
1960	윤 영 일	2,000		허 유 만	2,000	1969	김 영 일	3,000
	이 동 엽	1,000	1964	이 왕 우	1,000		김 주 연	3,000
	이 성 묵	1,000	1965	김 경 덕	2,000		김 현 영	3,000
	전 용 운	2,000		김 돈	3,000		오 병 환	3,000
1961	박 정 수	2,000		류 혁 근	2,000		윤 재 호	3,000
	정 지 윤	2,000		윤 경 섭	3,000		윤 희 원	3,000
	최 광 웅	2,000		정 해 원	3,000	합계	54명	183,000
1962	김 재 인	2,000	1966	최 현 섭	3,000			
	신 건 성	1,000	1967	서 상 룡	2,000			

부록 표 4–4–1 연간 기금 모금(1973. 10. 9~1974. 10. 2)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1945(전)	김 학 영	5,000		박 창 룡	1,000		박 상 현	3,000
1948	안 재 숙	2,000		이 중 기	2,000		이 천 희	3,000
1949	유 한 홍	10,000	1957	이 병 렬	1,000		임 종 성	3,000
1951	최 상 균	2,000	1960	이 근 후	3,000		최 우 현	3,000
1953	강 예 묵	5,000	1963	정 일 웅	3,000	1968	정 백	3,000
	이 재 기	5,000	1965	남 용 희	3,000	1970	문 계 송	3,000
1955	김 영 기	2,000	1966	안 건 영	3,000	합 계	22 명	69,000
	김 영 철	1,000	1967	김 동 환	3,000			

부록 표 4–4–2 별지자료의 연간 기금 모금(1973. 10. 9~1974. 10. 2)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1945(전)	박노옥	6,500		유석인	6,000	1951	김경수	3,000
	홍순억	10,000		최원식	6,000		김성배	5,000
1946(전)	김명환	6,000	1949	김시원	5,000	1952	방경수	5,000
	이상용	5,000		박문규	3,000		심은보	10,000
	장규식	6,000		이성태	3,000		최남규	6,000
1948	박용화	10,000	1950	차균도	3,000	1953	김남혁	5,000

부록 표 4–4–2 별지자료의 연간 기금 모금(1973. 10. 9~1974. 10. 2) (계속)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김형철	5,000	1955	오무영	1,000		이재영	1,000
	이재기	5,000	1957	이해명	10,000		정병호	3,000
	이종모	5,000	1958	김문기	2,300	1966	김태철	3,000
	최천락	4,000	1959	강인상	3,000	1967	송태명	3,000
1954	민대홍	4,000		김영창	2,000		이상호	3,000
	백종철	3,000		송현갑	1,000	1969	이영일	3,000
	장붕래	4,000	1961	조병진	2,000		입회비	36,000
	정락환	4,000	1963	김대년	3,000	합 계	55명	227,800
	정우창	5,000	1965	방효석	3,000			
	최규홍	3,000		이승찬	3,000			

부록 표 4–5–1 제4차 모금 현황(1974. 10. 9~1976. 9. 15)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모교 교수	박성우	50,000		안재숙	50,000		엄태영	30,000
	박영관	30,000		윤선병	50,000		이재기	50,000
	최재갑	30,000		윤오섭	50,000		이종모	20,000
고농 6	이창구	20,000	1949	김시원	50,000		정구현	15,000
고농 10	남영희	50,000		백은기	10,000		정창주	50,000
1944(전)	임영춘	200,000		이성태	10,000	1954	김진묵	20,000
1945(전)	김학영	50,000		최현국	15,000		박양진	20,000
	조용칠	50,000	1950	오완수	15,000		신언곤	20,000
	한성금	20,000		이희영	50,000		신현주	13,000
1946(전)	노태래	15,000	1951	고재군	50,000		최한식	20,000
	이기춘	30,000		김영규	20,000	1955	강인평	30,000
	전기순	15,000		김재곤	30,000		김두식	15,000
	정진호	50,000		최상균	30,000		김영기	20,000
1946	여운철	50,000	1952	이상호	30,000		김영철	20,000
	함준호	20,000		이창호	22,000		김종성	15,000
1947	손규복	50,000		한춘연	20,000		박승룡	20,000
1948	송영수	20,000	1953	김윤태	50,000		박준용	5,000
	유한열	30,000		안우손	20,000		박창용	20,000

부록 표 4–5–1 제4차 모금 현황(1974. 10. 9~1976. 9. 15) (계속)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복진하	20,000		황경구	30,000		김진광	20,000
	서승덕	20,000	1957	장세영	5,000		김철회	30,000
	신동수	30,000		한중희	20,000		류기송	20,000
	오세인	10,000		한휘석	5,000		박중걸	20,000
	유근학	15,000		홍승만	20,000		변양석	20,000
	윤충섭	20,000		홍종진	20,000		송현갑	10,000
	이계은	30,000	1958	고학균	50,000		유시창	20,000
	이중기	20,000		김문기	20,000		이석우	20,000
	임경배	20,000		민병선	20,000		이순혁	10,000
	정진옥	30,000		박재룡	20,000		이황의	20,000
	한상욱	30,000		신일선	20,000		정하우	50,000
1956	권오완	20,000		오세훈	20,000		한중석	20,000
	김영수	20,000		이광식	2,000	1960	이근후	20,000
	김주창	20,000		정종수	20,000	1961	권무남	5,000
	문장호	20,000		조범호	20,000		조진구	20,000
	박준기	30,000		지근진	30,000	1963	심재구	10,000
	손낙률	3,000		한상룡	20,000		이승규	20,000
	신광식	30,000	1959	김광석	20,000	합계	109 명	2,910,000
	최찬식	50,000		김종혁	20,000			

부록 표 4–5–2 연간 기금 모금(1974. 10. 9~1976. 9. 15)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1957	이 해 명	2,000	1968	고 홍 석	3,000	1969	안 병 찬	3,000
	차 봉 기	2,000		권 희 교	3,000		이 대 연	3,000
1960	박 영 헌	2,000		김 기 석	3,000		윤 상 진	3,000
1963	김 대 년	2,000		김 형 경	3,000		정 도 웅	3,000
1964	장 정 수	2,000		이 종 일	3,000	1970(기)	장 세 권	3,000
1965	김 경 덕	2,000		전 재 화	3,000	1971(토)	윤 병 순	3,000
	이 승 찬	2,000		정 상 옥	3,000	1972(토)	김 상 필	3,000
	윤 경 섭	2,000		한 명 규	3,000		김 영 민	3,000
	정 병 호	3,000		황 영 섭	3,000		나 정 우	2,000

부록 표 4-5-2 연간 기금 모금(1974. 10. 9~1976. 9. 15) (계속)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오 준 석	3,000		신 홍 균	3,000	영산강 사업소 16명		16,000
	이 태 형	3,000		양 승 한	3,000			
	전 경 구	3,000		오 용 주	3,000	최찬식 외 3명		80,000
1972(기)	손 광 인	3,000		이 태 호	3,000	합 계	55 명	192,000

부록 표 4-6 연간 기금 모금(1976. 9. 16~1977. 9. 29)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1943(고농)	한 욱 동	20,000	1954	최 규 홍	10,000	1970	구 영 길	3,000
1948	김 철 기	20,000	1955	김 종 성	10,000		김 중 식	3,000
1949	백 은 기	20,000		오 무 영	20,000		박 찬 수	3,000
	최 현 국	10,000		유 근 학	10,000	1972	나 정 우	3,000
	황 은	20,000	1959	송 현 갑	10,000		조 태 영	3,000
1950	오 완 수	10,000	1969	정 한 희	3,000	합 계	17 명	178,000

부록 표 4-7 연간 기금 모금(1977. 10. 7~1978. 9. 13)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1943(고농)	한욱동	10,000	1970(토)	남호우	5,000		권진봉	5,000
1948	김철기	30,000		민동식	3,000		김규식	5,000
1949	최현국	5,000		박창규	3,000		김풍진	5,000
	황 은	10,000		박한기	3,000		김현중	5,000
1950	오완수	25,000		윤병기	3,000		류기철	5,000
1955	김종성	5,000		이영대	5,000		서기동	5,000
	박윤근	30,000		임종완	3,000		윤철호	5,000
	유근학	5,000		전수현	3,000		이성규	5,000
1956	노재흥	20,000	1970(기)	김의환	5,000		이성철	5,000
1958	김정환	10,000		이재훈	5,000		최시홍	5,000
1959	이순혁	10,000		조영길	3,000	1971(기)	김현성	5,000
	최예환	30,000		조한근	5,000		박준걸	5,000
1960	박원규	10,000		최명길	3,000		성민기	5,000
1969	신재천	3,000	1971(토)	강희진	5,000		이석영	3,000

부록 표 4-7 연간 기금 모금(1977. 10. 7~1978. 9. 13) (계속)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이성렬	5,000		박명성	3,000		나무석	5,000
	이수만	5,000		박승제	3,000		남상일	5,000
1972(기)	남영식	5,000		신현명	3,000		박시우	5,000
	이계형	5,000		윤 산	3,000		박재련	5,000
1973(토)	강인섭	3,000		이영기	5,000		박종윤	5,000
	남충희	5,000		이채식	3,000		신현기	5,000
	원인희	5,000		임영태	3,000		우호길	5,000
	조명환	5,000	1974(토)	김철기	5,000		이원남	5,000
	차대욱	3,000		박광수	5,000		이재우	5,000
	최석택	3,000		박병덕	5,000		주기석	5,000
	홍성호	3,000		박창범	5,000		최창현	5,000
1973(기)	고상돈	3,000		이영화	5,000		최희홍	5,000
	김상헌	3,000		정하설	5,000	합 계	84명	507,000
	김진배	3,000	1974(기)	고한목	5,000			
	명승국	3,000		김재덕	5,000			

부록 표 4-8 연간 기금 모금(1978. 10. 9~1979. 9. 27)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고농 10	남영희	500,000	1957	정두호	5,000		변양석	10,000
1948	박용하	20,000	1958	김문기	30,000		유기송	10,000
1949	유한홍	30,000	1959	강인상	50,000		유시창	10,000
1950	신준우	30,000		곽영철	50,000		이방기	20,000
1951	김경수	5,000		김광석	10,000		이석우	10,000
	김영규	10,000		김성삼	20,000		이황의	50,000
1953	정구현	5,000		김세겸	50,000		정하우	10,000
1954	이영렬	10,000		김재진	20,000		주경노	15,000
1955	김조웅	20,000		김종혁	10,000	1960	박원규	10,000
	서승덕	10,000		김진광	10,000		최연우	20,000
1956	김태선	50,000		김진혁	30,000	1961	권무남	15,000
	신재인	30,000		김철회	10,000	1962	장길평	15,000
	이계홍	30,000		박중걸	10,000	1963	구요한	20,000

부록 표 4-8 연간 기금 모금(1978. 10. 9~1979. 9. 27) (계속)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김교복	20,000	1972(토)	강봉구	5,000		박찬수	5,000
	김대년	20,000		김 승	5,000		이 석	5,000
	목세균	20,000		김형진	5,000		이철우	5,000
	심재구	20,000		박 철	5,000		조국광	5,000
	유성곤	20,000		송종현	5,000		최승렬	5,000
	윤석복	20,000		윤병구	5,000		최정식	5,000
	이광규	20,000		윤치욱	5,000		홍동완	5,000
	이기대	20,000		이종식	5,000	1975(기)	김만수	5,000
	이기명	20,000		최영호	5,000		김익현	5,000
	이상익	20,000		최진규	5,000		김종민	5,000
	이상인	20,000	1972(기)	강정만	5,000		김종원	5,000
	이석호	20,000		김영복	5,000		김헌성	5,000
	임병호	20,000		사공문	5,000		박근배	5,000
	정일웅	25,000		오형일	5,000		성익경	5,000
	허유만	20,000		홍성준	5,000		유수남	5,000
1964	김무열	10,000	1974(토)	김태운	5,000		유효철	5,000
1966	이석건	20,000		유인상	5,000		윤병곤	5,000
1970(토)	전영용	5,000	1974(기)	김석진	5,000		최민철	5,000
1971(토)	류근택	5,000	1975(토)	고중탁	5,000		최희승	5,000
	이성홍	5,000		기우석	5,000		한명범	5,000
1971(기)	박상민	5,000		김기태	5,000		한영조	5,000
	전찬영	5,000		김옥준	5,000		황 헌	5,000
	정광진	5,000		노재화	5,000	합 계	107명	1,860,000

부록 표 4-9 연간 기금 모금(1979. 9. 28~1980. 9. 24)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고농 10	남영희	40,000		최귀열	30,000		윤대섭	50,000
1945(전)	이한영	10,000	1946	함준호	10,000		이성태	20,000
1946(전)	노태래	15,000	1948	김영수	10,000	1950	이규형	15,000
	전기순	15,000		주재홍	30,000	1951	김경수	10,000
	정진호	10,000	1949	김성래	30,000		김성배	30,000

부록 표 4-9 연간 기금 모금(1979. 9. 28~1980. 9. 24) (계속)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김진철	30,000		이해명	30,000	1962	김수태	15,000
	박덕영	10,000		장세영	30,000		김순규	20,000
1952	박빈수	30,000		정동성	30,000		남광헌	10,000
	이창호	8,000		조수형	30,000	1963	김 량	20,000
	한찬택	30,000		차봉기	30,000		류관희	40,000
	한춘연	10,000		한중희	10,000		박원옥	20,000
1953	강예묵	30,000		홍승만	10,000		우관희	20,000
	김남혁	30,000		홍종진	10,000		윤학기	20,000
	정구현	10,000	1958	김정환	20,000	1964	권상필	20,000
1954	김덕만	30,000		민병선	10,000		김무열	10,000
	김진묵	10,000		박재룡	15,000		김성태	20,000
	박양진	10,000		박종효	30,000		성기원	20,000
	신현주	17,000		신일선	10,000		이왕우	20,000
	이상춘	10,000		오세훈	10,000		장정수	20,000
	최규홍	20,000		유범식	30,000		조성동	10,000
1955	김두식	15,000		유석형	30,000		한한수	20,000
	김영기	10,000		유성현	30,000	1965	강철주	20,000
	박하선	30,000		정종수	10,000		서형하	20,000
	복진하	10,000		조범호	10,000		성명제	20,000
	이만춘	30,000		지근진	50,000		이승찬	20,000
	임경배	5,000	1959	변창선	30,000	1966	고동준	20,000
1956	김기성	47,000		이병철	20,000		김만수	20,000
	김병혁	30,000		이순혁	10,000		김태철	10,000
	김원수	30,000		최예환	10,000		나우정	20,000
	김도중	30,000		한중석	10,000		윤경섭	17,000
	김주창	10,000	1960	박영헌	20,000		이재영	20,000
	노재흥	10,000		안화섭	20,000		주광한	10,000
	문장호	10,000		이동엽	20,000	1967	박상현	17,000
	손락률	27,000		이용국	20,000		송태명	20,000
	이근복	30,000	1961	배정길	20,000		윤창원	15,000
1957	김종무	30,000		신용호	20,000		조홍제	20,000
	이덕우	10,000		조병진	20,000		최우현	17,000
	이병렬	30,000		지인섭	20,000	1968	구자웅	20,000

부록 표 4-9 연간 기금 모금(1979. 9. 28~1980. 9. 24) (계속)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이종일	10,000	1973(토)	김재원	5,000		최흥식	5,000
1969	김현영	17,000		박성수	5,000	1976(기)	곽광진	5,000
	안병찬	17,000		박용섭	5,000		곽효성	5,000
	이남호	10,000		서택동	5,000		구영모	5,000
	이영일	20,000		오원룡	5,000		권영제	5,000
	이정재	5,000		원인희	15,000		김남전	5,000
	정도웅	5,000		최정환	5,000		김동욱	5,000
	홍병만	20,000		황경선	5,000		김병관	5,000
1970(토)	구영길	5,000	1973(기)	고재영	5,000		김철수	5,000
	박창규	10,000		류호택	5,000		김형준	5,000
	박한기	5,000		이석봉	5,000		배영환	5,000
	임종완	5,000	1974(토)	박광수	15,000		서형덕	5,000
	전수현	17,000		원창희	5,000		송병근	5,000
1971(토)	윤병순	7,000	1974(기)	이 준	5,000		신흥렬	5,000
	이성홍	15,000	1975(토)	고덕구	5,000		오원동	5,000
	장승진	5,000		노재화	15,000		윤홍상	5,000
1971(기)	박금주	5,000		우병국	5,000		이성범	5,000
1972(토)	김상필	17,000	1976(토)	강범구	5,000		이순재	5,000
	나정우	17,000		김성욱	5,000		이재천	5,000
	윤병구	5,000		나요섭	5,000		이종갑	5,000
	최진규	15,000		박성우	5,000		전재헌	5,000
1972(기)	이상진	5,000		신세영	5,000		정우현	5,000
	임민혁	5,000		오석창	5,000		조송호	5,000
	장광윤	5,000		이봉영	5,000	합 계	185명	2,802,000

부록 표 4-10 연간 기금 모금(1980. 9. 25~1981. 9. 30)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모교 교수	조광희	30,000		한휘석	30,000	1972(토)	이종식	15,000
고농 6	이창구	400,000		홍민선	30,000	1973(토)	안치일	5,000
고농 10	남영희	150,000	1958	김남훈	50,000	1973(기)	고상돈	5,000
1951	박덕영	20,000		김홍윤	30,000		고재영	5,000
1953	안우손	10,000		신희복	30,000		김만석	5,000
	이종모	10,000		안연우	10,000		김상헌	5,000
1954	백종철	30,000		오세훈	10,000		김진배	5,000
	신성기	30,000		유석형	20,000		명승국	5,000
	정낙환	30,000		이광식	25,000		박승제	5,000
1955	박승룡	10,000		이수장	30,000		유호택	5,000
	박준용	25,000	1959	김재진	10,000		윤 산	5,000
	오세인	20,000		김홍기	30,000		이석봉	5,000
	윤충섭	10,000		박남주	30,000		이영기	5,000
	이계은	30,000		이병철	10,000		이채식	5,000
	이만춘	30,000		이창식	50,000		이호상	5,000
	이상규	10,000		정갑주	30,000		장성구	5,000
	이중기	10,000	1960	권순국	20,000	1974(토)	김철기	5,000
1956	강성관	30,000		이인형	20,000	1975(토)	고중탁	4,000
	김기성	30,000		임병구	20,000		기우석	5,000
	김도중	30,000	1963	김택구	20,000		김기태	5,000
	손낙률	30,000		장문균	15,000		박병태	1,000
	이강세	30,000	1964	구자욱	20,000		박찬수	5,000
	이계진	30,000		김인섭	20,000		손정익	4,000
	황용진	30,000		윤석용	20,000		신태은	4,000
1957	김광배	30,000	1966	김태철	10,000		우홍석	4,000
	김일상	30,000	1968	한만용	17,000		이 석	5,000
	박완순	30,000	1969	정도웅	5,000		조국광	4,000
	박홍무	30,000		한석순	20,000		최승렬	5,000
	신민식	30,000	1970(토)	구영길	5,000		최영주	4,000
	이강섭	30,000		박창규	7,000		홍동완	5,000
	이덕우	20,000		이영대	30,000		입회(토)	120,000
	임영목	30,000		임종완	5,000		입회(기)	100,000
	정난교	30,000	1971(토)	윤병순	10,000	합 계	140명	2,384,000

부록 표 4–11 연간 기금 모금(1981. 10. 1~1982. 9. 30)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고농 6	이창구	600,000		유혁근	20,000		이태호	5,000
1948	최원식	30,000		이재영	20,000		임민혁	5,000
1951	김경수	15,000	1966	백풍기	20,000		최승조	5,000
	김형재	10,000		제종근	20,000	1973(토)	강인섭	5,000
1954	구본숙	30,000	1967	백현기	20,000		김재원	5,000
	김남식	10,000	1968	김경욱	20,000		박용섭	5,000
	박양진	10,000		노경찬	20,000		안치일	5,000
	이영렬	20,000		유철근	20,000		원인희	5,000
	최한식	10,000		이종일	20,000		차대욱	5,000
1957	최종용	30,000		정 백	20,000		최석택	15,000
1959	주경노	15,000		한명규	10,000		홍성호	5,000
1960	김영배	20,000	1971(토)	권진봉	20,000	1974(토)	김광식	5,000
	윤영일	20,000		김현중	10,000		박광수	5,000
	이상만	20,000		서기동	10,000		박병덕	5,000
	이찬우	20,000		윤철호	10,000		윤춘경	5,000
	임규성	20,000		이성규	10,000		이신호	5,000
	조서일	20,000		이성홍	10,000		이영화	5,000
1961	구교문	20,000	1971(기)	이규승	10,000		정하설	5,000
	박정수	20,000	1972(기)	강정만	5,000		최진동	5,000
	황선태	20,000		강태원	5,000	1975(기)	박근배	5,000
1964	김성태	20,000		사공문	5,000	1976(토)	서상교	20,000
	유경학	30,000		신홍균	5,000	1978(기)	양천익	5,000
1965	곽중삼	20,000		양승한	5,000		최만엽	5,000
	김 돈	17,000		오형일	5,000		입회(토)	135,000
	남용희	20,000		이계형	5,000		입회(기)	95,000
	방효석	20,000		이상진	5,000	합 계	121명	1,787,000

부록 표 4-12 연간 기금 모금(1982. 10. 1~1983. 9. 30)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1946(전)	정진호	1,000,000		김형경	10,000		이석민	5,000
1951	김형재	20,000		전재화	20,000		이종석	5,000
1960	권순국	30,000	1969	이대연	17,000		전창석	5,000
	이건일	20,000	1970(기)	김의환	15,000		정운양	5,000
1961	우철식	20,000	1971(기)	박상민	10,000		조수신	5,000
	윤병호	20,000		이규승	10,000		허충구	5,000
	이정남	10,000	1972(토)	윤병구	10,000	1979(기)	강원재	5,000
1962	김수태	30,000	1974(토)	김광식	5,000		강인식	5,000
	김순규	30,000		김철기	5,000		김동국	5,000
	류신우	30,000		윤춘경	15,000		김은수	5,000
	맹춘하	20,000		이상국	5,000		성낙곤	5,000
	박준근	30,000	1974(기)	우호길	5,000		신민종	5,000
	신건성	30,000	1975(토)	박관우	5,000		신범수	5,000
	양상홍	30,000	1976(토)	김승현	5,000		양유승	5,000
	유순형	30,000		서동준	5,000		우성봉	5,000
	이광호	20,000		윤여홍	5,000		이종환	5,000
	이영주	30,000		전건영	5,000		이창규	5,000
	이흥우	30,000		정병효	5,000		이태서	5,000
	장길평	30,000	1976(기)	나용운	5,000		장영창	5,000
	장동원	30,000	1978(기)	최희동	5,000		정우원	5,000
1964	박정도	20,000	1979(토)	권혁돈	5,000		정찬건	5,000
	송신호	20,000		김용훈	5,000		한철수	5,000
	조성동	10,000		박병흔	5,000		홍경수	5,000
1966	이창구	20,000		박석기	5,000		홍명렬	5,000
1967	금동혁	20,000		서광섭	5,000		황인수	5,000
	윤여두	20,000		양희구	5,000	1970(기)	입회70	100,000
1968	권희교	17,000		이무종	5,000	합 계	99명	2,044,000

부록 표 4-13 연간 기금 모금(1983. 10. 1~1984. 9. 30)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1946(전)	김환종	1,000,000	1965	정병호	20,000		입회84	160,000
	정진호	1,000,000	1967	이승우	30,000	1963	63동기	1,000,000
1958	안재완	20,000	1969	김재우	20,000	합 계	42명	3,310,000
1962	이종호	20,000		오병환	10,000			
1964	김철중	20,000		윤재호	10,000			

부록 표 4-14 연간 기금 모금(1984. 10. 1~1985. 10. 4)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1949	윤대섭	2,000,000		안상용	5,000		유의경	5,000
1978(토)	김삼래	5,000		오중환	5,000		이상재	5,000
	김혁년	5,000		이병국	5,000		이준신	5,000
1978(기)	김영배	5,000		이상만	5,000		이환승	5,000
	하재은	5,000		이수길	5,000		장우진	5,000
1981(토)	강재호	5,000		이우종	5,000		정기철	5,000
	고재환	5,000		이종호	5,000		정병관	5,000
	곽효경	5,000		전정철	5,000		정현열	5,000
	김대환	5,000		정용환	5,000		조영석	5,000
	김병진	5,000		정해철	5,000		조태연	5,000
	김성준	5,000	1981(기)	김진영	5,000		홍석호	5,000
	김준석	5,000		김택식	5,000		홍순호	5,000
	김춘삼	5,000		김홍주	5,000		홍지향	5,000
	노경수	5,000		손상순	5,000	1970(기)	70동기	130,000
	박원득	5,000		안 휘	5,000	1964	64동기	1,000,000
	박재희	5,000		우종구	5,000	합 계	71명	3,350,000

부록 표 4-15 연간 기금 모금(1985. 10. 9~1986. 9. 23)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1946(전)	이봉국	172,146		정봉수	5,000		김대식	5,000
	정진호	1,000,000		최중섭	5,000		김성옥	5,000
1949	윤대섭	20,000,000	1980(기)	허영화	5,000		김영상	5,000
1961	박노홍	20,000	1981(토)	이형주	5,000		김우택	5,000
	우철식	20,000	1981(기)	김유남	5,000		김혁주	5,000
	이정남	10,000		민경복	5,000		박복응	5,000
	정지윤	10,000		이상복	5,000		방연규	5,000
	현창순	20,000	1982(토)	김래현	5,000		백신원	5,000
	홍판기	20,000		김창환	5,000		서진원	5,000
1964	김무열	10,000		김현준	5,000		송석환	5,000
1967	박상현	10,000		박봉기	5,000		송승훈	5,000
1968	이종일	20,000		박영관	5,000		유봉환	5,000
1969	성낙원	10,000		박종만	5,000		유치영	5,000
	오병환	10,000		백세환	5,000		윤기직	5,000
1970(토)	박동우	10,000		박찬민	5,000		이비용	5,000
	박찬수	10,000		이상진	5,000		이우상	5,000
	임종완	10,000		이석한	5,000		이원석	5,000
1972(기)	임민혁	10,000		이성수	5,000		이효섭	5,000
1973(기)	김상헌	5,000		이시복	5,000		정상완	5,000
	박승제	10,000		이을범	5,000		조병룡	5,000
1974(기)	남상일	15,000		이행우	5,000		조용백	5,000
	이재우	15,000		임선택	5,000		팽기석	5,000
1975(토)	이 석	10,000		전수근	5,000		황병훈	5,000
1978(기)	허 명	5,000		황명수	5,000	1965	65동기	1,000,000
1979(토)	차재선	5,000	1982(기)	국인석	5,000	합 계	74명	22,687,146
1979(기)	이영민	5,000		김기영	5,000			

부록 표 4-16 연간 기금 모금(1986. 10. 9~1987. 10. 12)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모교 교수	박성우	2,000,000	1970 기	최명길	30,000	1979(기)	장영창	5,000
1946	이봉국	254,619	1974(기)	주기석	20,000		입회(토)	100,000
1968	김형경	20,000	1975(기)	이수철	10,000		입회(기)	130,000
1970(토)	김진수	10,000	1978(토)	최덕순	10,000	1966	66동기	1,000,000
	박동우	10,000	1978(기)	박희진	10,000	합 계	59명	3,639,619
	윤병기	20,000		백유선	10,000			

부록 표 4-17 연간 기금 모금(1987. 10. 14~1988. 10. 4)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1960	서대하	20,000	1982 기	김 욱	5,000		최용진	5,000
1961	이홍주	20,000		도광수	5,000		홍종상	5,000
	정지윤	10,000	1983(토)	최식중	5,000	1984(기)	김기영	5,000
	지인섭	20,000		하현철	5,000		문성덕	5,000
	최영호	20,000	1983(기)	김일영	5,000		박서신	5,000
1973(토)	조명환	30,000	1984(토)	강희웅	5,000		박수찬	5,000
1974(토)	리신호	10,000		고재일	5,000		박종필	5,000
1974(기)	남상일	10,000		구지희	5,000		변창덕	5,000
1980(기)	인효석	20,000		김광호	5,000		서정건	5,000
1981(토)	김병주	5,000		김종덕	5,000		신종필	5,000
	김종원	5,000		라일웅	5,000		오동환	5,000
	김종인	5,000		박영조	5,000		우종인	5,000
	변종억	5,000		성근열	5,000		이제홍	5,000
	이현용	5,000		신경수	5,000		이진한	5,000
	최은철	5,000		신동석	5,000		전유일	5,000
1981(기)	김성민	5,000		윤광렬	5,000		정승영	5,000
	백주형	5,000		윤상묵	5,000		조명제	5,000
	손영선	5,000		윤종원	5,000		최영구	5,000
	이강은	5,000		정영신	5,000	1967	67동기	300,000
	이주형	5,000		정태성	5,000	합 계	113명	725,000
	차경진	5,000		조정묵	5,000			
1982(토)	김경탁	5,000		최병권	5,000			

부록 표 4–18 연간 기금 모금(1988. 10. 9~1989. 9. 30)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1951	고재군	2,000,000	1972(토)	김 승	30,000	1977(토)	김학원	10,000
1960	이동엽	10,000	1972(기)	신홍균	20,000	1981(기)	안 휘	10,000
1963	이상인	11,000	1975(기)	허찬행	10,000	1968	68동기	1,000,000
1967	김동환	20,000	1976(기)	배영환	20,000	합 계	10명	3,141,000

부록 표 4–19 연간 기금 모금(1989. 10. 9~1990. 9. 30)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1966	정익신	20,000	1977(토)	김태용	20,000	1981(토)	정현열	10,000
1970(토)	이재훈	20,000		오규창	40,000	1959	59동기	2,000,000
1974(토)	리신호	10,000		우광성	30,000	1969	69동기	1,000,000
1974(기)	최창현	30,000		이강훈	10,000	합 계	9명	3,190,000

부록 표 4–20 제5차 기금 모금(1999. 10. 9~1999. 10. 8)

(단위: 원)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기 별	성 명	금 액
1948	안재숙	200,000	1959	이황의	50,000		정도웅	100,000
1950	신준우	50,000		정하우	50,000	1970(토)	박창규	50,000
1951	김진철	50,000	1960	권순국	100,000	1972(기)	사공문	250,000
1952	한찬택	100,000		박원규	100,000	1973(기)	이석봉	50,000
1953	정구현	100,000	1963	류관희	100,000	1974(토)	김철기	50,000
	정창주	1,000,000	1964	김무열	50,000	1977(토)	이용직	50,000
1955	김두식	50,000		김철중	2,500,000	1977(기)	김재철	50,000
	박창용	50,000		장병욱	50,000		이중용	50,000
	유근학	1,000,000	1965	정진우	50,000		조성인	50,000
1956	권오완	1,000,000		한정남	50,000	1981(토)	김성준	50,000
1957	장세영	100,000	1966	노상하	50,000	1982(토)	백세환	50,000
	홍종진	50,000		이석건	100,000		이석한	50,000
	홍승만	1,000,000	1967	김동환	100,000	1983(토)	김태영	50,000
1958	고학균	50,000		박승우	100,000		박종민	100,000
	김문기	100,000	1968	김경욱	50,000	합 계	46명	9,550,000
	유범식	100,000	1969	이정재	50,000			

부록 표 4-21 연도별 농공동창회의 장학기금 다액 기부자와 금액

(단위: 천원)

연 도	월 일	기부자	금 액	연 도	월 일	기부자	금 액
1979	8. 22	남영희	500	1986	7. 8	이봉국	172
1980	10. 9	남영희	150		10. 9	56동기	200
1981	6. 4	이창구	400		10. 27	박성우	2,000
1982	3. 22	이창구	600		10. 29	66동기	1,000
1983	3. 3	정진호	1,000	1987	3. 11	이봉국	254
	10. 6	이창구	1,000		10. 20	57동기	1,000
	10. 9	정진호	1,000		10. 20	67동기	300
	10. 11	63동기	1,000	1988	10. 10	68동기	1,000
	12. 7	김환종	1,000	1989	2. 18	고재군	2,000
1984	10. 9	64동기	1,000		10. 9	59동기	2,000
1985	9. 28	윤대섭	2,000		10. 9	69동기	1,000
	10. 12	65동기	1,000		12. 13	동창회	25,000
	11. 7	정진호	1,000		12. 13	정진호	3,000
	12. 27	윤대섭	20,000		12. 13	윤대섭	22,000

부록 표 4-22 연도별 농공장학재단의 다액 기금 출연자와 금액

(단위: 천원)

연 도	월 일	기부자	금 액	연 도	월 일	기부자	금 액
1989	12. 13	동창회	50,000		9. 24	정창주	1,000
1990	7. 19	이철주	2,000	1993	3. 3	윤대섭	10,000
	7. 19	유한홍	10,000		10. 10	이상호	1,000
	10. 8	윤대섭	10,000	1994	3. 22	윤대섭	10,000
	10. 10	임영춘	30,000		3. 30	동창회	33,000
	12. 11	권오완	300		3. 30	이 자	10,000
	12. 28	윤대섭	10,000		6. 1	고재군	3,000
1991	7. 9	유근학	1,000	1995	8. 26	김환종	5,000
	10. 12	이진우	1,064		10.	이창구	5,000
	10. 22	김원세	10,000		10.	추모회	5,000
	11. 20	61동기	1,000	1996	2. 14	김환종	5,000
	11. 20	배정길	1,000		2. 14	윤대섭	20,000
	12. 16	윤대섭	10,000		2. 14	고재군	3,000
1992	3. 4	고재군	1,000		2. 14	지근진	2,000

부록 표 4-22 연도별 농공장학재단의 다액 기금 출연자와 금액 (계속)

(단위: 천원)

연 도	월 일	기부자	금 액	연 도	월 일	기부자	금 액
	2. 14	동창회	10,000		12. 18	이중용	1,000
	8. 20	유한홍	10,000		12. 30	윤대섭	50,000
1997	2. 10	윤대섭	20,000	2004	12. 27	장병욱	1,000
	3. 28	윤대섭	25,000		12. 27	윤대섭	100,000
1998	3. 30	윤대섭	50,000		12. 27	윤대섭	50,000
1999	3. 31	윤대섭	50,000		12. 27	윤대섭	10,000
	12. 28	윤대섭	10,000		12. 27	윤대섭	10,000
	12. 29	윤대섭	10,000		12. 27	윤대섭	10,000
	12. 30	윤대섭	50,000		12. 30	윤대섭	50,000
	12. 30	동창회	9,550	2005	12. 26	윤대섭	10,000
		정창주	(1,000)		12. 30	윤대섭	10,000
		유근학	(1,000)		12. 30	윤대섭	10,000
		권오완	(1,000)		12. 30	윤대섭	150,000
		홍승만	(1,000)		12. 30	윤대섭	50,000
		김철중	(2,500)		12. 30	윤대섭	50,000
		동 문	(3,050)	2006	12. 28	윤대섭	20,000
2000	12. 1	윤대섭	50,000		12. 28	윤대섭	20,000
	12. 1	윤대섭	20,000		12. 29	윤대섭	100,000
	12. 1	윤대섭	10,000		12. 29	윤대섭	20,000
2001	12. 1	윤대섭	10,000		12. 29	윤대섭	190,000
	12. 1	윤대섭	50,000		12. 29	윤대섭	10,000
	12. 28	윤대섭	10,000		12. 29	윤대섭	100,000
2002	12. 1	윤대섭	50,000	2007	12. 14	윤대섭	10,000
	12. 1	윤대섭	20,000		12. 21	윤대섭	10,000
	12. 1	윤대섭	10,000		12. 21	윤대섭	20,000
	12. 23	이중용	1,000		12. 21	윤대섭	20,000
2003	1. 23	정하우	2,000		12. 21	윤대섭	167,412
	10. 16	장길평	10,000		12. 21	윤대섭	101,656
	11. 11	최찬식	5,000		12. 21	윤대섭	82,045
	12. 1	윤대섭	10,000		12. 21	윤대섭	36,620
	12. 1	윤대섭	10,000	2008	3. 31	윤대섭	500,000
	12. 1	윤대섭	100,000		12. 16	윤대섭	20,000
	12. 1	이병철	2,000		12. 24	윤대섭	30,000

부록 표 4–22 연도별 농공장학재단의 다액 기금 출연자와 금액 (계속)

(단위: 천원)

연 도	월 일	기부자	금 액	연 도	월 일	기부자	금 액
	12. 26	윤대섭	298,900		12. 28	윤대섭	280,800
	12. 26	윤대섭	240,584		12. 28	윤대섭	335,880
	12. 26	윤대섭	82,824		12. 28	윤대섭	335,880
	12. 26	윤대섭	102,900		12. 28	윤대섭	163,800
	12. 29	윤대섭	10,000		12. 28	윤대섭	66,820
	12. 30	윤대섭	40,000		12. 28	윤대섭	140,000
	12. 31	윤대섭	200,000		12. 28	윤대섭	130,000
2009	12. 22	윤대섭	204,274	2011	3. 31	윤대섭	200,000
	12. 22	윤대섭	180,950		12. 27	윤대섭	300,000
	12. 22	윤대섭	131,319		12. 27	윤대섭	800,530
	12. 22	윤대섭	116,325		12. 27	윤대섭	477,825
	12. 22	윤대섭	37,936		12. 27	윤대섭	405,375
	12. 22	윤대섭	34,639		12. 27	윤대섭	92,795
	12. 29	윤대섭	50,000		12. 27	윤대섭	235,450
	12. 30	윤대섭	300,000		12. 27	윤대섭	22,325
2010	3. 31	윤대섭	200,000		12. 29	이홍주	5,000

5. 장학증서의 변천

1) 농공동창회의 장학증서

농공동창회에서 1968년도 제2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였지만, 농공동창회의 장학증서를 수여하기는 제8대 농공동창회 고재군 회장 때인 1981년부터였다. 그러나 초기 장학증서의 원본이나 사본은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1982년 농공동창회의 총회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을 여기에 수록하였다(부록 그림 5-1-1 참조). 이후 1985년부터 시행된 특별장학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공동창회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일반 장학금으로, 독지가에 의해 마련된 특별장학기금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특별장학금으로 정의하여 각각 장학증서를 별도로 만들어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농공동창회의 일반기금 장학증서 사본은 부록 그림 5-1-2에 수록하였으며, 개인명의의 특별장학증서 사본은 부록 그림 5-1-3에 그리고 단체명의의 장학증서 사본은 부록 그림 5-1-4에 수록하였다.

장 학 증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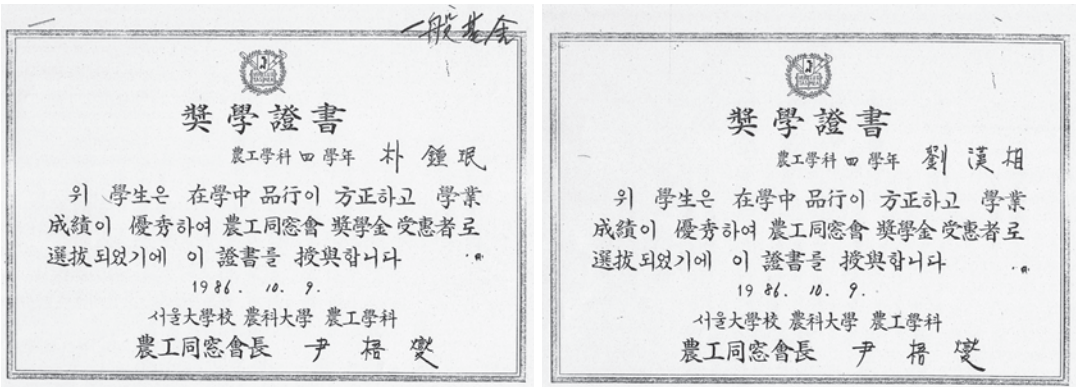
농공학과 4학년

위 학생은 재학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농공동창회 장학금 수혜
자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1982. 10. 9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
농공동창회장 고 재 군

부록 그림 5-1-1 농공동창회의 장학증서 견본



부록 그림 5-1-2 농공동창회 장학증서(1986)

奬學證書

農工學科 四學年 崔章浩

위 學生은 在學中 品行이 方正하고 學業 成績이 優秀하여 愚石(李昌九)奬學金 受惠者로 選拔되었기에 이 證書를 授與합니다

19 86. 10. 9.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農工學科

農工同窓會長 尹 楨 燮

奬學證書

農工學科 四學年 趙相紀

위 學生은 在學中 品行이 方正하고 學業 成績이 優秀하여 大雄(鄭鎭鎬)奬學金 受惠者로 選拔되었기에 이 證書를 授與합니다

19 86. 10. 9.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農工學科

農工同窓會長 尹 楨 燮

奬學證書

農工學科 四學年 李基垠

위 學生은 在學中 品行이 方正하고 學業 成績이 優秀하여 宇英(金焕洙)奬學金 受惠者로 選拔되었기에 이 證書를 授與합니다

19 86. 10. 9.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農工學科

農工同窓會長 尹 楨 燮

奬學證書

農工學科 四學年 李基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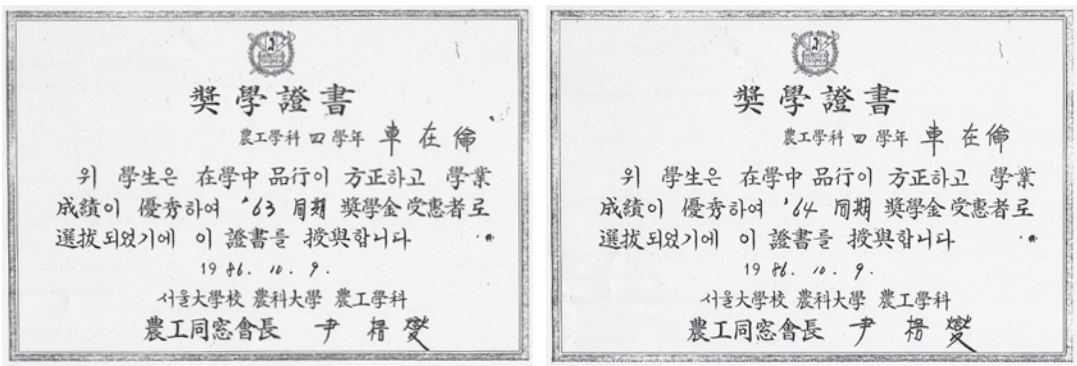
위 學生은 在學中 品行이 方正하고 學業 成績이 優秀하여 大雄(鄭鎭鎬)奬學金 受惠者로 選拔되었기에 이 證書를 授與합니다

19 86. 10. 9.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農工學科

農工同窓會長 尹 楨 燮

부록 그림 5-1-3 개인명의의 특별장학증서(1986)



奬學證書

農工學科 四學年 車在倫

위 學生은 在學中 品行이 方正하고 學業 成績이 優秀하여 '63 同期 奬學金 受惠者로 選拔되었기에 이 證書를 授與합니다

19 86. 10. 9.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農工學科

農工同窓會長 尹 楨 燮

奬學證書

農工學科 四學年 車在倫

위 學生은 在學中 品行이 方正하고 學業 成績이 優秀하여 '64 同期 奬學金 受惠者로 選拔되었기에 이 證書를 授與합니다

19 86. 10. 9.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農工學科

農工同窓會長 尹 楨 燮

부록 그림 5-1-4 단체명의의 특별장학증서(1986)

2) 농공장학재단의 장학증서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한 후의 장학증서는 1990년도 제2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였지만, 초기 장학증서의 사본에서 보면 본 문안은 농공동창회의 장학증서와 동일한 것이었으며, 수여 주체도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2011년도의 수여 주체는 농공장학재단으로 되어 있다.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를 부록 그림 5-2-1~그림 5-2-4에 수록하였다.

獎學證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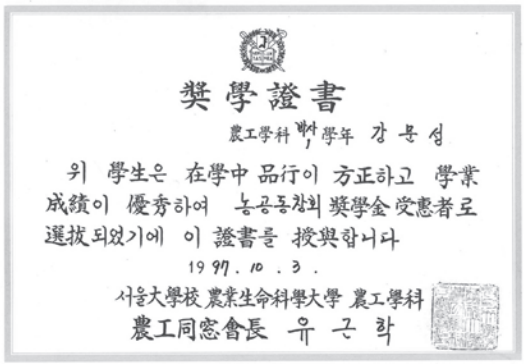
農工學科 4學年 윤 성 수

위 學生은 在學中 品行이 方正하고 學業成績이 優秀하여 農工同窓會 獎學金 受惠者로 選拔되었기에 이 證書를 授與합니다

1992. 10. 3.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農工學科
農工同窓會長 李 熙 榮

부록 그림 5-2-1 장학증서(1992)



獎學證書

農工學科 4學年 강 문 성

위 學生은 在學中 品行이 方正하고 學業成績이 優秀하여 농공동창회 獎學金 受惠者로 選拔되었기에 이 證書를 授與합니다

1997. 10. 3.

서울大學校 農業生命科學大學 農工學科
農工同窓會長 유 근 학

부록 그림 5-2-2 장학증서(1997)

獎學證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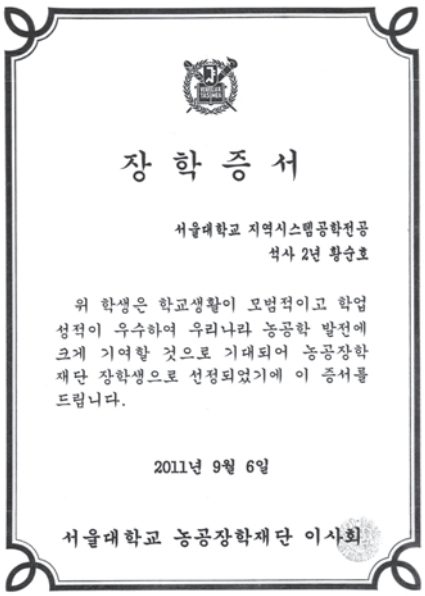
農工學科(農業土木專攻)
3學年 황 승 호

위 學生은 在學 中 品行이 方正하고 學業成績이 優秀하여 農工同窓會 獎學金 受惠者로 選拔되었기에 이 證書를 授與합니다.

2008. 10. 11.

서울大學校 農工同窓會
農工同窓會長 권 상 필

부록 그림 5-2-3 장학증서(2008)



장 학 증 서

서울대학교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석사 2년 황승호

위 학생은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우리나라 농공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농공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1년 9월 6일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이사회

부록 그림 5-2-4 장학증서(2011)

|편집후기|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 그리고 많은 비…

편집을 위한 모임에 참여할 때마다 농공장학재단의 지나온 자취들에 감동과 자랑스러움을 느끼었고, 더욱이 정하우 명예교수님의 헌신적인 열정 그리고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

편집후기라기보다 우리 농공학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다시 한번 농공학과가 자랑스럽다는 마음입니다.

『농공장학재단 20년』 편집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개인적으로 영광이었습니다.

끝으로 장학재단이 이토록 성장하게 만들어 주신 윤대섭 선배님,
그리고 여러 선후배 동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배 정 길

|편집위원회|

위 원 장: 정 하 우
부위원장: 배 정 길
위　　원: 윤 병 호
이 정 원
정 종 훈
최 진 용
손 영 환

농공장학재단 20년

인쇄일 2012년 9월 25일
발행일 2012년 9월 30일

편집인 농공장학재단 20년 편찬위원회

발행처 (재)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발행인 김경욱
전 화 02-876-8983

인쇄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전 화 02-880-5220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